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 호

평 양 근로자사 196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 호 (323)

차 례

천리마진군을 다그쳐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자

1969년, 승리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신뢰와 경모의 정을 안고 충성의 마음을 담아 새해의 첫인사를 드리였으며 수령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하고있다.

지난해는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과 혁신으로 아로새겨진 력사적인 해였다. 전체 인민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천통같이 단결되였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더욱 튼튼해지고 국방력이 불패의것으로 되였으며 인민들은 더욱 풍부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지난해에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항상 자기들에 대하여 깊이 심려하시고 투쟁과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을 간직하고 그이께서 내놓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로선과 방침을 따라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구국항쟁을 세차게 벌림으로써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또한 60만 재일동포들도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제반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쟁취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달성했다.

지난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맑스-레닌주의적원칙과 자주적립장에 기초하여 대외관계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국제적지위와 권위는 전례없이 높아졌다.

지금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현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긍지도 드높이 그이께서 밝혀주신 승리의 휘황한 대로를 따라 천리마진군을 다그침으로써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올해에 반드시 점령할 들끓는 열의로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계획의 수행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수행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는 획기적사변으로 될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7개년계획의 수행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케

한다는데 있다.

승리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동시에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경제건설사업에서 당면하게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워야만 착취에서 해방된 인민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 중로동과 경로동,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보장할수 있다.

7개년계획의 수행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이러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데서 획기적전진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기술개건과 문화혁명을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날 산업혁명을 하지 못하였고 자본주의적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였으며 낡은 사회로부터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을 수행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9페지)

7개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할것을 예견한 장기적인 전망계획으로서 본질상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계획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나라는 공업농업국가로부터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될것이다.

원래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물려받은 우리 나라가 전후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되고 7개년계획을 수행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된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진으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의미하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우선 우리의 공업은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체계가 확고히 선 공업으로 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질좋은 생산수단과 소비품들이 더 많이 생산될 것이다.

공업의 강력한 지원밑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선진농업과학의 성과들이 널리 도입되여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들이 빨리 발전하게 될것이다.

공업화의 촉진과 공업,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은 나라의 국방상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할것이며,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관철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개건이 추진됨에 따라 로동은 더욱 헐하고 흥겨운것으로 될것이며 특히 농민들의 힘든 로동은 훨씬 덜어질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보다 더 아름답게 꾸려질것이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개건과 빠른 발전은 사회적 로동생산능률의 더욱 빠른 장성을 가져올것이며 이에 토대하여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넉넉하고 문화적인것으로 될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이 다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게 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할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될것이다. 그리고 오직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실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의 샘터인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헌신적으로 일하며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다 발휘하게 될것이다.

7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면 참말로 사회주의의 새생활이 모든 분야에서 활짝 꽃피게 될것이며 북반부의 혁명기지는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는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7개년계획의 수행은 우리 당과 조선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서 거대한 혁명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7개년계획의 수행은 우리 나라의 정세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 창설된 우리 혁명의 기지는 철옹성같이 튼튼히 다져지고 조국의 통일과 앞날의 번영을 위한 민족경제의 토대는 더욱 튼튼하여질것이며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을 자유와 새생활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고무적힘으로 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34～135폐지)

7개년계획의 수행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매국도당에 대한 치명적타격으로 될것이며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를 비롯한 혁명가들과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미구국투쟁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다. 그것은 또한 조국의 통일후 남조선경제를 빨리 복구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물질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것이다.

7개년계획의 수행은 또한 사회주의진영의 동방초소를 튼튼히 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 인민들에게 새사회건설의 더욱 훌륭한 본보기를 마련하여줄것이다.

그러므로 7개년계획의 수행을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국제혁명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7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펼쳐주시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실현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펼쳐주신 새롭고 광활한 전망을 환히 내다보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여왔다.

지난 몇해동안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긴장상태가 일층 격화된 새로운 정세로 하여 우리 당은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사업을 개편하며 특히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것입니다. 이것은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벌써 몇해전부터 집행하여온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전략적방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4페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새로운 혁명적로선이다.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심장으로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 인당백의 기세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참으로 위대한 기적과 혁신을 련이어 창조하였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켜나가는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 걸쳐 위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으며 나라의 위력은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더 잘 꾸려짐으로써 그것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공고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기지로서 더욱더 큰 위력을 나타내게 되였으며 경공업과 농촌경리에 더 잘 복무하게 되였다.

인민소비품생산부문에서는 인민들의 장성하는 상품수요를 자체의 생산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앞으로 질좋은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알곡을 비롯한 농업생산이 빨리 장성하였다.

교육문화사업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강력히 추진되였을뿐만아니라 나라의 군사적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가 달성한 승리와 성과는 실로 거대하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로 하여 우리는 이에 결코 자만할수 없다. 우리가 해놓은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욱 많다.

우리는 아직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오늘 조국은 분렬된채 있으며 우리는 인류력사상 가장 침략적이며 파렴치하며 우리 인민의 백여년래의 피맺힌 원쑤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있다.

이 모든 정세는 우리에게 어떠한 안일성도 허용하지 않으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긴장된 투쟁을 계속하며 우리의 전진속도를 더욱 높일것을 요구한다.

천리마진군을 다그치는것은 특히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예견하고있는 올해의 인민경제계획의 방대한 과업으로부터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있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음해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7페지)

우리는 올해에 이미 점령한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고수하고 더욱 높이 쌓아올리는 동시에 전기, 강철 고지를 비롯한 이여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당은 오늘 무엇보

다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울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발전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전력생산의 파동성을 없애고 동력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과 굴진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작업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고 로천채굴을 비롯한 선진채굴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광물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하여 지금 있는 광산들을 확장하면서 전망이 큰 유색금속광산들의 개발을 다그치며 이미 건설하고있는 선광장들의 조업을 앞당기고 모든 광산설비들을 원만히 대주어야 한다.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당이 이미 제시한 방침에 철저히 근거하여 철생산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향상에 요구되는 선철, 강철, 강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형굴착기, 대형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선박, 대형공작기계를 생산할 대형설비생산기지들을 더욱 확대강화하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촉진하며 특히 앞으로 대대적으로 진행하게 될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각종 건재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특히 세멘트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에 진행된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수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인민경제의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농업부문에서 올해에도 계속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알곡, 고기, 남새를 비롯한 모든 농업생산물을 더욱 장성시켜야 한다.

또한 칠제일용품의 생산을 늘이고 주민들의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은 올해에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면서 동시에 생산장성의 매우 빠른 속도를 예견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경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왔다. 특히 지난 몇해 동안 우리 나라 경제발전속도는 비상히 높았다. 1967년에는 1966년에 비하여 생산이 117%로 장성하였다. 예비적자료에 의하면 1968년에는 그 전해에 비하여 더욱더 장성할것이 예견되고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난해의 생산장성의 비률보다 훨씬 높은 비률로 생산을 장성시킬것을 예견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올해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의 실질수입을 더욱 늘임으로써 인민생활의 전반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앞에 제기되고있는 방대하고 영예로운 과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계속 견지하며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의 천리마진군을 더욱 다그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더 혁명적으로 일하며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과 건

설을 다그침으로써 7개년계획의 수행을 더욱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7페지)

천리마진군을 계속하여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과 함께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고 로동계급화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의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그것은 오늘 전체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계속 견지하고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잠재력을 모두 동원하여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며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실천적경험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때 위대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모든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조직들은 근로자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다. 당정책학습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정책교양과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수령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무한한 충실성을 본받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천리마진군을 계속하여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일체 낡은 사상잔재와 요소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뒤떨어진것이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혁신 그자체가 벌써 뒤떨어진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것입니다. 뒤떨어진것, 보수주의적인것과 투쟁하지 않고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40페지)

우리는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온갖 불건전하고 반동적인 사상요소들을 반대하여 힘있게 투쟁을 벌리는 동시에 소극성,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철저히 마스고 특히 경제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예비가 적어지며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다는 수정주의적이며 반동적인 《리론》의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생산의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우리의 높은 전진속도를 계속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조직사업의 원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이는것, 이것이 현시기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이며 바로 여기에 생산의 장성과 인민생활향상의 거대한 예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인민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데 주되는 힘을 돌려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59페지)

당대표자회에서 제시된 현시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인민들의 헌신적로동에 의하여 거대한 생산토대가 마련되였고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도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객관적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가장 정확한 방침이다. 우리가 건설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위력한 생산토대를 더잘 보강완비하여 효과있게 리용한다면 생산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으며 품종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면 현재의 생산량을 가지고도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지난 몇해동안의 실천적경험은 당이 제시한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을 철저히 관철할 때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우리는 있는 밑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생산의 더욱 빠른 장성을 보장하고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면서 더 많은 힘을 국방력강화에 돌릴수 있게 하여야 할것이다.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는것은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는데서 오늘 특별히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행정사업개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며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방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6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행정사업의 개선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로부터 이 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으며 그 개선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전원회의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지난해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로동행정사업의 개선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교시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근로대중의 로력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정치교양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당 및 근로단체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규률과 질서를 철저

히 세워 자본주의,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고 부패한 사상이 부식작용을 할수 없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로동대렬을 빨리 정리하고 녀성로력을 생산과 관리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며 기술혁명을 강화하고 한명의 로력이라도 더 절약하여 생산확대에 돌리며 후방사업을 더 잘하는 등 로동행정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고, 더 값싸게 생산하고 건설하며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며 특히 농촌에서 물을 더 많이 확보하고 아껴쓰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조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식량을 랑비하는 사소한 현상과도 강하게 투쟁하며 한알의 쌀이라도 더 절약하여야 한다.

천리마진군을 계속 다그쳐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며 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더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광범한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51페지)

모든 지도일군들은 관료주의 및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을 마스고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그리고 경제관리에서 그 구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지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꾸준히 배우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천리마진군을 옳게 지휘할수 있다.

천리마진군을 계속하여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천리마운동, 그 발전된 형태로서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성과여부는 결국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천리마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 교양개조하며 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위대한 대중적대진군운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기초하여 첫째로, 사람과의 사업, 둘째로, 설비, 자재와의 사업, 셋째로, 책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7개년계획의 수행이 가지는 거대한 혁명적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올해의 계획을 넘쳐수행하고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하시고 이를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탁월한 문헌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계속혁명의 사상이 관통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그이의 령도를 받들고 우리 인민이 혁명을 계속하여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총화하시였으며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문제를 새롭게 천명하심으로써 계속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리론실천적기여를 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계속혁명의 사상을 깊이있게 파악함으로써 실천에서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 나가야 할것이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1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명백히 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아직 혁명이 완수되지 않았고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은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달성된 위대한 승리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후에도 사회에는 아직 자기의 옛지위를 되찾으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파괴활동을 감행하는 적대계급의 잔여분자들이 남아있으며, 근로자들의 의식속에는 수천년동안 내려온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높은 생산력이 마련되여있지 못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43페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사회에 아직 착취사회의 잔재와 유물들이 남아있고 그 저항이 계속되는한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근본적인 적대관계에 있다. 때문에 자본주의요소는 마지막까지 반항하는것이다.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은 그 착취자적본성을 버리지 않고 옛지위를 되찾으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는것만큼 죽을 때까지 혁명을 반대하여 준동한다. 더우기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 리용되기때문에 그것을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는 혁명과 건설을 방해하는것이며 이것이 조장될 때에는 적대분자들의 파괴암해책동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도시에 비한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농촌은 소유관계에서 뒤떨어지게 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농촌의 락후성은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반동적부르죠아독소와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지반으로 된다.

다음으로 생산력의 락후성, 이것도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고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을 이룩하여야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매우 유족하고 문명한것으로 만들수 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이들의 지지를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대계급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잔재요소들을 극복청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과업들은 오직 혁명을 계속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국가가 우선 정치사상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후에도 자본주의복구를 망상하면서 필사적으로 반항하는 적대분자들은 오직 폭력으로써 진압하고 소멸하여야 한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해서 적대요소의 반항이 없어지고 계급투쟁이 필요없게 된다고 하는것은 혁명을 포기하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은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국가가 진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투쟁의 하나이다.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도 역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계급투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것을 사상혁명으로 규정하시였으며 사상혁명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후 계급투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백히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계급투쟁과 함께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다 공산주의사상

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혁명을 중요내용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이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0~5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의식의 령역에서까지 자본주의를 종국적으로 없애는 심각한 사상혁명이다. 사회주의는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있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을 조성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생활이 향상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사상개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사상혁명을 통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선 다음에는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상혁명이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인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혁명의 중요대상은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봉건적,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잔재이며 외부에서 침습해들어오는 반동적자본주의사상독소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사상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 근로자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남김없이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르죠아적사상독소를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있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내외의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낼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고 경제건설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것도,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하는 높은 생산력을 이룩하는 문제도 역시 낡은 사회의 잔재를 극복하는 투쟁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도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분야에서의 우리의 과업은 나라의 공업화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기계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이다. 또한 문화혁명은 근로자들을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세기적인 문화적 락후성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그들을 높은 문화기술수준의 소유자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만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모든 근로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울수 있으며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청산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다음에도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한 다음에도 세계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혁

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여 과도기가 끝나도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산주의원칙을 실현하는데까지 이르자면 혁명과 건설을 계속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세계의 대다수 나라, 적어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이 련속적으로 일어나 제국주의적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야 하며 사회주의국가를 포위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세계적체계에로의 전환의 길을 열어놓아야 하며 포위당한 일국의 사회주의요새의 고립성을 없애고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전투적련대성의 강력한 뉴대를 이루어놓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될 때에라야만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과 자본주의복구의 시도를 완전히 면할수 있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보장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5~6페지)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계급적형제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계급적원쑤들을 타승하기 위한 치열한 계급투쟁을 계속하여야 한다.

한 나라 또는 일부 지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보장되었다 하여도 세계에 제국주의, 자본주의가 남아있는 한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함으로써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달성하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를 실현하며 세계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확고히 견지하고 계속 강화하는것이 원칙적문제로 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3~4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주권을 장악한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이다. 프로레타리아독재없이는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분쇄하며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키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문제가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에 의해서만,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하에 로동계급의 국가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옳게 해결될수 있다. 경험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 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거나 거부하는것은 자본주의요소들의 소생을 조장하고 계급적원쑤들에게 자본주의복구의 길을 열어주는것으로 된다. 프

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는것은 혁명을 포기하는것이다. 혁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견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확고히 견지하고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계속혁명의 사상의 정당성은 이미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에 의하여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문제를 새롭게 천명하심으로써 계속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천명하신 계속혁명의 사상은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되고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문제가 당면의 일정에 오르고있는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의 현 단계에서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것이다.

혁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데 대한 사상은 맑스주의창시자들이 제기한바 있다. 맑스는 사회주의는 계속혁명의 선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창시자들의 시대는 서방나라들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완료되고 사회주의혁명은 아직 일정에 오르지 않은 시기였다. 그러므로 당시에 있어서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과업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하고 성숙시키는것이였으며 앞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세계의 중요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련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것이였다. 따라서 계속혁명에 대한 사상은 이것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고있었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한 새로운 환경에서 맑스주의창시자들의 계속혁명의 사상을 발전시켜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을 사회주의혁명에로 《전환장성》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전술적리론을 내놓았다. 이것은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의 계속이행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으로 되였다. 레닌의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로씨야에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을 계속 사회주의혁명에로 발전시켜 프로레타리아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여놓았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착취계급이 청산된 다음에 있어서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해명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것은 현시대가 제기한 새로운 문제이다.

현시대는 혁명적폭풍우의 시대이며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대이다.

일련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세계적체계로 전화되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이미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는 반제민족해방혁명이 급속히 확대발전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섰다.

오늘의 력사적환경에서 계속혁명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그 어느때보다도 긴절하게 제기되고있다. 특히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것으로써 혁명이 끝난것으로 보고 혁명을 포기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공산주의위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원칙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력사적현실은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 하여 혁명이 끝난것으로 보고 혁명을 포기하는 기회주의적오유를 범하게 될 때 수십년에 걸쳐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이 피로써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수 있고 원쑤들에게 도로 빼앗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원칙적이고도 절박한 문제를 처음으로, 독창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리론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시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심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공갈앞에 투항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거부하며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하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었으며 전세계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할수 있는 강유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주시였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보여주는것이다.

매개 나라와 전세계에서 착취와 억압을 근절하고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를 실현하여야 할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계급적원쑤, 인민의 원쑤들과의 무자비하고도 철저한 투쟁을 전제로 한다.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끝까지 투쟁하지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자기 나라와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바로 계급적원쑤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화상도 허용하지 않으며 그들과 끝까지 싸워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철저한 계급적립장을 반영하고있다.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락원에로 이끄는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은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독소를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와 인간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를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근로자들의 물질생활과 정신문화생활의 모든 면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사회에로 확고하게 인도하려는 숭고한 혁명적립장을 표현하고있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위대한 계속혁명의 사상은 오직 40여년간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제시될수 있었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더욱 발전시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계속혁명의 사상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로 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전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승리의 기치로 된다.

3

김일성동지의 계속혁명의 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며 그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렬되고 남북조선이 서로 다른 정세에 놓여있는 조건에서 조선혁명을 통일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아가는것은 실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인민이 주권을 잡은 북반부에서 혁명을 계속 강력히 추진시켜 북반부를 혁명의 위력한 기지로 만들며 그에 의거하여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섰다. 우리는 남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북반부에서 하루속히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였으며 이와 함께 미제침략자들을 내쫓고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여야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그이의 위대한 계속혁명의 사상을 관철함으로써 북반부에서 혁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속혁명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고 사회주의혁명에로의 계속이행을 가장 성과적으로 령도하시였으며 전후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비롯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도 지체없이 가장 짧은 력사적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반부에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자 련이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위대한 투쟁목표를 제시하시고 전체 근로자들을 계속 새로운 승리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직후인 1958년 9월에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사회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사회로 되였습니다.

우리앞에 나선 주요한 과업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하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주의사회를 완전히 건설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3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더욱 강화하고 적대분자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계속 견결히 진행하는 한편 전면적인 사상혁명을 전개하여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며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강력히 진행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추진시키는데 거대한 힘을 기울여왔다.

우리 나라에서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과정, 특히는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의 전과정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계속혁명의 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힘차게 추동하면서 한 문제를 풀고는 련이어 다른 문제를 내놓았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95페지)

위대한 수령의 부름을 심장으로 접수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천리마의 속도를 창조하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쌓았다.

우리 당과 인민은 협동화가 완성된 후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사상을 관철함으로써 농민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었으며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신 계속혁명의 길을 따라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미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항상 강조하시는바와 같이 앞으로의 더 큰 승리를 위한 토대를 닦은데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길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갈길은 아직도 멀고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으며 형제적맑스-레닌주의당들과 함께 온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새 승리를 향하여 쉼없이 전진하여야 하며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0~311페지)

우리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계급투쟁과 사상혁명, 경제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아가 사회주의의 완전

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함으로써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대로서 조선혁명을 촉진하는 한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계속 견결히 싸워나아갈것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전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위대한 계속혁명의 사상을 구현하여 당면한 과업들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로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수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계속하여나가기 위한 근본전제이다.

우리는 특히 김일성동지의 계속혁명의 사상을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근로자들을 계속혁명의 사상으로, 계속 전진하고 계속혁신하는 혁명적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혁명은 끊임없는 전진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한개의 혁명과업을 실행하는것으로써 만족할수는 없으며 계속 새로운 과업을 내세우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64페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업을 끝내고는 계속 다음 과업수행에로 넘어가야 하며 련이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부단히 전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 걸쳐 그 어떤 중단도 침체도 허용할수 없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대담하게 생각하며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적 전개력, 부화와 안일을 반대하고 긴장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대를 이어 혁명투쟁을 계속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부단히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새세대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육성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세대에 혁명위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젊은 세대들이 적을 잊어버리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한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마저 잃어버릴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67페지)

우리 나라와 세계에서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근로자들과 후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할수 있고 혁명을 계속할수 있으며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계속혁명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계속 전진하며 계속 투쟁할 때 우리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할수 있으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최대한으로 앞당기게 될것이다.

민족어발전의 정확한 길을 밝혀주신 력사적교시

홍 기 문

민족어발전의 정확한 길을 밝혀주신 김일성동지의 력사적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가 발표된 때로부터 다섯해가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민족어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규정하시고 조선어를 더욱 주체성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뚜렷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력사적인 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는 현시기 민족어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고있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해답을 줌으로써 맑스-레닌주의언어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고전적로작으로 된다.

1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교시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서 천명된 언어사상에서 근본을 이루는것은 언어의 사회적본질을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규정하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말과 글은 우리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좋은 말과 글이 없었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어받아온 오랜 력사와 문화의 전통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글이 전체 인민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 수준을 빨리 높이지 못하였더라면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빨리 나아가지 못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페지)

민족어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된다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언어가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과 경제문화생활 및 생산활동의 모든 령역에 작용하면서 사람들을 교양개조하고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사회발전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철저한 혁명적사상이다. 이것은 혁명하는 시대의 언어의 사회적본질과 사회적기능에 대하여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준 창조적사상이다.

언어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사회적관계를 맺어주고 그들을 교양개조하며 생산을 조직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사회적진보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의 이러한 역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에 와서 근로대중의 사회적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그들의 의식적활동의 의의가 커지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며 그들의 과학기술지식과 일반문화수준을 높이는 등의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구체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성과적으로 밀고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알맞는 언어적수단은 그 나라 인민의 고유한 민족어이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고유한 민족어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옳바른 언어정책에 의하여 활짝 꽃핀 우리 말과 글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문화

수준을 빨리 높이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어의 사회적본질을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보시면서 민족어가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중요한 무기로 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자기의 언어와 민족문화를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말과 글은 기나긴 세월에 걸쳐 우리 인민이 창조한 민족적재부이며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고귀한 전취물이며 인민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우월감으로 교양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된다. 우리 말과 글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민족문화전통을 이룩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여왔다. 오늘 로동당시대의 우리 말과 글은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아로새기고 전달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무기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사랑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더욱 개화발전하는 우리 말에 대한 높은 긍지와 결부될 때 더욱 구체성과 생동성을 띠게 된다. 또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도 조선어를 떠나서는 사실상 생각할수 없다.

실로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민족적자부심과 혁명적자부심을 높이는데서 조선어보다 더 훌륭한 언어적수단은 없다. 우리는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실 우리 조선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 말은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은 례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공산주의도덕교양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 말은 발음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써는 동서양의 어떤 나라 말의 발음이든지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페지)

우리는 이러한 말과 글을 응당 자랑해야 하며 사랑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더욱 아름답게 세련시키며 혁명위업에 더욱 쓸모있게 이바지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민족어가 또한 근로자들의 사상의지적단결을 강화하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고유한 말과 글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우리의 큰 자랑이며 커다란 힘입니다.…우리 인민은 자기의 훌륭한 언어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민족적자부심이 높고 단결력도 강합니다.》(우와 같은 책, 4~5페지)

조선어는 우리 인민의 사상의지적단결을 이룩하고 강화하는데서 힘있는 수단으로 이바지하고있다. 기나긴 세월을 걸쳐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발전하여온 우리 인민은 오래동안 하나의 줄기로 뻗어내려온 민족어를 가지고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고 민족적번영과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을 벌려왔다.

오늘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은 조선어를 통하여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되게 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민족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 복무하면서 사상, 문화, 기술 혁명을 다

그치게 하고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의 사상의지적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힘있는 무기라는것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2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서 표현된 언어사상에서 또하나의 중요한것은 민족문제와 언어문제의 호상관계에 관한 창조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원래 언어는 민족문제와 관련되고 국가적문제와 관련되여있으며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기간의 혁명실천과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세계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매개 민족앞에 나서는 혁명임무를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민족문제와 언어문제의 호상관계를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이 이루어진 이후 민족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될때까지 언제나 민족과 민족어 문제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현시대의 민족문제란 민족적독립을 전취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며 민족의 완전한 정치적자결을 실현하고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며 민족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을 이룩하여 온갖 민족적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는것이다. 여기에서 민족어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민족과 민족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가운데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피줄이 같고 한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페지)라고 가르치시였다.

언어의 공통성은 사회력사적범주로서의 민족을 특징짓는데서 중요한 표징의 하나로 될뿐아니라 일단 이루어진 다음의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과 민족어를 갈라놓으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적립장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조선인민은 피줄과 언어를 같이하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지금 남조선사람들이나 북조선사람들이나 다 같은 말을 하고있으며 같은 문자를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문자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조선사람들이 서로 다른 글자를 쓰게 되면 편지를 써보내도 모르게 되고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들도 서로 알아볼수 없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민족적공통성을 없애며 결국은 민족을 갈라놓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민족을 갈라놓는 그 어떠한 문자개혁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1~2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언어의 공통성을 지켜내는 일이 곧 민족적공통성을 지켜내는 문제이며 민족의 운명과 민족어의 운명은 언제나 서로 떼여놓을수 없게 련결되여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민족의 자주적발전이 없이는 민족어의 자주성도 보장되지 못하며 민족어의 자주적발전이 없다면 민족적자주성도 무의미하다. 따라서 민족어를 지켜내는 문제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전취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반제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제국주의자들은 례외없이 민족어를 말살하려고 책동하여왔으며 책동하고있다.

해방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말과 글을 없애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그들은 일본말을 《국어》라고 하면서 조선말을 못쓰게 하고 일본말을 강요하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민족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억누르는것과 함께 그들의 민족성을 짓밟고 민족적자주의식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썩은 양키식문화를 끌어들이고 양키식영어를 퍼뜨리는 등 가장 악독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민족어를 말살하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앉은 남조선에서 어지러워질대로 어지러워지고있는 서울말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민족어말살정책의 후과가 얼마나 큰가를 그대로 말하여주는 하나의 뚜렷한 증거로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분렬책동과 민족어말살정책을 반대하여 민족어를 지켜내고 발전시키는것은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민족들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이며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어와 민족문제의 관계를 밝히시면서 민족어가 또한 민족문화를 비롯한 민족의 모든 훌륭한 특성들을 계속 간직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노는 적극적인 작용의 측면을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자기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있기때문에 훌륭한 민족문화를 창조할수 있었으며 자기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계속 간직하여올수 있었습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민족문화를 간직하고 발전시키는것은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필수적인 문제로 나선다. 그런데 민족의 고유한 민족문화는 바로 민족어라는 언어적수단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고 간직될수 있다.

민족어와 민족문제의 호상관계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전세계적범위에서 민족해방혁명과 프로레타리아혁명,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혁명의 시대의 민족어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한 창조적사상이다. 이 사상은 민족어문제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며 혁명임무의 성과적수행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정확히 밝혀주신 심오한 혁명사상이다.

3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서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적방향과 방도에 관한 창조적사상을 제기하시였다.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언어의 사회적본질에 관한 문제, 민족과 민족어와의 호상관계문제 등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민족어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더잘 이바지할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을 처음으로 밝히신 창조적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어의 참된 발전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언어에 대한 의식적인 사회적작용이 큰 역할을 논다는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말을 혁명과 건설에 더잘 이바지할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으로 다듬어나가며 세련시키는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는것을 천명하시였다.

특히 민족어의 자유로운 발전의 길이 열린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민족어를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혁명적으로 세련시켜나가는것이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어가 처한 력사적특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언어정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같은 뜻의 단어로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두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될수 있는대로 고유어를 쓰며 일정한 한자어를 쓰되 이미 우리 말로 굳어진것만 쓰고 그 범위를 제한하며 새로운 한자어를 자꾸 만들어낼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고유한 어근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말을 더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말을 발전시키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우와 같은 책, 7~8페지)

이 교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언어발전의 유일하게 정당한 방향은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 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고유어에 기초하여 민족어를 더 아름답고 혁명적인 언어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이다.

고유어는 민족어의 자주적발전의 산물로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언어적요소이며 민족어를 풍부히 하고 주체성있게 체계화하기 위한 골간이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지향에 맞는 말이다. 따라서 민족의 슬기가 담겨있고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는 고유어의 모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는것은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기본원칙이다.

이것은 물론 외래어적요소일반을 다 덮어놓고 뜯어고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한자어나 외래어가운데서 이미 우리 말로 굳어지고 앞으로도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요소들은 그대로 두고 써야 하며 비록 고유어요소라 하더라도 그것이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이미 근로인민들속에서 생활력을 잃어버린 부정적인것이라면 결코 우리가 이어받아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는 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빨리 하는 방도와 관련된 일련의 기본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그것은 민족어를 발전시키는데서 군중로선을 관철할데 관한 사상이다.

민족어는 인민들의 사회적인 언어실천을 떠나서 그자체로서는 발전할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켜나가자면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자체의 체계를 주체성있게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들을수 있는, 그들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원래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한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도 모든 리론을 알기 쉽게 잘 해설합니다. 그런데 리론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책에서 문구를 따기 좋아하며 힘든 말을 늘어놓아 남이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2페지)

로동자, 농민이 알아들을수 있는 쉬운 말로 하고 쉬운 글을 쓰는것은 언어실천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는 출발점으로 된다. 본래 대중이 알기 어려운 말을 하고 글을 쓰는것은 낡은 사회에서 인민대중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던 착취계급의 반인민적사상과 관료주의적사업작풍의 발현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러한 작풍이 더는 《유식》한것으로 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어의 체계를 정리하고 바로잡아나가는 일에서도 군중로선을 관철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언어체계를 바로잡아나가는것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은 반드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자신의 일로 되게 하여야만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슬기를 널리 동원할수 있으며 그들을 낡은 언어습관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할수 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새로 다듬어지는 말마디들을 대중이 잘 알아들을수 있으며 점차 그들의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리잡게 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오래동안 써내려온 한자어나 외래어들을 하루아침에 우리 말로 고치기는 곤난함으로 늘 쓰는 말부터 고유어로 고치되 누에가 뽕먹듯이 점차 먹어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서 인민대중이 자연스럽게 새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하며 신진대사식으로 고유어를 되살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언어라는것은 력사적산물로서 사람들의 사회적실천과정에서 굳어진다. 언어는 상대적으로 자체의 견인성을 가지면서도 끊임없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 사회적산물인것만큼 낡은 언어적요소들을 정리하고 다듬는데 있어서도 참을성있

게 오랜 투쟁을 진행하면서 모든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대중자신의 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이와 같은 방향과 방침에 튼튼히 의거하여 오랜 기간 우리 말에 끼친 사대주의자들과 외래침략자들이 남겨놓은 악독한 후과들을 전면적으로 가시고 조선어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4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서 천명된 언어발전의 기지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민족어의 주체성있는 통일적발전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말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나라 말을 본받아도 안되며 또 영어나 일본말이 많이 섞여든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가 중심이 되여 조선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민족어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튼튼히 의거해야 할 기지는 공화국북반부이다. 전국적으로 민족해방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인 공화국북반부가 조선어를 주체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기지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 나선다.

특히 오늘 평양은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우리 혁명의 붉은 수도이다. 지난 20여년동안 수도 평양에서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매 단계마다 우리 인민의 휘황한 앞날이 설계되였고 혁명과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이 벌어졌다. 바로 이 20여년동안에 평양에서는 우리의 민족문화가 찬란히 꽃피였으며 평양말은 수도의 말로서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졌고 새로운 어휘들로 훨씬 풍부화되였다.

평양말은 우리 당의 령도아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지고 인민적인 규범으로 통일되여있는 민족어의 전형—문화어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어는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언어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이룩된 귀중한 열매이며 우리 당 언어정책을 관철하는데서 우리 인민이 거둔 빛나는 전취물이다. 평양에서 이루어진 말—문화어는 조선어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남김없이 구현하고 새로운 혁명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더욱 풍부화된 민족어의 가장 높은 형태로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사회주의적근로자들의 지향을 반영하는 말이다.

이와는 반대로 미제식민지로 굴러떨어진 남조선에서 조선말은 점차 민족적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마구 몰려온 사대주의적요소들과 퇴폐적인 요소들로 뒤덮인 말로서 주체를 잃은 잡탕말로 변하였다. 그것은 서울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서울말은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부르죠아놈들과 관료통치배들이나 좋아하는 말이지 고생하며 가난하게 사는 로동자, 농민들이 좋아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것마저 고유한 우리 나라 말은 얼마 없고 영어, 일본말, 한자어가 절반이상이나 섞인 잡탕말이 돼서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공화국의 붉은 수도 평양에서 이룩된 문화어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언어적요소들을 더욱 고착시키고 세련시키며 그것을 더욱 주체성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언어발전의 기지에 관한 사상은 민족어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는 혁명적거점, 사회정치적중심에 관한 새로운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 사상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기지로선과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민족어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가장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것이다. 이 사

상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고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 *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서 천명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언어사상은 현시대가 제기하는 언어분야에서의 근본문제들을 가장 심오하게 독창적으로 밝힌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언어리론과 언어정책을 확립하는데서 뛰여난 자리를 차지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어의 사회적본질을 혁명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언어의 사회적기능을 사람들의 교제수단으로만 보던 리론으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로 보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기하시였으며 언어를 민족의 공통성의 표식으로 보던 리론으로부터 민족자결의 표식으로 보는 리론의 높이에로 맑스-레닌주의언어리론을 일층 풍부히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민족어를 지켜내고 혁명위업에 쓸모있게 이바지할수 있도록 발전시킬데 대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심으로써 민족국가들에서의 주체성있는 민족어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언어사상은 그이의 40여년간의 빛나는 혁명투쟁속에서 이룩되고 공고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민족어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서 힘있는 무기로 된다는 사상을 내놓으시고 말과 글이 인민을 조직동원하고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옳게 복무하게 하며 말 한마디, 노래 한 절이라 하더라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알기 쉽게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하여 그이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민족어발전의 튼튼한 기초가 이루어졌으며 조선어를 지켜내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비로소 민족적해방과 사회적해방을 위한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 속에서는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적극 살리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더욱 세련시키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우리 민족어는 인민들을 혁명승리에로 불러일으키고 원쑤를 쳐부시는 힘있는 무기로 이바지하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조선어는 혁명의 무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주체적발전의 길에 튼튼히 들어서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언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민족어발전의 빛나는 전통과 그것을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말과 글이 주체적인 길을 따라 발전하여온 전력사적로정은 오직 김일성동지의 언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언어정책의 정당성이 실생활에 의하여 실증되는 과정이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언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언어리론의 일반적원칙을 현시대의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더욱 발전시킨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 위대한 언어사상은 오늘 조선어자체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해서 거대한 생활력을 가질뿐만아니라 제국주의침략으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를 가시고 주체적인 민족어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국가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것으로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군중규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유격대는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시종일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군중로선에 철저히 립각하여 언제 어디서나 군중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킴으로써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항일유격대가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항일무장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원들에게 혁명군의 규률은 투쟁속에서 이루어진 자각적인 규률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군의 규률에서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는 군중규률이다. 그것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기때문이다. 혁명군이 적을 많이 잡았다 해도 군중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였다면 그것은 혁명에 손실을 준것으로 된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삼고 군중규률의 제요구에 엄격히 립각하여 행동하였다.

그들은 살아도 인민의 사랑속에서 살고 죽어도 인민을 위하여 죽는다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언제 어디서나 군중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 군민일치의 미풍과 고상한 인민적 사업작풍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간악한 일제와 싸워 승리하였다.

혁명적군중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한 항일유격대의 이 빛나는 모범은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군중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대원들을 일상적으로 가르쳐주시고 손수 실천적모범으로 교양하신 결과에 이룩된것이였다.

* *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상생활에서나 주민지대에서 활동할 때에 군중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켰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장구하고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 군중규률의 요구에 엄격히 립각하여 언제나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서 사고하고 그에 어긋나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항일유격대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지 못하고 례절이 바르지 못하게 행동하거나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일이 없이 군중규률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였다. 한편 인민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그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어 광범한 군중을 반일혁명투쟁에로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선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그 지방 인민들의 언어, 행동, 생활풍습에 익숙해져야 하며 늙은이들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례절이 밝아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과 친부모형제처럼 친숙해질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을 지침으로 삼아 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항일유격대의 숭고한 인민적성격을 보여주었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도덕적품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혁명적군중규률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고 례절이 바르게 행동하고 지방풍습을 존중히 여기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비록 눈우에서 잠을 자고 쉬여갈지언정 주인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잠시나마 부락에 머물러있거나 쉬고갈 때도 인민들에게 례절이 바르게 행동하면서 인민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겸손하고 례절바르게 행동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누구나 다 례외없이 이러한 엄격한 요구와 규범에 철저히 립각하여 군중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켰다.

1933년 초봄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유격대의 한 부대가 두만강기슭에 있는 량수천자부근의 어느 한 농막앞에서 잠시 휴식하였을 때에 있은 일이다.

농막집앞에서 휴식하기 위하여 유격대가 집주인을 거듭 찾았으나 전혀 응대가 없었다. 그리하여 유격대원들은 살을 에일듯이 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행군한 몸이였으나 그대로 밖에서 휴식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인민의 참된 군대가 되여야 한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교시를 명심하고 마당 한쪽에 쌓아놓은 짚단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외투를 벗으시여 친히 부상당한 대원을 덮어주시고 손수 도끼로 나무를 패시였으며 대원들은 모두 그이를 따라 집주위의 눈을 치고 마당을 쓸었으며 물을 길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워놓고 휴식하였다.

이 광경을 문틈으로 직접 목격한 집주인은 일제군경들이나 위만군들과는 전혀 다른 군대라는것을 깨닫고 뛰쳐나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어쩔바를 몰라 당황해하면서 자기가 그때까지 품고있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없는 살림에 유격대를 돕기 위하여 모든 지성을 다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그 집을 떠나시면서 로인앞에 얼마간의 돈을 내놓으시고 집 할머니의 옷도 마련하고 닭도 사다가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고기도 먹일수 있게 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로인은 자신을 그렇게까지 극진히 대해주시는 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았을뿐아니라 그이의 말씀에 너무나 감동되여 유격대와 헤여지는것을 몹시 섭섭해 하였다.

이날 김일성동지께서 보여주신 실제적모범과 그이의 가르치심에 충실한 대원들의 행동은 항일유격대가 군중규률을 어떻게 자각적으로 지켰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인민을 존경하고 지방풍습을 존중하면서 인민들과 주고 받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돌리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로동자, 농민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의 심정에 맞게 대하였으며 로인들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으며 보통년장자들에게는 꼭꼭 존칭어를 쓰면서 친절하게 대하였고 나어린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친동생들처럼 대하였다.

그리고 대중이 리해하기 힘들며 알아들을수 없는 까다로운 말을 하지 않았다.

유격대원들은 대중앞에서 언제나 알기 쉽고 실감있는 인민적인 언어를 썼으며 로동자, 농민, 로인, 부녀자 등 각이한 대상을 대할 때에는 그들의 특성에 맞는 말을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어디를 가나 이처럼 군중규률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대상의 심정에 맞는 말로 그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줌으로써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이 유격대에 탄원입대하게 하였으며 유격대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있던 적지않은 로인들과 녀성들까지도 유격대를 진심으로 도와나서게 하였던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혹시 인민들이 오해하고 불순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설복하고 교양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군중을 대함에 있어서 채도를 쓰거나 교만을 부리는 일이 없었으며 오직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고상한 품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1938년 여름 항일유격대의 한 부대는 몽강현 사득촌의 자위단을 무장해제하고 일제의 악선전과 기만술책을 분쇄하며 농민들을 교양하고 각성시킬 목적으로 이 부락에 진공하였다.

전투는 항일유격대의 승리로 끝났으나 부락인민들은 뜻밖에도 유격대에 대하여 좋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농민들의 이러한 행동이 일제의 기만선전에서부터 온다는것을 포착한 유격대원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과 태도에서는 의혹과 공포의 빛이 인차 가셔지지 않았다.

만일 이런 경우에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그들의 인격을 모욕하고 시비한다면 결국 그들이 유격대를 따라오지 않았을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계속 인내성있게 해설설복하였다. 유격대원들의 겸손한 행동과 꾸준한 해설에 감동된 농민들은 모든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아! 당신들이 과연 김일성장군님의 부대였구만!》하고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유격대원들을 얼싸안았다.

이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가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을 일깨워주고 교양하면서 인민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주민지대에서 인민들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았으며 인민들의 물건을 빌려다 쓰는 경우에도 제때에 돌려주었다.

인민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를 덜어주며 인민들에게 사소한 폐도 끼치지 않는것은 인민을 위해 싸우는 항일유격대의 고상한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온 행동규범의 하나였다.

만약 인민들에게 사소한 고통이나 부담이라도 주게 된다면 그것은 항일유격대의 사명을 망각한 행동으로서 혁명적군중규률을 위반하는것으로 간주하였다.

항일유격대는 혁명적군중규률을 엄격히 지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깊이 명심하고 언제나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일상적인 가르치심과 그 실천적모범은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군중규률을 엄격히 지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게 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군중규률을 엄수하여 인민들과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 고상한 품성을 발양하게 하였던것이다.

항일유격대는 시종일관 인민의 리익

을 옹호하며 일제를 반대하여 목숨바쳐 싸웠으므로 인민들로부터는 언제나 물심량면으로 되는 지성어린 원호를 받았다.

인민들은 자기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항일유격대에 식량을 비롯한 수많은 생활필수품을 보내주군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인민들이 지성의 표시로 보내는 물품도 언제나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서 따져보고 처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부대가 1936년 10월 장백현 20도구 지양개치기에 머물러있을 때였다.

부식물을 해결하려고 약수동에 나갔던 대원들이 마을사람들의 권고에 못이겨 소를 끌고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를 일일이 살펴보신후 그 소를 즉시 임자에게 돌려주자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저 소의 임자가 자기 소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였는가는 동무들도 보면 잘 알것이요. 저 소에게 씌워진 굴레와 거기에 매단 룡방울과 엽전을 보시오!

저 룡방울은 아마도 그 집에서 몇대를 두고 귀중히 간직해내려오던것일이 틀림없소.

그리고 엽전은 모름지기 그 집 할머니가 시집 올 때 속주머니끈에 귀중히 달아가지고 와서 평생 아끼던것일수 있소.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는것으로써 소에 대한 애착을 표시하는것이요.…

…소를 돌려주어야 할 리유의 다른 하나는 저 소임자네와 함께 약수동농민들의 생활문제가 저 소에게 달려있기때문이요.

아마도 저 소는 소임자네 재산의 전부일것이요. 또한 약수동전체를 보아도 소가 몇마리밖에 안되는것만큼 저 소는 약수동 전체 농가들의 농사를 좌우하는 소일것이요.

우리가 이런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인민들의 지성이라 하여 저 소를 잡아먹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래일부터 소임자는 물론 약수동농민들은 저 소가 해야 할 일을 인력으로 대신해야 하게 될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민의 성의를 받아들인것이 도리여 그들에게 고생을 더 시키고 그들의 생활에 곤난을 주게 될것이요.…》

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이 말씀을 들으며 그이께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혁명활동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인민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히 여기신 실천적모범과 언제나 군중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하신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자신들이 행동하지 못한데 대하여 심한 가책을 받고 그 즉시로 소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인민들의 물건을 빌려다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한 기일내에 돌려주었다.

만약 빌려온 물건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원상태대로 수리하여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과하였으며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그 값을 치러주는 등으로 인민들에게 사소한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

1935년 겨울 항일유격대의 후방부성원들이 대전자 왕바버즈에서 밀영을 지을 과업을 맡았을 때였다.

그때 유격대원들은 도끼가 없어서 부근의 한 농가에서 자귀를 빌려다 썼는데 나무를 다듬다가 자귀날의 한 귀를 떨어뜨렸다.

유격대원들은 값을 치를수도 있었으나 돈으로 자귀를 구하기도 어렵고 더우기 로인의 손때묻은 자귀를 그대로 돌려주지 못하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몹시 고심한 끝에 그것을 원상태대로 고쳐서 돌려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상생활에서나 주민지대에서 활동할 때뿐만아니라 어떤 어려운 정황속에서도 군중규률을 철저히 지키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원들에게 《우리가 초근목피로 끼니를 에우고 갖은 고생를 다하며 원쑤들과 싸우는것도 인민을 위한것이고 우리가 굶으면서도 인민들에게 될수록 폐를 안 끼치려 하는것도 인민을 사랑하기때문이요.》라고 하시면서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칠줄 아는 인민의 참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의 리익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았으며 혁명적군중규률을 철저히 지키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전투정황속에서도 언제나 인민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싸워이겼다.

항일유격대는 적을 많이 소멸하였다 하여도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였다면 그것은 군중규률을 위반하고 혁명에 손실을 준것으로 인정하고 엄격히 처벌하였다.

그러므로 항일유격대원들은 아무리 어려운 전투정황속에서도 인민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그곳에서 전투를 벌리지 않고 적을 딴곳에 유인하여 섬멸하였다.

1934년 6월에 있은 일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삼도하자 어느 마을에 도착하시였을 때 불의에 적들이 달려들자 그이께서는 적들을 마을에서 유인하여 섬멸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 유격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락에 의지하여 싸우면 적을 몽땅 잡을수는 있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인민들이 상합니다. 우리들은 인민들을 위하여 싸우는데 한사람이라도 상하게 해서야 되겠소.》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충실한 유격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들을 벌판으로 끌고나와 소멸하는 전투를 벌리였다.

어떠한 곤난속에서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를 조금이라도 침해하지 않을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인민들에게 사소한 피해도 주지 않고 원쑤를 소탕하였다.

1935년 7월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녕안현 산동툰부근의 어느 산간마을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망원초로부터 적이 달려든다는 통보가 왔다. 그때 항일유격대는 적을 주둔부락의 토성과 담벽들에 의지하여 반격한다면 그놈들을 손쉽게 소탕할수 있었으며 보다 짧은 시간내에 전투를 결속지을수 있었다.

그러나 인민의 리익을 제일생명으로 여긴 항일유격대원들은 전투마당이 유리하다 하여 인민들에게 결코 피해를 줄수는 없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사령부의 명령대로 부락에서 얼마간 떨어진 장대에 올라 적을 유인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이날 매우 불리한 전투정황을 극복하면서도 부락에서 떨어진곳에 적들을 유인하여 소탕함으로써 인민들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또한 아무리 전투정황이 긴박하고 불리한 조건하에서도 인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투행동을 중지하거나 변경시키고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타서 적놈을 소탕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지휘하에 1937년 2월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중대성원들이 홍두산전투를 진행하던 때였다.

심대한 타격을 받은 적놈은 강제에 못이겨 짐을 지고 끌려온 인민들을 《방패》로 하여 《돌격》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시고 유격대원들에게 사격을 멈출것을 명령하시였다. 이것은 놈들에게 끌려온 인민들을 한사람이라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비겁한 적들은 제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총까지 내던지고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때 유격대원들은 돌격명령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놈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창을 안기였다. 유격대원들은 적들의 《방패》로 리용되여 위험에 처했던 인민들을 구원하고 원쑤를 모조리 소탕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근거지에 《토벌대》놈들이 침입해올 때면 우선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미리 안전한 지대에 대피시킨 다음에 적들과의 싸움을 벌리였다.

1933년 봄 김일성동지의 지휘하에 진행된 소왕청방어전투때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근거지에 침입해오는 수천명의 적들을 상대로 하는 어려운 전투정황속에서도 로약자들과 어린이들을 빠짐없이 안전한 지대에 피신시킨 다음 적놈을 소탕하도록 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식량이 떨어져서 며칠씩 끼니를 건느면서도 절대로 인민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았다.

15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에 항일유격대는 식량이 떨어져 끼니를 건닌 일이 한두번이나 하루이틀만이 아니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몇달을 두고 쌀구경을 못하여 시래기와 풀,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며 그것마저 떨어지면 맹물을 끓여 마시는 때에도 결코 인민들의 쌀독에 손을 대는 일을 하지 않았다.

며칠씩 굶으며 간고한 행군을 계속하다가 주인이 없는 감자밭에서 부득이 감자 몇알을 캐여 요기를 하는 경우에도, 식량공작으로 나가 빈집에서 몇되박의 쌀을 보고 주인을 찾기 위하여 며칠씩 기다리다가 끝내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자리에 돈을 두고 떠났다.

1941년 봄에 있은 일이다.

항일유격대의 한 소부대가 식량공작을 하다가 왕청현 어느 산골짜기의 빈집 주변에서 석유통안에 넣은 쌀과 감자움을 발견하고 10여일간이나 주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주인을 만날수 없었던 그들은 약간의 쌀과 감자를 가지고 떠나면서 그 대금을 석유통과 감자움에 넣어두었다.

이 한토막의 이야기는 바로 항일유격대가 얼마나 인민의 재산을 귀중히 여겼으며 그것을 털끝만큼도 침해하지 않고 군중규률을 자각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군중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킴으로써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그들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확립하였다.

* *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간고하고도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인민의 리

익을 위하여 피흘려 싸웠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자각적이며 혁명적인 군중규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인민들은 혁명적군중규률을 엄격히 지키는 진정한 인민무력, 항일유격대를 자기의 혈육과 같이 뜨거운 심정으로 사랑하고 아끼였으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었다. 인민들은 일제를 무찌르는 전투에서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항일유격대원들과 함께 싸웠을뿐만아니라 유격대를 방조하기 위하여 군수물자, 식량, 피복, 신발 등을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보내주었으며,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고지에다 군수물자들을 날라다주었다. 그들은 항일유격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다.

이것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이 인민의 생명재산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혁명적군중규률을 언제나 자각적으로 지켰기때문이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와 인민들이 언제나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싸운 바로 여기에 항일유격대가 백전백승한 힘의 원천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찌하여 항일빨찌산이 오래동안 지탱할수 있었습니까? 왜 일본놈들이 강대한 무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였습니까? 빨찌산들이 옳은 군중관점에 서있었고 그들이 군중의 지지를 받았기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군중의 리익을 옹호하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싸웠기때문에 그들도 이와 같이 우리를 지지하고 보호한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80페지)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가 시종일관 견지한 혁명적군중로선에 립각한 군중규률의 빛나는 모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당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군중규률의 전통적미풍으로 조선인민군과 전체 인민들을 꾸준히 교양하였다.

창건 첫날부터 혁명적군중규률을 철저히 지켜 군민일치의 미풍을 높이 발양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소탕하고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오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당대표자회결정과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불패의 혁명대오로 장성강화된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혁명적군중규률의 제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조국보위의 영예로운 임무를 보다 훌륭히 수행할것이다.

혁명적세계관확립과 당정책교양

양 형 섭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사상, 공산주의적세계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으며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들은 혁명적세계관을 소유한 진정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그것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1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가가 되자면 반드시 혁명적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을 하자면 어떤 사상이 혁명사상이고 어떤 사상이 반동사상인가 하는것을 알아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이 서야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한 계급적관점이 똑똑히 선다. 동무들은 어느것이 혁명의 길이고 어느것이 반혁명의 길인가를 분간할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물을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보아야 하며 우리편에 유리한가, 적들편에 유리한가를 가려내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산주의자답게, 혁명가답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는데서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혁명적세계관이란 곧 로동계급의 세계관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리해관계에 기초하고있으며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의 요구, 피압박근로대중의 해방을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의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방법도 다르다.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있는 사람은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판단할수 있으며 적아를 똑똑히 가리고 혁명의 길을 따라 추호의 동요없이 전진할수 있으며 어떠한 역경과 풍파도 무릅쓰고 몸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이 똑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혁명적인것과 반혁명적인것, 사회주의적인것과 자본주의적인것도 갈라볼줄 모르며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한 자각적인 혁명투사로 될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끝까지 투쟁하는 참된 공산주의자, 혁명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그것은 혁명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이 험난하고 간고한 투쟁의 길이기때문이다.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온갖 계급적원쑤들

의 필사적반항에 부딪치게 되며 허다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소유한 사람만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고야 말 강철같은 의지를 가지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또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소유한 사람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어떠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겁내지 않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곤난을 맞받아 싸워나가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강의한 투사로 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계급투쟁이 치렬하게 전개되고있으며 혁명이 심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더욱 높은 단계에로 진척되고있는 우리의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국토가 량단되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고있는 긴장된 정세하에서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계급투쟁은 매우 치렬하게 전개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은 날로 격화되고있으며 남조선에서는 국내반동세력이 그대로 남아서 발비둥치고있다.

북반부에서 적대계급은 계급으로서 청산되였으나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은 아직 남아있다. 현실은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이 그들의 경제적지반이 청산된 다음에도 오래동안 집요하고 간악하게 감행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또한 락후한 유산을 물려받은데다가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시켜야 하는 조건에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여러가지 난관과 복잡한 문제들에 부닥칠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을 예견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혁명을 완수하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어려운 과업을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을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의 토대우에서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우리 혁명의 교대자들, 학생청년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세대에 혁명위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젊은 세대들이 적을 잊어버리고 투쟁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한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마저 잃어버릴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67페지)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그들을 혁명의 튼튼한 후비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는 문제로서 이는 조선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은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 사회단체들, 학교교육기관들의 제일차적인 과업으로,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항구적인 사업으로 된다.

2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정책교양을 강화하

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는것이다.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추호도 동요함이 없이 투쟁하려면 사상관점을 똑바로 세워야 하고 자연과 사회발전에 대한 과학적리론을 소유하여야 하며 혁명적실천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혁명적사상관점을 세우는 문제와 과학적리론을 소유하는 문제, 그리고 혁명적실천을 통한 단련은 서로 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며 유기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사상적립장이 옳게 설 때에만 과학적리론을 정확히 습득할수 있으며 그것을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수 있다. 한편 사람들은 과학적리론을 소유하고 자연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명확히 인식할 때 그의 사상이 진실로 공고하고도 확고한것으로 된다. 또한 혁명적사상과 리론에 기초한 실천만이 정확한것으로 되며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을 단련하고 리론의 정당성여부를 검증한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것이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필수적인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본열쇠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함이 없이는 도대체 혁명적사상을 체득하는 문제도, 과학적리론을 소유하는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우선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오히 파악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사상을 체득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은 곧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그의 정책적표현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나오며 수령의 혁명사상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통하여 구현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사상, 혁명적사상을 가장 철저히, 전면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오하게 담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와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천을 창조적으로 결합시킨 사상이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조선혁명을 완성하는데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조선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또한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기초에는 주체사상이 놓여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시된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으로서 그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근본초석을 이룬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당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혁명적세계관확립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새롭게 해결되게 되였다. 주체를 세우는가 못세우는가 하는것은 그것자체가 근본적인 세계관적문제로서 이는 사람들의 모든 사상관점, 사고체계와 방법, 일상적실천활동에서의 근본립장과 태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사실상 주체를 튼튼히 세웠을 때에만 진정한 혁명적세계관을 가졌다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태도를 새로이, 전면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가장 튼튼한 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게 하였다.

주체사상의 기본을 이루는 독자성과 자주성, 창조적태도는 계급적견지로 보나 민족적견지에서 보아 또한 국제주의적원칙에 비추어 보아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필수적인 기본요구로 된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은 수천년의 력사를 두고 내려오는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가장 근본적이며 전면적인 사회적변혁을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에서 그들은 모든 사고와 행동에서 우선 계급적으로 독자성과 자주성, 창조적태도를 견지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혁명임무, 력사적사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온갖 의존성과 예속성,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진행할데 대한 로동계급의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가장 철저히, 전면적으로 표현한 위대한 사상이다.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그의 당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만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할수 있는 동시에 세계혁명에도 더 잘 이바지할수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때에만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전체 체계를 깊이 파악할수 있으며 높은 사상리론적수준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로선, 정책들을 똑바로 파악할수 없으며 정확히 관철할수 없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관점이 철두철미 일관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로동계급의 립장,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 엄격히 서시여 모든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결하시며 이에 기초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신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정신, 강의한 원칙성과 혁명적진개력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이 모든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체득하고 혁명적세계관을 수립하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수령의 참된 전사로 되기 위하여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소유할수 없으며 도대체 혁명적세계관의 수립에 대하여 생각도 할수 없는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오히 파악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과학적리론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과학적인 세계관이다.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계급인 로동계급의 세계관은 철저한 혁명성, 전투성으로 일관되여있는 동시에 그것은 엄밀한 과학적리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사상관점을 똑바로 세우는것과 함께 자연과 사회발전에 대한 과학적리론을 깊이 습득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물변증법적세계관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매 당원들에게 자연과 사회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특히 자본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의 본질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불가피한 멸망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필연적승리에 관한 과학적지식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13페지)라고 교시하시였다.

자연과 사회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에 관한 과학적지식으로 무장하여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옳은 견해와 태도, 그 전도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러한 과학적

리론, 혁명리론으로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것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로선, 정책을 깊이 학습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조선혁명의 진 행정, 혁명의 모든 력사적단계들에 창조적으로 구현된 산 맑스-레닌주의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독립을 위한 해방투쟁과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매 단계마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인 동시에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리론들을 가장 높은 단계에로 독창적으로 발전시킨것이다.

그러므로 체계적인 당정책학습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며 인간을 개조하는데 요구되는 혁명적리론과 전략전술로 무장하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맑스-레닌주의적세계관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우리 당의 문헌들에는 조선혁명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운동의 근본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맑스-레닌주의리론과 전략전술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우리 당의 문헌들을 깊이 학습하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진수를 파악하는것은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심오하고도 폭넓게 그리고 혁명실천과의 밀접한 련계속에서 정확히 습득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적실천을 통하여 과학적세계관을 확립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세계관은 혁명적실천속에서만 공고히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혁명적세계관을 더 잘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로동계급의 계급적관점은 투쟁하는 가운데서 더 날카로와진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실천은 곧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인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행동의 지침, 정확한 자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모든 문제를 옳게 해결하고 실천행동에서 당의 요구와 방침을 정확히 실현할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온갖 반동적사상조류, 모든 낡은 사상잔재와 부정적경향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우리 당의 사상을 고수할수 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정책으로 무장되기만 하면 그것을 자막대기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볼수 있고 수정주의가 들어오는것도 막을수 있고 교조주의도 막을수 있으며 자본주의사상, 봉건적유교사상도 다 막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으며 실천투쟁과정에서 자기의 사상을 단련하고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데서 중심적자리에 놓이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부단히 높이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태도,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의 근본사상관점, 사회생활에서의 근본립장이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혁명에 대한, 계급에 대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근본태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위대한 수령께 충실하지 않고서는 당에 충실할수 없으며 당과 수령께 충실하지 않고서는 로동계급에게 충실할수 없고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혁명적세계관의 기본핵을 이룬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만이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계시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시기때문이다.

조선인민은 가장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40여년간 여러 단계에 걸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을 지도해오시였으며 그 행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천재적으로 해결하시면서 조선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해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할수 없는 사상리론적높이와 혁명지도경험의 풍부성, 높은 덕성으로 하여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수령의 한분이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얼마나 충직한가 하는것은 곧 우리의 사상의식이 얼마나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였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되며 혁명적세계관의 확립정도를 보여주는 근본척도로 된다.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그것을 진정 자기의 뼈와 살로, 자기의 확고한 세계관으로 만들고 일상생활에서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우리는 사상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확고한 혁명적세계관에 철저히 립각하여 사고하며 행동할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정책교양을 강화함으로써만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리론을 자신의 사상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으며 언제 어데서나 오직 당을 믿고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고수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조선공산주의자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그러므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고 부단히 심화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절대적요구이다.

3

김일성동지께서는 학교교육기관들은 사상혁명의 중요기관이고 거점이며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적혁명가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학교교육기관들은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대를 이어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공산주의혁군으로 자래워야 할 무겁고도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있다.

세계관이 한창 형성되고있는 학생청년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담당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기관들이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된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우리의 학교교육기관들은 반드시 교육과정이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일차적과업으로 제기되는것은 학생청년들에 대한 당정책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깊이 소유하고 그것으로 무장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유일한 세계관으로 삼도록 하는것이다.

이 영예로운 임무는 오직 학생청년들을 교육교양하는 직접적담당자들인 교원들자신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고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모든 과목들의

강의내용을 당정책화함으로써 교수과정을 통한 당정책교양을 일층 강화하여야 해결될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정책교양을 정치과목에서 뿐만아니라 모든 과목들의 강의에서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학생청년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된 역군으로 키우자면 우선 수령의 혁명사상을 심도있게 철저히 파악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사상정치적면에서나 과학리론적면에서 헤아릴수 없이 심오하고 위대한 사상인것만큼 학생청년들이 그 진수를 파악하게 하자면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학습을 모든 사업의 첫공정으로 삼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깊이있게,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청년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유일한 지도적규범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심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에만 그들을 언제 어데서나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보위하고 그이와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참된 수령의 전사로 키울수 있으며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된 믿음직한 후비로 자래울수 있다.

우리 당은 학생청년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는 동시에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며 그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할것을 언제나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이 발생발전하여온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게 하는 원천이며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과학적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업을 해결하자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학습한다는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을 의미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이 어떻게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을 보위하였으며 수령께 충실하였는가를 연구하는것이다.

우리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학생청년들에게 우리 당과 혁명의 깊고 억센 력사적뿌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체계적으로 인식시킬수 있으며 항일유격대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수령의 교시, 당정책을 정확히 끝까지 관철하도록 그들을 교양할수 있다.

학생청년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자면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혁명투쟁자료,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혁명전통자료들에 대한 학습을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회상기학습을 한갖 지식을 얻기 위한것으로서가 아니라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게 하는 정치사상적공정으로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이 그저 지난날에 있은 하나의 간단한 사실이라고만 여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문제는 고난의 행군을 하였다는 그 사실을 아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혁명사상을 배워 자신을 혁명화하는데 있습니다.》

학교교육기관들은 학생청년들속에서의 혁명전통학습이 한갖 연구나 학습에 그칠것이 아니라 그 혁명정신을 배와

살로 만들며 그들이 항일선렬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교양하는데 심중한 주목을 돌릴것이다.

당정책교양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학생청년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당정책교양을 공산주의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때 학생청년들이 우리 당정책의 계급적본질과 철저한 반제적 성격, 그가 구현하고있는 로동계급성과 인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할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보지 못한 후대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들을 무한히 증오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목숨으로 지키며 조국을 통일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더 잘, 더 훌륭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준비시킬수 있으며 그들의 계급의식과 공산주의사상의식을 높여 혁명적세계관확립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

끝으로 학생청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 제기되는 과업은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학생청년들은 례외없이 혁명적조직생활을 하고있으며 해당한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고있다. 그러므로 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만 그들의 사상의식을 더욱 높일수 있으며 조직적분공에 따라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게 된다. 또한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만 로동계급의 세계관과는 인연이 없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등 일체 낡은 사상관점과 경향들을 청산할수 있으며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더 무겁게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면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이것은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을 세우고 집단과 조직의 통제밑에서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혁명적으로 단련될 때 학생청년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한 수령의 붉은 전사로 자라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학교교육기관들은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옳게 해결함으로써만 우리의 후대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이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의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싸워나가는 근위대, 결사대로,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된 공산주의자로 육성할수 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대표자회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과업들을 어김없이 관철함으로써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야 할 력사적임무가 나서고있다.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학생청년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킬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심오히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적세계관을 더욱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로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야 할것이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주 학 석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과 최근시기 진행된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로동행정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근로자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킬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을 현시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첫자리에 내세우고 거기에 모든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5페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는것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선차적인 과업이며 공산주의교양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사회의 새로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로동에 대한 영예감과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도록 교양하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제기된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공동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 ⁂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것은 근로자들을 참된 공산주의자로 육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에 대한 성실성은 공산주의자의 기본 표징으로 됩니다.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정력적으로 일하며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는 사람만이 참된 공산주의자가 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09페지)

공산주의자들은 남을 착취해서 놀고먹는자들을 없애버리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증오한다.

로동은 인간사회의 부를 창조하며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물질적 및 정신적 부는 로동에 의해서만 창조되는것이다. 특히 《하

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은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한 로동이자 자기자신을 위한 로동으로 되며 또한 로동을 통해서 당의 로선과 정책도 성과적으로 관철해 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인민을 다 같이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방침을 규정한것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지침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오직 수백만 근로대중의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로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것이며 이것을 통하여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추진된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자각과 높은 헌신성, 이것을 떠나서는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할수 없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충실할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되기 위해서는 로동을 사랑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할줄 알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은 우리에게 부유한 새생활을 가져다줄뿐아니라 우리를 유능하고 견실한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로동과정에서 자연을 개조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수 있으며 자기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동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될수 있으며 일하기를 싫어하는 착취계급들의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버리고 로동을 사랑하는 근로인민의 사상으로 무장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74~47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은 자연을 개조하는데서뿐만아니라 인간자신을 개조하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논다.

사람들은 로동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공산주의자로 단련하게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의 복리증진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자연을 개조하고 물질적부를 창조하며 동시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위업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키울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체득하고 집단주의정신과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로력투쟁에 헌신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으로 체득할수 있고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으며 그것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조로 만들수 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벅찬 로력투쟁속에서 미제를 비롯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키울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 필연적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할수 있다. 그 어떤 난관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국가사회재산을 애호절약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리는 애국적정신, 긴장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계속전진, 계속 혁신하는 혁명적기풍과 미래를 사랑하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도 천리마의 대진군을 위한 로력투쟁에 헌신적으로 참가함으로써만 더욱더 배양될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그에 헌신적으로 참가함으로써만 자신

을 공산주의적으로 훌륭히 개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가장 잘 이바지할수 있다. 때문에 로동에 대한 성실성,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품성으로 되며 기본표징으로 된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은 무엇보다도 우선 일을 보다 성실하게 하고 더 많이 생산하여 수령의 교시와 당의 로선,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근로자들이 공동로동에 보다 성실하게 참가하여 더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사회주의건설은 더욱 촉진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은 끊임없이 높아질것이며 조국통일의 대사변은 앞당겨질것이다. 오늘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바로 이것을 요구한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은 또한 제품의 질을 높이고 하나를 만들어도 실속있게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로력과 자금, 자재와 원료를 절약하고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재와 원료를 적게 쓰고 물건을 아름답고 견고하고 쓸모있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지혜를 바치며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당과 수령께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산주의자이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투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과학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을 강력히 진행하여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촉진하며 힘겨운 로동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고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부유하고 문명하게 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또한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480분의 로동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쓰는것은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의 중요한 표현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응당 로동규률과 제정된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분초를 다투어 하나의 제품이라도 더 많이 더 잘 생산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기아의 규률에 얽매여 마지못해 일하는 자본주의사회의 근로자들과는 달리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1분1초를 아껴가며 일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동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을 떠나서 로동에 대한 성실성을 생각할수 없다.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품성으로 되는것만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에 대한 성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은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전면적으로 추진시키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정신로동이나 육체로동이나 할것없이 모든 혁명초소에서 일하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영예감과 긍지를 간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고도의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일하도록 더잘 교양하여야 한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로력문제를 푸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새로운 공장들이 끊임없이 일떠서고 새로운 생

산부문들이 부단히 창조되므로 사회주의하에서는 늘 로력이 모자라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고있다. 인민경제가 류례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로력문제를 잘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방대한 혁명과업의 수행을 잠시도 지연시킬수 없다. 이 방대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로력문제를 푸는 중요한 고리의 하나는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잘 교양하여 있는 로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근로자들이 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여 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한다면 로동생산능률을 더욱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잘 교양하여야만 천리마의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일을 더 많이 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끊임없이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의 대사변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 *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교양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여가고있으며 오직 수령께서 제시하신 혁명적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려는 공산주의적기풍이 지배하게 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로동을 사랑하는 공산주의적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되였다. 이리하여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로동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려는 근로자들의 혁명적정열이 비상히 앙양되였다. 이것은 천리마운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력의 발현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92페지)

천리마운동은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묶어세우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에서 창조적적극성과 집단적영웅주의를 발휘하도록 교양함으로써 최대의 헌신성과 영웅성을 발양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공산주의적전진운동이다.

천리마대진군속에서 전개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불과 10여년동안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았으며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국방에서 자위적이며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날에 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으며 온 나라는 거대한 로력적앙양으로 들끓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의 현명성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주는것이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 정책으로 훌륭히 교양

된 우리 인민의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근면성, 성실성,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실로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영웅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와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하여서는 안된다. 우리앞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더 큰 혁명과업이 남아있다.

우리는 앞으로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서 더욱더 헌신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광범한 근로자들이 당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정신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될 때에만 사회주의건설에서 진실로 대중적인 로력적앙양이 일어날수 있으며 진실로 대중적인 영웅주의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의 이와 같은 정치적각성과 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지 않고는 그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참다운 공산주의적태도를 기를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97페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함에 있어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것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 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로동에 참가할수 있으며 로동과정에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자로 자라날수 있다.

근로자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로 교양함에 있어서 또한 그들을 항일유격대원들의 고매한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수령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방침을 목숨바쳐 관철한 숭고한 모범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 때 그들은 일상적인 로동에 헌신적으로 참가하며 부과된 혁명임무를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완수하는 혁명가적기풍을 튼튼히 세울수 있는것이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강한 사상투쟁을 진행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동을 즐기는것과 싫어하는것, 로동을 자각적으로 하는것과 마지못해하는것과의 사상투쟁,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사상과 자본주의사상과의 오래고도 날카로운 투쟁을 거쳐서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9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을 싫어하고 천시하는것은 수백수천년에 걸치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이다. 착취사회에서 그처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되었던 로동은 사회주의하에서 영예롭고 즐거운 일로 전변되었다. 그러나 로동을 싫어하고 천시하는 낡은 사상잔재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오래동안 남아있어서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한다.

그것은 다른 모든 낡은 사상잔재와 마찬가지로 하루이틀에 없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근로자들을 진실로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는것은 장기적이고 복잡하며 어려운 혁명과업으로

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인내성있고 정력적인 설복과 교양을 진행하여야 하며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규률을 강화하고 집단과 조직의 통제, 행정적통제를 배합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으며 적대사상의 침습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통제와 규률이 약한 곳에서는 안일해이한 현상이 되살아날수 있고 놀고먹으려는 부르죠아사상이 조장될수 있다.

로동을 기피하며 놀고먹으려는 착취계급의 사상잔재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며 통제와 규률이 약한곳에서는 되살아날수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 사회단체 등 모든 조직들과 기관, 기업소들에서 로동규률과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건달습성, 로동을 싫어하는 착취계급의 사상잔재가 머리를 들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할것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고 집단의 힘에 의하여 훌륭히 해결할수 있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심화되고 대중자신이 반동될 때 로동을 싫어하거나 로동규률을 위반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수 있으며 근로자들을 집단적로동의 실천속에서 로동에 대한 고상한 태도로 성과적으로 교양할수 있다.

사람들을 집단적로동에 최대한으로 참가시키는것은 그들을 로동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로 무장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된다.

사람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로력투쟁에 성실하게 참가할 때 로동의 진정한 의의를 깨닫을수 있다. 사람들은 로동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참뜻을 알게 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 몸바쳐 싸울수 있으며 특히 기술을 발전시키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며 유족하고 문명한 공산주의적생활을 창조해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를 더욱 높일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건설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집단과 조직 생활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로동계급의 사상으로 더 잘 무장할수 있고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할수 있다.

우리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로동을 사랑하는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움으로써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의 정 당 성

우리 인민은 당대표자회결정과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여 7개년계획수행의 마지막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로농적위대창건 열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로농적위대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발기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그이의 육친적배려밑에 정치군사적으로 불패의 대오로 육성강화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로농적위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혁명적무장조직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위력한 무장력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참가하고있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자원적무장대오이다.

로농적위대는 창건된후 지난 10년간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여왔다.

인민군대와 함께 로농적위대를 창건하고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과 그 빛나는 실현은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들자신의 힘으로 사회주의조국을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보위하기 위한 그이의 독창적인 전민무장화방침의 구현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무장화방침은 어디까지나 우리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며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 당의 주체적이며 반제적인 견결한 혁명적립장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할뿐만아니라 혁명의 전취물을 자체로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한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면 그것은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을 보위하는데 거대한 도움으로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러나 사회주의조국보위의 결정적요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주체적력량이며 따라서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위할수 있도록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이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꾸려야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할수 있으며 민족해방운동과 전반적 세계혁명발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수 있다.

조국과 혁명을 자체로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도록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길은 상비적인 무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킴으로써 일단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군인들과 무장한 인민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싸우도록 하는것

이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위력하고 정당한 방침이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무력건설전통의 직접적인 계승발전이며 그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최초의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대인 항일유격대와 함께 적위대, 반일자위대, 돌격대 등 각종 형태의 반군사조직을 창설하심으로써 근거지내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키시였다.

그이의 현명하고 탁월한 령도밑에 유격대와 무장한 혁명적인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운 영웅적투쟁행정에서 군사건설의 귀중하고도 풍부한 업적과 경험이 이룩되였다.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인민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원쑤들을 맞받아나가 싸울 때 그 어떤 강한 적도 물리칠수 있으며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혁명을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이다.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절정에 달하였던 1930년대초에 적의 배후종심에 창설된 혁명근거지를 4～5년이라는 오랜기간에 걸쳐 굳게 보위하고 붉은기를 휘날리면서 원쑤들을 박멸할수 있었던것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무장화방침을 받들고 항일유격대와 근거지내의 무장한 전체 인민들이 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만 가능하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이룩된 이 빛나는 전통은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의 뿌리이며 우리 나라의 방위력을 불패의것으로 강화하기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되였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우리 나라에 수립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위력한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과 나라의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에 기초한 가장 위력한 방위체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74페지)

착취계급이 주권을 쥐고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전민무장화란 도대체 생각할수 없다. 착취계급은 인민대중의 손에 무기가 들어갈 때에는 그것이 자기들을 반대하며 멸망케 하는 무서운 힘으로 된다는것을 알기때문에 인민대중을 무장시킬수 없으며 인민들이 무장하는것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한다.

전민무장화는 오직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계급,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들이 다같이 사회주의적근로자로서 사회경제적처지의 공통성, 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동지적으로 결합되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지키며 일편단심 수령께 충성을 다하려는 굳은 혁명적의지와 신심에 충만되여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국방사업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인민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영예로운 사업으로 되고있다.

실로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우리 사회발전의 기본동력일뿐만아니라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는데서도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의 철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에 기초하여 전민무장화방침을 제기하고 관철하였으며 국방사업을 전체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이것은 항상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국방분야에 구현한것이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의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전민무장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우리에게는 각종 현대적무기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공업의 토대가 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악전고투하여 꾸려놓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뿐만아니라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튼튼한 경제적밑천으로 되고있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바로 그것이 우리 나라의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확고히 기초하고있음으로하여 불패의 위력을 가지고있다.

또한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은 전쟁의 력사적경험에 기초하고 현대전의 요구와 특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기때문에 더욱 우월하며 위력한것이다. 무장투쟁을 포함한 모든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노는것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을 적극적으로 조직동원하여 그들을 무장시키는것은 조국보위와 전쟁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더우기 현대전은 그 전투행동이 거대한 규모로 전개될뿐만아니라 장기성과 립체성을 띠게 된다. 최신과학기술이 도입되는 현대전에서 전투는 일정한 전선의 지역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종심깊이 후방에서도 진행되며 따라서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고 전투원과 비전투원이 따로 있을수 없다.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상비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원쑤들을 쳐부시기 위한 투쟁에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적들이 언제 어디로 기여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일격에 소멸할수 있으며 전쟁이 아무리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의 정당성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면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전민무장화방침은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창조적로동을 보위하며 경제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한다.

전민무장화방침은 전체 인민이 한 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조국을 보위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여 일단 유사시에는 생산도 계속할수 있고 전투도 잘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건설과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다같이 담보한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전민무장화방침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와 현대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으며 맑스-레닌주의군사리론을 고수하고 혁명무력건설과 사회주의나라의 방위문제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국요새화와 함께 우리 당의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는 전민무장화는 이미 그 정당성이 실천에서 확증되였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튼튼한 자위적태세를 갖추고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전투경험과 군사기술을 가진 수많은 제대군인들이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도시와 농촌들에서,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면서도 조국보위사업에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음으로 하여 우리의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위력은 더욱 튼튼히 담보되여있습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철벽같은 방위력을 마련하여 놓았다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습니다.》(《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7~8페지)

우리는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원쑤들의 그 어떠한 침략전쟁도발책동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놓았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농적위대원들이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나라가 인민군용사들과 무장한 인민들에 의하여 굳건히 보위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방위력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와는 비할수도 없으리만큼 철벽으로 다져졌다.

지금 원쑤들은 대량살륙무기에 기대를 걸면서 전쟁모험을 감행하려고 날뛰고있으나 이것은 헛된 짓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사람마다 원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불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또다시 분별없이 전쟁모험을 감행한다면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와 무장한 우리 인민의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우리 조국을 침범한 적들은 한놈도 살아돌아가지 못할것이다. 우리 조국땅에 기여드는 어떠한 침략자들도 반드시 준엄한 징벌을 받고야 말것이며 놈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파멸과 죽음뿐일것이다.

오늘 조성된 정세는 우리 당의 전민무장화방침을 계속 견지하여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남반부에서 새 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나라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최대의 혁명적경각성을 견지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다지며 원쑤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그를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튼튼히 갖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

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무장력구성에서 사람은 기본요소를 이루며 전쟁에서의 승패는 적과 맞서 싸우는 대중의 정신상태와 정치적각오정도에 달려있다. 원쑤들을 격멸하고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혁명무력은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가지고있으며 바로 이것이 그의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현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항상 동원되고 준비된 태세에 있으면 원쑤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며 설사 적들이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철저히 때려눕힐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인민군대와 함께 전체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제1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로농적위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게 하는것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농적위대원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우리 당의 사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모든 사업과 활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농적위대원들은 항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철저한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더욱 혁명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그이의 교시를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어떠한 풍파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일편단심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견결히 옹호하고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과 생사운명을 같이 하여 싸워나가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그이의 명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체득하는 동시에 조선의 참된 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공산주의적혁명정신을 배워 그들처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그들처럼 혁명적으로 일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전체 로농적위대원들은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계급을 무한히 증오하고 특히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그와는 끝까지 투쟁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는 높은 계급적각오와 혁명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의 해방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하루속히 실현하는것은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이 혁명력량을 어떻게 확대강화하며 적들과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을뿐만아니라 북반부인민들이 혁명적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도 크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로농적위대원들은 남녘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미제침략자들의 예속과 압박에서 반드시 해방하고야 말겠다는 혁명적각오를 높여야 하며 그들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도록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전체 인민들과 로농적위대원들은 한

서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있을수 있는 전쟁도발에 대처하여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고도로 높이고 긴장된 전투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을 두려워하는것은 부르죠아평화주의적표현이며 수정주의적사상조류이다.

전체 인민과 로농적위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뿐만아니라 그들을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인민군대와 함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연과 후방을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지역에 반석같은 방위시설들을 축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로농적위대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며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군사지식을 습득하고 군사훈련에 참가하며 전쟁경험을 연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5페지)

전체 로농적위대원들은 각종 전투훈련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어떠한 복잡한 정황속에서도 자기의 군사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군사기술과 전투기능을 부단히 련마하여야 한다. 로농적위대원들은 각종 무기에 정통하며 모두가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전체 로농적위대원들은 항일무장투쟁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밑에 일본제국주의침략군대와 싸워이긴 항일무장투쟁경험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힌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히 고귀하다. 이 경험들은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며 그를 고수하기 위한 혁명전쟁의 경험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들의 《강대성》을 자랑하던 일제와 미제를 타승한 유격전쟁과 현대전쟁의 경험이다.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은 상비무력과 비상비무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군대와 인민이 정규전과 유격전, 산악전과 야간전 등 다양한 투쟁형식과 방법을 적용하여 원쑤들을 타승한 경험이다. 이 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우리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그리고 각이한 정황하에서 능히 어떠한 원쑤들도 타승할수 있는것이다.

원쑤들의 전쟁소동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현정세하에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후방을 공고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인 국방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그 물질적담보로 되는 위력한 자립경제, 공고한 후방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로농적위대는 자기의 일터와 향토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믿음직하게 보위할뿐만아니라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적역할을 담당수행하여야 하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로농적위대원들 그리고 전체 인민이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을 때 원쑤들은 감히 덤벼들지 못할것이며 만일 덤벼든다면 우리는 놈들을 일격에 소탕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주위에 철통같이 단결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국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확신성있게 싸워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전투적강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공고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를 위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심과 함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방침들을 다시금 심오하게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보고에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원칙적문제들은 우리 당 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정강을 비롯한 귀중한 문헌들에서 천명된 전략전술적방침들과 함께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가장 정확한 혁명적방침이며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여로 된다.

보고에서 천명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혁명적리론과 방침들은 우리 세대에 자기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고 조선혁명을 성취하려는 그이의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립장을 구현하고있다.

력사적보고에 담겨져있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전투적강령으로 되며 혁명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보고에 담겨있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혁명리론과 방침들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 더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결정적으로 앞당길것이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남조선의 사회정치적 및 계급적 력량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는 혁명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하여, 그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억압자들을 뒤집어엎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이다.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략탈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후 벌써 20년이상 남조선에서 가장 반동적인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테로와 학살이 지배하는 생지옥에 몰아넣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종식시키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심으로써만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미제와 함께 그와 결탁한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의 무리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가리우기 위하여 마치도 남조선에 그 어떤 독자적인 《정권》이 있는듯이 떠들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그 산물인 남조선괴뢰정권의 반동적본질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괴뢰정권의 매국적, 예속적 및 반인민적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시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오늘의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 어디에 있으며 그 화근을 뽑아버리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반대하여 싸워야 하는가 하는 투쟁대상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조선의 이른바 《정권》이란 외세와 결탁하여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적인 《정권》이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자들은 례외없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그들의 앞잡이들이다. 오늘 상전을 바꾸어 미제국주의자들의 충실한 앞잡이로 된 박정희도당도 그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지난날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민족의 반역자들이다. 박정희도당은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제의 침략정책에 적극 복무한 철저한 친일주구이며 반일투쟁에 나선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을 무참히 학살한 살인범죄자들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또한 그 어떤 독자성도 없는 철저히 미제에게 매여있는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인 《정권》이며 반인민적인 《정권》이다.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가 총칼을 휘둘러 만들어냈고 총칼의 도움을 받아 유지되는, 철두철미 미제의 식민지정책에 복무하는 허수아비도구로서 하나부터 열까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있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이며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를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체계를 때려부시며 반동세력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 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업과 함께 그 수행을 위한 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기 위한 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하여야 하며 여기에 모든 형태의 투쟁을 복종시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79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그이께서 남조선혁명의 력사적경험을 분석총화하시고 맑스-레닌주의의 전략전술적원칙을 남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키신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남조선혁명에서 투쟁의 전략적과업을 어떻게 설정하며 이 전략적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이한 형태의 투쟁들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것인가 하는데 대한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근본문제이며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낡은 통치기구와 반동통치세력을 뒤집어엎고 주권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주권을 잡지 못하고서는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밑에서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빈궁한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는것도 결국 그들이 자기의 진정한 주권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에게 무권리와 불행을 강요하며 남조선사회를 오늘과 같은 생지옥으로 만들어놓은 반동통치세력을 타도하고 참다운 인민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모든 형태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원쑤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어야 하며 혁명력량을 더 빨리 축적하고 발전시켜나

가야 한다. 각이한 형태의 투쟁들은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투쟁의 준비로 되여야 하며 그와 결합될 때에만 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 주권쟁취를 위한 결정적투쟁과 결합되지 못한 투쟁은 그것이 아무리 큰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써는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가져올수 없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에서 모든 형태의 투쟁을 주권쟁취를 위한 투쟁과 결합시키며 그에 복종시킬것을 강조하시면서 주권쟁취를 위한 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습니다.…그 투쟁형태가 어떻든지간에 그것들은 모두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준비로 되여야 하며 그 결정적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하여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79페지)

주권쟁취를 위한 결정적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반동통치계급의 계급적본성에 대한 심오한 평가, 우리 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혁명투쟁경험을 분석일반화하신데 기초한것으로서 혁명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명백히 밝혀주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그것은 또한 그이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과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혁명투쟁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될뿐만아니라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며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인민들의 혁명적무기로 된다.

혁명투쟁에서 인민들이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자면 결국 폭력적방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반혁명적폭력은 모든 착취계급에게 있어서 필수적통치수단이다.

반동통치계급은 자기의 지배를 유지함에 있어서 방대한 폭력수단에 의거하며 상설적폭력수단을 발동하여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류혈적으로 탄압한다.

더우기 미제와 그와 결탁한 반동통치세력이 류혈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는 남조선에서 혁명의 결정적승리는 혁명적폭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혁명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이며 반동의 아성인 미제를 직접 대상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과 반혁명이 가장 날카롭게 대치하고있는 남조선에서 혁명의 결정적승리가 심각한 폭력투쟁이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여러번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나 놈들은 그때마다 무력을 동원하여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을 벌리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이 오직 전인민적인 항쟁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철저히 때려부실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을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혁명투쟁에서 혁명적폭력의 의의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으로서 그이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벌써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일제의 강점으로 온강토에 민족적비운이 서리고있던 그 암담하던 시기에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몸소 강력한 상비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여 15성상에 걸치는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조직지도하심으로써 일제를 패망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시였다.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적무력에

혁명적무력으로 대처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투쟁이였으며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다.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력사적승리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반혁명폭력에는 반드시 혁명적폭력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그이의 탁월한 전략사상의 승리였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자기들의 혁명투쟁을 급속히 확대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특히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급속히 확대발전하고있는 혁명적무장유격대의 용감한 투쟁은 원쑤들을 혼란과 공포속에 몰아넣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혁명적영향을 주고있다.

인민들이 혁명을 하자고 결심하고 영웅적투쟁에 한결같이 떨쳐일어나서 승리하지 못한 혁명이란 없다.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을 짓부시고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투쟁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심과 함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에 관한 원칙적립장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심오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8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통일방침은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구현으로서 그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주체적힘에 의하여 완수하려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이 방침은 자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깊은 확신에 기초하고있을뿐만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절실한 리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공명정대한 방침이다.

또한 그것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국내반동세력들과의 날카로운 투쟁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자주통일방침은 그자체의 혁명적본질로부터 유엔이나 어떤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오직 조선인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결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조선인민자신의 의사와 힘에 의해서만 조국통일위업은 공정하게 해결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이른바《유엔감시하의 선거》를 운운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자주적통일방안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으며 우리의 성의있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 매번 침략적도발행동으로 대답하여왔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입버릇처럼 떠벌이는 《유엔감시하의 선거》란 전조선을 미제국주의자들의 손에 내맡기자는 음흉한 술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유엔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지난 20여년간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남조선에 대한 그 식민지통치를 《합법화》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비호하는데 리용되여왔다. 미제는 유엔의 간판밑에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이 전쟁에서 유엔은 사실상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교전일방의 역할을 놀았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또한 《공산화의 위협》이니 뭐니 하면서 조국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으며 그 무슨 《승공》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애당초 조국통일을 부인하고 민족분렬의 현상

태를 영구화하려는 방패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미제와 그와 결탁한 반동세력이며 따라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괴뢰정권을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수행방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조국의 평화적통일은 오직 남조선에서 현괴뢰정권을 뒤집어엎고 진보적세력들이 정권을 쥔 다음에야 실현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84~85페지)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남조선의 사회정치적형편과 혁명의 원쑤들의 계급적본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전도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신 원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관한 이 방침은 민족의 원쑤들과의 원칙적인 투쟁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이 방침은 결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그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미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빚어진 비극적인 분렬을 끝장내며 빼앗긴 자기의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는 문제로서 그 어떤 《타협》에 의하여 실현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국통일은 그 구체적방도가 어떻든지간에 민족분렬의 장본인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괴뢰정권을 때려부신다음에야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의 전도에는 평화적가능성과 함께 비평화적가능성도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있으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계속되는 새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또다시 일어날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인민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전쟁을 도발하는 길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혁명의 결정적시기로 맞이할것이며 원쑤들을 우리 강토에서 깨끗이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우리 인민은 조국통일의 구체적방도가 어떻든지간에 그것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고있다.

우리에게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혁명을 확고한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여오셨으며 락후하던 이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강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진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난관도 뚫고 우리앞에 부과된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그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보위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고있다. 우리 인민은 수령께서 제시하시는 어떠한 어려운 혁명과업도 빛나게 수행할 승리자의 기백에 충만되여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힘있는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는 중요한 밑

친이다.

남조선의 혁명력량도 급속히 장성강화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간악한 파쑈폭압속에서도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대오를 급속히 확대하고있다.

이와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주체적력량은 충분히 꾸려지고있으며 때가 되면 우리 인민은 이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　　　*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전체 남북조선인민들앞에 나선 공동의 신성한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와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남조선인민들은 혁명력량을 더 빨리 준비하고 대중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보다 힘차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북반부인민들은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계속 힘차게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8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이 전략적방침은 국제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대치하게 된 조선혁명의 간고성과 복잡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그를 타승할 강력한 혁명력량을 준비하며 혁명의 주체적요인과 함께 국제적요인도 다 같이 성숙시킴으로써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더욱 확신성있게 담보하는 탁월한 방침이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남조선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인 남조선혁명력량을 불패의 대오로 준비하는것이 중요하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남조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켜 다가오는 혁명적대사변을 맞기 위한 준비를 더욱 줄기차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튼튼히 꾸리고 로동자, 농민을 묶어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편성하며 그에 기초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굳게 결속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의 장성강화는 오직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림으로써 혁명력량을 부단히 축적장성시킬수 있고 원쑤들의 강화되는 반혁명적공세를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것은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어떻게 확대강화하며 적들과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렸을뿐만아니라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이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어떻게 튼튼히 다지며 혁명력량을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공화국북반부는 전국에서 민족해방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혁명기지이며 북반부의 혁명력량은 조선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남조선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수 없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없다.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만 남조선혁명을 힘있게 지원할수 있으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도 강화하여나갈수 있다.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동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조건을 충분히 마련하는것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

저히 세워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고 그 어떠한 무거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는 암흑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형제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해방하고야 말겠다는 혁명적각오를 가지며 언제나 남조선인민들과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결정적투쟁에 나설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정치사상적준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의 혁명기지의 물질적력량을 더욱 강화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에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올해의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북반부의 혁명기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남조선혁명력량을 보다더 강화하여 조선혁명의 튼튼한 주체적력량을 마련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적방침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 기초하여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다른 하나의 요인이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며 국제혁명력량의 발전과 우리 혁명에 대한 그의 지지는 우리의 혁명승리를 위하여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미제를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전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제에게 보다 강력한 타격을 주어 놈들의 힘을 최대한으로 분산약화시킬수 있으며 우리의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빨리 앞당길수 있다.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시기는 날로 다가오고있다. 우리는 이 결정적시기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수령께서 제시하신 영광스러운 혁명과업을 더 정력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

물론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 전도는 의연히 간고하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앞에는 극복하지 못할 그 어떠한 난관도 있을수 없으며 점령못할 요새란 없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천명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투적강령을 받들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고야 말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이 북반부인민들과 같이 수령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이다.

꾸바혁명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최 성 훈

꾸바인민이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꾸바에서의 지난 10년간은 실로 투쟁과 승리로 아로새겨진 자랑찬 나날이였다.

피델 까스뜨로동지와 꾸바공산당의 령도밑에 꾸바공화국은 지난 10년간 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세계혁명적인민들과 함께 반제투쟁의 선두대렬에 확고히 서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발 책동을 용감히 물리치면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여왔으며 어제날 억눌리고 뒤떨어졌던 꾸바땅에 사회주의 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진행하여왔다.

꾸바혁명은 전세계 피압박인민들에게 작은 나라들도 주체를 세우고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히 일어나 싸운다면 그 어떤 횡포한 원쑤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여주었다. 꾸바인민은 자기의 실천적 모범으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서반구에 력사적으로 강요된 미제의 지배가 결코 불가피하거나 숙명적인것이 아니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이 능히 미제의 지배를 때려부시고 혁명을 일으킬수 있을뿐만아니라 그를 수호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꾸바혁명의 승리로 하여 사회주의는 서반구에서 벌써 10년째 막을수 없는 존재로 장성강화되고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을 따라 더욱 커가고있다.

* *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운동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였다. 꾸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에는 새로운 시대, 사회주의혁명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의 첫승리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위대한 10월혁명의 계속이다. 꾸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미제의 세습령지로 간주되였던 라틴아메리카에 오늘은 사회주의의 붉은 기치가 높이 휘날리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진영이 서반구에까지 확대되고 그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3페지)

꾸바인민은 제국주의괴수인 미제의 코앞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암흑과 폭행이 지배하는 라틴아메리카에 승리의 서광을 비쳐주었으며 사회주의 진영을 서반구에까지 확대하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를 전환점으로 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인류의 흉악한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일찌기 서반구에 대한 영원한 지배를 떠벌이면서 제놈들이 이 대륙을 지배하는 한 《대륙의 리념》에 배치되는 어떠한 정치적견해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더구나 혁명은 일어나지 못할것이라고 오만하게 선포하였다. 놈들은 갖은 잔인한 방법과 횡포한 수단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소한 진보적운동에 대하여서도 탄압해나섬으로써 이 지역에서 제놈들의 지배를 영구화해보려고 망상하였다.

꾸바혁명이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팔

은 정치운동자들과 소위 《혁명가》들은 이 지역에서의 미제의 지배를 타파할수 없는 기정의 사실로 간주하면서 저들의 개량주의와 타협로선을 《지리적숙명론》, 《라틴아메리카발전의 특수성》으로 변명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꾸바혁명이 승리하기전까지만 하여도 미제와 반동적파두세력이 지배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어떠한 진보적운동도 충분히 발전할수 없으며 기껏해야 불철저한 혁명과 그에 따르는 반혁명의 악순환만이 있을수 있는것으로, 더우기 사회주의혁명과 같은 변혁은 전혀 성공할수 없는것으로 인정되여왔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꾸바혁명가들은 라틴아메리카혁명에 대한 이러한 낡은 공식, 개량주의적립장을 단호히 짓부시고 미제와 독재세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인민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 처음으로 사회주의의 붉은 기치를 튼튼히 꽂아놓았다.

1953년 7월 26일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꾸바혁명가들의 몬까다병영에 대한 영웅적습격전투는 꾸바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였을뿐만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였다. 꾸바혁명가들은 첫투쟁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그란마》호원정을 거쳐 씨에라마에쓰뜨라지역에서 더욱 광범한 무장투쟁을 벌려 마침내 1959년 1월 1일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꾸바혁명은 이와 같이 지난 시기 라틴아메리카혁명에서의 개량주의적소극성을 극복하고 제한된 민주주의운동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 이 지역에서 진정한 인민혁명의 승리를 달성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투쟁에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열어놓았다.

혁명후 꾸바인민은 철저한 반제투쟁의 기치를 고수하면서 반독재민주주의과업으로부터 반미투쟁을 전면에 걸고 사회주의적과업을 수행하는데로 나아감으로써 인민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었다.

혁명승리후 꾸바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이 강화되고 있는 준엄한 시련을 뚫고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고수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쌓아올렸다.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정확한 정책 그리고 꾸바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과거에 착취와 빈궁이 지배하던 꾸바땅에 오늘은 모든 사람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살고있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경제분야에서 제반 민주주의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급속히 추진된 결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가 확립되여가고있으며 과거의 식민지적락후성이 청산되고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지난해에 꾸바혁명정부가 취한 개인상공업의 국유화조치는 꾸바혁명을 전진시키며 꾸바에서의 사회주의진지를 공고화함에 있어서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는데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고 근로자들의 정치적 및 생산적 열의는 비상히 높아졌다.

농촌에서는 낡은 생산관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적농업협동경리가 급속히 도입되고있으며 농촌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 다각화가 추진된 결과 농업생산은 계속 장성하고있다.

지금 꾸바인민은 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탕생산을 빨리 증대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들은 1970년의 1천만톤 사탕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한 로력투쟁을 전개하고있으며 새로운 농경지확장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꾸바인민은 자립적민족공업토대를 창설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꾸바인민은 민족공업의 기초를 이

무는 기계, 비료, 세멘트,전력 공업 등 일련의 기간적공업부문들을 신설확장하고 새로운 경공업부문들을 창설함으로써 자체의 원료와 자원에 튼튼히 의거하여 나라의 인민경제적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보장하고 민족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완비하며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서 많은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인민경제에서의 이와 같은 성과들로 하여 사회주의꾸바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튼튼히 다져졌고 경제의 자립성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꾸바혁명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오늘 꾸바에서는 문맹자가 완전히 퇴치되였으며 교육사업에서 급속한 발전이 이룩되였다. 인민보건사업이 빨리 개선된 결과 혁명적꾸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인구사망률이 제일 낮은 나라로 되였다.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꾸바의 방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꾸바의 혁명무력은 미제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다. 꾸바혁명무력은 최신군사기술과 군사장비로 무장한 강력한 정규군으로 장성하였으며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이리하여 꾸바의 방위력은 원쑤들의 그 어떤 준동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게 철벽으로 다져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꾸바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였다. 꾸바인민은 혁명투쟁의 시련속에서 더욱 단련되였으며 어떠한 난관도 용감히 뚫고 힘차게 전진할 승리자의 기백에 넘쳐있다. 지금 꾸바인민은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과 혁명정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있으며 사회주의의 붉은 기치를 끝까지 고수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꾸바인민이 자기 당과 정부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이와 같은 눈부신 성과들은 그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서반구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불가피하며 필연적이라는것을 확증하여주고 있다.

오늘 꾸바의 실천적모범과 혁명적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라틴아메리카의 넓은 지역에로 힘있게 퍼져나가고있으며 이 지역 인민들에게 뜨거운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고있다.

*　　　*

꾸바혁명의 승리와 꾸바공화국의 존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커다란 혁명적작용을 미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서반구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온 라틴아메리카를 혁명적폭풍우속에 휘몰아넣고 이 지역 인민들을 독립과 자유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실로 꾸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체계의 붕괴의 발단이였으며 장구한 기간 이 지역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미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였으며 멸망의 선고였다.》(우와 같은 책, 3페지)

꾸바혁명은 서반구에서 미제의 지배체계에 첫돌파구를 뚫어놓은 력사적사변이다.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타격에 의하여 코대가 꺾이우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침략자들은 꾸바혁명에 의하여 또다시 얻어맞음으로써 쇠퇴와 멸망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빠지게 되였다.

꾸바혁명의 승리는 서반구를 영원히 지배해보려던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야망에 큰 타격을 주고 이 지역에서의 미제의 지배체계에 메울수 없는 파렬구를 뚫어놓았다.

꾸바혁명의 승리로써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는 다시한번 산산이 분쇄되였고 미제침략자들이 저들의 문앞에서까지도 혁명투쟁의 불길을 막을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실증하여주었다.

이와 함께 꾸바인민은 서반구인민들에게 먼 앞날의 꿈으로만 생각되여오던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이룩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현실로 보여주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꾸바의 현실에서 자기들의 혁명적미래를 내다보고있으며 꾸바가 가는 길이 자기들이 나아갈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혁명적꾸바는 라틴아메리카의 미래를 대표하고있으며 그 존재자체로써 이 대륙 인민들의 해방운동을 고무하고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꾸바혁명에서 무한한 고무를 받으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견결히 일떠서고있다. 꼴롬비아, 베네수엘라, 과떼말라, 볼리비아를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에서 무장투쟁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앙양되고있다.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공격의 창끝을 미제에게 집중하고있다. 그들은 《미제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전면에 들고 미국놈들의 대사관과 령사관, 《문화연구소》들을 련속 들이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으며 놈들로 하여금 커다란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대렬은 날로 확대되고있으며 조직화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에는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망라되고있으며 투쟁의 불길은 이 지역의 더욱 많은 나라들에 퍼져가고있다.

그리하여 어제날 미제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여오던 라틴아메리카가 지금은 사실상 미제의 한쪽 각을 뜯는 투쟁의 대륙으로, 놈들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격렬한 전투마당으로 전변되였다. 따라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더는 《고요한 안식처》를 찾을수 없게 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고립되고 배격당하고있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의 전지역을 휩쓸고있는 거세찬 혁명투쟁의 조류속에는 라틴아메리카인민이 낳은 불굴의 혁명투사이며 참다운 국제주의전사인 체 게바라동지의 불멸의 공적이 깃들어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체 게바라는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비롯한 꾸바혁명가들과 함께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미제와 그 앞잡이 바띠스따독재정권을 때려부시고 꾸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을뿐만아니라 불타는 혁명열의를 가지고 승리한 꾸바땅을 떠나 라틴아메리카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에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였으며 그 앞장에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워나갔다.

체 게바라의 이러한 혁명적활동은 꾸바혁명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반적라틴아메리카혁명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적인민들은 체 게바라가 다하지 못한 숭고한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광범히 일떠서고있다.

꾸바혁명의 승리적인 전진과 날로 앙양되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이 지역에서의 미제의 침략정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있으며 놈들의 멸망을 가일층 촉진시키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공화국의 존재와 그것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미치는 혁명적영향력을 무엇보다도 무서워하고있으며 혁명적꾸바를 교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은 꾸바공화국의 존재자체를 몹시 미워하고 무서워하며 꾸바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하여 집요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들은 꾸바혁명을 말살함으로써 서반구를 배회하고있는 공산주의의 <유령>을 몰아내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있는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막아보려고 꾀하고있다.》(우와 같은 책, 4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인민이 지핀 혁명의 불길이 서반구대륙전체를 휩쓸게 될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있으며 꾸바혁명을 교살함으로써 꾸바공화국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주는 혁명적영향력을 막으며 나아가서 라틴아메리카혁명의 기지를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직접 제놈들의 무력을 동원하여 꾸바를 압살하려고 꾀하는 한편, 저들의 지배와 예속 밑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반동적독재정권들을 사촉하여 꾸바에 정치경제적압력을 가하며 봉쇄정책으로써 꾸바를 질식시키려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꾸바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1961년 플라야 히론에 대한 침공과 1962년 《카리브해위기》는 바로 미제국주의자들의 반꾸바책동의 중요한 일환으로 감행된 강도적도발행위였다. 청소한 꾸바공화국을 무력으로 없애버리려는 이 흉악한 기도가 실패한후 놈들은 각종 터무니없는 구실을 꾸며내여 꾸바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반동들을 사촉하여 꾸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케 하고 꾸바와의 무역거래를 중단케 함으로써 사회주의꾸바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봉쇄하여 질식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지난해 11월 미제국주의자들이 베네수엘라반동들을 사촉하여 공해상에서 꾸바어선 《알레고리》호에 대한 해적행위를 감행케 한것은 바로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놈들의 체계적인 침략정책의 직접적인 산물이며 베네수엘라반동당국이 도발한 고의적인 침략행동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비렬한 침략행위로써 꾸바인민의 승리적전진을 저해하며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미치는 꾸바공화국의 혁명적영향력을 막아보려고 책동하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원조》에 의한 라틴아메리카의 《진보》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저들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이른바 《평화적혁명》론을 류포시키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놈들은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꾸바혁명의 모범을 따라 반미반독재투쟁에 떨쳐나선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말살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꾸바공화국을 교살하며 그 혁명적영향력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준다.

* *

오늘 꾸바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도발 책동을 용감하게 물리치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있다.

서반구에서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영웅적꾸바인민의 투쟁을 전적히 지지하며 꾸바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온갖 파괴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현시기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꾸바혁명은 세계혁명의 유기적인 한 부분이며 특히 라틴아메리카혁명의 결정적인 고리이다. 꾸바혁명을 보위하며 그 승리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꾸바인민들의 의무일뿐만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피압박인민들과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의 국제주의적의무이다.**》
(우와 같은 책, 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꾸바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는것은 꾸바인민의 생사흥망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일뿐만아니라 전반적라틴아메리카혁명발전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다.

꾸바혁명을 보위하는것은 꾸바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는것으로 되는 동시에 서반구의 혁명진지를 공고히 하는것으로 되며 결국 국제로동계급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으로 된다. 꾸바인민이

미제의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면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더욱 강력한 혁명의 기지를 가지게 될것이며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가일층 확대발전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은 꾸바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꾸바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 주변에 있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제가 발붙이고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면 미제의 힘은 그만큼 분산약화될것이며 꾸바를 질식시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몇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면 꾸바는 제국주의의 사면포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현재 꾸바를 포위하고있는 자본주의적 포위를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놓게 되여 결국 꾸바와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에는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되며 세계혁명은 더욱 촉진되게 될것이다.

꾸바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서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과 함께 사회주의나라들 특히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나라들이 꾸바혁명을 적극 지원하는것이 중요하다.

꾸바혁명에 대한 사회주의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꾸바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게 하며 꾸바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봉쇄 정책을 성과적으로 물리칠수 있게 하는것이다. 꾸바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꾸바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더큰 성과를 이룩하게 될 때 사회주의서반구초소는 더욱 강화될것이다. 따라서 꾸바혁명을 보위하고 지원하는것은 꾸바혁명과 라틴아메리카혁명의 리익을 위한 응당한 요구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된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의 코앞에서 사회주의의 붉은 기치를 견결히 고수하고있는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하며 꾸바인민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서반구의 첫 사회주의나라이며 라틴아메리카혁명의 기지인 꾸바공화국을 보위하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꾸바인민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꾸바인민과의 전투적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맺어졌으며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 조선인민과 꾸바인민간의 전투적친선단결은 오늘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확고한것으로 되였으며 그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혁명위업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공동의 원쑤 미제를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꾸바인민과 함께 굳게 손잡고나아갈것이다.

오늘 꾸바인민은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라틴아메리카혁명의 맨 앞장에서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전진하고있다.

피델 까스뜨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의 정확한 령도를 받고있는 꾸바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며 꾸바공화국은 날을 따라 더욱더 륭성발전할것이다.

근로자 제 1 호 (루계 32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9년 1월 10일 발행 • 1969년 1월 15일

ㄱ—83616 값 50전

1:Y

Gunrooja

(workers)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 호

근로자사 1969

근로자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호(324)

차 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

오늘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다섯돐을 맞이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이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한 위대한 고전적문헌이다.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현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있는 긍지와 자부심도 드높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길 결의에 가득차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의 본질적내용과 그 종국적해결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가지는 거대한 혁명적의의가 천재적으로 밝혀져있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실현할데 대한 사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통하고있는 기본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2페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프로레타

리아독재국가의 임무에 대한 전면적이며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 독창적인 혁명리론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주의국가는 혁명을 계속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야 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결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적대계급의 준동이 있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으며 나라의 공업화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 있지 못한 사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4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어떤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명시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국가는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국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며 다른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요새인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수 있다.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은 사회주의기초가 건설된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개조가 끝난 다음에도 농촌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는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력량인 사회주의적농민에 관한 문제이며 사회주의적생산의 2대부문의 하나인 농업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주의국가는 농민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공업뿐만 아니라 농업도 빨리 발전시켜야 하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생활도 향상시켜야 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공산주의사회로 이끌고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관한 리론을 처음으로 창조하시였으며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되는 과학적근거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되는 중요한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농촌의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야만 외부로부터 침습하여오는 반동적부르죠아요소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발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근거지와 지반을 완전히 없앨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계급투쟁의 견지에서 볼 때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농촌의 락후성을 없앤다는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파괴활동에 리용될수 있는 사상적바탕을 없앤다는것을 의미하며 다른편으로는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농촌에서 우리 당의 계급진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책동은 계속되며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를 반대하고 침략하는데서 직접적인 무력간섭

을 하는 한편 사회주의국가들안에 남아있는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반동들을 사촉하여 사회주의국가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꾀하고있다.

특히 우리 나라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있는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으로 남반부의 반동계급과 북반부의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을 사촉하여 파괴암해활동과 사상적침투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으며 북반부에 저들이 발을 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틈을 찾으려고 발악하고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기술, 문화적으로 락후하며 사상의식분야에서 뒤떨어져있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 특히 가장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의식분야에서의 락후성은 부르죠아독소가 침습할수 있는 바탕으로 될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사람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및 물질적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이 물질적조건의 변화에 뒤떨어지는것만큼 협동화가 완성된 다음에도 농민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 특히 소소유자적근성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낡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락후한 사상은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의 파괴활동에 리용될수 있는것이다.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부르죠아독소의 침습을 철저히 막을수 있으며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이 발을 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틈을 없앨수 있다.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는것은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촌에서 우리 당의 계급진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기본담보이다.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기술, 문화, 사상 분야에서 뒤떨어져있을뿐만아니라 그것으로 하여 소유관계에서와 경제관리의 수준에서도 뒤떨어져있다. 소유관계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규정하는 본질적차이이다.

로동계급이 적대계급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야 하며 그리하여 농민을 로동계급의 편에 확고히 서게 하여야 한다.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만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농민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당과 수령을 무조건 옹호보위하며 혁명에 끝까지 충실한 공산주의건설자로 만들수 있다.

농촌의 락후성을 완전히 없애여 농민을 모든 면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고 농촌에서 우리 당의 계급진지를 결정적으로 강화할 때 제국주의자들과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은 발을 붙이고 준동할수 있는 지반과 근거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되는 다른 하나의 중요한 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높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으며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리기주의적요소를 뿌리뽑고 모든 근로자들을 전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하는 집단주의의 길로 확고하게 이끌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을 잘하여 생산력을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야 하며 공업과 농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모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들이 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 잘 느끼도록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전사회와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여야 사회주의는 완전히 승리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반작용을 한다. 생산력은 그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는 생산관계하에서만 빨리 발전한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게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발전시키고 완성시켜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의 하나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사회주의사회에는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두소유형태가 남아있게 된다.

우리 나라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는 개인경리에 비하여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 그것은 우리 나라 농업생산력의 성격과 수준에 적응하며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협동적소유는 전인민적소유와 차이를 가지고있으며 그에 뒤떨어져있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차이의 본질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수준에서의 국영경리에 비한 협동경리의 락후성에 있다. 국영경리에서는 생산수단이 인민경제적범위에서 사회화되여있다면 협동경리에서는 그것이 주어진 집단의 범위내에서만 사회화되여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서의 차이로 하여 협동경리는 토지, 기계설비, 로력 등 농업생산의 제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국영경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져있으며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협동적소유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점차적으로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높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은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전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하는 집단주의의 길로 확고히 이끌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높아지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며 농민들의 로동은 전사회와 전체 인민의 리익과 직접 결부되게 된다. 따라서 어느한 개별적집단이나 개인의 리익보다도 전사회와 전체 인민의 리익이 더욱더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개인의 리익이나 협동농장의 리익보다 나라와 전체 인민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며 그것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게 된다.

이것은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이 농민들속에 남아있는 리기주의적요소를 뿌리빼고 모든 근로자들을 전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하여 높은 자각적열성을 내여 일하게 하는 집단주의의 길로 확고히 이끌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되는 근거를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풍부화하시였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을 마련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사업에서 반드시 세개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수준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강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 부단히 접근시켜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3~34페지)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이 원칙은 농민문제와 농업문제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철저한 혁명적립장의 구현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에 관한 그이의 위대한 사상을 반영하고있다.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을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에까지 이끌고가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숭고한 임무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 로동계급과 도시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도시에 비한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적 락후성,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을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함으로써만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시면서 농촌에서의 계속혁명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그가운데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이다.》(우와 같은 책, 34~35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농업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선진적인 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락후성,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 락후성, 가장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의식분야에서의 락후성을 없애야만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은 반드시 통일적과정으로서 수행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 이렇게 한다면 농민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부르죠아사상, 소부르죠아사상을 뿌리뽑을수 없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 엄연한 객관적현실을 무시하고 사상혁명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결국 원쑤들앞에서 농민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무장해제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움으로써만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지켜낼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상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것은 결코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여도 좋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우와 같은 책, 36페지)

사상혁명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소홀히 하는것도 잘

목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은 결국 전체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그들의 부단히 높아가는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더욱더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자면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수행하여 생산력을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고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강화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데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협동화가 완성된후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며 도시가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3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이 교시는 협동화이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농촌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을 명시하고있다.

사회주의하에서 농촌에 대한 도시의 방조를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책임적과업이다.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만 농촌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기술로 장비할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다.

만약 농촌을 홀시하고 농촌을 도와주지 않으며 농업을 희생으로 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을 희생으로 하여 도시만 꾸린다면 농민들의 열성과 적극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는 과업도 수행할수 없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더욱더 커지게 될것이다.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은 자본주의사상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농촌을 홀시하는 사상을 결정적으로 배격한다.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것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것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만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을 강화하고 농민을 모든 면에서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갈수 있으며 농업은 물론 공업과 전반적 인민경제의 발전도 촉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또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련계를 혁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는 기본방향은 농업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을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0페지)

사회주의하에서는 농업의 경영규모가 커지고 기술장비가 점차 공업의 수준에 가까와지는것이 합법칙적이다. 그러므로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는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에 끊임없이 접근시키는 방향에서 개선되여야 한다.

공업에서의 관리운영방법은 기업적방법이다. 그것은 선진적인 기업관리방법이다. 그렇기때문에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기업관리방법에 접근시킨다는것은 농촌경리도 반드시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기업적방법으로 관리한다는것은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기업소의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한다는것을 의미한다.》(우와 같은 책, 40페지)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모든 경영활동을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는것은 농촌기술혁명을 촉진시키며 토지, 농기계를 비롯한 생산수단들과 로동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장성과 협동경리의 공고화,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강력한 작용을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련계문제를 독창적으로 풀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호상관계,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1～4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두 소유를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이 방침은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할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그것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을 강화하고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 더 잘 보급할수 있게 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켜 점차 전인민적소유에 접근시키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과정을 순조롭게 하며 촉진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농촌지도의 지역적단위 및 거점에 관한 새로운 독창적인 리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과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대상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통일적지도의 단위로 설정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해당지역내의 모든 대상들을 직접 지도하는것이다. 이러한 단위는 그 크기가 알맞춤하여야 하며 그 단위의 범위내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을 비롯한 다른 조건들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거점은 해당단위의 모든 사업을 능히 통일적으로, 종합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간부들과 지도기관들, 물질기술적, 문화적 수단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우와 같은 책, 61페지)

사회주의건설에서 농촌사업은 농촌의 기술, 문화, 사상의 락후성, 농민구성의 복잡성, 농촌경리의 자연적, 계절적 제약성, 중요하게는 농촌의 분산성과 관련하여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촌사업의 대상은 전국 각지에 널려있는 농촌마을들이며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작업장들이며 소집단으로 널려 일하며 살고있는 농민들이다. 농촌경리의 협동화가 완성된 다음에도 농촌의 분산성은 의연히 도시 및 로동자구와 구별되는 농촌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업과 구별되는 농업의 특징으로 남아있으며 장차로도 계속 그러한것으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이와 같이 분산되여있는 농촌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보장하자면 반드시 지방마다 일정한 지역을 지도단위로 하는 거점을 옳게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역적단위 및 거점은 농촌을 모든 면에서 실속있게 지도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있어야 하며 그 크기와 자연지리적조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농촌을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가장 효과있게 지도할수 있으며 지방의 경제문화의 균형적이며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농촌사업의 지역적단위 및 거점으로 되는것은 군이라고 하시면서 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수행을 촉진하는 거점으로 되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실현하는

거점으로 된다.》(우와 같은 책, 6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이며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다.

지역적단위 및 거점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하고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실현하며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의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공산주의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에로의 거족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 로동계급과 도시의 지원밑에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 혁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기술혁명이 매우 빨리 추진되였다. 농촌에서 수리화가 대대적으로 벌어져 정연한 관개체계와 배수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의 농업은 어떤 기후조건에서도 생산을 계속 높일수 있는 튼튼한 생산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농촌경리의 기계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지난해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2만 500대(15마력환산)의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동차와 각종 현대적농기계들이 농민들의 로동을 대신하였으며 지금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거의 모든 농촌마을과 농가에 전기가 들어가고 농촌의 모든 고정작업에 전기동력이 광범히 리용되고있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공급량이 현저히 증가되고 농촌경리의 화학화는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기술혁명과 함께 문화혁명에서도 획기적성과들이 달성되였다. 도시와 함께 농촌에서도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되고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은 급속히 높아졌으며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사, 기수들의 대렬이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농촌마을들에 현대적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문화생활측면에서의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도 훨씬 적어졌다.

농민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촉진되고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농촌에서 우리 당의 계급진지가 훨씬 공고화되였다. 우리 나라 협동농민들은 로동계급과 함께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였으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적극적인 옹호자로, 철저한 집행자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크게 은을 냄으로써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운영은 공업의 수준에 더욱더 접근되여가고있다.

농촌에서 기술, 문화, 사상 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이 개선됨으로써 농업생산은 불리한 기후조건하에서도 해마다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지난해에만 하여도 류례없이 혹심한 가물이 들었으나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모든 부문에 걸쳐 만고대풍을 이룩하였다.

농촌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위대한 결실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

제에 관한 테제》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는 참으로 새로운 위대한 시대, 행복과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였다. 농민들이 기계로 밭을 갈고 낟알을 털며 농약으로 김을 죽이면서 흥겹게 농사짓고 온갖 세금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유족하고 문명하게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농촌,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의 현실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남녘형제들을 구원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수령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자신들을 더욱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면서 모든 힘과 지혜와 열성을 다내여 용감히 싸워나가는것,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 나라 농촌의 약동하는 진면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그 위대한 사상과 생활력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 당들과 지도자들, 진보적인사들 속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높은 찬양과 경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전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리정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으로 천명한 귀중한 맑스-레닌주의문헌》, 《농촌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한 교과서》 등으로 부르면서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을 보고 자기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빛나는 모범》이라고 말하고있다.

생활은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 위대한 문헌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 *

오늘 우리앞에는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이 내놓은 명확한 방침에 따라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힘있게 추진시켜 현대적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기술적락후성, 선진적인 도시에 비한 농촌의 문화적락후성, 가장 혁명적계급인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적락후성을 없애며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계속 강화하며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에로 끊임없이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3페지)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결정적담보로, 기본열쇠로 되는것은 농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농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이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만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으며 어떤 풍파속에서도 동요없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확고히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할수 있다.

농업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운영하며 당원들과 농민들에 대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학습기풍을 세우고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여러가지 때를 씻어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고 모든 당원들과 농민들이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뭉쳐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더욱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의 관철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수리화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확대하며 농촌경리의 현존물질기술적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점차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함으로써 농업로동생산능률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의 공급을 증대하고 과학적인 시비체계를 확립하여 그리용의 효과성을 높이며 1970년안으로 모든 농촌, 모든 농가에 전기가 다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 그리고 생활문화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빨리 추켜세우는 것이다.

락후한 농촌을 그대로 두고는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추켜세울수 있도록 이미 그 전형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와 보살핌에 의하여 장성은 우리 당 제4차대회가 제시한 알곡 및 현금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훌륭한 본보기로 되였다.

모든 군, 모든 협동농장들은 장성을 따라배워야 한다. 경험은 장성의 본을 따며고 애쓰며 투쟁하는데서는 일이 잘 되여나가며 농민들의 생활도 빨리 높아진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장성의 모범이란 집짐승기르기를 갈이 하는 농업을 하는것이다. 집짐승을 많이 기르면 두엄이 많이 나고 논밭에 두엄을 많이 내면 알곡정당수확고가 높아진다. 집짐승을 많이 길러야 알곡을 더 많이 낼수 있으며 알곡수확을 높여야 또한 집짐승을 더 많이 기를수 있다.

축산 및 농업 부문 지도일군들은 산골협동농장들에 머리를 돌리고 종자돼지, 종자양을 대주는 사업을 잘하며 집짐승을 많이 기를수 있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골협동농장들에서의 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당과 정부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농작업과 운반작업의 기계화에 절실히 필요한 소형뜨락또르가 많이 생산된다. 따라서 산골협동농장들에서는 기계화의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바다가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알곡수확을 높이는 동시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 수입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앞선 협동농장들의 대렬에 빨리 따라서게 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이미 확립된 농업지도체계의 위력을 더 잘 발양시켜야 한다.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관료주의, 형식주의적 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

치사업을 앞세움으로써 대중의 힘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야 하며 아래에 내려가 일군들을 도와주고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더욱 계획화하고 조직화하며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조하시였고 리론실천적으로 그 정당성이 확증된 분조관리제를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농촌경리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선하는것과 관련하여 농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지도일군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정치리론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이 높은 수령의 참된 전사로 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면하여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거둔 커다란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올해에 다시한번 500키로그람증수운동을 벌려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부식물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새해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하는것이 중요하다.

모든 논물과 저수지들에 물을 채우며 물을 아껴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올해농사차비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모든 농촌들에서는 물도랑을 쳐 물이 저수지로 들어가게 하고 논판물잡이를 많이 하며 우물파는 운동을 벌리는 동시에 모든 물도랑을 잘 손질하고 구조물도 잘 정비하여 한방울의 물이라도 허실없이 농사에 정히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물을 더 많이 잡고 아껴쓰는 동시에 고인물빼는 장치들을 정비보강하는 등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땅을 정리하고 더 얻어내며 일찍 여물고 소출이 높은 종자를 골라심고 모를 잘 길러 일찍 내며 강냉이모를 길러 심는 면적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

농기계들을 잘 정비하고 잘, 곡괭이를 비롯한 소농기구들을 충분히 마련하며 비료와 농약도 제때에 날라가고 대풍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우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이와 함께 청장년로력을 힘든 일에 돌리고 로력을 분산시키지 말며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는 동시에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키는등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있는 로력을 가지고 올해 농사를 더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올해 농사차비를 각방면에 걸쳐 철저히 함으로써 정당 알곡 500키로그람이상 증수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부식물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은 올해 농사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분수식관수체계를 도입하여 정당남새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호당 100키로그람, 작업반당 2~3톤의 고기를 내는 운동과 매집마다 알내우는 닭과 고기내는 닭을 많이 치는 운동을 벌려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앞에는 하여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길을 따라 끊임없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전체 인민은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더욱더 큰 성과를 달성할것이며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더욱 앞당길것이다.

청산리방법은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과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아홉해가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청산리방법이 보급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사람들의 정신생활에서 일대 전변이 일어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이 보급되여 당, 국가, 경제기관들의 사업에서 전변이 일어났으며 그 일군들의 지도수준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청산리방법이 군중에게 접수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대중적인 사상개조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9페지)

당 및 국가, 경제 기관들에서 혁명적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이 확립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사회주의경제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기본원칙과 요구들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위력을 나타내고있으며 그가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는 비상히 커지고있다.

청산리방법이 관철되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속에서는 낡은 사업작풍과 사업방법이 극복되고 모든 문제를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방법이 서게 되였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산 창조적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가 대중에 대한 교양사업과 밀접히 결합되게 됨으로써 도처에서 혁신의 파도가 낡고 침체한것들을 쓸어버리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전선에서 날에 날마다 위대한 변혁이 일어났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데서도 위대한 힘을 낳았다.

청산리방법이 깊이 들어감에 따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어려운 일에 앞장서며 어떤 난관도 뚫고 수령의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이 확립되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또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더욱 심화발전되였으며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군중자신의 일로 되였다. 사람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고있다.

이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낳은 위대한 결실이며 우리 당 군중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보급되는 전과정은 이 방법이 목전의 혁명과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일뿐아니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새인간으로 키우는 훌륭한 교양방법이라는것을 확증해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힘은 그것이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으로 되여있는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9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 과정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확고히 관철하시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적 사업방법과 혁명적령도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인민에게 충실한 공산주의자로, 능숙한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을 소유한 훌륭한 인민의 교양자로 육성하심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인민을 믿고 인민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항일유격대는 인민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혁명군대로 자라났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웠다.

또한 혁명적인민들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항일유격대원들을 자기의 혈육과 같이 아끼고 그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원호하였으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격대를 도와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항일유격대원들에 대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은 항일유격대가 장구한 기간 강도일제와 싸워이길수 있은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혁명적군중로선의 빛나는 전통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으며 해방후 우리 당이 그것을 계승발전시켜 나아가는 행정에서 얻은 고귀한 리론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일반화이다.

오늘 모든 일군들이 가장 훌륭한 혁명적사업방법이며 군중교양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혁명적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이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의 근본원칙들과 요구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이 방법은 목전의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깊이있게 수행할수 있는 힘있는 사업방법일뿐아니라 일군들의 사상정치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며 군중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99페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혁명적본질과 참다운 위력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철두철미 대중의 무궁무진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급속히 촉진시킨다는데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의식적이며 창조적로동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수백만 대중의 의식적이며 창조적사업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나라의 주인이며 생산의 주인인 근로대중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높은 자각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 발양시킬 때에만 훌륭히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위력한 사업방법으로 되는 동시에 대중교양의 힘있는 방법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혁명화하는 사

업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한다는데 있다.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대중의 힘과 창조적지혜를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대중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는 그들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적지침인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시킬 때에만 최대한으로 발양될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대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자면 우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의 계급적각성과 사상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청산리방법의 기본이며 본질적요구이다.

청산리방법은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을 혁명화하는데서 기본으로 되는 당정책교양을 옳게 진행하고 모든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방법이며 힘있는 교양방법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옳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298~299페지)

웃기관이 아래기관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청산리방법의 원칙은 근로대중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훌륭히 침투시킬수 있게 한다.

청산리방법은 당일군이나 행정일군, 웃기관일군이나 아래기관일군 할것없이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진행하며 일군들자신이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정책의 선전자로, 공산주의교양자로 될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 대중은 당정책을 더잘 파악할수 있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리익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있으며 당면한 혁명과업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도가 명시되여있을뿐아니라 우리 혁명의 먼 장래까지도 예견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 규정되여있다. 당정책의 이와 같은 혁명적본질을 모든 사람들이 제때에 옳게 파악할 때에 혁명과 건설에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높이 발양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수준과 실정에 맞게 당정책을 해석침투시키고 대중을 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산리방법은 군중속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정확히 해석침투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의 의의와 수행방도를 명확히 알고 높은 정치적열성을 발휘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게 한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이 군중을 혁명화함에 있어서 힘있는 교양방법으로 되는것은 모든 일군들이 정치사업을 진행하게 하며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대중자신의 일로, 전군중적운동으로 되게 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전당을 발동시켜야 하며 이 사업을 군중적사업으

로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6페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업은 다 대중이 동원되고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여야만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더우기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고 혁명화하는 사업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종국적으로 뿌리빼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이것은 결코 몇몇 지도일군들의 힘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대중을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야 하며 그들자신의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청산리방법은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것을 근본원칙으로 삼음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사람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동원되게 하며 이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되게 한다.

청산리방법은 웃사람과 아래사람간에, 동지호상간에 서로 배워주고 도와주며 사회가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되여 나아가게 하는 가장 힘있는 공산주의적교양방법이다.

군중교양방법으로서의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력은 또한 이 방법이 대중을 깊이 료해한데 기초하여 교양사업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진행하며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킨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당원들에 대한 교양은 구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대편의 의식수준과 환경, 성격, 취미 등을 다 잘 고려하여 처음에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는것이 좋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497페지)

청산리방법은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사람들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을 다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가장 힘있는 교양방법이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며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옳게 해석침투시키고 당의 정치적목적을 알려주며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교양사업은 결코 일반적호소나 강조만으로 해결할수는 없다. 사람들에 대한 교양은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각오정도, 개성과 취미 등 특성에 맞게 진행할 때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이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다같이 공산주의에로 이끌고나갈수 있게 한다.

청산리방법은 특히 교양사업과 혁명과업을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양의 근본목적은 당원들을 혁명투쟁에로 발동시키기 위한것이기때문에 교양사업은 반드시 당면한 혁명과업과 결부하여야 하며 당원들의 실지행동의 우결함과 결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9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양사업의 근본목적은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혁명과업수행에 조직동원하기 위한것이다. 교양사업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청산리방법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당면한 혁명과업과 교양사업을 밀접히 결부시키는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교양을 혁명적실천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킬데 대한 요구를 가장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실천을 통하여 당정책을 파악할 때

근로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진리를 더 쉽게 알수 있게 되며 그것을 실생활에 훌륭히 구현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그들의 혁명적실천속에서 나타나는 우결함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개조과정을 촉진시킨다. 혁명적실천은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용광로이며 그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훌륭한 학교이다. 사람들은 실제 혁명사업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단련시켜야만 혁명가적기풍을 가지고 새것을 지향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교양의 위력한 무기로 된다.

청산리방법은 또한 일군들자신을 혁명화할수 있게 함으로써 군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일군들이 맑스-레닌주의리론과 당정책에 정통해야 하며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지도일군들자신이 자기의 정치리론수준과 실무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교양할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옳게 받아들일수도 없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대중을 혁명화하자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자신이 우선 철저히 혁명화되고 공산주의적풍모를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한다.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며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지도하고 교양하자면 우선 일군들자신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정책으로 무장하고 혁명화되여야 하며 인민적사업작풍과 공산주의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당정책을 모르고 혁명화되지 못하고서는,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풍과 공산주의적품성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결코 잘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동무들이 당정책을 해설하고 군중을 혁명과업수행에로 동원할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동무들자신이 누구보다도 당정책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동무들자체가 당정책을 잘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옳게 선전할수는 도저히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268페지)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당정책을 해설해주고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할것을 요구하는것만큼 그것은 우선 지도일군들자신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산리방법은 또한 일군들로 하여금 항상 군중속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혁명화를 촉진시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자신을 혁명화하려면 군중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똑똑히 알수 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려는 혁명성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7페지)

군중이 일하며 생활하는 생산현장, 들끓는 현실은 일군들의 혁명화의 훌륭한 학교이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현실에서 자기의 잘못을 더 잘 찾게 되고 대중의 비판과 통제를 받을수 있으며 일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혁명적각오가 생기게 된다.

일군들의 이러한 실천적모범과 공산주의적기풍은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며 그들의 혁명화를 일층 촉진시키게 된다.

청산리방법은 이와 같이 우리 당의 군중로선에 확고히 기초한것으로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자각성을 부단히 높이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가장 훌륭한 사업방법이며 교양방법이다.

*   *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확증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데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모든 일군들이 청산리방법의 본질과 우리 당 군중로선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는것이 중요하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혁명적본질과 진수를 깊이 파악할 때에만 대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성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옳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일군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부들은 우리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지휘성원들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일군들이 우선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청산리방법을 옳게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만 청산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군중속에 들어가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해석침투시킬수 있고 당정책관철에로 군중을 조직동원할수 있다.

또한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투사로 되여야만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자기자신만이 아니라 군중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잘 관철하여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고 그들을 혁명화하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운동입니다. 그것은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과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킨 훌륭한 공산주의의 학교입니다.》(우와 같은 책, 115페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청산리방법의 기본요구를 가장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그러므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청산리방법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각급 당위원회의 역할을 일층 높이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단체들은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교양하며 대중속에 당정책을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는것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26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우선 일군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속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석침투시키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열렬한 공산주의투사로 키워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사회의 혁명화를 촉진하며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겨나아갈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하신 선전선동사업의 빛나는 전통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자

단행본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활동》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선전선동사업의 고귀한 경험들을 종합체계화하여 단행본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활동》을 출판하였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항일무장투쟁의 천재적조직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계승발전시켜야 할 빛나는 혁명전통을 몸소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선전선동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이에 항상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고귀한 밑천이며 불후의 혁명적재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선전선동사업의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이 책은 우리 당 사상사업부문에서 일하는 일군들뿐만아니라 전체 당원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선전선동사업의 고귀한 경험을 이어받아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훌륭한 교과서로 될것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편집되였다.

첫부분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의 내용에 대한 자료가 수록되여있으며 둘째부분에는 선전선동의 형식과 방법에 대한 자료가 편집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선전선동활동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매 시기 조선혁명의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선전선동사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선전사업의 방향과 내용은 우리의 혁명임무로부터 출발되는 제 과업들의 해결에 전적으로 복종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사업의 기본내용을 이룬것은 이 책의 첫부분에서 보는바와 같이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군중들을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원칙적단결과 혁명적동지애의 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을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군중들을 교양하시였다.

주체를 철저히 세우느냐 못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였다.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만 혁명을 함에 있어서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할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풀어나갈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주체를 확립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그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무장투쟁의 승리의 길을 개척하며 전반적 조선인민의 혁명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하나하나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만 하였던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그것은 또한 당시 우리 나라 혁명운동에 끼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해독성과도 관련되여있었다.

조선혁명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1920년대에만 해독적후과를 끼친것이 아니라 1930년대에도 혁명운동의 발전에 계속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더우기 우리 혁명대렬내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부식조장되였다.

이 시기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자체의 혁명력량을 믿지 않았으며 큰 나라만 쳐다보고 그에 맹종맹동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옳건 옳지 않건, 그것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건 맞지 않건 고려없이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무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에 대한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자립의 립장을 잃어버리고 남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자기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며 남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채로 삼켜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배격하면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교양하시였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서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으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혁명로선과 정책을 작성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남의 힘을 믿고 자기 혁명을 하겠다고 추호도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혁명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항일무장투쟁은 바로 여기에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대사변을 떳떳이 맞이할수 있으며 해방된 조국의 민주건설도 우리의 손으로 할수 있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시였다.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이 없는 조건하에서 항일무장투쟁에 필요한 크고작은 모든것을 오직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였던 간고한 조건하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배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하였다.

자력갱생, 이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완수하려는 혁명적립장이며 자주적립장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없으면 자기의 힘을 믿지 않게 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져야만 그어떤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고 투쟁을 계속할수 있으며 혁명도상에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들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혁명투쟁을 최후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남의 힘에 의존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모든것을 해나가자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식량도 가져올데가 없소. 그러므로 모든것을 제 힘으로 해결해야 하오.

그래야만 바로 진정한 혁명가이며, 공산주의자라고 할수 있소. 공산주의자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줄 아는 사람이요. 공산주의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혁명이 요구한다면 필요한 모든것을 제때에 만들줄 알아야 하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것을 공산주의자의 본분으로 여기시였다.

공산주의자는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가들이며 창조자들인것만큼 필요한것은 자체로 찾아내고 창조해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의 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무기를 자체로 해결하도록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을 강화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적들로부터 빼앗아 무장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무장해야 한다. 원쑤를 증오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손에 무장을 들고싶어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혁명의 요구에 따라 창과 칼로부터 이렇게 위력한 폭탄까지 만들었다.

빈주먹으로 무장을 만들어낸 우리의 혁명적의지와 전개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원들은 맨주먹으로 목숨을 내걸고 자기가 잡을 무기는 자신이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싸웠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을 무장하는데서뿐만아니라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애로와 난관을 뚫고 자체의 힘으로 무기와 옷을 만든데서도 표현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조선혁명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할것을 항상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그 누구도 조선혁명을 대신할수 없다는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조직령도하시였으며 오직 인민을 믿고 그에 튼튼히 의거한다면 적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양에 의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되였다.

그리하여 15성상에 걸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그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중첩된 난관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과 반일군중들을 필승의 신념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으로,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교양하시였다.

혁명이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승리의 신심으로 무장하는것이다.

혁명하는 사람이 사회발전의 법칙,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인식하여야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전체 유격대원들은 자체의 사상피양을 일층 강화하여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조국광복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심을 굳게 다져야 한다.

우리는 낡은것은 소멸되고 새것은 승리하며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사회주의는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고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그이의 확고부동한 혁명승리의 신심은 혁명정세와 조선혁명의 전도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일제는 멸망하고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통찰하고계셨다.

일제는 낡고 부패한 세력이다. 낡은 일제는 종국적으로 멸망하고야 말며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것이였다.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온갖 난관과 시련을 극복타개하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시였다.

곤난을 극복하는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정신적풍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이란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더우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무장한 흉악무도한 일제침략군을 반대하여 싸우는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곤난이 많을것이다. 그러나 그 곤난은 모두다 극복할수 있는것들이다. 그것은 우리자신이 사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였고 어떻게 싸우는가에 달려있다.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깊은 산골에

있거나 먼 바다속의 섬에 있거나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사업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혁명이란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간고한 투쟁이다.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용기를 잃고 비관하거나 우울해서는 혁명가로 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원들에게 어떤 깊은 산중이거나 바다속의 섬에 있어도 혁명을 위하여 실망을 모르고 끝까지 싸워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최후까지 웃는자라야 진정한 승리자라는것과 같이 우리들은 혁명적량심을 소유한자들로서 우리들의 고상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후까지 혁명적락관주의정신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아로새긴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떤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적들의 포위속에 있거나 천고밀림속에 홀로 남는 역경속에서도, 철창속에서도, 단두대에서도 실망을 몰랐으며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끝까지 싸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과 반일군중들을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의 사상으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에게 천대받고 억압, 착취당하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인 유격대원들을 어떤 환경속에서도 계급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할줄 아는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전체 유격대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항상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충만되여 있어야 한다.… 항상 원쑤를 때려부실 생각부터 하여야 하며 적에 대한 높은 적개심을 가지고 그와의 투쟁에 언제나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이것은 유격대원들의 가장 중요한 기질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싸움의 나날에 그 어느 한시도 일제에게 짓밟힌 조국산천과 빈궁과 무권리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민을 잊으신 때가 없었으며 유격대원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잊지 않도록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끊임없이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조선은 문자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이다. 산도 좋고 물도 맑다. 어느곳, 어디서나 끓인 물이 필요되지 않는다. 비옥한 토지에서는 기름진 오곡을 풍성하게 거둘수 있게 하며 동서해안의 무진장한 가지가지의 수산물과 가는곳마다에 매장된 금, 은, 동, 철, 석탄 등 모든 귀중한 자연부원들은 우리 인민들을 모두다 잘 살수 있게 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혁명을 위한 장구한 투쟁행정에서 그처럼 간고한 나날에도 언제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이를 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과 련결시켜 적들과의 투쟁을 진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기치를 높이 들도록 유격대원들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이밖에도 이 책의 선전선동사업내용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들을 원칙적인 단결과 혁명적동지애의 정신으로, 조직생활에 충실하며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신 모범을 보게 된다.

또한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정신으로 유격대원들을 교양하신 사실도 보게 된다.

이 책의 첫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는 다른 하나는 유격대원들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킨 사실이다.

항일유격대의 지휘성원들과 정치일군들은 대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였다.

혁명에서 정치적수령이 없이는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혁명투쟁에서 령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탁월한 지도자는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며 정확한 투쟁구호를 제시하여 대중을 고무하고 묶어세우며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킵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야만 혁명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선혁명을 령도하고계시는 사령부는 조선혁명의 수뇌부이며 참모부이다.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을 위함이 곧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보장하는 길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된 공산주의자들의 대오인 항일유격대에서는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것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도록 대원들을 교양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사령부의 안전을 도모하는것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신조였으며 행동의 준칙이였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오중흡동지, 김정숙동지 등 김일성동지의 참된 전사들인 유격대원들은 사령부의 안전을 위함이 곧 혁명의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었기때문에 언제나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수호하였다.

모든 유격대원들은 오직 한마음—어떻게 하면 위대한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더 안전하게 보위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품성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할 품성이다.

항일유격대에서는 대원들에게 김일성동지께서 주시는 혁명과업에 대하여 어렵고 쉬운것을 따지거나 환경조건의 리롭고 불리한것을 타산하기전에 무조건 접수하고 그 해결방도를 찾아내며 스스로 어려운 임무를 맡아나서는것이 진정한 혁명가의 립장이며 태도이라는것을 철저히 인식시켰다.

가렬처절한 원쑤와의 싸움에서도 김일성동지의 참된 전사인 오중흡동지는 오직 한마음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끝까지 관철해내자는 굳은 의지로 대오를 힘있게 이끌어나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다.

1940년 겨울, 조선혁명의 심장이며, 뇌수이며 참모부인 사령부와 일시 떨어지게 된 항일유격대의 한 소부대는 한겨울동안 사령부를 찾아 동만각지를 헤매게 되였을 때에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찾으려는 한가지 념원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으며 밤에 낮을 이어 걷고 또 걸었다.

이렇게 하여 유격대원들은 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만난을 이겨내고 사령부를 끝내 찾아갔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의 생애를 끝마치는 최후순간까지 어머니조국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은적이 없다.

항일유격대에서는 대원들을 항상 사령관동지의 의지와 신념으로 살며 원쑤와 싸워이기도록 교양하였다.

이처럼 항일유격대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에 따라 선전선동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매 시기 혁명발전에 따르는 선전선동사업은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위력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선전선동사업의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들을 몸소 창조하시였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선전선동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매 시기 혁명발전에 따라 선전선동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형식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많은 혁명투쟁경험과 함께 군중속에서의 선전선동사업의 고귀한 경험과 다양한 방법들이 창조되였다.

이 모든 경험과 방법들은 선전선동사업의 매우 귀중한 전통의 하나이다.

이 책의 둘째부분에는 선전선동사업의 형식과 방법들이 종합되고 체계화되여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선전선동사업의 형식과 방법들은 기존형식과 교식적인 《틀》에 구애됨이 없이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인 실정과 특성에 맞게 선전선동사업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조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것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선전선동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고 진행하였으며 유격대원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할것을 가르치시였다:

《…우리들의 선전선동은 주로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

…우선 그들(청년군중)의 절박한 문제를 미리 옳게 파악하고 그 문제해결의 구체적방책을 강구하여주며 좌담회, 연극, 혁명가요, 강연, 체육회, 문맹퇴치사업, 선전포스터, 격문 등 각종 형식으로써 그들의 비위에 알맞게 각양한 방법을 취하여 사업해야 한다.…》

또한 그이께서는 《구두선전과 선전문, 직판물, 신문, 주간간행물 혹은 월간잡지 등은 명료하면서도 그 내용이 풍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사업은 구두선전, 직판물선전, 혁명적출판물을 통한 선전, 혁명적문학예술활동을 통한 선전 등 실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되였다.

당시 선전선동사업은 유격대내, 혁명조직내 선전과 혁명조직밖의 선전으로 엄격히 구별하여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내정치교양사업

과 군사학습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시였으며 친히 학습의 모범을 보여주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맑스-레닌주의를 부단히 학습하지 않는다면 과오를 범할수 있다. 우리가 언제 승리할지 모른다는 식으로 암둔해질수 있다. 례를 들어보자. 우리가 큰 산을 넘어가는데 모든 곤난을 무릅쓰고 령마루에 올라서면 앞이 탁 티여 어디나 잘 바라볼수 있으며 자기 갈길을 정확히 찾아낼수 있다. 그러나 힘들다 하여 못올라간 사람은 앞이 꽉 막히고 험한 덤불만 보이니 도로 내려갈수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사업에서 물러서는것을 의미한다.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하면 마치 령마루에 올라선것처럼 모든것을 잘 볼수 있고 자기 갈길을 똑바로 찾아낼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산기슭에서 헤매는것처럼 앞이 막혀서 옳은 길을 찾아낼수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어떤 곤난속에서도 항상 맑스-레닌주의를 열심히 학습함으로써 우리 혁명승리의 전망을 정확히 내다보아야 한다.…》

그이께서는 정세가 어려워지고 투쟁이 복잡해질수록 대원들의 학습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시면서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학습을 유격대원들의 수준과 실정에 맞게 자습반, 식자반 등으로 나누어 학습반을 조직하시였으며 학습기간과 학습시간도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하나하나 정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몸소 학습을 지도까지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국광복회선언》, 《조국광복회10대강령》 등 학습교재를 친히 집필하시였고 그것을 소책자로 만들어 대원들에게 주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학습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도하시였다.

강의를 하고 토론과 론쟁하는 방법, 개별적으로 담당하여 가르쳐주고 읽게 워주는 방법, 글을 씌워서 배운것을 굳히는 방법, 정치시사내용을 노래로 지어부르는사이에 내용을 자연히 외우게 하는 방법, 우등불가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리해시키는 방법 등 여러가지 창발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게끔 지도하시였다.

또한 그이께서는 유격대원들의 학습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지도하시였으며 대원들속에서 혁명적인 학풍을 세우는데 특별히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유격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친히 창조하신 독창적인 유격전술과 군사지식으로 무장시키는데도 각별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기 무기에 정통한다는것은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된다는것을 의미하며 유격전술의 학습은 곧 백전백승의 전투조직을 감당할수 있는 유능한 군사지휘간부들로 자체를 단련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격술에 대하여 직접 강의도 하시였으며 지형과 거리판정법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전투경험을 놓고 분석하면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중정치선동사업에 특별히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항일빨찌산은 단지 적과 싸우는 전사일뿐만아니라 인민을 교양하고 선동하는 선전자가 되여야 하며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조직

자가 되여야 한다.…›

탁월한 선전선동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몸소 대중정치선동사업에서 항상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은 모두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자로, 조직동원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선전선동사업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의 선전선동사업이 대중의 심장을 파악하자면 어떻게 되여야 할것인가? 우선 선전일군들자신이 선전대상의 실정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대상에 대한 료해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선전선동사업이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면할수 없게 되며 또 그러한 선전선동사업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것이다.›

선전선동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선전하는 폐단이 없어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선전선동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면세계와 요구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 대내에서도 대원들의 성격이 어떠하며 그가 무엇을 제일 즐겨하고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가, 신경질적인가, 느린 사람인가 등 매 개인의 속까지 꿰뚫어볼줄 알아야 한다. 여러모로 상대방을 옳게 료해하고 그가 가장 아파하는 점, 그의 절박한 요구를 옳게 포착하여 그것을 제때에 해결해줄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학생 심지어 소년, 어린이들의 심정까지도 꿰뚫어볼줄 아는 심리학자로 되여야 한다. 그렇게 되여야 진정한 공산주의자로서 능히 대중을 조직동원할수 있는 훌륭한 혁명간부로 될수 있다.…›

구두선전—이는 선전선동사업에서 강유력한 선전수단의 하나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오늘과 같이 여러가지 선전수단을 가지고 활동할수 없었다.

연설(강연), 해설담화 등은 매일과 같이 전투와 행군이 진행되는 환경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가장 많이 적용된 구두선전의 중요한 형식들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구두선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선전선동사업은 군중이 알기 쉬운 말로 하여야 한다.

그이께서는 항상 소박하고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말로 군중들을 교양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 직접 출연하신 선전선동은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에게 천만배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무기였다.

그이께서는 선전하는 사람들이 선전한다고 하여 《연설쟁이》가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선전을 한다고 하여 누가 가르쳐준 말이나 적어들고 나가서 류창하게 내려엮는 <연설쟁이>가 되여서는 안된다.

우리가 선전하고 교양하는것은 우리자신의 <박식>을 자랑하거나 뽐내자는것이 아니다.›

또한 그이께서는 구두선전은 군중이 잘 알아들을수 있는 쉬운 말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공부도 하지 못한 농촌청년들에게 하루종일 부르죠아사회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쟁취하며 쏘베트를 창건한다느니 국제주의가 어떻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강연을 들은 청년들은 무슨 내용인지 리해하지 못할뿐만아니라 오히려 〈그 청년 참 미친사람이로군! 조선말도 몰라서 외국말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혁명을 한다고 야단인가! 온종일 들었대야 조선독립에 대한 소리는 한마디도 없군…〉 이렇게 말할것이다.

이와 같이 현실을 고려함이 없이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웅변〉으로 연설한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말공부로 되고 말것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에서는 각종 모임을 통한 선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항일유격대는 기념경축대회, 축기전달식, 축하회, 환영모임, 련환대회, 군중대회, 추도모임 등 각종 기회를 다 리용하여 선전선동사업을 기동성있게 전개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직관선전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몸소 지도까지 해주시였다.

직관선전은 간명한 언어와 조형예술형식을 통하여 군중을 교양하는 대중정치사업의 위력한 수단의 하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많이 적용된 형식은 벽보, 속보, 표어, 포스터, 격문, 호소문, 편지 등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직관선전자료들이 인민들에게 리해하기 쉽고 또 가슴을 치는것이라야 한다고 항상 가르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삐라, 격문, 포스터 등 각종 선전자료들을 가지고다니다가 대상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인민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직관선전물들을 소중히 품속깊이 간직하였다.

혁명적출판물을 통한 선전—이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수단들 가운데서 무엇보다 위력한 무기였으며 수단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출판물에 대하여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서광》, 《종소리》, 《철혈》 등의 신문과 잡지 《3.1월간》, 각종 소책자 등 혁명적출판물이 발간되였으며 이것들은 항일무장투쟁의 강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담당수행하였다.

혁명적출판물의 창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전투의 나날에도 손수 혁명적출판물발행을 지도하셨을뿐만아니라 천재적인 로작들을 집필하시였다.

그이께서 집필하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조국광복회10대강령》 등 수많은 로작들은 신문과 잡지들에만 실린것이 아니라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였다.

이 로작들에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 및 그것을 실현할데 대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천명되여있었다.

이 로작들은 항일유격대원들과 반일군중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귀중한 사상적량식으로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발간된 혁명적출판물들은 유격대원들과 반일군중들을 김일성동지의 전사로,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아들딸로 키웠으며 항일무장투쟁의 강유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였다.

혁명적예술—이것은 대중정치선동사업의 강유력한 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적예술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동무들은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하오.…》

또한 그이께서는 혁명적예술이 인민을 교양하는데 복종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유희대공연은 무엇보다도 군대와 인민들을 고무하고 교양하는데 복종되도록 되여야 하오. 동무들의 노래를 듣고 춤을 보고나면 전사들은 원쑤들을 칠 전투사기가 오르고 인민들은 어떠한 곤난속에서도 동요와 락망을 모르고 락천적으로 일하며 적들의 〈대토벌〉로부터 용감히 근거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분발하도록 되여야 하오.…》

혁명적예술활동은 혁명적연극, 유희, 문화오락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였으며 그것은 선전선동사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였다. 혁명적예술은 유격대와 인민들에게 투쟁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그이께서는 손수 노래도 작사작곡하시였으며 《단심줄》을 비롯한 각본도 창작하여주시였으며 직접 배워주시였던것이다.

이 책의 둘째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는 다른 하나는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각계각층 군중속에서의 정치사업경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혁명은 혼자서 할수 없으며 혁명을 하자면 군중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에 묶어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대오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열의를 북돋아주는 정치사업이야말로 혁명사업에서 첫공정으로 되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로 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원들을 이런 사상으로 가르치시였을뿐만아니라 로동자, 농민, 청년, 녀성, 로인 등 각계각층 군중속에서 정치사업의 모범을 통하여 혁명적사업방법을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이 책에는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적통치구역에서의 지하공작, 반일부대와의 공작, 적군와해공작 등에 대한 경험들도 종합체계화하여 수록되여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선전선동사업의 고귀한 경험은 현시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것이다.

우리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사업의 빛나는 전통과 그 경험을 본받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선전선동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전사로 교양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선전선동사업의 빛나는 전통과 고귀한 경험을 따라배우자.

국가활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의 정확한 결합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을 명백히 천명하시고 사회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더욱 높이며 국가활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켜 나갈데 대하여 정연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력사적사명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을 교양개조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계급투쟁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인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결정적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진압하고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이 두 측면을 옳게 결합하여나간다는것은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과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옳게 결합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7페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두 측면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두 측면을 옳게 결합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적문제의 하나로 된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두 측면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해답을 기다리는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여있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완벽하게 해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류례없이 첨예한 계급투쟁을 직접 조직지도하신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경험에 대한 명철한 분석과 심오한 맑스-레닌주의적혁명리론에 근거하시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부단히 강화하고 그 두 측면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밝혀주시였다. 그리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현력사적조건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그의 두 측면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이 튼튼히 의거해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에서 기본문제는 정권문제입니다. 프로레타리아트가 혁명에서 정권을 잡은 후에는 반드시 독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무엇보다 먼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여 착취계급의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박탈해야 하며 계급적 압박과 착취 및 온갖 사회적불평등의 근원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착취자들로부터 생산수단을 수탈함으로써 그들을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독재는 착취계급을 계급으로서 청산하기 위하여서만 필요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이후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준동을 진압하며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암해책동을 소탕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하여 계속 강화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이 주권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한것은 그가 쟁취한 위대한 승리이며 그의 력사적위업의 실현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계급투쟁이 끝났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진압의 기능이 필요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착취계급은 계급으로서 완전히 청산되며 그의 사회경제적지반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 잔여분자들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자기들의 옛지위를 되찾기 위하여 파괴암해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한다. 이것은 착취계급의 변할수 없는 계급적본성과 관련된 필연적인 현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이 적대적요소들은 그자체로서는 그리 큰것이 아니지만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리용물로, 앞잡이로 되고있기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파괴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국가를 전복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무장간섭에 매달리는 한편,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한다.

따라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한 다음에도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다고 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의 필연성을 부인하거나 사회주의국가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진압의 기능을 약화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해방후 나라의 북반부에 인민주권을 수립한 이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계급적원쑤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적대분자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독재를 가하도록 하여왔다.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되여있으며 미제의 사촉하에 국내반동의 발악이 극심한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게 된 우리 당앞에는 인민정권의 독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절실한 요구가 제기되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내외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의 전취물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튼튼히 보위하였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시기에 맞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구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을 더욱더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원쑤들에 대하여 항상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며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며 반혁명과의 투쟁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끊임없이 강력히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원쑤들이 의거할

수 있는 지반들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철저한 독재는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 결정적담보의 하나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지주, 자본가 등 로동계급의 원쑤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이 두 측면은 뗄수 없는 련관을 이루고있다. 사회주의국가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을 영원히 청산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할뿐만아니라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여주며 그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방조를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9페지)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만 그들이 주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기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주권을 마음껏 행사할수 있다.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것은 또한 그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목적도 결국은 모든 인민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그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인민들을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것도 구경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정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그들간의 협조와 단결이 강화되도록 할 때 최대한으로 보장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강화되여야만 그들의 리익이 철저히 수호될수 있으며 혁명위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갈수 있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은 그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진압하는 한편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주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자기의 소질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고있다. 모든 물질문화적부가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짐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이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전체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해서도, 아들딸들을 공부시키고 병이 나면 치료받는데 대해서도 근심걱정을 모르고 세상에서 부럼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을뿐만아니라 사상혁명이 강화되여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인민대중의 단결과 협조가 비상히 강화되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은 모

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된다.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두 측면,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와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는 서로 뗄수 없는 련관을 이루고있다.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철저한 독재는 광범한 근로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시하기 위한 근본전제이며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에게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것은 계급적원쑤들의 음모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된다. 그러므로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그 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행정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두 측면을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자기활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동시에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되게 하고 그들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하는것이 곧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직 그렇게 하여야만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진압, 소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고 혁명대오를 철석같이 꾸리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활동에서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다 반대하면서 독재와 민주주의,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하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우와 같은 책, 49~50페지)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는 전과정에 걸쳐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에 확고히 립각하여 정확한 계급로선과 혁명적군중로선을 세우고 그것을 통일적인 과정속에서 일관하게 관철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보고에서 적대분자들을 진압하고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단결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이루어진 성과와 경험을 개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에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주되는 대상을 똑똑히 규정하였으며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고립시키고 혁명의 편에 끌수 있는 모든 계층들을 대담하게 포섭하고 적극적으로 교양개조하는 능동적인 방침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당의 정책은 각계각층 군중의 열성과 적극성을 더욱 높였으며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65페지)

우리 당은 계급로선에 립각하여 적아를 엄격히 구분하고 투쟁대상과 단결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였으며 계급적원쑤들을 고립시키고 진압하는 과정이 동시에 전체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높은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과정으로, 각계각층의 군중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반석같이 단결시키는 과정으로 되게 하였다.

계급적원쑤들을 철저히 쓸어버리는 동시에 인민대중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것은 우리 당의 활동에서 시종일관 최고원칙으로 되여왔으며 계급투쟁의 과정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임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일대 앙양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령도의 기본요구로 되였으며 또 되고있다.

국가활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전 행정에서 참으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국가의 프로레

타리아독재기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진행됨으로써 대내외원쑤들의 각 방면에 걸치는 악랄한 준동은 걸음마다 파탄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는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계급적원쑤들의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발악도 치명적타격을 면할수 없게 되였으며 원쑤들은 그 어디에서도 머리를 들수 없게 되였다.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독재가 가해지는 동시에 인민대중에 대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시됨으로써 인민대중의 강철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이 이루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통일,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그들의 공통된 지향과 열의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통일과 지향은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무한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참다운 권리와 자유, 인간의 높은 존엄 그리고 가장 행복한 생활과 희망찬 미래를 마련하여주신 당과 수령께 전적으로 자기들의 운명을 의탁하고있으며 당과 수령께서 제시하시는 정책과 로선을 자기들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고있다.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무자비한 독재에 기초한 근로대중의 강철같은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천리마운동과 같은 전례없는 대중적혁신운동을 일으킬수 있었으며 불과 20년동안에 락후하고 가난하던 우리 조국을 자립적민족경제토대와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 그리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조성되여있으며 주민구성이 복잡한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그렇듯 철저히 진압하고 인민대중의 통일을 강화하였으며 거기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한 사실은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킨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가장 정당하였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여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국가가 자기 활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키지 못하고 그 하나를 일면적으로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경우에는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된다는것을 잊어버리고 계급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며 그것을 과장한다면 좌경적오유를 범하게 될것입니다. …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적대적요소가 있고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된다는것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자유〉를 준다면 그것은 엄중한 우경적오유를 범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만약 사회주의국가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진압의 측면 즉 계급투쟁의 일면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절대화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들을 적대분자와 같이 취급할수 있으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사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다. 이것은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릴수 없고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사회주의국가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약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순수민주주의》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엄중한 위험에 밀어넣을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적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계급적성격을 띤다. 인류력사에는 계급성을 떠난 국가가 없었던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성을 떠난 민주주의란 있은 일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에는 다만 부르죠아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가 있을뿐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극소수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독재가 그것과 결합되여있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절대다수 인민대중에 대한 민주주의이며 착취자들에 대한 엄격한 독재가 그것과 결합되여있다.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는 최고형태의 민주주의이며 그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란 있을수 없다. 오직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야만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할수 있으며 그것이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철저히 수호될수 있다.

《순수민주주의》, 《완전한 자유》란 부르죠아지들에 의하여 날조된, 부르죠아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물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인민들에게 영원히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처지, 부르죠아지들을 위하여 죽도록 일하는 노예적처지를 참고견딜것을 강요하는 극악한 부르죠아독재의 변종이다.

계급적원쑤들이 발악적으로 준동하고 있으며 계급투쟁이 계속되고있는 사회주의하에서 독재를 떠난 민주주의, 《순수민주주의》를 주장하는것은 실제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참다운 민주주의를 혹심하게 침해, 유린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노예적처지를 강요하는것이나 다름없으며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용납할수 없는 반혁명적배신행동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국제자본의 포위속에서 로동계급이 주권을 잡은 개별적나라들은 전세계적규모에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을 면할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순수민주주의》를 실시하여 계급적원쑤들에게 《자유》를 준다면 자본주의복구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리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국가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와의 계급선을 모호하게 만들며 민주주의의 계급적성격을 부인하는 현상과 태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사소한것이라할지라도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혁명적인것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야 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가활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은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극복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적방침이다. 그것은 계급적원쑤들을 끝까지 철저히 소멸하고 인민대중에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마련하여주시려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하고있다. 이 방침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리론, 실천적 무기이다.

* *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고 거대한 생활력이 발휘된, 국가활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인민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공화국정권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내외원쑤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쳐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적대분자들을 진압하는 동시에 사회의 모든 계층들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며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50페지)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서 승리가 이룩되면 될수록 대내외원쑤들의 반항은 필사적인 것으로 된다.

우리는 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강화하며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하여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과 그와 결탁하여 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으로 갖은 수단을 다하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분쇄함으로써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그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고 그 대렬을 더 잘 꾸리여 그의 령도적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그들에게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는것이다. 당 및 국가 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꾸준히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변천되는 현실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고 모든 사업에서 항상 엄격한 계급적선을 세워야 하며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그러하였던것처럼 온갖 좌우경적편향을 철저히 경계하고 독재와 민주주의를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 잘 관철함으로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더욱 빛나게 구현하여야 하며 전국적판도에서 내외의 계급적원쑤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4천만 조선인민이 통일된 조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자위로선을 받들고 일당백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지 병 학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스물한해가 지났다.

조선인민군은 창건된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여왔으며 승리와 영광에 빛나는 전투적길을 걸어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찬란한 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자기의 영웅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써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혁명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으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우리 당의 혁명력사에 찬란한 업적을 기록하여놓았습니다.》(《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2페지)

인민군대는 창건 첫날부터 내외원쑤들의 침략책동과 파괴암해책동을 분쇄하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적민주기지와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의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전후시기 인민군대는 원쑤들의 거듭되는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왔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굳건히 보위하였다.

인민군대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전투적길을 걸어오면서 불멸의 위훈과 업적을 쌓을수 있었던것은 그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그이의 탁월한 령도와 육친적배려를 받으며 육성강화되였기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군대의 가장 큰 자랑이 있으며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성스러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할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어떠한 원쑤들의 침범도 능히 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인민의 군대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86페지)

조선인민군의 창건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위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권을 잡은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수행할뿐만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자위적인 국방력을 갖추지 않고는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없으며 혁명을 전진시킬수도 없다.

특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이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국내반동세력을 규합하여 우리의 혁명위업을 침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자위적인 무력을 창설강화하

는것은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국내외에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의 전도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북반부를 혁명의 튼튼한 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민주기지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인민군을 제때에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면서 그가 항일무장투쟁의 직접적계승자이라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민주조선의 정규군대로서 비록 오늘 창건되기는 하지마는 실지로는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진 군대이며 항일유격투쟁의 혁명전통과 고귀한 투쟁경험과 불굴의 애국정신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군대입니다.》(우와 같은 책, 190페지)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백절불굴의 공산주의적혁명정신, 고귀한 투쟁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 등 빛나는 혁명전통을 전면적으로 이어받았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되였다.

인민군대의 비할바없는 위력은 이렇게 그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다는데 있다.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속에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군사전략전술을 체득한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직된 인민군대는 20여년이 지난 오늘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가한 오랜 혁명투사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수만명의 혁명적골간을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골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당의 귀중한 핵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매우 고귀한 밑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 무한히 충실하며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혁명적골간대오로 꾸며진 우리의 인민군대는 그 어떤 강적과도 싸워이길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이다.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혁명적골간이 많이 자라난것과 함께 전반적대렬구성에서도 질적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인민군대렬은 혁명과 건설의 장엄한 투쟁의 환경속에서 자랐으며 우리 당의 정확한 교육정책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으로 교양되고 상당한 기술문화수준을 소유한 새세대들로 꾸며졌으며 또 부단히 보충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이 높은 최신군사기술을 소유한 간부군대로 빨리 자랄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무력건설의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군대에 대한 당적령도를 인민군건설의 확고한 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

우리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령도를 받으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위업을 무장으로 옹호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라는데 또한 그 위력이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선로동당앞에 충실하고 오직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길로 전진하며 당이 쟁취한 혁명의 열매를 보위하며 혁명적방법으로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맑스-레닌주의적혁명군대입니다. 여기에는 조그마한 동요도 있을수 없으며 이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74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창건 첫날부터 그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전후에는 군대내 당위원회제도를 내오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심으로써 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일층 강화

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군대로서의 인민군대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고 그를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강철같은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였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충성을 다하는 혁명전사로 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령도를 받는 인민군대는 언제나 당의 혁명위업에 충실하였으며 내외의 원쑤들이 우리 당을 반대해나선 복잡한 시기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였다.

우리 인민군내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당에 도전해나섰을 때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원쑤들에게 결정적반격을 가하였으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된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혁명을 배반하고 미제에 대한 환상을 퍼뜨릴 때에도 《조선인민의 칠천지 원쑤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들의 군사적도발책동에 단호한 징벌을 가하였으며 우리 당의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는 전행정에서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높이 발양시키며 군대와 인민들간의 혈연적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인민이 낳은 군대이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대이며 오직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데서만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191페지)

인민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되였으며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다.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의 튼튼한 담보는 인민의 적극적인 사랑과 원호를 받고있다는데 있다. 군대에 대한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호, 군대와 인민간의 정치도덕적통일과 단결, 이것은 그 어떠한 자본주의군대도 가질수 없는 우리 인민군대의 특성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은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그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항상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으며 인민들은 유격대원들을 혈육과 같이 대하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들을 적극 원호하였다.

항일유격대가 주권도 공고한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었던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100만대군을 상대로 15성상이나 싸워이길수 있었던것은 그들이 인민에 철저히 의거하여 싸웠으며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았기때문이다.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높이 발양되였다.

인민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고 전선과 후방이 하나의 전투대오로 굳게 결속되여 싸움으로써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위대한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두터운 사랑과 지지와 원호속에서 아무러한 근심걱정없이 자기의 군사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고있으며 부대의 전투준비를 완성하고있다.

우리는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함으로써 일단유사시에는 군인들과 인민들이 진정한 혁명적동지

로서 하나로 굳게 뭉쳐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지키며 우리의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낼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은 부단히 장성강화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매시기 매계단마다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군대로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나라의 전반적사업을 령도하시는 바쁘신가운데서도 인민군 각 군종, 병종부대들을 수시로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교육교양으로부터 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이에 일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혁명군대이며 따라서 그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61페지)

혁명전쟁의 경험은 자기 사명에 대한 깊은 자각과 높은 계급의식, 열렬한 조국애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군대는 어떠한 강적과도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튼튼한 정치사상적무장은 어떠한 제국주의침략군대도 가질수 없는 혁명군대의 고유한 특성이며 강대한 적을 타승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인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력히 전개하여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수정주의, 교조주의, 대국주의, 사대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유교사상과 같은 온갖 불건전한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한 사상교양의 구체적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사상교양의 방향에 립각하여 군대내에서는 군인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내에는 오직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며 일편단심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차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며 우리 혁명리론의 창시자이시며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전사된 무한한 영예와 긍지로 충만되여있으며 그이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려는 열화같은 충성심과 혁명적의지로 불타고있다.

또한 군대내에서 사상교양사업이 강화됨으로써 동지호상간, 상하간의 혁명적단결이 강화되고 강철같은 자각적군사규률이 철저히 확립되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지펴주신 붉은기중대운동의 불길은 인민군대를 혁명적기백과 공산주의적기풍이 약동하는 붉은 집단으로, 강철의 혁명대오로 강화하며 군사과업수행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께서 부르실 때에는 언제든지 동원되여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준비를 튼튼히 갖추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군군인들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꺾을수 있는 힘이란 이 세상에 없으며 그 어떤 사나운 풍파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무력건설전통을 현대전의 새 특성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에 부합되게 더욱 발전시킨 독창적인 로선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고 남반부에서 미제를 내쫓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자위사상이 구현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명백한 길을 밝혀준것으로서 맑스-레닌주의군사리론을 가일층 풍부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탁월한 기여로 된다.

오늘 우리의 국방력이 비할바 없이 강화되고 특히 인민군대가 어떤 침략자들의 책동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간부군대로,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된것은 바로 우리 당의 군사로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그대로 실증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강화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를 간부화하고 현대화하는것은 우리의 군대를 불패의 무력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우와 같은 책, 36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간부화하여 어떠한 적이라도 능히 소멸할수 있도록 모든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부단히 발전하는 새로운 군사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면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를 끊임없이 주시였다.

인민군대는 전쟁에서, 전투에서 필요한것을 가르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전투훈련을 정력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어떠한 복잡한 현대전투도 능숙하게 진행할수 있는 전투기능과 군사기술을 체득하였으며 모두다 한 등급이상의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였다. 지휘관참모부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전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풍부한 전투경험을 쌓은 지휘성원들의 군사정치적자질과 명군술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유사시에는 무력을 대대적으로 확장할수 있는 간부예비를 충분히 가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현대적군사장비로 무장시키는데 최대의 배려를 돌리시였다.

당과 수령의 깊은 배려에 의하여 오늘 인민군대는 현대적무장들로 튼튼히 장비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에 훌륭히 정통하고있으며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현대적군사기술을 소유하고있다. 나라의 위력한 경제력에 의거하여 조국의 방선은 견고한 방어시설물로 뒤덮인 철벽의 요새로 다져졌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과 사회주의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소유하고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령도밑에 장구한 기간에 걸쳐 일본제국주의침략군대와 싸워이긴 항일무장투쟁경험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눕힌 경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하다. 이 경험들은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며 그를 고수하기 위한 혁명전쟁의 경험이며 그것은 일제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타승한 유격전쟁과 현대전쟁의 경험이다.

이러한 풍부한 투쟁경험으로 무장한 우리의 인민군대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그리고 각이한 정황에서 어떠한 원쑤들도 능히 타승할수 있는 능숙하고 세련된 명군술과 전투력을 가진 혁명군대로 자라났다.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전당적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방위력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가 튼튼히 다져졌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이 무장되여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조국보위의 임무를 담당하고있으며 전연과 후방, 해안과 중심 그 어디를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지역에 철벽같은 방위시설이 구축되여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오늘 당의 자위로선을 받들고 일당백의 혁명대오로 자라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체계는 원쑤들의 그 어떠한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되였다.

우리 인민군대가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지키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는 우리 당의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된것은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인민군대의 창건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조선인민군의 창건, 그의 불멸의 위훈과 더불어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강력한 자위적군사력은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밀림의 우등불가에서 조국의 앞날을 설계하시며 인민무력건설의 터전을 마련하신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의 구현이며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탁월한 군사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며 인민무력건설을 위하여 바치신 그이의 고귀한 정력과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오늘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인민군대가 걸어온 20여년간의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 승리의 길을 따라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실할것을 맹세다지고있다.

* *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촉진하고 국방력을 일층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실현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고있는 공화국남반부형제들을 한시도 잊을수 없다.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족적의무이며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오늘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멸망에 직면한 저들의 운명을 구원해보려고 악랄한 군사파쑈통치에 매달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면서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반미구국항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억세게 싸우고있으며 도처에서 무장유격투쟁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있다.

최근 미제침략자들은 《푸에블로》호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은 대신에 남조선에서 발광적으로 괴뢰군병력을 증강하고 신형무기와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며 저들의 전쟁도발계획실현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을 공공연히 끌어들이는 한편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군사적도발소동을 격화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어떠한 책동도 결코 우리 인민을 놀래울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며 끝끝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더 큰 참패를 당하리라는것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것입니다.》(《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10페지)

우리의 영웅적인민군장병들은 전체 인민과 함께 미제침략자들의 어떠한 도발책동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으며 원쑤들이 감히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를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고야 말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와는 비할수 없으리만큼 강화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우리에게는 세련되고 단련된 조선로동당과 탁월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통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이 있다. 전사회의 확고부동한 정치사상적통일과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에 기초한 공고한 계급적후방과 자위적군사력의 튼튼한 물질적기초로 되는 강력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있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국가적,전인민적 방위체계가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오늘의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만일 미제침략자들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또다시 분별없는 전쟁모험을 감행한다면 원쑤들은 일당백의 인민군대와 무장한 우리 인민의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놈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오직 시체와 죽음뿐인것이다.

조성된 정세는 전체 인민과 더불어 인민군장병들이 고도의 경각성과 긴장성을 견지하여 원쑤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어떤 불의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는 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받들고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수 있게 준비하며 그를 앞당기기 위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군군인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수령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혁명투사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해야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를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항일투사들의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투쟁경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들을 꾸준히 배워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져야 한다.

적들의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반적 전투준비를 일층 완성하며 군사규률과 질서를 백방으로 강화하고 붉은기중대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며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특히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 사이에 발현된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군인들과 인민들 속에 확고히 체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일치단결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으로 군인들과 전체 인민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힘껏 도우며 전사자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들을 더 잘 원호하며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과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방침과 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당과 수령께서 부르실 때에는 언제든지 동원될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우리의 혁명위업과 사회주의전취물을 무장으로 튼튼히 보위하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갈것이다.

세련된 당,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일당백의 우리 인민군대는 필승불패이며 그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석탄공업부문에서 계속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박 선 균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7개년계획의 고지를 올해에 점령한다고 하여 자만하지 말고 석탄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5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우리의 석탄공업부문일군들은 지난해에 1960년에 비하여 석탄생산을 2.5배로 장성시킴으로써 우리 당 제4차대회가 내세운 7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의 석탄고지를 영예롭게 점령하였다.

이것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배려의 결과이며 그이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우리의 붉은 탄부들의 높은 정치적열성과 로력투쟁의 빛나는 열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첫 시기부터 석탄공업을 다른 공업부문에 앞세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우리의 탄부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여 기존탄광들을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탄광들을 더 많이 개발하는 동시에 큰 규모의 탄광과 중소규모의 탄광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며 로천채굴을 광범히 조직진행하고 모든 탄광들에서 굴진과 박토를 앞세울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석탄공업부문에 매해 거액의 투자가 실시되고 많은 로력과 설비, 자재들이 돌려짐으로써 그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7개년계획기간에만 하여도 석탄공업부문의 기술장비는 3배이상, 기술력량은 4배이상으로 가각 장성하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탄광들에서 새로운 사업체계를 세우고 지도일군들의 상학조를 운영하며 갱사업을 강화하고 로동자들의 행복하고 명랑한 생활을 조직하는 등 탄광의 관리운영사업과 탄부들의 생활개선에서 제기되는 구체적문제들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뿐아니라 그이께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나날에도 수많은 탄광들을 몸소 찾으시고 탄부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석탄공업부문의 지도일군들과 탄부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하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적극 옹호하며 김일성동지의 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수령께 무한히 충실

한 혁명전사로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다. 모든 탄광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온갖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짓부시고 천리마적진군을 다그쳤다.

탐사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수령의 교시에 근거하여 지난 기간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탐사일군대렬을 늘이고 기술장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세부탐사와 작업탐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선진탐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였다. 최근년간 탐사대렬과 탐사용 기술장비가 현저히 늘어나고 탐사사업이 개선강화됨으로써 기본굴진메터당 확보탄량과 특히 준비굴진메터당 확보탄량이 훨씬 늘어났다.

또한 7개년계획기간에 기존탄광들의 기술적개건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고속도굴진운동이 광범히 벌어졌다.

탄광들에서 갱구당 생산량이 수배로 늘어나고 많은 새 갱들이 건설되였으며 특히 중소규모탄광수는 7개년계획기간에 2.7배로, 그 생산량은 4.5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하며 선진작업방법을 도입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많은 탄광들에서 석동발과 원통형채탄기 그리고 보습형채탄기를 생산에 도입하여 로동생산능률을 배이상 높였다. 로천채굴을 널리 전개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관철함으로써 도처에 로천채굴장들이 마련되였으며 그 생산량은 4배이상으로 늘어났다. 굴진과 채탄 및 운반 작업을 비롯한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의 기계화가 적극 추진되고 석탄공업부문 과학연구사업에서도 획기적성과가 이룩되였다.

실로 오늘 우리 나라 탄광들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핌으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이 꽉 들어차고 혁명적기백이 끓어넘치는 당의 믿음직한 로동계급진지로, 인민경제와 주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힘있는 자립적 연료 및 원료 기지로 전변될수 있었다.

석탄공업부문에서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하면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으며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7개년계획의 석탄고지를 점령한 그 기세, 그 기백을 견지하여 석탄생산에서 계속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오늘 우리앞에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7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전반적으로 점령하며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첫공정인 석탄공업을 더욱 빨리 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석탄생산에서 계속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석탄공업을 다른 공업부문들에 확고히 앞세워나가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공업의 발전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다른 공장, 기업소들을 많이 건설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석탄을 잘 캐는가 못캐는가에 따라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계획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가 결정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참말로 석탄생산은 나라의 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29~230페지)

석탄공업을 앞세워야만 인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료, 동력, 원료를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공업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도시주민들뿐아니라 농촌주민들에게도 연료를 충분히 대줄수 있다.

현시기 석탄생산을 더욱 높이는것은 공업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성하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중요한 방침들을 제시하였다. 당은 자연조건으로 인한 전력생산의 계절적파동성을 완전히 없애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동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 많은 힘을 넣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흑색야금공업부문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산연료를 대대적으로 도입할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있으며 이와 관련한 중요한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그뿐아니라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화학공업은 빠른 속도로, 다양하게 발전하고있다. 석탄은 공업의 동력으로 뿐만아니라 현대화학공업의 귀중한 원료로도 더욱더 많이 요구된다.

이 모든 사실들은 연료, 동력, 원료로서의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는것이 오늘 우리 나라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서 절실한 과업으로 나선다는것을 말해준다.

석탄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채취공업발전을 위한 세가지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 세가지 원칙을 견지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5페지)

탐사사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실현하며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채취공업발전의 세가지 원칙은 석탄공업을 포함한 채취공업발전의 력사적특성과 현실적조건, 그리고 장래전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기초우에서 제시한것이며 인민경제의 첫공정으로서의 채취공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원칙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채취공업에서의 하나의 법칙이다. 땅속에 파묻혀있는 자원을 캐내려면 우선 어디에 얼마만한 자원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탐사사업 특히 세부탐사사업을 앞세워야 석탄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로력과 자재, 자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또한 석탄공업은 힘들고 어려운 로동이 많이 진행되는 부문이다. 기술혁명을 적극 추진시켜야 우리의 탄부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석탄을 캐내게 할수 있다.

이와 함께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채취공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석탄공업부문에서 탐사사업을 잘하여 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도 중요하게는 과학연구사업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세가지 원칙과 함께 그이께서 석탄공업부문앞에 주신 모든 교시들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석탄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는 석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성과를 달성할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담보이다. 거기에는 석탄공업을 다른 공업부문에 앞세워 빨리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석탄공업발전의 방향 및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석탄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우선 김일성동지께서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우기 위하여 **《탐사일군대렬을 늘이고 기술장비를 강화하여 예비탐사와 특히 세부탐사, 작업탐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며 선진탐사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도입하여 탐사속도와 효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5페지)라고 하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 부문 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교시집행정형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며 탄광들의 주변 및 심부와 새 개발 대상지들에 대한 예비탐사, 세부탐사에 계속 힘을 넣음으로써 더 많은 탄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는것은 석탄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라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천에서는 박토를 선행시키고 지하채굴에서는 굴진을 선행시켜야 한다는것은 마치 수박을 먹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선 쪼개야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이 석탄공업과 광업부문에서 굴진을 선행시킬것을 강조하고있는것입니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석탄생산에서 굴진과 박토를 앞세워야 할 필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기본굴진은 3년분, 준비굴진은 6개월분이상 앞세우며 예비채탄장을 30%이상 보장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모든 탄광들에서 굴진계획실행정형을 분석하고 굴진을 결정적으로 앞세울수 있도록 굴진과 채굴간의 력량비률을 5대 5로 보장하며 석탄생산의 장성에 따르는 굴진량을 정확히 맞물리도록 계획화사업을 더욱 개선하는 동시에 굴진계획과 설계의 비준제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굴진에서 선진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을 더욱 강화하며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탄광들의 굴진장비를 빨리 개선하고 보충완비하며 굴진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개선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내탄에 의한 제철공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고열탄채굴구역을 늘이기 위한 굴진에 힘을 넣으며 새로운 갱건설을 다그쳐 고열탄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특별히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우리는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석동발과 원통형채탄기, 보습형채탄기 등 성능높은 새 기계설비들을 적극 받아들여 채굴 및 운반 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로천채굴을 비롯한 선진채굴방법을 일반화함으로써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로동생산능률과 채취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는것은 석탄공업발전에서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어느부문보다도 힘든 탄광로동을 기계화, 자동화할데 대한 수령의 교시를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석탄의 매장정형에 대한 조사사업, 그것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 기술장비를 강화하며 특히 무연탄탄광들에서 채굴작업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 채굴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 등 과학연구사업을 모든 방면에 걸쳐 적극 추진시켜야 할것이다.

중소탄광들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개발하는것은 적은 로력, 적은 투자로 석탄생산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우리는 중소탄광들을 도처에 개발하며 그 기술장비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탄광과 중소규모탄광을 병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휘시켜야 한다.

석탄의 질을 높이는것은 같은 량의 석탄을 가지고도 공장, 기업소들에서 좋은 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수 있게 하며 긴장된 수송문제를 푸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선탄시설을 정비확장하거나 새로 갖추어 석탄의 버력혼합률을 낮추고 열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조직해야 하며 질이 높은 석탄을 캐내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기관들과 기업소들은 대안체계를 철저히 받아들여 경제건설에서 대중의 창조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

며 경제를 더욱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4페지)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움으로써 경제관리운영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

갱을 강화하고 갱안의 활동의 군사화를 실현하는것은 탄광들에서 새로운 사업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고리이며 석탄생산을 높이고 사건사고를 근절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갱의 참모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갱안의 일체활동에서 군대와 같은 규률과 제도, 질서를 세우고 명령지휘체계와 비준절차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국들의 생산조직 및 지휘기능을 더욱 높이고 성으로부터 관리국, 기업소에 이르는 정연한 기술지도와 보장체계를 확립하며 모든 지도일군들이 형식주의,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을 뿌리빼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대안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과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절약하여 증산하는것은 당의 중요한 정책적요구이며 모든 탄광들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경제관리운영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기계설비의 관리운영을 개선하고 그 리용률을 더욱 높이는것이 필요하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기계설비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예비부속품을 석달분이상 앞세워 마련하는 동시에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설비관리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생산자들자신이 기계설비에 더욱 정통하고 그것을 알뜰히 다루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갱목을 비롯한 모든 물자의 소비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석탄원가를 계속 낮추며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히 꾸리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은 석탄을 캐낼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지도일군들과 로동행정일군들은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무엇보다도 탄부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생산로력과 간접로력을 줄여 갱내로력과 직접부문의 로력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성별, 년령, 기술기능수준등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480분 로동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로동규률을 세우고 작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탄광들에서 로동보호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의 중요한 임무이며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탄광들에서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여 탄부들로 하여금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며 로동안전사업을 군중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는 동시에 로동안전통제감독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한건의 사건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후방공급사업은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지도일군들은 자체의 후방공급기지를 튼튼히 마련하여 고기와 남새를 늘 떨구지 말고 공급하며 주택과 문화후생시설을 잘 꾸리고 탄부들의 생활을 더욱 문화적으로, 락천적으로 조직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모든 지도일군들과 탄부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자신들을

더욱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다.

석탄생산에서 계속혁신을 일으키는가 못일으키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부문 지도일군들과 탄부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얼마나 철저히 무장하며 자신들을 어느정도로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가에 달려있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우리 일군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할수 있으며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창발성, 열성을 다바쳐 충실히 일할수 있으며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석탄공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신들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며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석탄공업부문의 당조직들은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정상적으로 효과있게 운영하며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로동자들로 하여금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체득하며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석탄공업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로 하여금 자기 맡은 혁명과업에 대한 긍지와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석탄공업부문 로동자들은 중요하고도 어려운 혁명과업을 맡고있습니다. 이것은 동무들의 커다란 영예입니다. 동무들은 석탄공업부문에서 일하는것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깨닫고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3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탄부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 책임감을 간직하도록 하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해방전에 탄부들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막로동군으로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았으며 헐벗고 굶주렸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탄부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국의 당당한 주인이며 우리나라에 인류의 최고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데 대한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이다. 우리의 탄부들은 수령의 두터운 신임과 극진한 배려를 받고있으며 인민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을 더 많이 캐내는것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힘차게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옳게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헌신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자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탄광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더 잘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계속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해보다도 122%로 높아진 올해의 석탄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이미 점령한 7개년계획의 석탄고지를 더욱 높이 쌓아올림으로써 수령의 배려와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날로 확대되고 적극화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

조 명 일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길을 따라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쓸어버리고 자유와 해방,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반미구국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원쑤들의 류례없는 파쑈적폭압하에서도 반미구국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미제와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무장유격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적극적인 투쟁을 진행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더욱 각성되고 단련되고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실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급속히 장성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반미구국투쟁은 조선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 날이 더욱더 가까와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급격히 확대발전하고있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특징지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확대되고있으며 그것은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하고있습니다. 투쟁은 점차 조직화되고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각계각층의 보다 광범한 군중속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8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과거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있으며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자기들의 혁명대오를 더욱 확대하면서 도시와 농촌, 지하와 산중 지어는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원쑤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이와 같은 혁명적진출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높여주고있으며 동시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커다란 공포와 혼란속에 몰아넣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는것은 무장유격투쟁이 강화되고있는것이다.

무장투쟁은 혁명의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투쟁형태이다. 무장투쟁은 적에게 가하는 타격력과 그리고 인민대중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 동원력에 있어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다.

남조선에서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무장유격투쟁을 강화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최근에 이르러 혁명적무장유격대의 활동은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적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서 혁명적무장유격대는 1967년에 120여회 출현하여 95회의 전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만도 200여회의 전투를 벌렸다.

남조선무장유격대들은 이러한 전투를 통하여 수많은 미제침략군과 괴뢰군경들을 소멸하고 악질주구들을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고있다. 그들은 적들의 군수창고, 군수렬차를 습격하며 《토벌》에 동원된 적의 직승비행기까지 쏴떨구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해 1월 서울시내 한복판에 나타나서 미제의 손때묻은 주구 박정희역도가 둥지를 틀고있는 《청와대》까지 진출하여 괴뢰경찰들을 무리로 쓸어눕히고 4대의 군용차량을 까부셔 적들을 혼비백산케한것은 혁명적무장유격대의 활동이 얼마나 대담하고 민첩한가를 잘 보여준다.

남조선에서 활발히 전개되고있는 무장유격투쟁은 농촌과 도시 등 남조선의 광범한 지역을 포괄하고있다.

무장유격대는 자기의 활동지역을 서울과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와 남조선강원도 등 일련의 광범한 지역에로 확대해나가고있다.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는 원쑤들을 족치는 용감한 무장투쟁과 함께 인민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을 능숙하게 결합시키고있다.

무장유격대는 인민대중에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하에 북반부에 이룩된 찬란한 현실을 생동하게 소개선전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미제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반인민적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고 원쑤들을 때려부실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높여주고있다.

남조선의 혁명적무장유격대의 활동은 광범한 인민들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으며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는 무장유격대에 대한 지지성원이 더욱 활발해지고있으며 많은 청장년들이 무장유격대오에 참가할것을 탄원하여나서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무장유격대와 함께 혁명적당과 군중조직들인 청년동맹, 부녀회 등을 뭇고있으며 인민주권기관을 세우는데까지 이르고있다. 경상북도 봉화군 한 마을의 인민들은 무장유격대와 함께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기관들을 뒤집어엎고 군인민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자기들의 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혁명에서 근본문제인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 나가고있는 뚜렷한 표시이다.

남조선에서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는 혁명적무장유격투쟁은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으며 동시에 남조선인민들에게 혁명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혁명적무장유격투쟁은 남조선의 전반적인 반미구국투쟁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있다.

지금 접에 질린 적들이 《1968～1969

년사이에 남한은 유격전장으로 될것이며 1970년에 가서는 그것이 결판이 날것이다.》라고 비명을 올리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는것은 또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의 지하혁명투쟁이 강화되고있는것이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자기들의 혁명조직을 더욱 확대해나가고있으며 대중속에서 정치선전사업을 강화하면서 혁명력량을 꾸리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고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인민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자기 산하에 수많은 합법적인 군중조직을 결성하고 그를 통하여 대중을 계몽각성시키면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조직전개하고 있다.

최근시기 적들에 의하여 탄압당하고 있는 남조선혁명조직들과 대중조직들의 투쟁은 그에 대한 명백한 실례로 된다.

통일혁명당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모든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그이의 사상으로 군중을 교양하면서 자기 산하에 9개의 합법적인 군중조직을 묶고 투쟁하였다.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서회》성원들은 《김일성수상께 드리는 선서문》을 작성하고 《조선로동당 수령 김일성수상님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조선로동당력사와 맑스-레닌주의서적을 연구하였으며 공화국기발을 가슴에 품고 혁명력량을 확대해나갔다.

이러한 사실들은 남조선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로동자, 농민을 결속하여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며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원쑤들의 가혹한 파쑈적탄압속에서도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혁명조직과 군중조직에 굳게 뭉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원쑤들에게 체포된 경우에도 가혹한 고문과 탄압을 박차고 《법정》투쟁과 옥중투쟁을 용감히 전개하고있다.

그들은 원쑤들의 살인공판장에서 《김일성동지를 위해 충성을 다할것을 선서하였다.》, 《나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남조선을 해방하고 오직 로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였다.》고 힘있게 토로함으로써 놈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옥중에 갇혀있는 인민들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원쑤들을 반대하는 비합법지하투쟁을 통해서 혁명적핵심들이 자라나고있으며 혁명력량이 급속히 장성강화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혁명력량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준비될수 없으며 오직 간고한 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투쟁와 시련속에서 혁명의 지도자들과 핵심들이 나오고 인민대중이 각성되며 혁명력량이 장성하는것이다.

남조선에서 확대발전하고있는 지하혁명투쟁은 반미구국투쟁이 조직화되고있으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마련되여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대중적합법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

들의 투쟁은 급격히 확대발전하고있다.

남조선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은 지난해 10개월간에 196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4%나 늘어난 280건의 투쟁을 벌렸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개별적기업체에 국한되였던 투쟁조직을 부문별 혹은 지역적으로 확대하여 《파업위원회》, 《투쟁위원회》와 같은 조직체를 뭇고 공동행동을 취하고있으며 투쟁의 예봉을 더욱더 미제침략자들에게 돌리고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상순까지의 기간에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건수는 1967년 한해동안의 투쟁건수에 비해 2배로 장성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은 8시간로동제의 실시, 부녀 및 소년 로동에 대한 보호, 유급휴가제의 실시, 로조활동의 자유보장 등 민주주의적요구를 전면에 걸고 투쟁하고있다. 지난해 근 2개월간이나 적들의 온갖 탄압을 물리치면서 자체로 8시간로동제를 실시해온 《백양메리야스공장》로동자들의 투쟁과 유급휴가제의 실시, 생리수당금 지급, 부녀 및 소년 로동보호 등의 요구조건을 들고 싸운 《금성직물공업사》녀성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실례로 된다.

남조선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들의 투쟁도 급격히 발전하고있다. 남조선농민들은 지난해 10개월간에 250건의 투쟁을 벌렸으며 여기에 연 35만 7,4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196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배로 장성한것으로 된다.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속에서도 투쟁은 활발해지고있다. 청년학생, 인테리들은 자기들의 력량을 축적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면서 학원내에 잠입한 악질주구들을 몰아내며 《학도군사훈련》을 반대하는 등 학원의 민주화와 학생들의 수학처지개선을 위한 투쟁을 확대해나가고있다. 소상인, 수공업자, 중소기업가, 도시빈민들도 투쟁에 나서고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남조선의 소상인, 수공업자, 중소기업가들은 적들의 살인적인 세금정책과 점포강제철거 및 반인민적인 재정융자정책을 반대하여 72건의 투쟁을 벌렸다.

남조선에서 급격히 확대발전하고있는 각종 투쟁은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들을 더욱더 각성시키고 단련시키고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불원간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혁명력량이 급격히 장성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이 현실로 구현되고있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　　*

남조선에서 날을 따라 확대되고 적극화되고있는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은 남조선혁명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합법칙적인 과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난 20여년동안의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오직 전인민적인 항쟁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철저히 때려부실 때에만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으며 빼앗긴 인민주권을 도로 찾을수 있다는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80페지)

오늘 남조선에서 날로 확대되고 적극

화되고있는 반미구국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사상적각성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이다.

남조선에서 급격히 발전하는 혁명투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무한한 충성심에 전적으로 기인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흠모, 일편단심 그이께 충성하려는 불같은 심정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의 신조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한결같이 김일성동지를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등대》,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받들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배우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을 연구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위대하고 자애로운 김일성동지의 가르침을 받는것은 우리의 더없는 영광이며 행복이다.》, 《김일성동지의 과학적인 혁명방침은 우리의 힘을 무한히 북돋아준다.》고 하면서 수령의 가르치심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있으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로선과 방침을 따라 그 어떤 풍파에도 굴함없이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그들은 《김일성수상님의 주위에 굳게 뭉쳐 궐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령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혁명에 몸바쳐 나서는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있다.

김일성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흠모와 충성심은 오직 그이의 령도하에서만이 조선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그들의 높은 자각과 확신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생활과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이며 신념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게 된 때로부터 조선인민은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찾게 되였으며 그이께서 15성상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일제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강철의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천대받고 압박받던 우리 인민에게 진정한 인민주권을 안겨주시였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새생활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리론과 로선, 정책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은 남조선인민들의 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유일하게 정확한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의 일념으로 충만되여있기에 원쑤들의 온갖 탄압을 박차고 용감히 싸워나가고있다.

그들은 원쑤들의 파쑈적폭압속에서도 《김일성장군만세!》,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대중앞에서 부르고있으며 《김일성수상은 애국자이시며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조선사람을 대표할분은 오직 김일성수상뿐이다.》라고 하면서 수령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존경의 정을 서슴없이 토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바로 여기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이 원쑤들의 폭압을 박차고 반미구국투쟁에 단호히 떨쳐나서고있는 힘의 원천이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이 급속히 확대발전하고있는것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이룩된 비할바없이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동경하고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 이룩된 사회주의제도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는 남조선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인민이 다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우러러보면서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있으며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는 백성들이 편하고 리익이 될만한 일이라면 아끼는것없이 다 갖추어주는 가장 인민적이고 자유로운 세상이다.》, 《북반부의 정치는 진정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정치이며 북조선은 인민들의 자유와 안정을 제일 귀중히 내세우는 인민의 나라이다.》라고 하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동경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지상락원과 생지옥의 대조를 이루는 북반부와 남반부의 판이한 두 현실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쓸어버리고 남조선에도 북반부와 같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민의 주권을 세움으로써만 오늘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원쑤들의 총칼도, 감옥과 단두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떨쳐나서 싸우고있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인민투쟁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인민들의 반항이 있는 법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억압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불가피합니다.》 (우와 같은 책, 82페지)

남조선에서 날을 따라 급격히 확대되고 적극화되고있는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은 미제의 극악한 파쑈적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매국배족행위에 대한 쌓이고 쌓인 울분과 분노의 폭발이다.

미제침략자들의 남조선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고있다. 남조선은 미제침략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파괴되고 농촌은 황폐화되였다.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농민들은 절량과 기근에 빠져있다. 그들은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수 없는 끝없는 불안속에서 허덕이고있다.

인민들은 초보적인 정치적권리마저 완전히 박탈당하고있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테로통치밑에서 더는 견딜래야 견딜수 없게 되여 앉아서 죽느니보다는 차라리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전복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일떠서 싸우고있는것이다.

지금 류례없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반공》의 간판밑에 야수적으로 탄압하기에 미쳐날뛰고있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며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반공》의 구호밑에 이미 수많은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남조선전지역을 뒤덮어놓은것으로도 부족하여 괴뢰경찰을 이른바 《전투경찰》로 개편확장하고 《향토예비군》을 조작해내며 지어는 18살이상의 모든 주민의 열손가락지문까지 받아내는 《주민등록법》과 같은 파쑈악법을 꾸며내는 등 폭압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여 악독한 고문을 가하면서 허위와 날조로 엮어진 죄아닌 《죄》를 들씌워 극형과 중형을 《구형》하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에만도 원쑤들은 통일혁명당《사건》, 인민혁명당《사건》, 《임자도사건》,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을 날조하여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들씌우는 천인공노할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그 어떠한 야수적폭압과 《반공》소동으로써도 결코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을수 없다.

원쑤들은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낡은 사회를 때려부시고 새사회를 세울것을 결심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적극적이며 의식적인 혁명적진출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추세에 따라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은 계속 발전할것이며 투쟁과정에서 혁명대오는 부단히 확대강화될것이다.

* *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아무리 간고하다고 하여도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지난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일본제국주의와 싸울 때보다는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투쟁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83페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지난날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국가적후방도, 정규적무력의 지원도 없었고 국제혁명력량의 지원도 지금처럼 강하지 못한 조건에서도 15성상이나 강도 일제와 싸워이겼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고히 이끌고계시는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조선혁명의 불패의 보루인 공화국북반부의 위력한 혁명기지가 있으며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인민들을 도우며 필요할 때에는 남조선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위한 투쟁에 동원될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이 있다.

세계의 혁명적인민들도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강력한 국제적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반미구국투쟁을 더욱더 확대하고 적극화함으로써 그것을 전인민적폭동으로 가일층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주구 박정희도당을 타도하고 인민의 손에 정권을 장악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남조선인민들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

한 형 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쑤이며 우리 혁명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동시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데 대하여 항상 강조하여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종속적동맹관계하에서의 미일결탁의 침략적본질과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전면적으로 폭로하시였으며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기 위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동적결탁과 침략책동의 가일층의 강화로 하여 오늘 아세아의 정세는 한층 더 긴장되고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력량은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옳게 평가하고 미제를 반대하는데 투쟁의 예봉을 돌리는 동시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미제의 아세아전략을 분쇄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이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0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그이의 위대한 반제혁명사상의 구현으로서 미제에게 창끝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 앞잡이인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줌으로써 아세아에서 미일제국주의의 침략적결탁과 놈들의 침략책동을 가장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우선 현시기 미일간의 관계와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결탁의 침략적본질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와 일제는 서로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아침략에 대한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종속적동맹관계에 얽혀있으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탁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24페지)

미일간의 종속적동맹관계는 미제의 일본강점과 대일정책의 결과로 형성되였으며 그것은 오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간의 관계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미제는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봉쇄하고 공격하며 아세아에서의 혁명력량의 급격한 장성을 가로막으며 이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붕괴되고있는 식민지체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를 재생재무장시켜 그를 아세아침략의 충실한 《돌격대》로 리용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여왔다.

이로부터 미제는 한때 아세아에서 세력권쟁탈을 위하여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던 패망한 《적수》를, 재생재무장시키는데로 나갔다.

미제는 특히 일본이 처한 군사전략적 위치, 그의 군사경제적잠세력, 야수적인 침략《경험》을 저들의 침략적목적에 리용할것을 타산하였다.

아세아침략을 위한 《돌격대》의 육성을 기본으로 하는 미제의 대일정책의 결과로 일본군국주의는 빨리 되살아났으며 일본은 아세아에서 또다시 침략과 전쟁의 위험한 온상으로 자라나고있다.

오늘 미제와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난 일본군국주의와의 종속적동맹관계는 군사동맹으로서의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의하여 합법화되여있다.

미제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통하여 일본을 군사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있으며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일결탁체계를 형성하고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전령토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공격기지, 보급기지로 복무하고있다. 현재 일본본토에만도 도합 146개소의 미제침략기지들이 분포되여있으며 오끼나와와 기타 미점령지역도서들의 군사기지들을 합치면 그것은 무려 265개소에 달한다. 이밖에 685개가 넘는 일본《자위대》기지들과 일본의 항만, 도로 등도 미제의 침략전쟁에 리용될수 있게 되여있다.

일제의 정규무력인 《자위대》는 미제의 아세아전략의 일익을 담당하고있으며 그 통수권은 사실상 미제에게 장악되여있다. 일본 《자위대》는 무장장비, 지휘체계는 물론 군대의 편성과 인적구성에 있어서까지도 미제에 대한 강한 예속성을 띠고있다. 일본《자위대》의 기본장비는 그 많은 부분이 미제강점군에 의하여 공급된것이며 편제도 미제침략군편제에 따르고있다.

경제적면에서도 일제는 미제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그렇지 않아도 구미독점자본에 비하여 빈약하였던 일본경제는 미제의 강한 경제적침투로 하여 미제에 종속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각종 《원조》, 자본투하, 《기술제휴》, 《합영기업》 등을 통하여 미국독점체에 대한 일본독점체의 종속적결합이 진행되고있다. 일례로 일제의 외자도입총액에서 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나 되며 미일독점자본의 합영기업체는 날을 따라 더욱더 많아지고있다.

미제에 대한 일본경제의 종속성은 대외무역에서 현저히 나타나고있다. 일제는 대외무역의 많은 부분을 미제에 의존하고있는데 특히 일부 중요원료의 의존도는 50%에서 근 90%에 이른다.

미제에 대한 일제의 이러한 종속관계는 오늘 일본군국주의가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충실한 《돌격대》로 되고있는 중요한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미제는 이러한 군사정치적지배를 통하여 일본군국주의를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앞잡이로 리용하고있으며 다른 한편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편승하여 저들의 대외팽창의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가 대외팽창야욕을 실현하는데서 미제의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고있는것은 일본독점자본주의의 취약성, 2차대전후 아세아에서의 근본적인 력량관계의 변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일본의 광범한 근로대중의 강력한 진출등과 관련되여있다.

일본독점자본주의는 그의 국제적경쟁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제에게 예속되여있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가지고있다. 특히 2차대전후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의 출현과 그 위력의 장성, 아세아에서의 전반적혁명력량의 급격한 진출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혁명과 반혁명간의 력량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 한편 급속히 장성하는 일본근로대중의 대중적진출은 일본반동세력으로 하여금 절망적인 위기감에 사로잡히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단독으로는 대외팽창의 야욕을 실현할수 없게 된 일본독점자

본주의는 미제와의 결탁에서 《살길》을 찾았으며 상전을 등에 업고 대외팽창을 실현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는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작고 분렬된 나라들을 하나하나 먹어들어가려는 미제의 전략에 적극 추종하고있으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는데서 공모결탁하고있다.

미일간에는 이미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공동작전체제》가 만들어져있으며 지어는 행동할 《작전구역》까지 분담되여있다. 미제의 직접적인 지휘밑에 우리 나라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침공대상으로 만들어놓은 이른바 《세개화살작전》, 《날아가는 룡작전》 계획 등은 놈들의 《공동작전》을 구체화한것들이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유사시에 일본《자위대》를 《유엔군》의 간판밑에 조선전선에 출동시키기 위한 이른바 《유엔협력법안》까지 만들어놓았으며 놈들의 전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도발적인 공동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결탁의 정체는 《아세아의 집단적안전보장》이라는 이름밑에 아세아 《반공》군사동맹을 만들어내려는 책동에서도 드러나고있다. 미제는 오늘 아세아에서 기존군사쁠럭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보다 포괄적인 《반공》군사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해방력량을 반대하는 침략적지반을 강화하려 하고있다. 미제는 《반공》군사동맹조작을 위한 책동에서 일본군국주의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는 상전을 협력하여주는 대가로 저들의 대외침략의 야욕을 실현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막다른 골목에 빠져 허덕이는 미제를 적극 협력해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또정부는 미제의 웰남침략의 적극적인 가담자로 되고있으며 미국의 주문에 의하여 남부웰남에 각종 무기를 비롯한 많은 군수기자재를 공급하고있습니다. 일본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서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로 복무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23페지)

오늘 웰남침략전쟁에 동원되고있는 미제의 비행기들과 함선들은 오끼나와와 일본본토에 기지를 두고있으며 많은 미제침략군들도 역시 일본을 거쳐 웰남전쟁에 투입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침략전쟁에서 소모하는 많은 군수물자들을 일본에서 충당하고있으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계기로 돈벌이를 하기에 혈안이 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은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대한 협력과 가담을 《안보조약》상의 의무라고 하면서 심지어 협력이상의것을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침략전쟁확대를 계기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실현해보려는 야심을 드러내놓은것이다.

이 모든것은 종속적동맹관계하에서의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적결탁이 놈들의 침략책동을 호상 보충함으로써 아세아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의 가일층의 로골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근원으로 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미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종속적동맹관계밑에서 미제의 침략정책을 적극 협력하여나서고있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또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되살아나고있는 일본군국주의는 오늘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머리를 쳐들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415페지)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은 일제의 군

사경제적잠세력의 급속한 부활과 강화, 그에 기초한 일본반동세력의 대외팽창에 대한 야망으로 하여 더욱 커가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세상에 나타난 첫날부터 이웃나라들에 대한 야수적인 침략과 략탈로 살쪄왔다. 절대주의적천황제를 골격으로 한 군사봉건적일본제국주의는 가장 배타적이며, 침략적이며, 호전적이며, 폭압적이며, 략탈적이였다.

2차대전후 재군국화를 위한 미제의 대일정책에 의하여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기구들과 일본반동세력들, 군국주의의 경제적기초인 일본독점재벌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일본군국주의는 급속히 되살아났다. 일본군국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정규무력인 《자위대》는 근 30만의 기간부대로 편성되여있으며 대외침략을 위한 현대적장비로 급속히 무장되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은 《국력에 상응한 자위력》을 가질 때가 되였다고 떠들면서 장비의 현대화와 핵무장화를 다그치고있으며 이른바 군사력의 《실전화》, 《립전화》 체제를 완비하기에 날뛰고있다. 놈들은 이러한 군사적준비에 의거하여 해외파병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이와 함께 군국주의의 경제적기초인 일본독점자본은 미제의 《원조》, 조선전쟁에서의 《횡재》, 일본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에 의하여 급속히 비대해졌다. 군수산업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과 화학공업이 급격히 증대되여 제조업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7년의 38.8%로부터 1966년에는 65%로 높아졌다. 이것은 침략전쟁을 위한 경제적잠재력이 얼마나 증대되였는가를 말해준다. 일본독점체들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의 급속한 증대에 기초하여 무기의 《국산화》라는 구호밑에 경제를 군사화하는데로 더욱 나아가고있으며 침략전쟁수행에 필요한 각종 현대적무기의 생산과 그 개발에 혈안이 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침략전쟁준비의 일환으로서 나라의 파쑈체제를 강화하며 전시비상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한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군사경제적준비에 의거하여 미제를 등에 업고 대외침략의 길에 적극 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제 또다시 〈횡재〉의 기회를 노리면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기여들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으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02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사촉밑에 침략적 《한일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또다시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기여들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침투를 강화하면서 미제가 조선에서 새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그에 즉시 참전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군사장비의 공급, 침략전쟁준비를 위한 일제와 박정희도당간의 군사정보교환체계의 수립, 군사통신체계의 일원화 등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친선》의 외피를 쓴 일본군국주의의 전쟁상인들이 남조선에 빈번히 드나들고있으며 지난날 조선인민의 피땀을 짜내여 살찐 일본독점체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남조선경제에 깊이 침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동남아세아, 중근동을 비롯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침투하여 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아세아에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옳게 결합하는것이 오늘 반제반미투쟁의 절박한 요구이며 이 투쟁을 옳게 결합할 때만이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　　　*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반제력량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명백히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것과 함께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0폐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집중하는것은 오늘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이다. 미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국제헌병이며 현대식민주의의 아성이며 전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

미제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이며 첫째가는 투쟁대상일뿐만아니라 세계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이며 주되는 투쟁대상이다. 그러므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민족적해방과 독립, 사회적진보를 실현할수 없으며 인민들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없다. 오직 미제를 반대하는 원칙적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이룩할수 있으며 세계평화를 수호할수 있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과 반제력량은 미제에게 창끝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그와 결탁한 동맹자들,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특히 미제의 충실한 동맹자들인 일본군국주의와 서부독일군국주의의 침략적위험성을 옳게 평가하며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본군국주의는 서부독일군국주의와 마찬가지로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되살아났으며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는 미제가 아세아나라들을 침략하는데서 충실한 앞잡이로 복무하고있으며 일본은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위한 거점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에서 일본군국주의를 리용하지 않고서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충분히 수행하기 곤난하다.

그러므로 아세아에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며 일치한 행동으로써 그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미제와 일제의 침략적결탁을 분쇄하며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을 저지파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근본문제와 관련된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일치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야망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하며 그를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취하는데서 미일간의 모순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물론 미제국주의와 일본지배층사이에는 일정한 모순이 있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일간의 모순이 앞으로 격화되는 경우에 그것을 반제투쟁의 리익에 맞게 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일관계를 전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24폐지)

오늘 일본독점자본주의의 국제적경쟁력이 증대되고 제국주의세계에서 미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미제와 일본반동지배층사이에는 일정한 모순이 자라나고있으며 그것은 앞으로 더욱 커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나라들은 미일간의 모순이 앞으로 격화되는 경우에 그것을 반제투쟁의 리익에 맞게 리용할수는 있으나 결코 여기에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

쟁을 용해시키거나 이것으로 하여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현단계에서 미제와 일본지배층사이의 모순은 그들간의 종속적동맹관계를 변경시키거나 충돌을 일으킬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지 못하였다. 설사 미제와 일제간의 모순이 앞으로 일정하게 격화된다 하더라도 일본독점자본주의는 자체의 취약성으로 하여 미제와의 종속적동맹관계를 유지하며 하려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미일간의 모순을 결코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미일간의 모순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들간의 종속적동맹관계를 과소평가하게 되며 결국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립장에 떨어지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일본반동지배층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게 아무러한 기대도 걸지 말아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을 보지 않고 사또도당과 가까이하는것은 사실상 일본지배층의 해외팽창을 고무하여주며 아세아에서 미제의 지위를 강화하여주는것으로 된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반제력량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은 일본독점자본의 대리인이며 미제의 충실한 충복들이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이 이른바 《친선》과 《평화》, 《협조》를 떠들고있으나 그것은 놈들의 침략적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이 흔히 《자주외교》에 대하여 떠드는것도 미제와의 종속적동맹관계와 미제에 대한 저들의 추종정책을 엄페함으로써 일본인민과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술책을 철저히 폭로하며 놈들을 반대하는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일본반동정부와의 관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과 경제적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으나 일본지배층과 정치적문제를 가지고는 어떠한 흥정도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사또정부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일본인민의 리익과 전반적인 반제투쟁의 리익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24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사회주의나라들이 사또반동정부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 계급적립장을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일본과 경제관계를 가질수는 있으나 민족리기주의적립장에 떨어져 계급적립장을 저버리며 전반적혁명운동의 리익을 훼손시키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 사또반동정부와의 관계에서 정치문제를 가지고 흥정하는것은 일본반동지배층의 침략적야욕을 조장하여주며 일본인민의 근본리익과 반제투쟁의 리익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세계전략에 추종하면서 이른바 《경제문화교류》라는 간판을 들고 사회주의나라들에 기여들어 그 나라들의 반제적립장을 약화시키며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음흉하게 책동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반제력량은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벗》으로 가장하고 이 지역에 침투하여 반제전선을 와해시키려는 악랄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분쇄해야 한다. 일본지배층들은 일본도 아세아지역에 속하는 나라라는 구실밑에 마치 이 지역 인민들의 《벗》으로 될수 있는듯이 가장하면서 반제전선을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할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며 《선진국가들의 원조에 의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이 선결문제》라고 떠들면서 《원조》, 《공동개발》, 《경제기술적협조》의 간판을 들고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을 무마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

다. 놈들의 이러한 기만적술책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 침투하여 이 지역 인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예속시키며 그들을 반제자주의 길에서 떼여 내려는것이다.

모든 반제력량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간교한 책동에 높은 경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놈들의 음흉한 침략적정체를 발가놓고 국제무대에서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결탁을 반대하는데서 일본인민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일본인민들은 1970년까지 기한이 만료되는 침략적군사동맹인 일미《안전보장조약》을 연장하려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분쇄하며 미제의 점령하에 있는 오끼나와를 일본에 완전귀속시키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있다. 그들은 또한 일본의 재무장화와 핵기지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과 이 전쟁에의 일본군국주의의 가담을 반대하며 《한일조약》의 페기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고있다.

일본인민의 이 모든 투쟁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과 파쑈화정책을 저지파탄시키고 일본의 평화, 독립,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새 일본을 건설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서 그것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모든 반제력량은 미일반동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든 반제력량이 견지하여야 할 숭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의무이다.

미제와 일본반동지배층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에 장애를 조성하며 그 대렬을 분렬시키는 책동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그것은 응당 배격되여야 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은 항상 미일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는 일본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국내독점자본을 반대하며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일본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에 전투적련대성을 보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3페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간고한 환경에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는 일본인민의 투쟁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침략정책에 편승하여 아세아침략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하고있으나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오늘 시대는 달라졌다.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략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멸망하는것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8페지)

현시기 세계정세발전의 추세를 규정하는 사회주의진영의 위력과 민족해방력량은 비할바없이 장성강화되였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있다.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낡은 세계를 종국적으로 때려부시고 새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특히 아세아에서 력량관계는 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 오

늘의 아세아정세는 한때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날치던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아세아에는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는 강유력한 방위력과 경제력을 가진 우리 나라와 기타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이 확고히 서있다. 이 지역에서는 또한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쓸어버리며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이 그 어디에서보다도 강력히 전개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일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강력한 진출에 의하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극도로 고립되고있으며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겪고있다. 투쟁에 일떠선 각성된 일본인민은 자기들을 또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로 내모는 군국주의자들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마침내 놈들의 목을 비틀어놓고야 말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의 변천된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멸망이 불가피한것과 마찬가지로 아세아에서 또다시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일본반동세력의 종국적멸망도 피할수 없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더구나 멸망에 직면한 미제의 침략정책에 가담하여 나서면서 대외팽창의 길에 공공연히 나서는것은 스스로 죽음의 구렁텅이에 뛰여드는것이나 다름없다. 군국화와 전쟁의 길,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의 멸망을 의미할뿐이다. 일본반동지배층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실현을 위하여 날치다가 패망하지 않을수 없었던 지난날의 력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일본인민을 포함한 아세아와 세계인민들의 준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략적야욕에 사로잡혀 끝내 미제와 함께 전쟁의 길에 들어선다면 놈들은 과거보다도 몇배의 더 큰 타격을 면치 못할것이며 저들이 지른 불길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고야 말것이다.

근 로 자 제 2 호 (루계 32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9년 2월 10일 발행 • 1969년 2월 15일

ㄱ—9332 값 50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3 호

근로자사 1969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3 호 (325)

차 례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69년 3월 1일

김 일 성

나는 1968년 4월에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를 통하여 학자들로부터 사회주의경제리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나라의 정세도 긴장하였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행사도 있고 하여 좀처럼 시간을 얻지 못하고 제때에 제기된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시기까지도 일부 경제지도일군들과 학자들이 이 문제들에 대하여 똑똑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론쟁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하려 합니다.

1.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

요즘 일부 경제학자들속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장성은 하지만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그 속도는 한해에 4~5%아니면 6~7%를 넘지

못한다는 리론이 떠돌고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경제기관지도일군들가운데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한해동안에 생산이 겨우 2~3%씩밖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매해 공업생산을 6~7%씩만 올려도 높은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의 론거로 복구기에 비하여 개건기에는 생산장성의 예비가 적어지며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을 더욱 높일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진다는것을 들고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업이 발전할수록 예비는 점점 적어지며 생산장성속도는 떨어진다는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전후복구기에는 예비가 많았지만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가 닦아지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기에 들어선 오늘에는 예비가 얼마 없으므로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높일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깨닫지 못하고있거나 또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됨으로써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할수 없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계속 높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져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잘 째일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사회주의국가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때문에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고 또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낡은 기술이 새 기술로 바뀌여지고 새 기술이 보다 더 새로운 기술로 바뀌여지며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기계화가 반자동화로 발전하며 반자동화가 자동화로 끊임없이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업과 굶주림의 위협에 못이겨 마지못해 일하기때문에 생산발전과 기술발전에 아무러한 리해관계도 가지지 않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로동의 결과가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과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돌려진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기때문에 생산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하게 되는것입니다.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그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점차 없애면 없앨수록 그들은 사회주의적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재능과 정력을 다바쳐 일하게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관리사업과 생산조직, 로동조직 그리고 기술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 일어날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증산예비가 점점 적어지고 생산을 계속 빠른 속도로 높일수 없다는 리론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이러한 리론이 옳지 않다는것은 또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이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5개년계획을 수행하던 때에 있은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여봅시다. 그때에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파괴된 경제를 기본적으로 복구하여놓았으며 인민생활도 안정시켰으나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살림살이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내외원쑤들은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건설사업을 파탄시키려고 미쳐날뛰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공업화의 토대를 빨리 쌓아올려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섰으며 이에 따라 매우 많은 강재가 요구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분괴압연기가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 공칭능력은 6만톤밖에 안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건설하고 공장도 건설하며 기계도 더 만들어야 하겠는데 6만톤의 강재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의 모든 어려운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을 믿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애로와 난관을 이겨나간것처럼 이때 역시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외논하여 조성된 난국을 뚫고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강선제강소에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제강소 지도일군들에게 강재생산을 9만톤까지 올릴수 없겠는가고 물었더니 일부 사람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동자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파괴된 경제를 겨우 복구하나마나한 형편인데 종파분자들은 당을 반대하여 머리를 쳐들고 대국주의자들은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며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북진》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기를 잃고 혁명과 건설 위업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국앞에서 주저앉아서야 되겠는가, 그럴수 없다, 우리는 오직 우리 혁명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믿고있으며 당신들밖에 의지할데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처한 이 엄중한 난국을 뚫고나가기 위하여 당신들이 기세를 올리고 분발하여 생산도 많이 내고 건설도 잘하여 경제건설을 더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사업을 하였더니 강선의 로동자들은 9만톤의 강재를 생산하겠다고 결의하여나섰습니다. 그들이 적극 발동되여 이미 있던 기계설비들에 살을 붙이고 걸린 고리들을 풀어나가면서 투쟁한 결과 그해에 9만톤이 아니라 12만톤의 강재를 생산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 이 제강소에서는 분괴압연직장의 생산능력을 45만톤 수준으로, 다시말하여 공칭능력의 거의 8배로 높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강선제강소뿐만아니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낡은 공칭능력이 깨여지고 위대한 혁신이 일어났으며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들이 날을 이어 창조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업총생산액을 2.6배로 높일것을 예견하였던 5개년계획을 두해반동안에 끝내였으며 주요공업제품의 현물지표별 생산계획도 전반적으로 4년동안에 완수 또는 넘쳐완수하였습니다.

5개년계획을 수행한 다음 오늘에 이르기까지 7~8년동안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면적기술혁명과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많은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창설되고 공업의 기술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생산규모가 몇배로 커졌습니다. 만일 생산의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생산장성속도가 떨어진다는 일부 사람들의 《리론》이 옳다면 5개년계획이 끝난 이후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더는 높은 생산장성속도를 보장할수 없었을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의 침략책동이 더욱 심하여지는데 따라 축적의 많은 부분을 국방건설에 추가적으로 돌리였으나 7개년계획기간에도 경제가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특히 1967년인민경제계획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대표자회결정을 실현하는 첫해계획으

로서 공업총생산액을 그 전해에 비하여 12.8% 늘일것을 예견하는 긴장한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967년에 실지에 있어서는 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였으며 그리하여 한해동안에 공업생산을 17%나 높이였습니다. 만일 그해에 보기 드문 큰물의 피해만 없었더라면 공업생산을 20%이상 높였을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한 결과입니다.

성흥광산의 실례를 들어봅시다.

1967년에 성흥광산일군들이 계획을 매우 낮게 세워가지고 올라온것을 내각에서 설복하여 계획을 좀 높이였으나 그것도 당의 요구에 비하면 적은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중앙위원회는 성흥광산일군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광산의 소대장이상 일군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당대표자회가 내세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잘 관철하려면 성흥광산에서 유색금속을 더 많이 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무들은 내각에서 정하여준것보다 더 많은 유색금속을 캐겠다고 결의하여나섰습니다. 그들은 결국 처음에 생산하겠다고 한것보다 거의 두배나 되는 유색금속을 생산하였습니다.

다른 실례를 들어봅시다.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이 자기 부문에는 예비가 없다고 하기때문에 1967년에 우리는 룡성기계공장에 가서 혁신의 불을 지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로동자들은 떨쳐나서 증산계획을 포함한 긴장한 년간계획을 두달 스무날이나 앞당겨 10월 10일까지 끝냈습니다.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행정에서도 커다란 예비가 나왔습니다.

당중앙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미친듯이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지난해 생산과 건설 과제를 기한전에 다 끝내고 절약한 로력과 자재, 설비로 더 많이 생산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당의 이 혁명적호소를 받아물었으며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우리 조국강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불같은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더 많은 과제를 줄것을 제기하여나섰으며 그 결의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정치적각

성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여나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경제를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공업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예비가 적어지고 공업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다는 리론은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대규모경제가 빨리 발전할수 없다는 《리론》은 일부 사람들이 《자유화》니, 《민주주의적발전》이니 하면서 근로자들을 교양하지 않아 그들이 사상적으로 해이되여 날라리를 부리면서 일을 잘하지 않는데로부터 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가 제자리걸음하는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레닌은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다음 쏘베트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말하면서 쏘베트정권에다 온 나라의 전기화를 가하면 공산주의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레닌의 이 명제는 비록 간단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제를 옳게 리해하고 실천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레닌이 말한 쏘베트정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름아닌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의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계급투쟁을 계속하고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개변시키고 기술문화수준을 높여야 하며 전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전기화라는 말은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할수 있을 정도로 기술을 높이 발전시키고 사회의 물질생산적토대를 매우 튼튼히 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레닌의 이 명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완수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과 함께 기술혁명을 완수하여 매우 높은 생산력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놓아야만 공산주의가 실현된다는것을 가르치고있습니다.

레닌이 말한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 이 둘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놓쳐도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레닌이 직접 공산주의를 건설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것만큼 우리가 그 명제를 옳게 풀고 집행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레닌의 이 명제를 바로 리해하고 집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높은 속도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경제리론분야에서 우경기회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분야에서 우경적편향을 반대하지 않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고 정치사업을 하지 않으며 사람들속에

서 개인리기주의를 길러주고 순전히 돈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그들의 집단적영웅주의와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따라서 기술혁명과업도 경제건설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우경기회주의리론에 추종하여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그들을 먹여살리는것도 힘들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낡은 사회로부터 매우 뒤떨어진 생산력을 물려받은 우리가 언제 발전된 나라들을 따라가며 또 능력대로 일하고 요구대로 분배받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습니까? 우리는 우경기회주의리론을 배격하여야 하며 우리 당의 혁명사상, 우리 당의 경제건설리론을 견지히 옹호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여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여야 하겠습니다.

2.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

일부 경제학자들가운데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그 생산과 류통 분야에서 가치법칙이 작용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론쟁이 벌어지고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일률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은 경우에 따라서 상품일수도 있고 상품이 아닐수도 있으며 따라서 상품인 경우에는 가치법칙이 작용하고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치법칙이 작용하지 않을것입니다. 왜냐 하면 가치법칙이란 상품생산의 법칙이기때문입니다.

그러면 생산수단이 어떤 경우에 상품이고 어떤 경우에 상품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옳게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상품의 본질과 상품생산의 유래를 똑똑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품이란 자기가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기 위하여 만든 물건입니다. 다시말하여 모든 생산물이 다 상품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한 물건이 상품입니다. 이로부터 똑똑히 알수 있는바와 같이 생산한 물건이 상품이 되려면 첫째로 서로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사회적분업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물건을 팖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사람과 물건을 삼으로써 소유권을 얻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상품생산이 진행되려면 사회적분업이 있어야 하고 생산물에 대한 소유관계가 분화되여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분업이 없거나 소유가 분화되여있지 않고 소유형태가 단일한 경우에는 상품생산이 있을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가 있게 되는것도 역시 사회적분업이 있고 생산물에 대한 서로 다른 소유가 있다는것으로 설명되여야 할것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는 분업이 있을뿐만아니라 날로 더욱 발전하고있으며 소유관계를 보더라도 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 사적소유가 없어지고 과도기초에 있었던 여러가지 경제형태가 점차 하나의 사회주의적경제형태로 되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가 있고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국경이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는 대외무역을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생산이 있게 되는 조건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은 자본가가 없는 상품생산이며 따라서 가치법칙도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맹목적으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작용하며 국가가 경제관리를 잘하기 위한 경제적공간으로써 계획적으로 리용합니다. 앞으로 과도기가 끝나고 협동적소유가 전민소유제로 넘어가서 하나의 소유형태를 이루게 된다면 그때의 사회생산물은 대외무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품이 아니라 그저 생산수단, 소비품이라고 하든지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법칙의 작용도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물론 그때에 가서도 사회적분업은 계속 발전할것이지마는 상품생산은 없을것입니다.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경제지도일군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잘 리해하지 못하여 리론분야에서나 경제관리사업에서 우경적 혹은 좌경적 오유를 범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수정주의리론에 추종하여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하여가지고 경제관리를 자본주의적으로 하려는 우경적편향을 범하고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과도적성격을 무시하고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로부터 기업관리를 합리화하지 못하고 많은 생산수단과 로력의 랑비를 가져오게 하는 극단적인 좌경적오유를 범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옳게 리해하고 처리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결국 상품화폐관계의 리용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

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좌우경적오유를 범한다면 엄중한 손실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어떤 경우에 상품이고 어떤 경우에 상품이 아닌가 하는것도 역시 소유의 분화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위치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상품이 아니고 소유자가 달라지면 상품입니다. 여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백한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로, 국가적소유에서 생산된 생산수단이 협동적소유에로 넘어가는 경우나 반대로 협동적소유에서 생산된 생산수단이 국가적소유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같이 상품이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작용하며 둘째로, 협동적소유에서 협동농장들사이나 생산협동조합들사이 또는 협동농장들과 생산협동조합들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수단은 다같이 상품이며 여기에서도 가치법칙이 작용하며 셋째로, 생산수단이 다른 나라에 수출될 때에는 상품이며 이런 생산수단의 거래는 국제시장가격이나 사회주의시장가격에 따라 진행되는것입니다. 례하면 인도네시아나 캄보쟈와 같은 나라들이 우리 나라에 공작기계를 달라고 할 때 이 나라들에 파는 공작기계는 상품이며 해당한 값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실시되고있지 않지만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안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남북사이에 련방제가 실현되여 남조선의 실업가들이 우리에게 기계설비를 요구한다면 그들에게 기계설비를 팔아주어야 하겠는데 이때 파는 기계설비는 상품이며 여기에서 가치법칙이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설비와 자재, 원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생산수단은 사회주의적협동생산에 기초하여 생산하고있고 비록 한 기업소에서 다른 기업소로 옮겨지더라도 사회주의국가는 여전히 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또한 그러한 생산수단은 자유매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자재공급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공급되기때문입니다. 그러한 생산수단은 군대에 보내는 무기처럼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기업소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장하여줍니다. 그러므로 국가기업소들 호상간에 류통되는 기계설비와 자재, 원료들은 가치법칙의 작용밑에서 실현되는 상품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영기업소들 호상간에 왔다갔다 하는 이러한 생산수단들은 상품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하여야 하며 그것들은 서로 주고받을 때 계산되는 가격이나 그것을 생산할 때 계산하는 원가와 같은것들은 가치법칙의 작용을 리용하지 않고 무엇을 리용한다고 하여야 하겠습니까? 기자재공급계획과 협동생산계획에 따라 국가

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들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상품생산에서처럼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생산수단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고있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을 리용하는것이 아니라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리용하며 생산수단의 생산 및 교환에서는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를 다만 경제계산의 도구로 리용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국영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게 되는것은 무엇으로써 설명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국영기업소들이 다같이 단일한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생산수단을 리용하고 관리하며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마치도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과 같이 서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기때문입니다. 국영부문의 매개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다같이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국가의 유일적계획에 따라 다른 기업소들로부터 생산수단을 넘겨받아 리용하며 자기가 생산한 생산물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일정한 리익을 주어야 하는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영부문의 매개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의 경영상 독자성은 같은 소유의 기업소이긴 하지마는 그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은 마치도 다른 소유에 넘겨주는 생산수단과 같이 상품인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하여 같은 국영부문의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이라 하여도 한 기업소에서 다른 기업소에 생산수단을 넘겨줄 때에는 망탕 거저 주거나 눅거리로 주는것이 아니라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사회적필요로동의 지출에 기초하여 국가가 유일적으로 정한 값을 받고 넘겨주는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국영기업소들사이라고 하여도 네것내것을 따지게 되며 엄격한 계산에 기초하여 생산수단의 거래가 진행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왜 국영부문안에서 기업소들에 경영상 독자성을 부여하며 그들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닌데도 등가성의 원칙에서 엄격한 계산에 따라 그것을 주고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재산을 자기의 소유처럼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있지는 못합니다. 기관본위주의나 지방본위주의가 심하여 자기 기관, 자기 지방의 협소한 리익을 내세우면서 국가나 다른 기관, 기업소의 리익을 좀먹는 낡은 사상잔재를 가지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교양된 사람

물도 다른 국가기관이나 기업소의 일을 자기 일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며 그것을 위하여 몸바쳐일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물론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여있지만 아직 그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처럼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는 되지 못하고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것이 사회주의하에서 비록 다같은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긴 하지만 그들사이의 거래에서 엄격한 등가계산을 할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에 물건이 매우 풍부하고 모든 기업소관리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개인리기주의가 없고 모든 국가재산을 자기의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국가사업을 자기 일처럼 몸바쳐한다면 등가계산이 필요없을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생산과 그 류통분야에서 상품적형태와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은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없애고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소의 수익성과 국가축적을 계통적으로 늘이는데 있어서 일정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리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수단생산분야에서 가치형태를 옳게 리용하여 엄격한 계산제도와 원료, 자재, 로력의 리용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물자원단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류통분야에서도 기계설비, 원료, 자재의 랑비를 없애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자재공급계획을 잘 세우는것과 함께 상업적형태를 충분히 리용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재상사를 내오고 상사를 통하여 자재, 원료들을 팔고사도록 한것도 그 공급사업을 잘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일군들이 이것을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정치경제학교과서에도 생산수단은 상품류통령역에서 제외되며 기업소들에 계획적으로 공급된다고만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를 통하여 공급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씌여있지 않습니다. 정치경제학교과서에서는 생산수단의 공급문제가 거의나 취급되지 않고있으며 특히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자재, 원료를 팔고사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재공급에서 많은 결함이 나타나고있습니다. 기업소들은 자재나 원료를 보장하는데서 싸면 싼대로, 비싸면 비싼대로 가져가며 그 값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그뿐아니라 어떤 기업소에서는 귀중한 자재가 쓸모없이 쌓여있는데 다른 기업소에서는 그것이 없어서 생산에 지장을 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것은 물론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자재공급계획을 잘못세우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것보다 자재나 원료의 공급도 상업적형태로 실현된다는것을 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기업소들사이에서도 서로 팔고사는 형식을 취하는만큼 자재, 원료들이 상품류통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계획기관에서 자재공급계획을 잘못세우기만 하면 자재를 묵여두거나 랑비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 그것이 어디에 가서 걸리는데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재상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자재상사들이 일을 잘하면 자재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도 않을것이고 적은 자재라도 필요한 기업소에 알맞춤히 공급하여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될것이며 또 기업소들도 타산이 없이 필요한것, 필요없는것을 망탕 받아다가 묵여두거나 랑비하는 일이 없어질것입니다.

우리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기계설비나 원료, 자재와 같은 생산수단이 국가소유로 남아있으면서도 기업소들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때에는 상품류통의 형태를 취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값이 문제로 될것이기때문에 간혹 계획이 잘못되여도 실지 공급과정에서 바로잡을수 있는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모든것이 계획적으로 생산되고 계획적으로 공급되며 계획적으로 소비됩니다. 더우기 전인민적소유에서는 생산, 공급, 소비가 완전히 계획화됩니다. 그러나 모든것을 다 정확히 계획화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20년이상이나 계획경제를 실시하여왔으며 계획을 객관적으로 세우라고 계속 강조하여오지만 아직도 계획화사업이 잘되지 않고있습니다.

자재, 원료의 공급계획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것은 계획에서 빠뜨리기도 하고 어떤것은 필요없는것을 공급하도록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가서 걸려야 하겠습니까? 상사에 가서 걸려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상사를 거쳐 자재, 원료를 팔고사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보충되고 고쳐져야 합니다.

또 설사 자재공급계획이 다 옳게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실지 공급사업을 바로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이 집행될수 없는것입니다. 만일 자재, 원료 공급에서 상업적형태, 다시말하여 팔고사고하는 형태를 무시하고 계획에 따라 그저 공급하기만 한다면 기업소들에서 자재를 되는대로 써서 랑비할수 있습니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 공산주의자로 되지 못한이상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재, 원료의 공급에서 상사들의 역할을 높이고 상품류통의 형태를 충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자재를 너무 많이 사오면 다른 자재를 사올수 없고 또 자재를 랑비하면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이 미

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원료, 자재를 공급하는데서 이러한 조건을 지어놓아야만 기업소일군들이 자재의 값을 따지고 수송비를 따지게 될것이며 자재를 귀중히 여기고 더 잘 보관관리하게 될것이며 자재리용에서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애쓰게 될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품생산과 그 류통령역에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상품가격을 옳게 정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잘 타산하여 값을 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가격을 정할 때에 상품에 들어있는 사회적필요로동에 정확히 의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격을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기초하여 정하지 않는다면 가격호상간의 균형을 유지할수 없고 사회주의적분배를 옳게 할수 없으며 사회적생산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하여봅시다. 내가 그전에 평북도 창성군에 있는 상점에 들렸는데 그때 상점에서는 실 200그람을 들여서 짠 연사직물의 값은 한메터에 3원하고 50그람의 실 한토리값은 5원 40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실 네토리에 맞먹는 실을 꼬아 천을 짜서 물을 들인것보다 한토리의 실값이 배나 비싸다는것을 말합니다. 물론 지방산업공장에서 실을 뽑는데 기계화를 잘하지 않아 로력도 많이 들고 생산비가 좀 많이 들었으리라고도 생각되지만 실을 물레에서 뽑지 않는이상 천을 짜는것보다 원가가 더 먹을수는 없는것입니다. 또 설사 생산비가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사회적필요로동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값을 정할수 없는 일인데 이처럼 터무니없이 값을 높인다는것은 리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격을 정할 때 대중소비품의 값을 눅게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론 우에서도 말하였지만 상품의 가격은 가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배리시킬수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능동적으로 배리시키면서 대중소비품의 값을 낮추 정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쌀, 천, 신발, 모기장, 바느질실, 성냥, 학용품과 같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건들은 눅게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치법칙을 옳게 리용하는것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고루 먹이고 입히며 다같이 잘 살게 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요구에 알맞는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대중소비품의 값을 높이 정한다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낼수 없고 인민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습니다. 례를 들어 비

날론혼방직과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요구되는 천의 값을 높여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같이 옷을 제대로 해입을수 없습니다. 또한 교과서, 연필, 공책, 색가방과 같은 학용품들의 값이 비싸면 의무교육제를 실시해놓고도 아이들을 제대로 공부시킬수 없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속에 천을 비롯하여 대중소비품의 값을 부당하게 높임으로써 국가재정예산수입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구 한사람당 20메터씩 차례지는 많은 천을 생산하지만 값이 비싸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사지 못하여 아이들도 잘 입히지 못하고있습니다. 물론 인민들에게 천이 많이 차례지지 못하는 주되는 원인은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 여러가지 천을 값싸게 생산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에게 천이 많이 차례지지 못하는것이 국가재정예산수입을 천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보장하려는 일군들의 그릇된 태도에도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일군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난 몇해동안에 천값이 부당하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이러한 옳지 못한 생각과 사업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없습니다. 사실은 값이 너무 높기때문에 천이 팔리지 않아 오래동안 묵여두며 나중에는 그 값을 낮추어 팔지 않을수 없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인민생활에도 손해를 주고 국가재정예산수입도 보장할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예산수입을 높이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한 거래수입금부과비률을 정하고 대중소비품에 대해서만은 값을 낮추 정하며 특히 어린이들이 쓰는 상품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나마나한 매우 낮은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호품과 사치품, 좋은 양복천을 비롯하여 아직 그 공급량이 제한되여있는 물건들은 수요를 조절하기 위하여 대중소비품보다 값을 높이 정하여야 합니다. 상품에 대해서뿐만아니라 주택과 같은 후생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으로 료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가령 보통시설을 갖춘 한두간짜리 집이라면 사용료를 낮추 정해야 하며 훌륭한 시설을 갖춘 세간짜리이상 집들은 많지 못하기때문에 사용료를 높게 정하여야 할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산력이 발전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상품들과 시설들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을 때에는 구태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게 될것입니다.

상품의 가격을 옳게 정하기 위하여서는 가격을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지금까

지 부분적으로 값이 잘못된것을 보면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을 비롯하여 일부 경제기관지도일군들이 지방산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지방적의의를 가지는것이라고 하여 그 가격제정을 틀어쥐지 않고 도인민위원장들에게 맡겨버린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구계획위원회를 내오고 계획화사업을 일원화한것처럼 지구가격위원회를 내오고 지방산업기업소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이르기까지 가격제정을 일원화하며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가격제정위원회와 같은 경제기관들이 가격제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것입니다.

3.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

농민시장이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입니다. 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자본주의적잔재가 많습니다. 그러면 농민시장의 자본주의적잔재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농민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가치법칙이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는것입니다. 국가는 농민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가격을 계획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영상업이 발전되고 농민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작용이 강화되는데 따라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이 일정한 정도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사회주의단계에서는 농민시장을 완전히 없앨수는 없습니다.

원래 장이란 말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생겨난 술어도 아니고 자본주의제도하에서 생겨난것도 아니며 봉건사회 때부터 내려오는 술어입니다. 봉건시대에 수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장이라는것이 생겨났습니다. 조선사람들은 옛날부터 상인을 장사군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장에서 일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장은 봉건사회에서 생겨난 뒤떨어진 상업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원칙적으로는 뒤떨어진 상업형태인 농민시장이 없는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하에서 협동경리가 있고 개인부업생산이 있는이상 농민시장이 없을수 없으며 또 그것이 남아있는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부업생산물까지 다 국가가 수매하여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이며 실지로 그렇게 할수도 없습니다. 개인부업생산물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자신이 소비하고 남는것은 시장에 내다가 마음대로 팔거나 다른 물건과 바꿀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협동농장공동경리에서 생산한 축산물이나 공예작물도 그 대부분은 국가가 수매하여야 하겠지만 일부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농민들은 이것을 자체로 소비할수도 있고 수매원에게 팔수도 있으며 농민시장에 내다 팔수도 있을것입니다. 꼭 수매원에게만 팔아야 한다고 할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누구에게나 마음대로 팔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상 편리도 도모할수 있습니다.

정치경제학교과서에도 농민시장에 대하여 잘 쓰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썼는가 하면 농민시장은 공동경리발전에 나쁜 영향을 주고 농민들의 소부르죠아사상, 리기주의를 길러준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느때에 가서 없어질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똑똑히 씌여있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남아있는것은 나쁠것이 없으며 오히려 좋은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특히 비자루나 바가지와 같은 소소한 일용품들과 고기와 닭알 그리고 참깨, 들깨 같은 부식물들을 다 국가에서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그것들을 개인들이 부업경리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 방법이 뒤떨어진것이기는 하지만 선진적방법으로 다 할수 없을 때에는 뒤떨어진 방법도 리용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일부 일군들은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당장 자본주의를 되살아나게 하는것처럼 겁나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협동농장원들에게 개인터밭을 너무 많이 준다면 그들이 공동로동에 잘 참가하지 않고 개인경리에 매달리게 되며 자본주의적요소를 조장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터밭이라야 몇십평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부업축산이라야 돼지 한두마리 기르거나 닭을 여라문마리 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터밭에 담배 몇포기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본주의적경영으로 되는것도 아니며 그들이 닭 몇마리 농민시장에 내다 좀 비싸게 판다고 해서 자본가로 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공동경리에 나쁜 영향을 주고 리

기주의를 길러준다고 하면서 법령으로 농민시장을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장마당은 없어지지만 암거래는 의연히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농민들은 부업으로 생산한 닭이나 닭알을 가지고 남의 집 부엌이나 뒤골목은 찾아다니며 팔것입니다. 그러다가 단속되여 벌금을 물지 않으면 법적추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농민시장을 강제로 없애서 해결될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인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숱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죄인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넉넉히 생산공급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조급하게 농민시장을 없애버리는 좌경적편향을 엄격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때에 가서야 개인부업생산과 농민시장이 없어지겠습니까?

첫째로, 나라가 공업화되고 기술이 높이 발전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이 넉넉하여질 때에만 그것이 없어질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국영상점에서 살수 있게 되면 누구도 그것을 구태여 농민시장에 가서 사려고 하지 않을것이며 또 그러한 물건은 농민시장에서 거래도 되지 않을것입니다. 가령 공장에서 값싸고 질좋은 화학섬유가 많이 쏟아져나오면 사람들이 구태여 장마당에 가서 비싼 목화를 사려고 하지 않을것이며 또 일부 농민들이 그것을 비싸게 팔려하여도 팔수 없을것입니다. 지금 조건에서도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는 상품들은 농민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함흥과 같은 큰 도시나 백두산밑 포태리와 같은 두메산골이나 할것없이 우리 나라 모든 지역에서 같은 값으로 실현됩니다. 이렇게 물건이 넉넉하고 같은 값으로 실현될 때 그것은 공급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은 비록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값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암거래되거나 농민시장에서 되거리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사두었다가 다른 사람이 요긴하게 찾을 때 값을 덧붙여파는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닭알과는 문제를 놓고봅시다. 지금 우리가 평양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닭공장을 짓고 닭알을 생산하고있는데 아직은 인민들에게 넉넉히 공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닭알도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사이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리용하여 되거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닭알 몇알 되거리한 사람을 죄수로 만들어 교화소에 보낼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통제한다고 해야 판매량을 조절하는것과 같은 몇가지 실무적대책을 세우는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대책도 세워야 하겠지만 그런 대책

으로는 상품이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얼마간 조절할수 있을뿐이지 결코 그것이 농민시장에서 되거리되거나 암거래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앨수는 없는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는 물건을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닭알공장을 더 많이 짓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을만큼 많이 생산한다면 닭알의 암거래는 없어질것이며 농민시장에서 팔고사는 일도 저절로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을 하나하나 없애나간다면 마지막에는 농민시장이 필요없게 될것입니다.

둘째로, 개인부업생산과 농민시장은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야만 없어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 때에는 농민시장에서 팔고사는 일은 없어지게 될것입니다.

지금 농민시장이 있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국영경리와 함께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가 있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개의 소유가 단일한 전인민적소유로 될 때에는 생산력이 발전하여 개인부업경리가 없어지고 따라서 농민시장이 없어질것이며 상품류통일반이 필요없게 될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생산물은 공급제에 의하여 분배될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쌀을 비롯하여 몇가지 요긴한 물품들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공급제에 의하여 분배하고있는데 물론 이것은 물건이 많아서 하는 공급제도 아니며 단일한 전민소유의 조건에서 하는 공급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물건이 많지 못한 조건에서 사람들을 고루 먹이고 살게 하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생산력이 매우 발전하고 두 소유형태가 단일한 전민소유로 될 때 실시하려는 생산물에 대한 공급제는 오늘 우리가 통제하기 위하여 하는 공급제와는 달리 많이 생산된 소비품을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더잘 보장하기 위한 공급제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소유가 전민소유로 될 때에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없어지고 상업은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갈수 있을것입니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문헌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이란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김일성동지의 이 연설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우리 당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강화하고 당사업과 인민정권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지난 10년간 우리 당건설과 혁명발전의 전과정은 이 강령적문헌에 천명된 김일성동지의 심오한 혁명사상과 현명한 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던 시기였다.

우리 당안에서는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력사적고질로 내려오던 온갖 종파오물들을 청산하고 그 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진행되고있었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계급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에 따라 당 및 국가 사업을 새 환경에 맞게 개선하여야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발전되고있었다.

이러한 력사적전환의 시기에 우리 당앞에는 반드시 풀고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새로운 과업들이 나서고있었다.

김일성동지의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바로 이러한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현지에 나가시여 함경북도 당조직들과 공장, 기업소, 농촌, 어촌들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당 및 정권 기관의 사업을 개선강화하며 공업, 농촌경리, 수산, 기본건설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력사적인 교시를 주시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이 력사적인 교시는 비단 함경북도에서뿐만아니라 전국의 당 및 국가 사업과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이 비상히 높아졌다. 당안에서 종파주의, 지방주

의, 가족주의 여독이 철저히 극복되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확고히 구현되게 되였으며 당사업에서 낡은 틀이 마사지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튼튼히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친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고 우리의 혁명대오는 반석같이 다져졌다.

또한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이 더한층 높아졌으며 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혁명적군중관점이 확립되였으며 일군들의 사업수준이 높아져 사회주의경제를 능숙하게 운영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났으며 생산력은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여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김일성동지의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지난날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당건설과 혁명발전의 강력한 리론실천적무기로 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연설에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심오한 맑스-레닌주의리론에 기초하시여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그 활동에서 준수되여야 할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당건설리론과 국가건설리론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을 계속 심오히 연구체득하고 그 요구의 실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묶어세우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동지의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우리 당건설에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함에 있어서 우리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 지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탁월한 로작에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당사업에서 간부들과의 사업, 인테리들과의 사업, 로동계급 특히 신입로동자들과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천명하심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석같이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개량주의당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당이며 자본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투적당입니다. 자본주의를 뒤집어엎고 사회주

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선 당의 강철같은 통일이 필요합니다.

당의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와 결정에 의하여 전당이 한사람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도부에서 <앞으로> 할 때 가지 않겠다고 뒤에서 우물거리거나 <좌로>하면 우로 달아나는 현상이 당내에 있을수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무정부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76페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제일차적요구는 전당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이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당건설의 기본원칙이며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결정적담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개개의 조직,개개의 성원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수령의 유일한 령도사상에 의하여 굳게 결속되고 조직된 자각적인 혁명투사들의 부대이며 하나의 공통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산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그들의 전일적인 혁명적조직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에 있어서 당원은 당조직에, 하급당은 상급당에, 전당은 당중앙위원회에 무조건 복종하는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은 로동계급의 수령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은 전당을 결속하며 강화하는 유일한 사상적기치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의 수행방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앞을 내다본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전당의 조직적의사이며 당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맑스-레닌주의당안에서는 수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상도 허용될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이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당원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에만 자기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은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말단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오직 하나의 사상에 의하여 령도된다.

우리 당안에서 전당을 관통하고있는 유일한 사상은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우리 나라에서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가일층 심화발전시킨 사상이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철저한 주체사상으로서 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그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서 제기되는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준 가장 혁명적이며 가장 과학적인 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맑스-레닌주의보물고에 리론실천적으로 탁월한 기여를 한 사상으로서 세계혁명

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며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만이 있을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일찌기 혁명투쟁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40여년간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몸소 투쟁의 앞장에 서시여 우리 혁명의 앞길을 태양처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오늘도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인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내놓으시여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고계시며 인민대중을 철저한 혁명사상과 백절불굴의 투지, 고매한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시고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뚫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

그이께서는 헤아릴수 없이 깊고 높은 혁명적지도리론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고계실뿐만아니라 고결한 덕성과 친어버이심정으로 우리 인민을 보살펴주시며 키워주신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을 영원히 청산하고 민족적대번영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였기때문에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내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던 종파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었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자기 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실현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적기능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력한 당으로 되게 한 근본요인이였으며 우리 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의 결정적담보였다.

여기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모든 당원들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당에 확고한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함이 없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확한 관철에 대하여 말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싸워나가며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는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숭고한 의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방주의, 가족주의 여독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낡은 사상잔재인 개인주의, 리기주의의 발현으로서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그것은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는 종파의 온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확한 관철을 저애하는 주되는 장애물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그 사소한 요소라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혁명적본질을 다시한번 천명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가적기풍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가 내놓는 정책은 아래에서 올라온 의견입니다. 그것은 모든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하는것이며 전당의 조직적의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정책과 결정을 철저히 연구하고 무조건 집행하는것은 당원의 의무입니다.》 (우와 같은 책, 377페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근본리익이 반영된 전당의 조직적의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당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시여 그것을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체계화하시고 집대성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이 매시기 제기되는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심오히 연구하여 뼈와 살로 만들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영예로운 혁명적의무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함이 없이는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교조주의, 부르죠아사상, 봉건적유교사상,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등 일체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을 물리칠수 없으며 조국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승리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없다.

전체 당원들은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당간부사업을 개선하며 인테리들과의 사업,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면서 거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간부사업의 원칙적요구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간부선발의 첫째표징은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당에 충실하다는것은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몸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세>만 부르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것이 아닙니다. 만세는 안불러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당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사람을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우와 같은 책, 37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진 다음에는 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간부들에게 크게 달려있다.

간부들은 우리 당의 골간이다. 당에 무한히 충실한 사람들로써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및 정치실무수준을 더욱 높여야만 당의 전투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며 다음으로는 그의 능력이다.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일군만이 당과 혁명앞에서 지닌 무거운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무엇보다도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에서 나타난다. 당과 수령께서 제시하신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줄 아는 사람, 아무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맡겨진 혁명초소를 튼튼히 고수하는 일군을 가리켜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사람이라고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에서 단련된 혁명투사들을 핵심으로 하여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해방후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비롯한 치렬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로동자, 빈농민 출신의 우수한 일군들로 그 대렬을 부단히 보충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손에 무장을 들고 장구한 기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혁명투사들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혁명력량이 비상히 확대강화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어려운 투쟁에서 항상 승리할수 있었다. 해방후 민주주의혁명시기,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를 포함한 치렬한 계급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줄기찬 실천투쟁과정에서 우수한 일군들이 수많이 육성단련되였으며 그들은 시종일관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였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러므로 항일투사들을 핵심으로 하여 간부대렬을 꾸리고 해방후 혁명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단련된 일군들로 그 대렬을 부단히 보충하는것은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부를 옳게 선발등용하여 배치한 다음에는 늘 교양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래야만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간부들이 온갖 곤난과 시련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당정책관철에로 인민대중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수령의 붉은 전사로서 혁명적지조를 지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이 모든 교시들은 모든 당조직들이 간부들과의 사업에서 항상 견지하여야 할 확고한 지침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대중을 위한것이며 대중의 참가없이는 관철할수 없다는것을 가르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믿고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묶어세울데 대하여 특히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은 해방직후부터 인테리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개조하여왔으며 그들과 손을 잡고 대담하게 그들을 당에 받아들여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까지 같이 나가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왔습니다. 지금도 이 정책은 변함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386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은 모든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주위에 단결시키고 그들의 창조적열성과 적극성에 의거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하루속히 완수하시려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하고있으며 군중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관점과 신임을 표시하고있는것이다. 특히 그것은 우리의 인테리들을 무한히 아끼고 극진히 돌보아주시는 그이의 높고 깊은 사랑과 배려의 집중적반영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해방후 새로 육성된 인테리들은 물론, 오랜 인테리들도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꾸준히 단련되여왔으며 오늘 그들은 당과 수령의 당당한 전사로서, 로동계급의 인테리로서 자신을

끊임없이 개조하면서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당조직들은 인테리들에 대한 수령의 일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인테리들을 당과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견결히 싸울수 있는 공산주의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들을 더욱더 혁명화, 로동계급화해야 하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로동자들과의 사업 특히 로동계급의 대렬에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원칙적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당 공장에 있는 오랜 로동자들을 기본으로 하고 로동당원, 공산주의자들이 핵심이 되여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에게 교양을 주어 용광로앞에서, 기대앞에서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내 구성성분이 복잡한것을 결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로동자들이 핵심이 되여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을 다 교양하고 개조하여 튼튼한 로동계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도 더 잘될수 있고 공장의 질서도 째이고 사회주의건설속도도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88페지)

로동계급의 대렬에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을 교양개조하여 그 대렬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그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에 의하여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구성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던 당시에 있어서뿐만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전행정,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항상 견지하여야 할 원칙을 천명한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로동계급의 대렬은 부단히 늘어나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대렬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교양하여 훌륭한 로동계급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들은 로동계급의 대렬에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하루빨리 혁명화함으로써 우리의 로동계급을 참말로 혁명적이고 문화적인 계급으로 만들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모든 사업을 잘하자면 당사업에서 행정식, 명령식 방법을 철저히 뿌리빼고 내며먹이고 당세도를 쓰는 작풍을 없애며 설복과 교양을 위주로 하는 당적인 사업방법을 확립하며 당원은 군중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고 당조직은 당원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연설에서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방침과 방도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심으로써 우리 당을 보다 강력한 당으로 만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는 더욱 광활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을 통하여 집행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지방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수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에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어떻게 적응시키고 완성시켜나가며 확립된 토대에 맞게 상부구조를 어떻게 완성하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여기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새 환경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편하는것이 대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을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는 새 환경에 맞게 개편할데 대해서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생활의 주인으로 된 인민위원회가 생산과 류통사업을 지도하고 조직하고 계획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할 사람이 없으며 사회가 움직여나갈수 없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93페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의 모든 과정이 계획적으로 전일적인 련관속에서 진행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을 틀어쥐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야 하며 통제해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이 발전되고 사회경제생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민정권기관들앞에는 더욱더 복잡하고 중대한 과업들이 많이 제기된다.

이 모든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자체가 고도로 조직화되고 계획화되여 시계처럼 딱딱 맞물고 돌아가도록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새 환경에 적응하게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그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조건에서 지방정권기관들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임무들을 천명하시면서 그것을 잘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으며 특히 지방정권기관일군들의 사업수준을 높이고 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고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경제를 운영할수 없고 사회발전을 촉진시킬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발전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전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동무들이 알아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397페지)

혁명적학풍을 세워 당정책의 본질을 체득하고 과학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지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선차적임무이다.

발전하는 현실은 날을 따라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있으며 그것을 풀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수 없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자기 사업을 실속있게 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하며 지도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매개 일군들

이 김일성동지의 로작들과 당정책학습을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진행하여 그 진수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정책으로 재여보고 수령의 의도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제때에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부문에 주신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구절구절 새겨가면서 깊이 연구하고 그의 성과적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공부문학습을 잘하며 특히 경제리론과 기술지식을 깊이 소유하고 자기 맡은바 사업에 정통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지도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사업작풍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인민의 충복입니다. 다시말하면 인민들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인민들에게 호령을 할것이 아니라 인민들을 가르치고 인민들과 같이 일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민들과 같이 숨을 쉬게 되고 그들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합니다.》(우와 같은 책, 397페지)

인민의 충복으로 된다는것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며 자기의 일체사업을 인민들앞에서 끝까지 책임질줄 아는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언제나 당과 혁명의 리익,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의 전사, 로동계급과 인민의 충복이라는것을 잊지 말고 자기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고 당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모든 문제를 의논하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의 임무와 기능,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작풍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국가, 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행동준칙으로 된다.

실로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인민위원회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교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자인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공업, 농촌경리, 수산업, 기본건설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주시였다.

생산준비를 앞세우고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울데 대한 문제,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능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철과 기계 생산을 발전시키고 특히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광범히 전개할데 대한 문제, 채취공업부문에서 굴진기를 앞세우며 전력공업에서 대중소발전소건설을 배합할데

대한 문제, 지방공업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으로 생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치산치수사업을 잘하며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여 생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원해어업과 중소어업을 배합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가공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 농촌건설에서 지방자재를 많이 리용하며 건설의 질을 높일데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하여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모든 방침들은 함경북도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그리고 지난날에 있어서뿐만아니라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면서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이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연설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당사업과 인민위원회사업을 발전시키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일련의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명확하고 전면적인 해답을 준것으로서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키는데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문헌으로 된다.

* *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전반적인 혁명과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킴에 있어서 위력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이 연설은 혁명발전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줌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된다.

모든 당조직들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 등 그이의 모든 로작들과 함께 《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에 담겨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깊이 연구체득시키며 그것을 실천활동에서 반드시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 및 국가 경제 기관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뼈와 살로 만들고 그이의 위대한 혁명력사를 가슴속깊이 새겨넣음으로써 자신을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수령의 참된 전사로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속에서나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보위하며 수령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우리는 천리마진군을 다그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혁명적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올해의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고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해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치여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사업방법

박 희 석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이 옳게 수립된 다음에는 사업의 성과적수행여부는 일군들의 실지 사업방법여하에 달려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1권, 51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일군들의 사업방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게 수립된 다음에 그의 성과적수행은 일군들의 사업방법여하에 달려있다.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의 진수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할 때만이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대중을 성과적으로 조직동원할수 있는것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미 혁명적사업방법의 제요구를 명철하게 천명하시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고귀한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으며 오늘의 위대한 전변과 승리, 우리 인민의 모든 행복과 번영을 마련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하시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하시였으며 그를 전당과 전국에 일반화하심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완성하는데 있어서 실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성상에 걸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철저한 주체적립장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시여 대중령도의 세련된 혁명적사업방법의 가장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기본은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배워주며 항상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문제해결의 정확한 방도를 찾아냄으로써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조직동원하여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가장 중요한것의 하나는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설복과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이 혁명사업에서 첫공정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은 혼자서 할수 없으며 혁명을 하자면 군중들과 단결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의 광

범한 군중들을 하나의 혁명력량에 묶어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광범한 군중들을 혁명대오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혁명열의를 북돋아주는 정치사업이야말로 혁명사업에서 첫 공정으로 되며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로 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언제나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에게 혁명투쟁의 목적과 의의를 정확히 인식시킴으로써 혁명과업수행에 그들을 자각적으로 조직동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선차적이며 본질적요구를 천명하신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인민대중의 리익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투사들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그들의 투쟁목적과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해설설복하여 그를 정확히 인식시킬 때라야만 더 많은 군중을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게 할수 있는것이다.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군중을 간악한 일제를 때려부시는 투쟁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하는 위력한 무기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쌓으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항상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공정으로 삼으시고 대중을 설복교양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정치사업을 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여러 회상기들에서 이러한 모범을 수많이 찾아보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군중들에게 조선혁명의 로선과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에서 제기되는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부단히 해설선전하시였으며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함께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들을 과감히 뚫고나갈수 있도록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부단히 높이며 혁명에 대한 자부심과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줌으로써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도록 교양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항상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목적은 혁명을 하여 나라를 찾고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는데 있다. 동무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총을 잡지 않았는가!

혁명을 한다는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혁명의 길은 오늘 동무들이 겪는것처럼 힘이 든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빼앗긴 조국, 원쑤들의 발밑에 짓밟힌 고향산천, 헐벗고 굶주리는 부모처자를 생각하자!》

김일성동지의 이러한 가르치심은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부모형제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따라 끝까지 일제와 싸워 승리하는 길만이 조국의 독립을 달성하고 전체 조선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해방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길이라는것을 깨닫게 하였다. 바로 이로부터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무한히 충실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 오직 수령과 혁명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사업선행의 원칙은 전투조직과 전투명령관철에서도 언제나 견지되였으며 철저히 관철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보천보전투에 앞서 대원들에게 정치사업을 통하여 그 목적과 의의를 상세히 가르쳐주신것은 전형적인 실례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는 만난을 극복하고 일제와 싸워서 조국을 반드시 해방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압록강을 건너서 조국땅에 들어가 일제의 아성에 불을 지르려 한다.…우리가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자기들을 구원해줄것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는 인민들에게 커다란 승리의 신심을 불어넣을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원들의 전투사기를 고무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간곡한 말씀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으로 더욱 가슴불태웠으며 조국진군에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였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조국광복의 영예로운 임무를 담당한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의 친솔하에 항일유격대원들은 총검의 숲을 이룬 국경경비진을 뚫고 조국에로 진군하여 《무적》을 자랑하던 일제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고 조선혁명의 홰불을 높이 올림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투쟁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온 세상에 조선인민은 살아있으며 싸우고있다는것을 시위하였다.

항일유격대에서는 군사적명령이 하달되면 우선 대원들에게 정치사업을 앞세워 그 명령의 내용과 목적 그 의의에 대하여 상세히 가르쳐주는것이 철칙으로 되었다. 즉 군사적명령이 내리면 반드시 당회의, 공청회의, 전투원회의들을 열고 모든 대원들이 그 명령을 접수하고 그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힘과 지혜를 다바쳐 투쟁할 결의를 다지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항일유격대에서의 군사적명령은 대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항상 신속정확하게 집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원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행군을 조직하실 때에도 언제나 대원들의 건강과 심리 상태까지 깊이 포착하시고 거기에 맞게 정치사업을 앞세워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전투임무수행에서 높은 자각적열성을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싸우는것을 더없는 영예와 자랑으로 생각하였으며 그이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받들고 그것을 관철하며 그이가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 투쟁에서 높은 정치적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실천적인 모범을 따라 항일유격대에서는 이와 같이 가렬한 전투와 행군을 조직할 때나, 정치공작원들을 적후에 파견할 때나, 그리고 인민대중을 동원할 때나 항상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혁명임무를 수행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의 목적과 의의, 그 정당성과 수행방도를 충분히 리해할 때까지 꾸준히 해설하고 설복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인민의 생활처지와 풍속과 관습, 그들의 정치적준비정도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선전선동사업이 대중의 심장을 파악하자면 어떻게 되여야 할것인가? 우선 선전일군들자신이 선전대상의 실정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대상에 대한 료해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선전선동사업이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면할수 없게 되며 또 그러한 선전선동사업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항일유격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정치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몸소 실천적인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가 주민부락에서 숙영할 때나, 행군하다가 잠시 휴식할 때 등 이러저러한 기회에 로동자, 농민들을 만나시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있는것이 《타고난 팔자》때문인것이 아니라 일제의 조선강점에 있으며 따라서 일제와 그 주구 지주, 자본가들을 때려부셔야만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달성하고 제나라 제땅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것을 대상의 생활처지와 결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치사업에서 집체적방법과 개별적방법을 옳게 결합시키며 말은 될수록 간결하게 하면서도 내용은 풍부하게 하며 몇마디의 말로써도 군중에게 열렬한 애국심과 불타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개별적교양과 함께 강연, 집체선동, 강습, 회의, 연예공연, 오락회 등 집체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3.1월간》, 《서광》을 비롯한 수많은 신문, 잡지, 소책자, 선전문, 격판물 등 혁명적출판물을 광범히 리용하여 군중을 각성시켜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 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그이의 실천적인 모범을 따라 항일유격대원들은 항상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함으로써 자신들은 물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이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을 혁명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고귀한 경험이 이룩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사업방법의 중요한것의 다른 하나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배워주는것이였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배워주는 사업방법은 현실에 깊이 파고들어 실정을 구체적으로 분석료해하고 과학적인 대책을 세우며 상하합심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아래일군들을 도와주며 배워주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였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지방사업을 할 때에는 세포에 내려가 한 일주일씩 묵어가면서 일하였습니다. 그 세포일군들과 같이 살면서 문건도 만들어주고 삐라도 써주고 회의준비도 하여주고 회의에 참가도 하는 등 이렇게 실제로 아래일군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교양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347～348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과 조선혁명전반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언제나 관하부대들과 혁명조직에 내려가시여 대중과 함께 생활하시며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하부에 내려가시면 우선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실정을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우리는 그이께서 아래일군들을 얼마나 친절히 배워주고 도와주며 사업상 애로와 난관을 해결해주시였는가를 《오직 그이의 가르침대로》,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다》, 《중대당지부회의에서》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들에서 가슴뜨거이 찾아볼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35년 여름 한 중대에 내려가시여 대원들이 서로 성격과 취미, 습관상 차이로부터 의지적단결을 이루지 못하고있는것을 포착하시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대당지부회의를 친히 지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우선 동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싶다. 우선 문제를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해 보자. 그러면 즉시에 모든것이 풀릴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 한자리에 모여앉은 것이 무엇때문인가?

우리는 모두가 혁명을 위해 나선 사람들이다. 혁명의 목적은 일제를 타도하고 제 나라를 찾아서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는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방에서 모여왔으나 오직 이 한가지 목적과 사상을 가지고 여기 한자리에 모여왔다. 여기 앉아있는 김동무도 그렇고 리동무도 그렇다. 박동무나 최동무의 경우에도 조금도 다름이 없을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위대한 한 길 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선 동지들이라면 성격이나 개인의 취미, 습성의 차이에서 오는 의견상이란 그야말로 사소한것이 아닌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친히 중대당지부회의에 참가하시여 당원들의 생활에서 일시 얽혀있던 매듭을 풀어주시였으며 그들의 가슴속깊이에 위대한 혁명사상과 자각의 씨앗을 넣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실로 형언할수 없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도 항상 아래일군들과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시는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다른 하나는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를 일반화하여 사업전반을 추켜세우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이 방법은 전형적인 경험에 의거하여 혁명발전의 전반적요구를 해결하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령도방법이다. 이것은 또한 생동한 경험과 실물로써 일군들을 실속있게 가르쳐주며 창조된 모범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며 본받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능숙히 결합시키는 혁명적사업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행군, 숙영, 전투 조직과 대원들의 군정학습, 그리고 부대관리에 이르기까지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를 전 부대에 일반화하는 사업방법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투조직과 부대관리로부터 한 대원의 몸단장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어느 한 소대 또는 중대에 그 전형적인 모범을 창조하시고 그를 일반화하심으로써 전부대의 생활질서와 규률을 세우고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꾸리시였다.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항상 부대관리를 알뜰하게 하여》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부대생활에서 나타나고있던 일부 부족점들을 시정하고 혁명적생활기풍을 확립하며 그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오중흡동지가 책임진 중대를 우선 모범중대로 꾸리고 그 경험을 일반화할 대책을 세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중흡동지에게 중대의 생활을 질서있고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오중흡동지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선 회의를 열고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대원들에게 깊이 해설침투시키였으며 구체적인 분공사업을 조직하였다. 이리하여 중대내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여 그처럼 간고한 조건하에서도 병실, 취사장, 세면장 등을 알뜰히 꾸리고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정연하고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확립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한단위에 모범을 꾸리시고 련대의 소대장이상 군정간부들에게 이 모범을 직접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4중대를 검열한 목적은 앞으로 모든 부대들이 4중대와 같이 부대관리를 잘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리자는데 있다.

전체 지휘관들은 4중대의 모범을 따라 부대를 알뜰히 꾸려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이와 같은 가르치심을

받들고 그후 모든 지휘관들은 자기가 책임진 부대를 훌륭히 꾸리는데 힘썼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전체 부대들이 규률있고 질서가 정연한 부대로 되였으며 혁명적생활기풍이 매개 유격대원들의 습관으로 굳어져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모든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고리를 포착하여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며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밀접히 결합시키는 등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모범을 구현하심으로써 대원들을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의식과 자각성을 더욱 높이 발양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내에서뿐만아니라 인민들을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하심에 있어서도 혁명적사업방법의 제요구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그이의 실천적인 모범을 따라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대상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맞게 항상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쳐주었다.

항일유격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은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 항일유격대의 목적과 사명 등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었으며 그들을 민족적,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며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그를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항일유격대는 자기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었으며 원칙적단결과 혁명적동지애,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미풍을 더욱 높이 발양하게 되였으며 원쑤와의 싸움에서 항상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었다. 인민대중은 수령을 무한히 흠모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고무되여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하여 항일유격대를 성심성의로 도와나섰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을 부단히 확대강화할수 있게 하였을뿐만아니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튼튼히 마련하고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수 있게 하였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 이것은 항상 군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군중관점과 군중로선에 확고히 기초한 방법이며 대중령도의 진정한 당적, 정치적 방법이며 유일하게 과학적인 공산주의적사업방법이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사업방법의 규범과 제 요구가 전면적으로 명백히 담겨져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립장과 혁명적군중로선을 그 초석으로 삼고 있으며 그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있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독불장군이란 말 그대로 단독적인 노력이나 열망만으로써는 안된다. 인민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싸울때만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인민에게서 배우고 인민을 잘 교양하고 조직하여 옳게 발동시킨다면 어떤 일이건 못해낼것이 없다.…》

《…한사람을 고쳐서 열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백사람, 천사람에 영향을 주어 우리 편에 서게 하는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사업방법이며 진실한 태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행정에 걸쳐서 모든 문제를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조선혁명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것을 제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철저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그 사상으로 대원들과 혁명적군중들을 부단히 교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상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을 믿으시고 그들을 교양하여 혁명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혁명과업수행에 능숙하게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앞에 조성된 모든 난국들을 타개하시고 항일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은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확고히 기초하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본질은 또한 인민대중을 위하여 가장 훌륭히 복무한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빨찌산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싸우며 언제든지 인민과 같이 살고 인민과 같이 싸우는 그러한 투쟁정신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당시 빨찌산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밑에 항상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항일빨찌산은 인민을 위하여 싸웠고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옹호를 받았기때문에 주권이 없이도 15성상이나 유격투쟁을 전개할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66~67페지)

항일유격대원들은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었다.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것—이것은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임무였으며 가장 큰 영예였다. 항일유격대는 가는 곳마다에서 모든것을 다하여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며 아무리 곤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인민에게 해가 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바로 여기에 혁명적사업방법의 확고한 기초가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은 혁명투쟁의 일반적합법칙성과 특히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실정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세계혁명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장기적이며 간고한 조건하에서 진행된 위대한 혁명투쟁이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한 항일유격대는 언제나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 등 인민의 원쑤, 계급의 원쑤를 극도로 증오하였다. 그들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누가 청해서 혁명의 길에 나선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스스로 총을 잡고 혁명의 길에 나선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이였으며 견결한 혁명투사들이었다. 그들은 항상 수십배에 달하는 대적과 맞서 생명을 내걸고 굴함없이 싸워야 하였다.

항일유격대의 이러한 성격과 사명, 구성, 투쟁환경 등은 항일유격대내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온갖 반인민적이며 반혁명적인 낡은 사업방법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군중로선에 기초한 혁명적사업방법만이 고유하게 요구되였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은 혁명적인민들의 지원이외에는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전혀 없는 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간악한 일제를 반대하여 15성상에 걸쳐 진행된 간고한 투쟁이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군중과의 사업방법을 옳게 체득하는것은 그들을 각성시켜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며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마련하는데 있어서 근본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였다.

군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

인 사업방법은 오직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력량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투쟁의 수행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대표하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는 혁명의 탁월하고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가장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군중로선에 기초한 유일하게 과학적인 혁명적사업방법을 창조하시였으며 그것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 당이 계승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사업방법의 전통은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었다.

이 빛나는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될수 있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사업방법의 전통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적조건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것이다.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전당과 전국에 널리 일반화됨으로써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이 높이 발양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적사업방법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오늘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보고와 공화국정부의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그이의 강령적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동원하는 강위력한 무기이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창조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신 혁명적인 사업방법을 따라배우는것은 수령의 전사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예이며 자랑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되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사업방법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함에 있어서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민주개혁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손 전 후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지난 20년간의 투쟁로정과 업적을 총화하시면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실시된 제반민주개혁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개괄하시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민주개혁에 관한 리론은 확고한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시면서 현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새로운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풀어나아가시는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활동에 나서신 초기에 조선혁명의 성격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그것을 혁명근거지에서 직접 실현하시고 그 경험과 업적을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집대성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민주개혁에 관한 위대한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해방직후 이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철저히 완수하고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명시하신 김일성동지의 민주개혁에 관한 사상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과학적인 혁명사상이며 민족적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혁명적 인민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휘황한 등대이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정권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주개혁을 실시한것은 해방후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개혁을 실시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였습니다. 민주개혁을 실시하여야만 지주, 예속자본가를 비롯한 반동계급들의 경제적기초를 없애고 사회적진보를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었으며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지반을 튼튼히 하고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로 전변시킬수 있었습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제국주의적기반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새 사회를 건설해나가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필수적인 과업이다.

민주개혁의 실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끝까지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요구로 된다.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적독립을 달성하는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자들은 정치적독립을 달성한 나라들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올가미를 들씌우려는 기도를 버

리지 않으며 식민지나라 반동세력은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복구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고 온갖 매국적인 책동을 감행한다.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이러한 준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경제적지반을 철저히 청산하여야 한다.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은 식민지통치의 사회적근원을 이루는것으로서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식민지통치를 다시 복구하려는 그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할수 없으며 전취한 독립을 공고발전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식민지예속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진보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수립하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민주개혁을 철저히 실시하고 사회적진보를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남겨놓은 식민지적 및 반봉건적 잔재는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민주개혁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이 장애물을 청산하고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을수 있으며 파괴된 경제를 복구발전시키고 민족문화를 새로운 토대우에서 꽃피게 할수 있다.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기반에 억눌렸던 근로자들의 사회적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그들을 새 사회건설에 적극 인입하는것은 민주주의혁명과업의 중요한 요구이며 이것은 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만 보장될수 있다.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사회적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만 그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할수 있으며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그들의 높은 정치적열성과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민주개혁을 실시하여야 수립된 인민정권의 사회경제적지반을 튼튼히 하고 새 사회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로농동맹을 강화하여 각계각층 군중들의 정치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할수 있다. 그러므로 해방후 민주개혁을 실시한것은 우리 인민정권의 정치경제적지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로 전변시킬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정세를 주체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토지문제의 해결이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기본과업이라는것을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문제는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초미의 문제입니다. 토지문제를 해결하여야만 농촌에 뿌리박은 반동세력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농민들을 봉건적착취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정치적열성을 비상히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민주화하기 위한 사회정치적지반을 강화할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혁을 하여야만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질곡에서 해방하고 빨리 발전시켜 민족공업과 전반적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9～10페지)

식민지, 반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는 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지배하는 농촌경리가 인민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락후한 농촌경리에 뿌리박은 반동적봉건세력은 제국주의침략과 식민지통치의 가장 유리한 지반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인민들을 억압착취하기 위하여 봉건적토지소유제도를 유지한다. 지주계급은 외래제국주의의 충실한 동맹자이며 농촌의 반동세력의 지반을 이룬다.

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에 의하여 유지되는 봉건적토지소유관계는 농촌경리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사회적진보를 억제하는 근원으로 된다. 식민지기반으로부터 해방된 나라들에서 토지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을 봉건적예속에서 해방할수 없으며 혁명을 계속 발전시킬수 없다. 토지혁명을 실시하여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여야 반동계

급의 경제적지반을 없애고 농민을 봉건적예속에서 해방하며 토지에 대한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할수 있다.

이것은 새 사회건설에서 농민들의 정치적열성을 높이고 사회를 민주화하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며 새로운 사회경제적토대우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일층 공고히 할수 있게 한다.

토지개혁은 전반적민족경제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다. 토지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였던 농업을 민족경제의 유기적구성부분으로 추켜세우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농업국가의 락후성을 청산할수 있다.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농촌경리의 발전뿐만아니라 공업의 발전도 기대할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락후한 식민지농업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문제의 해결이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기본혁명과업이라는것을 밝히시였을뿐만아니라 토지문제를 가장 철저히 해결할수 있는 맑스-레닌주의적길을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와 토지소유관계, 땅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몰수대상을 규정하고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10페지)

토지문제해결에서 토지혁명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 수행에서 로동계급의 립장을 철저히 고수하는것은 이 문제해결의 관건적고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의 계급적력량관계와 토지소유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봉건적착취의 수단으로 되였던 일체 토지를 몰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일본제국주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와 5정보이상의 지주토지전부 그리고 계속 소작주던 모든 토지를 몰수대상으로 규정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몰수대상을 정확히 규정하셨을뿐만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토지문제, 농민문제 해결의 가장 혁명적인 길을 명시하시였다.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근로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원칙은 토지문제해결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농민의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농민들은 오래동안 봉건통치배들과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2중3중의 착취와 억압을 받아왔으며 한때기의 땅조차 얻을 길없어 기아와 빈궁 속에서 신음하였다. 농민들의 최대의 념원은 제 땅을 가지고 제 농사를 마음껏 짓는것이였다.

농민들의 이러한 념원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실시된 토지개혁에 의하여 비로소 실현되였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방법만이 토지문제를 가장 철저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토지몰수에서 그 어떤 대가를 전제로 하는것은 농촌에서 지주계급과 봉건적착취관계를 철저히 청산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농민들의 소소유자적근성을 조장시킴으로써 혁명발전에 막대한 부정적영향을 가져오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토지개혁원칙은 또한 토지개혁후 토지가 다시는 착취의 수단으로 전환될수 없게 함으로써 농민들을 토지의 확고한 주인으로 되게 한다.

우리 당은 토지개혁후 토지에 대한 매매, 저당, 소작 등을 엄금하여 토지

가 또다시 착취의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철저히 막아버림으로써 봉건적질곡에서 해방된 농민을 토지의 확고한 주인으로 되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토지문제해결에서 가장 옳은 계급정책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로농동맹을 강화하여 토지혁명을 튼튼한 계급진지에 기초하여 진행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토지개혁당시에 우리 당의 전술은 빈농과 고농들을 중심으로 한 농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지주를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전개하는것이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중농이 지주의 땅을 몰수하는 우리 당의 정책에 동정을 표시하도록 그들을 쟁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부농에 대해서는 〈너는 다치지 않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가만 있거라.〉 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고농과 빈농은 봉건적토지소유제도를 청산하는데 가장 깊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계층으로서 로동계급이 반드시 의거해야 할 토지혁명의 기본동력이다.

중농은 그의 계급적본질로 하여 동요성을 가지고있으나 봉건적착취로부터 농민을 해방하는 토지개혁을 지지하여나서게 되며 따라서 토지혁명에서 쟁취하여야 할 대상으로 된다.

락후한 반봉건적식민지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지주에 가까왔던 부농은 그 부정적측면을 엄격히 전제하면서 지주의 편에 넘어가지 않도록 고립시켜야 할 대상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계급정책에 따라 우리 당은 빈농과 고농에 튼튼히 의거하여 중농과 동맹하고 부농을 지주의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튼튼한 계급진지에 의거하여 지주계급을 남김없이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토지개혁을 불과 20여일이란 짧은 기간에 순조롭게 철저히 수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 토지개혁과 함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중요산업의 국유화라는것을 밝히시고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식민지통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중요 기간공업,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대외무역을 국유화하여 그것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도록 하는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0페지)

식민지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정책에서 특징적인것은 그들이 이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민족공업의 발전을 억제하며 극소수의 예속자본을 비호육성하고 이들을 식민지통치의 지주로 삼으면서 최대한의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외래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이 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는 한 그들에 의한 착취와 략탈을 면할수 없으며 나라의 독립과 륭성발전을 바랄수 없다. 식민지통치의 략탈수단으로 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생산수단을 박탈하여 국가가 틀어쥠으로써 식민지예속의 경제적지반을 없애버리고 그들에 의한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청산할수 있다.

중요산업국유화의 실시는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적경제형태를 창설하게 함으로써 사적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경리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진정한 경제적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한다. 또한 그것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수단을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과 전체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리용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며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놓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산업국유화의 실시에서 몰수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할데 대한 원칙적문제에 대하여서도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예속자본가들이 독점하고있던 산업을 단꺼번에 무상으로 철저히 몰수하는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한 방침이였다.

해방전 조선경제에 대한 일제와 예속자본의 지배는 우리 나라 사회발전을 억제한 질곡으로 되여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청산하는것은 민주주의혁명의 중요과업으로 되였다. 민족자본은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에 억제당하고 파산과 몰락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반제적성격을 띠고있었다. 민족자본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그를 새 사회건설과 민족경제의 부흥발전에 인입하는것은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산업국유화방침에 의하여 우리 당이 실시한 중요산업국유화는 일제와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들의 생산수단을 박탈하여 국가적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켜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결정적국면을 열어놓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제개혁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가장 옳은 길을 제시하시였다.

새 사회건설에서 근로자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로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등을 실시하여 로동계급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를 청산하고 녀성들을 봉건적예속에서 해방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동법령의 실시는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8시간로동제와 로동보호 및 사회보험제를 실현하여 제국주의적착취의 잔재를 청산하였으며 그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를 실현하여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로동계급의 령도적작용을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을 봉건적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함으로써 그들이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었으며 녀성문제해결에서와 녀성운동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건설에서 자체의 민족간부를 육성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민족간부대렬을 자체의 힘으로 꾸릴데 대한 가장 옳은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간부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오랜 인테리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인입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우와 같은 책, 11페지) 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랜 인테리들은 지난날에 할수 없이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에게 복무하였지만 식민지나라 인테리로서 제국주의의 억압과 민족적차별대우를 받아왔기때문에 반제혁명의식을 가지고있다. 또한 그들은 공부를 하고 진리를 파악하고있다는 점에서 사회발전법칙에 따라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 인테리들의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시여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새 사회건설에 적극 참가시키는 방침을 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청산하고 인민적교육제도를 세

우며 근로인민출신의 새로운 민족간부를 대대적으로 키울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 당은 오랜 인테리를 적극 교양개조하는 한편 해방직후 어려운 조건에서도 교육을 민주화하여 근로인민출신의 새 인테리들을 육성하기 위한 각급 학교들을 전국 도처에 널리 창설함으로써 민족간부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다.

민주개혁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이 모든 사상들은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수행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이끈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의 승리는 북반부를 조국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지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튼튼한 민주기지로 전변시켰다.

※ . ※

해방후 1~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한것은 민주개혁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이며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결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민주개혁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가장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직접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민주개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국내반동세력을 긁어모아가지고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파탄시키려는 온갖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적들의 파괴암해책동과 함께 좌우경기회주의분자들도 민주개혁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많은 난관을 조성하였다. 우경투항주의분자들은 민주개혁의 《시기상조론》을 떠벌이였으며 극좌분자들은 당장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말아먹으려는 기회주의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시면서 혁명정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판단에 기초하여 민주개혁의 실시는 지체할수 없는 혁명발전의 요구라는것을 밝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그 성과적수행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개혁수행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력사적인 민주개혁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토지개혁을 할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자들이 적지않았고 반동들의 여론도 많았습니다. 또한 토지소유관계도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형편을 잘 타산하여 토지개혁법령을 만드는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농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이상이나 농민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담화하고 의논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중속에 들어가서 토의하였기 때문에…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방침을 세울수 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266~26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개혁수행의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직접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광범한 군중들속에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친히 지도하시면서 편향은 바로잡아주시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심으로써 복잡한 민주개혁을 짧은 기간에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개혁수행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만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시였다.

착취와 억압을 종국적으로 청산할것을 자기의 력사적사명으로 하는 로동계급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령도함으로써만 민주개혁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고 이 혁명을 추진시켜 자기의 력사적위업수행에로 이끌어갈수 있다.

우리 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서 로동계급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적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근로대중의 리익을 가장 훌륭히 보장할수있게 하였으며 민주개혁을 칠저히 수행하여 그것을 사회주의혁명에로 이끌어갈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각계각층 군중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함으로써만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밝히시고 민주개혁을 높은 정치적수준에서 수행하도록 지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우리 당은 광범한 반제반봉건민주력량을 망라하는 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고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여 민주개혁수행에서 통일적보조를 취함으로써 적대분자들을 칠저히 고립시키고 광범한 군중적지반우에서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미래를 예견하시고 민주개혁을 가장 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심으로써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성과적이행을 위한 전제를 훌륭히 마련하시였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할수 있는 전제조건을 예견성있게 마련하는것은 계속혁명의 필연적요구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개혁을 통하여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새로운 사회경제적토대우에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각계각층 군중들과의 정치적통일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방침을 취하심으로써 사회주의혁명에로 성과적으로 이행할수 있게 하시였다.

당의 두리에 각계각층 군중을 굳게 묶어세우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계속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의 민주개혁방침에 의하여 광범한 군중의 사회경제적처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그들이 로동계급의 당을 자기의 진정한 옹호자로 믿고 새 사회건설에서 높은 정치적열성과 생산의욕을 발휘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새로운 사회경제적기초우에서 더욱 강화하였으며 민주주의혁명을 추진시켜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할수 있는 믿음직한 정치적력량으로 되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경제개혁을 통하여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국내반동세력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함과 함께 사회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발전을 제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민주개혁에 의하여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적경제형태가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부농경리와 도시상공업의 자본주의적발전이 억제되고 소상품경리와 자본주의적경리를 통제조절할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경제를 사회주의길로 확고하게 이끌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광활한 길을 민주개혁을 통하여 열어놓으심으로써 민주개혁의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혁명의 물질적토대축성에 확고히 들어서게 하시였다. 높은 수준의 생산력발전을 전제로 하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요구하며 공업과 농업간의 옳은 균형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주개혁수행에서 공업과 농업간의 유기적인 련계와 균형적발전의 시초를 열어놓으심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다.

해방후 불과 한두해동안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승리에로 이끈 김일성동지의 민주개혁에 관한 위대한 사상은 우리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운동 발전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공화국북반부에서 민주개혁이 철저히 수행된 결과 사회제도의 식민지적 및 반봉건적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고 북반부의 사회경제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또한 인민경제에서 사회주의적경제형태가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 근로자들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이 높아지고 로농동맹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공화국북반부는 조국통일의 믿음직한 담보인 강력한 혁명적민주기지로 전변되여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북반부에서 실시된 민주개혁의 빛나는 성과들은 미제와 지주, 예속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힘차게 고무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민주개혁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우리 나라에서의 그 빛나는 구현은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모든 나라 인민들을 고무하는 모범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사회주의길로 나가는것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식민지예속에서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이 사회주의길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 외래제국주의와 국내반동세력들의 파괴책동을 물리치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기구를 짓부시며 제국주의와 국내반동들의 경제적지반을 박탈하고 진보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며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오늘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인민들과 민족적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앞에는 자기 나라에서 혁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총적방향과 함께 그 구체적 방도를 정확히 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민주개혁은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주주의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혁명이였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처음으로 철저히 완수한 고귀한 경험이다.

이 력사적경험과 고귀한 업적은 오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 사회건설에 들어선 여러나라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고무적힘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우러러 받들고 배우고있으며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으로 모시며 그이께 끝없는 흠모와 존경을 표시하고있다.

현시대의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은 비할바없이 높다.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은 우리들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길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갈길은 아직도 멀고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으며 형제적맑스-레닌주의당들과 함께 온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10~311페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공화국남반부인민들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함으로써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며, 남반부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고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여 4천만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다같이 행복하게 살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 우리는 또한 세계혁명의 한고리인 조선혁명을 힘있게 추진하는 한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싸우는 모든 나라 혁명적인민들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며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해나아갈것이다.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

신 동 섭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대표자회 보고와 위대한 10대정강, 그리고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와 기계공업부문에 주신 교시들에서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방도들을 제시해주시였다.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이며 기계공업부문일군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우리는 기계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계공업발전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자주로선, 다시말하여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군사에서 자위의 로선을 견지하려면 기계공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결국은 기계공업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심장이며 기술발전의 기초이다.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킴이 없이는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경리와 국방공업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할수 없다. 오직 기계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야만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자체의 힘으로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생산수단들과 소비재를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

기계공업을 더 한층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것은 반미구국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는 위력한 담보로 된다. 이것은 또한 조국을 통일한 다음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빨리 복구발전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국제주의적견지에서 보아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우리는 기계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려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많이 만듦으로써만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을뿐아니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형제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를 강화하고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에게 기술경제적원조를 더 많이 주며 그들의 혁명과 건설을 적극 도와줄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거대한 의의와 역

할로부터 출발하여 자체의 기계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일찌기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인민을 조직동원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하고 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하며 자립적경제토대를 쌓는 중요한 방도로서 기계공업의 발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의 가렬한 불길속에서도 수많은 기계공장들을 건설하게 하심으로써 전쟁승리에 기여한것은 물론 전후인민경제의 복구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귀중한 밑천을 마련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후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제시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기계제작공업의 선차적인 발전을 반대하는 기회주의자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자립적인 기계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시였으며 그 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수백개의 현대적인 기계공장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자체의 기술과 자재로 그리고 최신과학기술성과들에 기초하여 중량급화물자동차, 대형고속디젤기관, 대형선박, 속도가 빠르고 정밀한 공작기계 등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만들어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더욱 촉진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는 자체의 위력한 기계공업기지를 가짐으로써 수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우리의 공업을 보다 현대적인 공업으로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제시된 농촌기술혁명과업을 더욱 훌륭히 실현하기 위한 토지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에 쓸 수많은 대형기계설비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게 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의 끊임없는 배려와 보살핌 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기계공업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할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시기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오늘 우리는 전면적기술혁명을 수행하고있다.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지 않고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술개건을 실현할수 없으며 근로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하는 숭고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없다. 우리는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전면적기술혁신을 더 빨리 실현할수 있다.

기계공업을 한계단 끌어올리는것은 특히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자연 정복사업과 국토건설의 웅대한 과업을 실현하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나라의 모든 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제시된 농촌기술혁명과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지개량과 국토건설 등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력사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농경지의 모든 포전들을 기계가 일할수 있도록 규모있게 정리하고 토지를 개량하며 강하천들을 정리하여 물곬을 곧바로 째며 제방을 쌓고 도로를 건설하며 바다를 막아 간석지를 개간하는 등 대대적인 토지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계공업을 한계단 끌어올려 대형굴착기, 대형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선박 등 능력이 크고 성능이

좋으며 견고한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만 자연정복과 국토건설 등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할데 대한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표자회가 기계공업부문앞에 내세운 중요한 과업은 우리의 기계공업이 국방력을 강화하며 전쟁에 대처할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이바지하는것입니다.》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발전시켜야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로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현대전에 상응하게 우리의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시키고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며 전국을 요새화할수 있으며 일단 유사시에 전선과 후방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는것은 또한 공업부문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제힘으로 대형기계설비들을 만들어 립철공장, 세멘트공장, 대형화력 및 수력 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강철, 세멘트,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는 등 공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는 제철공업부문에서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 나라에 풍부한 무연탄과 석회석으로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야 하며 증대되는 전력수요도 자체의 기술과 발전설비에 의거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는 지난 시기 사대주의, 신비주의, 보수주의를 것부시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동차, 뜨락또르를 만들고 비날론공장설비를 일식으로 생산보장한것처럼 대담하게 달라붙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립철생산설비, 세멘트생산설비, 대형발전설비 등 대형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어렵고 중요한 과업의 수행은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우는 문제와 떼여놓고는 생각할수 없다.

또한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발전시켜야만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로동생산능률과 인구 한사람당 생산량을 급속히 높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할수 있다.

실로 현시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나 전반적으로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모든 문제가 결국은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의 발전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현존하는…기계공장들을 잘 정비하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과거에 비할수 없이 많은 기계공장들이 있다. 우리가 이미 있는 기계공장들을 정비보강하여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수 있는 완비된 공장으로 꾸린다면 기계설비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기계공장들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무

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공정간, 기종간의 균형을 맞추는것이다. 기계공장들에서 공정간, 기종간의 균형을 맞추며 부족한 부문에 살을 붙여 매개 공장들의 내부구조를 더욱 완성하는것은 기계공업의 생산능력을 훨씬 높이는 중요한 고리이다.

우리는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특히 단능기계설비, 우리 나라 기계공장들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공설비들과 조합기계들의 새끼치기운동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조직전개하여 생산공정간, 기종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기계공장들에서는 단능화, 전문화된 여러가지 단능기계, 조합기계들을 자체로 만들어 제품별 흐름선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동차, 뜨락또르, 공작기계, 전동기, 압축기, 굴착기, 공구 등을 비롯한 일련의 계열제품생산의 기본공정과 보조부문에서 흐름선, 자동선을 더욱 완성함으로써 기계공업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기계공장들의 전후처리공정들을 더욱 현대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주물, 주강, 단조 공정 등 소재생산부문을 개선하여 가공에 앞세우는것은 기계공장들의 현존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주물, 주강 부문에서 원료, 부원료의 보관, 관리를 잘하며 운반, 조형, 사락 등의 공정에서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의 기계화를 완성하고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주물생산부문에서 금형주조, 정밀주조, 원심주조 등 선진주조법을 널리 받아들여야 하며 단조부문에서는 형단조설비를 갖추고 대형프레스를 도입하며 프레스 및 정밀단조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계공장들에서 자체의 압연, 인발 기지들을 튼튼히 꾸림으로써 수량이 적은 규격소재를 기계공업자체로 해결하여야 한다.

기계공장들의 열처리, 도금, 도장 등 전후처리공정을 잘 정비하여 기계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 제관용접부문에서는 자동용접기와 새로운 절단기들을 생산에 도입하여 자동화,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키며 대형설비의 주조물을 용접구조물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존생산면적의 리용률을 높이는것은 큰 국가투자없이 기계공업의 능력을 훨씬 높이며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일군들이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달라붙는다면 현존면적에 기계를 배이상 넣을수 있으며 새로운 건설을 하지 않고도 가공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다. 우리는 모든 기계공장들의 기계배치상태를 다시 검토하고 현존생산면적에 기계를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며 설비리용률을 높이는것은 오늘 새로운 대형기계제품들의 생산을 높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설비리용률을 1%만 높인다면 한해동안에 2,000대의 엑스까와또르(1립방메터)를 만들수 있는 예비가 나온다.

설비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예비부속품을 품종별, 규격별로 3개월분이상 앞세우고 정상적인 점검보수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아직 설치되지 못하였거나 돌아가지 않는 기계설비들을 모두 설치하고 최대한으로 가동시켜 더 많은 기계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을 낮추는것은 절약과 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물자소비기준을 품종, 규격, 재질에 따라 과학기술적으로 정하고 그를 엄격히 지키며 체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설계에서 필요이상 예비를 조성하는 무책임한 현상들을 없애고 기계설비들을 부단히 갱신현대화하며 표준화, 규격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기계제품의 중량을 훨씬 줄이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대형기계설비

생산기지와 정밀기계설비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전망적요구에 비추어 대형굴착기, 대형자동차, 대형뜨락또르, 대형선박, 대형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형설비생산기지들을 더욱 확대강화하며 속도가 빠르고 정밀한 기계들을 생산하는 정밀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우리의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58페지)

대형기계설비와 정밀기계설비들의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면한 토지건설과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와 공장, 기업소들에 살을 붙이며 공업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새로운 대규모공장, 기업소들의 건설에 요구되는 기계설비들을 일식으로 보장함에 있어서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는 당이 이미 제시한 방침에 기초하여 현존기계공장들에 필요한 시설들을 보충건설하여 그 능력을 확대하며 이에 새로운 중기계공장들과 현대적정밀기계공장들의 건설을 적극 배합함으로써 대형기계설비와 정밀기계설비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할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단 유사시에도 기계공업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들을 능히 감당할수 있도록 모든 기계공장들을 전망성있게 꾸리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 특히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을 빨리 발전시킴이 없이는 현대적공장을 건설하는 과업도 최신기계설비들을 만들어내며 있는 공장과 설비의 능력을 높이는 과업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동화가 널리 도입됨에 따라 전자공학의 의의와 역할은 더욱더 높아가고 있으며 그 적용분야는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계공학발전에 과학력량을 집중하여 이 분야를 하루빨리 추켜세워야 하며 전자공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모든 방면에 걸쳐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계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옳게 조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 실현방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기계공업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질이 높은 여러가지 제품을 많이 생산하려고 하면 도처에 분공장과 중소규모공장들을 꾸려 생산을 적극 전문화하여야 합니다.》

생산을 전문화하지 않고 종합적인 공장 몇개를 가지고는 품종을 늘일수 없으며 당면한 대형기계설비들의 생산을 광범히 진행할수 없다.

우리는 지금 있는 모체기계공장들에서 다년간 생산해오면서 기술적인 파악이 있는 일부 완제품들과 부분품, 조립제품 및 부속품들의 생산을 전문화하는 방향에서 중소규모공장들을 널리 조직하여야 하며 모체공장들은 중소규모공장들을 도와 자체로 걸어나갈수 있도록 꾸려주면서 새로운 대형기계설비들을 생산하는데 대담하게 달라붙어야 한다.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널리 전개하는것이다.

오늘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대형기계들과 각종 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더욱 추진하여야 한다.

생산자대중의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도처에서 기술혁신을 하여야만 전반적기계제품의 질을 높이고 적은 로력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킬수 있으며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릴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기계공업부문에서 대중의 창발성을 저애하는 중요한 장애물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이다.

기계공업부문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소극성, 보수주의를 철저히 뿌리빼고 항상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성능높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생산의 장성을 로력수의 절대적증가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낡은 관점을 없애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모든 생산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함과 함께 로동행정사업을 강화하여 적은 로력으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값싸게 생산함으로써 한사람당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계공업을 한계단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은 당조직과 지도일군들이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잘하면 우리 나라 기계공업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지난날 기술자들이 많지 못하던 때에도 우리 일군들이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과 같은것을 전개하여 기계공업에서 비약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기술일군들과 기계공업의 튼튼한 밑천을 가지고있는 오늘 왜 큰 비약을 일으킬수 없겠습니까? 문제는 기술일군들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있습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기술자들의 자질을 높이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을 한계단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릴데 대한 당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부문의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옳게 동원하는가 못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항상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공정에 놓고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것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자질과 역할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나라 자체의 주체적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생산과 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립장이며 방침이다.

당의 정확한 민족간부양성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기계공업부문에만 하여도 수만명의 기술자들이 있다.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이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고 그들을 더욱 혁명화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자들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빨리 끌어올릴수 있다.

이 부문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우선 기술자, 기능공들을 한자리에 고착시켜 오래 일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질을 높이고 기술과 생산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게 하여야 한다.

기술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그들에게 학습조건을 적극 지어주고 리론과 실천을 옳게 결합시키도록 하며 정기적인 강습도 조직하는것이 중요하다.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자면 그들에게 정확한 분공을 주어야 하며 기술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간,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간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일군대렬을 확대하고 그들의 자질을 높여 설계를 앞세우며 그에 대한 수요를 질량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공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적극 지원하는것은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담보이다. 금속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기계공업발전에 필요한 자재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제때에 원만히 대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공업부문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단

위들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공산주의적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대중을 발동하여 경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우가 아래를 도와주며 모든 근로자들을 기업관리의 전반적행정에 더욱 주인답게 참가시키며 대중의 창발성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협동생산에서 계획규률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계획에 반영된 모든 지표들이 어김없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과 기술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기술지도사업을 강화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생산의 진행정에 대한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휘체계를 세우고 전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나가며 협동생산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조직함으로써 생산인정을 계획적으로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생산에 모든 힘을 집중할수 있도록 우에서 아래에까지, 기대옆까지 자재를 직접 날라다주는 정연한 자재공급체계, 생산보장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들이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제때에 공급될수 있게 하며 한달분이상의 원료, 자재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지도일군들은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후방공급사업을 잘하면 그만큼 로동자들이 안착되여 일을 더 잘하게 되며 일에서 능률도 더 내게 된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이며 기계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위력한 담보이다.

우리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대로 사람과의 사업, 설비, 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잘하여 사람들을 집단적영웅주의와 집단적혁신에로 더욱 높이 불러 일으켜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앞에 제기된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주체사상이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우리 당과 정부의 모든 활동의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서 기계공업부문에 제시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외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의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자신을 혁명화하며 생산과 기술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다

백 길 만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서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방침들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모든 형태의 혁명투쟁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복종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그 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수행방도를 천명하심으로써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이 어떤 길로 발전해나가야 하며 혁명을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수행방도에 관한 교시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의 수행방도를 천명하심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발전과 혁명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계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습니다. …그 투쟁형태가 어떻든지간에 그것들은 모두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준비로 되여야 하며 그 결정적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하여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9페지)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수행방도는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혁명적인 과학적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조선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들의 진정한 주권을 가져야 한다.

주권에 관한 문제는 혁명에서 근본문제이다. 인민들이 자신의 손에 주권을 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타승하고 자신의 손에 주권을 틀어쥐려면 반드시 폭력적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폭력투쟁은 인민들이 주권을 쟁취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유일한 투쟁형태이다. 그것은 인민들의 주권전취를 위한 투쟁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진다.

물론 혁명투쟁의 형태와 방법은 다양하며 그것은 어데까지나 조성된 주객관적혁명정세와 반동통치계급의 반항정도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모든 투쟁형태에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여러가지 투쟁형태와 방법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투쟁을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혁명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자면 어데까지나 폭력적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오직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혁명적무력으로써 반혁명적무력은 격파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반혁명적폭력은 모든 착취계급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통치수단이다.

착취계급은 낡은 사회제도를 극력 옹호하며 유지하기 위하여 군대, 경찰, 감옥과 같은 상설적인 각종 폭력기구를 만들어놓고 이 폭력수단을 동원하여 인민들의 모든 혁명적진출을 류혈적으로 탄압한다. 착취자들은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앙양되여 저들의 통치지반이 뒤흔들리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포악한 반혁명적폭력에 매여달린다.

력사는 아직까지 착취계급이 인민대중에 대한 자기의 지배를 포기하고 스스로 정권에서 물러간 실례를 알지 못한다. 동서고금의 모든 착취계급들이 저들의 통치지반이 뒤흔들리게 되면 될수록 반동적폭력에 더욱더 매여달렸으며 숨통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낡은 정권을 유지하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인민들은 혁명적폭력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반혁명세력의 필사적반항을 짓부실수 없으며 결국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없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폭력투쟁이 없이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주권을 쥘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우와 같은 책, 79～80페지)

더우기 오늘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이며 반동의 아성인 미제침략자들이 둥지를 틀고있으면서 악랄한 식민지파쑈테로통치를 감행하고있는 남조선에서 혁명적폭력을 떠나서는 혁명의 결정적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침략적군사기지로 계속 틀어쥐기 위하여 가장 포악한 반혁명적 폭력에 매여달리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손때 묻은 주구들로 하여금 악랄한 파쑈적악법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한편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여 남조선전역을 군사, 경찰, 정보, 특무망으로 뒤덮고 테로와 폭압이 지배하는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오늘 남조선에는 수많은 미제침략군이 있는 외에도 60여만의 괴뢰군과 경찰, 정치특무들이 욱실거리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폭압기구는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을 탄압하는데 돌려지고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방대한 폭압기구를 통하여 인민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여 처형하고있다. 최근에만도 미제와 그 주구들은 통일혁명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인민혁명당《사건》, 《남조선직화공작단사건》, 《임자도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등 각종 《사건》을 날조하여 살인공판을 벌려놓고 남조선의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에게 사형을 비롯한 각종 중형을 들씌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가 얼마나 흉악하고 악랄하며 가혹한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파쑈독재는 전례없는 횡포성과 야만성을 띠고있으며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파쑈통치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가장 포악한 반혁명적폭력에 매여달리고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는 남조선혁명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경험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식민지통치의 심각한 위기를 여러번 겪었으나 놈들은 그때마다 무력을 동원하여 피사

적으로 저항해나섰으며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소동을 벌리군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4.19봉기에 의하여 리승만괴뢰정권이 꺼꾸러진것은 사실상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일대 붕괴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가려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자유와 해방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에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통치를 세우는 책동으로 대답하였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서 오직 폭력적방법으로써만 미제와 그 주구들을 쓸어버릴수 있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는것을 반증하여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원칙적문제에 대한 방침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세계혁명운동경험, 남조선혁명발전을 심오하게 분석종화하신데 기초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고 하신것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으로서 그이께서 일찌기 혁명활동에 나서신 때로부터 확고히 견지하여오신 탁월한 혁명적방침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우리 나라의 선행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과 1920년대말 1930년대초의 나라의 정치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오직 혁명적폭력으로써만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킬데 대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놀음을 해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을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은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가장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로선이였다.

일제의 파쑈적탄압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사소한 합법적활동의 가능성마저 완전히 말살된 당시의 조건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고 혁명승리를 앞당기는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이였다. 강력한 상비무력에 의한 조직적인 무장투쟁이 없이는 강도 일제를 부찌르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며 주권을 쟁취할수 없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몸소 강력한 상비무력인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여 15성상에 걸친 영웅적인 무장투쟁을 령도하심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을 패망시키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혁명적폭력으로 반혁명세력에 대항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투쟁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다.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력사적승리는 실로 반혁명적폭력에 대한 혁명적폭력의 승리로서 그것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정확한 로선,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혁명적폭력으로 반혁명세력을 때려부실데 대한 방침은 오늘 반미구국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에게 승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주고있다.

*　　　*

오늘 남조선에서는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위한 혁명정세가 급속히 성숙되여 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은 과거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있으

며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자기들의 혁명대오를 더욱 확대강화하면서 도시와 농촌, 지하와 산중 지어는 감옥과 《법정》에서까지 원쑤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고있다. 남조선의 통일혁명당의 활동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종태, 최영도동지들을 비롯한 통일혁명당지도성원들은 당조직을 확대공고화하는 동시에 당주위에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여 당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통일혁명당성원들은 또한 《법정》에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쓸어버리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것이 결코 죄로 될수 없음을 당당히 주장하면서 바로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처단되여야 할자는 다름아닌 미제침략자들과 박정희매국역적들이라는것을 추상같이 단죄하였다.

남조선에서는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이 급격히 확대발전하고있다. 지난해 1월 반동의 소굴인 서울한복판에 무장유격대가 나타나 원쑤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준 이후 남조선에서의 무장투쟁은 더욱 발전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남조선에서 혁명적무장유격대는 200여회의 전투를 벌려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합법적인 대중투쟁을 벌리면서 무장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남조선혁명가들이 무장투쟁을 위한 근거지를 창설하며 군사간부를 육성훈련하고 무기를 획득하는 사업을 적극 진행한것은 그 한가지 실례로 된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이러한 투쟁들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의 혁명적기세를 더욱 높여주고있는 동시에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은 일대 혼란과 공포에 빠져있으며 그들의 식민지통치위기는 더욱더 심화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조선정세는 임의의 시기에 급격히 변할수 있다.

혁명정세의 급격한 발전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적통치를 때려부시고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혁명적폭력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승리의 결정적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폭력투쟁을 위한 정치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울수도 없으며 대중운동을 발전시킬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7페지)

대중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혁명적의식으로 무장시키는것은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며 출발점이다.

대중을 의식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조직에 그들을 결속할수 없으며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더우기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적사상공세가 날로 강화되고있는 남조선에서 인민대중을 의식화하는것은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남조선에서 정치사상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들에게 남조선혁명에서 폭력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반동적본질을 철저히 인식하고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만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 신심과 각오를 굳게 다지고 그것을 실천에 구현해나가고있다. 남조선의 통일혁명당성원들이 《무장투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모든 조직을 장차 무장투쟁에로 나갈

수 있도록 사상무장>을 하는 동시에 《전술간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투쟁해온 사실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러한바와 같이 폭력적방법으로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사상적각오를 높이는데서도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남조선인민들을 의식화하는데서 가장 위력한 무기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만 그이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자신의 힘으로 혁명을 수행하려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할수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조선혁명의 근본적문제들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이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간고성과 복잡성을 띤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또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지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에는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불굴의 혁명정신, 그이의 높은 덕성이 구현되여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해야 일편단심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할수 있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투쟁을 적극적인 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침따라 강의한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로 모든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무장한 원쑤들과 맞서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다.

남조선에서 혁명적폭력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을 조직된 력량으로 꾸리는것이 중요하다.

인민대중을 조직화하지 않고서는 반혁명과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할수 없으며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의 조직화는 적들의 일상적인 반혁명적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뿐만아니라 급속히 다가오는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주동적으로 맞이하며 폭력적방법으로 반혁명을 일격에 격파하고 혁명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이다.

오직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워야만 반혁명에 대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할수 있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조직화된 혁명력량이 자라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혁명조직과 군중조직들에 광범한 인민들이 결속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폭력적방법으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실 믿음직한 힘이 마련되여나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이께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을 적극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준비된 간부들을 골간으로 하여 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적핵심들로 그를 부단히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자, 농민들은 계급적리익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적인 대중조직에 묶어세워 그들을 혁명적당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적당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을수 있고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모든 투쟁을 폭력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남조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 동시에 혁명에 동원될수 있는 모든 력량을 결속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군중이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되여야만 폭력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로농동맹을 기초로 한 반미구국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또한 인민들속에서 광범히 전개되고있는 폭력투쟁을 적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다가오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9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과학적인 전략전술적원칙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혁명이 간고하다고 하여 유리한 정세가 도래하기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는다면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강화할수 없으며 혁명도상에 조성되는 어려운 국면들을 타개해나갈수도 없게 된다. 희생을 피한다는 구실밑에 혁명투쟁을 외면하는것은 사실상 인민들을 자본의 종신노예로 내맡기는것이며 모진 착취와 압박, 빈궁과 무권리를 영원히 참으라는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더욱 장성강화하고 혁명의 결정적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주객관적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옳게 배합하여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 복종시켜야 하며 그 투쟁은 폭력적방법에 의하여서만 승리할수 있다. 그래야만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빼앗긴 인민주권을 도로 찾을수 있으며 자유와 해방을 달성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그이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더욱더 각성되고 단련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야 말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자라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적당한 때가 오면 반드시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웰남전쟁은 미제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다

고 승 일

지금 웰남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세계반제평화애호력량과 미제국주의침략세력간에 격렬한 투쟁이 계속되고있다. 이 투쟁속에서 웰남인민은 거듭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으며 미제침략자들은 련속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있다.

웰남인민은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 세계반동의 두목인 미제의 한쪽 각을 뜨고있으며 놈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로 깊이 몰아넣고있다.

웰남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의 련속적인 패배와 웰남인민의 거듭되는 승리는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하는 작은 나라들이 많다붙이 미제의 각을 뜯데 대한 전략적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해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웰남전쟁에서의 미제침략자들의 패배를 특징지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웰남인민의 영웅적항쟁에 의하여 미국군대는 패배를 거듭하고있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타산과는 반대로 웰남전쟁은 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24페지)

웰남인민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심대한 패배를 당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있으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놈들의 정치적위기가 가일층 심화되고있다.

악명높은 《특수전쟁》이 전면적으로 파탄된후 미제국주의자들은 더욱 많은 무력을 끌어들여 침략전쟁을 가일층 확대함으로써 《특수전쟁》에서 당한 패배를 만회하고 웰남에 대한 제놈들의 추악한 야망을 기어코 달성해보려고 타산하였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1965년초부터는 남부웰남에 대한 《원조》와 《보호》라는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로골적으로 전쟁의 전면에 나섰으며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파하여 더욱더 잔인한 방법으로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서 1964년말까지만 하여도 3만명이였던 저들의 침략군을 1965년말～1966년초에는 20만명으로 증강하였고 1966년말～1967년초에 와서는 그것을 41만명, 지난해에 이르러서는 다시 54만명으로까지 증강하였다. 여기에 추종군 및 괴뢰군을 합치면 지금 웰남전쟁에 동원된 침략군의 병력은 실로 100만을 훨씬 넘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방대한 병력과 군수기재에 의거하여 남부웰남에서 야만적인 《초토화작전》을 미친듯이 감행하는 한편, 민주웰남에 대한 강도적인 파괴전쟁을 로골적으로 벌려왔다.

무기와 기술의 힘만을 믿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확대하는데로 나갔으나 패배를 면할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격화되는 침략책동은 그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취약성을 실증하여주는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횡포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습

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사상과 행동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2페지)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가로막고 제놈들의 흉악한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친듯이 날뛰였지만 그것은 놈들의 부패성과 취약성을 드러내놓았을뿐이며 그들의 처지를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

웰남에서 미제는 《특수전쟁》을 《국부전쟁》으로 확대하였으나 결코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 떨쳐나선 웰남인민을 굴복시킬수는 없었다. 웰남인민의 련속적인 타격에 의하여 웰남에서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은 걸음마다 파탄되였고 놈들의 흉악한 야망은 산산이 깨부셔졌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였다.

1965년말부터 감행된 두차례의 《가물철공세》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웰남에서의 침략전쟁을 《특수전쟁》으로부터 《국부전쟁》으로 확대하면서 벌린 가장 큰 《공세작전》이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방대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과 해방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제놈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정세를 돌려세워보려고 망상하였다. 그러나 남부웰남인민의 강력한 반격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돌이킬수 없는 참패를 당하였으며 놈들의 《공세작전》은 완전히 분쇄되였다.

두차례에 걸친 《가물철공세》에서 당한 미제의 패배는 웰남에서 벌린 《국부전쟁》의 첫단계에서의 패배였으며 이것은 놈들이 웰남에서 어떠한 전쟁확대책동으로써도 패배를 만회할수 없으며 전쟁을 확대하면 할수록 더욱 큰 참패를 당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웰남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거듭 패배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은 특히 지난해초부터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이 벌린 총공세와 인민들의 전면적봉기로 말미암아 방대한 병력과 전투기재를 손실당하였으며 웰남전쟁의 모든 전선에 걸쳐 완전히 수세와 피동에 빠지고있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총공세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23만여명의 미제침략군과 추종군을 포함하여 63만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6천대의 각종 비행기와 7천여대의 땅크, 장갑차를 포함한 1만 3천500대의 군용차를 손실당하였다.

미제의 어용출판물들이 웰남전쟁에서의 미제침략군의 《사망자수가 새로 파견되는 인원수보다 더 많다.》고 개탄하였으며 미제지배층들까지 웰남전쟁에서의 《병력부족》에 대하여 비명을 올리고 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사태의 직접적인 반영인것이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부단한 공격과 인민들의 앙양되는 봉기로 인하여 농촌지역을 장악하여 제놈들의 정치적 및 군사적 지반을 마련해보려던 미제침략자들의 《농촌평정계획》과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주력을 《소멸》해 보려던 《수색소멸작전》은 전면적으로 파탄되였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공세에 의하여 더욱 많은 지역이 해방되고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이 강제로 만들어놓은 《전략촌》들이 날로 《전투촌》으로 전변되고있는 조건에서 놈들은 《평정》은 고사하고 강점지역마저 지탱해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총공세에 의하여 지난해에 1천여개의 마을과 200여만명의 인민들이 새로 해방되였고 많은 마을과 군 및 주들에 혁명정권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통제지역은 더욱 축소되였고 이 지역에서의 놈들의 정치적지반은 가일층 약화되였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농촌평정계획》이 파탄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미제침략자들은 지금 이미 파탄된 《농촌평정계획》의 재판인 이른바 《평정촉진계획》을 벌려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면서 저들의 음흉한 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고 무모하게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도 결국 《농촌평정계획》과 같은 패배를 당하고말리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에 대한 미제

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수색소멸작전》도 완전히 파탄되고말았다. 남부웰남에서 《수색소멸》당한것은 인민해방무장력인것이 아니라 바로 미제침략자들자신이였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드센 타격에 련속 녹아나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지금 일부 도시와 해안지대에 못박혀있으며 마음대로 기동조차할수 없는 형편에 이르고있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의 가증되는 타격과 남부웰남 전지역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인민들의 봉기로 하여 남부웰남괴뢰정권은 심히 마비되고있으며 괴뢰군은 수습할수 없이 붕괴되고있다. 이것은 남부웰남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지반이 급속히 허물어져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제국주의자들은 괴뢰정권을 부지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지만 인민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여있으며 썩을대로 썩어 이미 생활력을 잃은 괴뢰들에게 아무리 활기를 불어넣어도 놈들이 춰서기는 어려운것이다.

남부웰남의 전쟁마당에서 심대한 패배를 당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바크보만사건》을 계기로 벌려온 민주웰남에 대한 강도적인 파괴전쟁에서도 전면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저들의 《기술적우세》로 민주웰남인민을 굴복시켜보려던 미제침략자들은 그 어떤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써도 웰남인민의 투지를 꺾지 못하였으며 결국 3천200여대의 비행기와 수많은 비행사들을 잃고 웰남민주공화국의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다고 선포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같이 《특수전쟁》의 패배에 뒤이어 벌린 모든 침략적전략전술들이 걸음마다 분쇄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이 그처럼 큰 기대를 걸었던 《계단식확대전략》은 마침내 《계단식패배》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놈들은 지금 군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있다. 미제국주의두목들이 웰남에서 《출로없는 전쟁》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저들의 침략전쟁의 암담한 전망에 대하여 비관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웰남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군사적패배는 미제국주의자들이 겪고있는 정치적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웰남침략전쟁에 대한 미국인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침략전쟁에서 당하고있는 패배와 암담한 전망에 대한 지배층의 불안이 더욱 증대되고있다. 지금 워싱톤을 비롯한 미국각지에서 확대되고있는 인민들의 반전운동과 웰남침략전쟁을 둘러싼 지배층내부에서의 개싸움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을 계속 악랄하게 확대해나감으로써 전세계인민들 앞에 제놈들의 야수적본성을 더욱더 드러내놓았으며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되고있다.

오늘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대양주에 이르는 세계의 모든 지역의 광범한 인민들은 웰남에서의 미제의 범죄적침략만행을 치솟는 격분으로 항의규탄하고있으며 놈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각종 형태의 대중적투쟁을 벌리고있다. 실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전쟁이후 오늘처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고립된 때는 없었다.

미제의 고립은 제국주의 《동맹국》들에서도 날로 심화되고있다.

조선전쟁때까지만 하여도 미제국주의자들은 《동맹국》들을 마음대로 침략전쟁에 끌어들일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호된 타격에 의하여 패배와 죽음의 쓰라린 맛을 본 제국주의《동맹국》들은 조선전쟁에서 당한것과 같은 비참한 패배가 되풀이되고 있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함부로 뛰여들려 하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사실상 박정희도당과 같은 극악한 괴뢰들과 일본사또반동도당과 같은 충실한 앞잡이들을 내놓고는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도 랭대와 배격을 받고있다.

모든 사실은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

국주의자들이 제놈들이 벌려놓은 웰남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안팎에서 얻어맞아 병신이 되고있으며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있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 *

미제침략자들이 웰남전쟁에서 당하고 있는 패배는 놈들의 범죄적침략전쟁이 가져온 응당한 결과이며 필연적인 산물이다.

력사적사실들은 침략과 전쟁 정책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패배와 파산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과거 아세아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였다가 바로 침략전쟁에서 망하고말았으며 구라파에서 히틀러독일이 또한 그러하였다. 특히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혹한 패배는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로 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전쟁에 제놈들의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들을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최신전투기재들을 동원하였으며 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볼수 없는 잔인한 전쟁방법과 횡포한 수단을 다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패배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미제침략자들은 3년간에 걸친 침략전쟁에서 2차대전시기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근 2.3배에 달하는 막대한 병력과 수많은 군수기재를 잃고 우리 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것이다.

이것은 침략과 전쟁 정책이 결국 제국주의자들의 패망의 길이라는것을 잘 말해준다. 오늘 미제침략자들이 웰남전쟁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걷고있다.

웰남전쟁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남의 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한 부정의의 침략전쟁이며 웰남인민에게 있어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정의의 해방전쟁이다.

웰남에서 미제의 범죄적침략만행은 전체 웰남인민의 치솟는 분노와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성스러운 반미구국투쟁에로 단호히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아무리 잔인한 전쟁방법에 매여달린다 해도 전체 웰남인민을 상대로 하고있는 이 전쟁에서 사면으로부터 집중되는 웰남인민의 복수의 창끝을 피할수 없는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이 방대한 병력과 군수기재를 끌어들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웰남전쟁에서 헤여나올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미제침략군의 정신도덕적상태가 극히 부패한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그 어떤 무기나 기술의 우세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로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에 있는것이다.

인민대중 특히 군대의 정신도덕적상태는 전쟁의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존재의 첫날부터 독점자배층의 침략도구로 리용되여온 미제침략군은 그 병사대중이 딸라에 목을 매여 싸움터로 끌려나온 고용병들로서 지배층이 강요하는 침략전쟁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아무러한 리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맹목적인 인간증오사상으로 물젖은 미제침략군의 정신도덕적상태는 극히 부패하며 저조한것이다.

웰남인민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값없는 개죽음을 당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극도의 공포로 하여 전률하고있으며 증대되는 염전사상으로 하여 급속히 붕괴되고있다. 지금 웰남전쟁마당에 끌려나온 미제침략군속에서 너는도당의 침략전쟁에 항의하여 전투에 참가하기를 거부하며 집단적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비번히 일어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러한 침략군대를 전쟁마당에 아무리 많이 끌어들여도 그들에게 그 어떤 무기를 쥐여주어도 제국주의침략군대의 치명적약점을 보충

할수 없다. 미제침략자들이 웰남전쟁에 100만을 넘는 침략군을 동원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련속 패배하고있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 떨쳐나선 웰남인민과 그 무장력은 미제침략자들과는 비할수 없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오랜 기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각성되고 단련된 웰남인민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싸운다는 높은 자각과 숭고한 혁명정신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온갖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고있다.

호지명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웰남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를 받는 민주웰남인민과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주위에 굳게 뭉친 남부웰남인민은 웰남땅에서 미제침략군의 마지막 한놈을 쓸어버릴 때까지 견결히 싸우려는 억센 투지 그리고 미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있다. 바로 이러한 투쟁정신으로 하여 웰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안겨주고있으며 웰남전쟁마당을 미제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만들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직면하고있는 정치적위기는 웰남침략전쟁에서의 놈들의 패배를 가일층 촉진시키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국내부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 파업과 반전운동,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정치적위기를 겪고있다. 특히 미제국주의우두목들이 감행하는 침략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부담과 전쟁마당에서의 값없는 개죽음은 인민들의 불만과 반항을 증대시키고있으며 그들을 더러운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적운동에로 나서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미제침략자들은 날이 갈수록 풀수 없는 사회적모순에 부딪치고있으며 지배층의 통치기반은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 미제국주의우두목들까지 저들이 오늘 《남북전쟁이래 가장 엄중한 국내위기》에 직면하고있다고 비명을 올리고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사태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심한 불안정상태에 있으며 사회적모순이 가득찬 후방에 의지하여 벌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이 필연적으로 패배에 이르고있는 것은 응당한것이다.

미제침략자들은 제놈들의 범죄적침략만행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증오와 항의를 받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배격당하여 고립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웰남에서의 미제의 범죄적침략만행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리면서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에 떨쳐나선 웰남인민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적인민들도 시위와 군중집회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미제침략자들의 웰남침략전쟁을 반대하여나서고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나라의 진보적인민들과 지어 웰남침략전쟁에 끌려들어간 추종국가들에서도 미제침략자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무기와 전쟁수단의 생산 및 수송을 거부해나섬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웰남에서의 미제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웰남인민을 지원하는것은 하나의 국제적조류로 되고있다.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은 미제침략자들을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무원한 처지에 빠지게 하고있다. 반대로 웰남인민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은 웰남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고있으며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이것은 웰남전쟁에서의 력량대비를 미제국주의자들에게는 극히 불리하게, 웰남인민에게는 더욱 유리하게 조성하고있다.

국제무대에 조성된 이와 같은 정세는 웰남전쟁에서 미제의 패배와 웰남인민의 승리를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웰남전쟁에서 종국적패배의 운명에 직면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당한 패배를 만회하고 웰남에 대한 더러운 침략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고 전쟁확대책동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

고있다. 놈들은 웰남침략전쟁에서 당한 군사정치적패배와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에 못이겨 웰남민주공화국 전령토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무조건 중지한다고 한 이후에도 매일과 같이 웰남민주공화국의 령공을 침범하고있으며 폭격과 포격을 계속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부웰남에 더 많은 추종국가군대를 끌어들이고 남부웰남괴뢰군을 증강하고있을뿐만아니라 《비52》형 폭격기를 동원하여 남부웰남의 여러 주민지역들에 야수적인 폭격을 마구 감행하며 유독성화학물질들을 뿌리며 집들과 마을들을 불사르고 무고한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있다.

미제의 발악적인 전쟁확대책동에 의하여 웰남과 동남아세아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되고있으며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은 여전히 치렬한 환경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피흘려 싸우고있는 웰남인민의 투쟁은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진영의 동남방초소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저지파탄시킬 때 놈들은 웰남에서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될것이며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는 보다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하여 전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은 웰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싸우는 웰남인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시종일관 웰남에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을 단호히 반대하고 영웅적웰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웰남인민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인정하고있으며 웰남민주공화국 정부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나 웰남인민과 함께 싸울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72~7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이 말씀은 공동의 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웰남인민과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는 우리 인민의 시종일관한 혁명적립장과 확고한 결의를 반영하고있다.

오늘 미제침략자들이 웰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무모한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의 호된 타격에 의하여 미제국주의침략력사상 처음으로 참혹한 군사적패배를 당하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는 웰남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련속적인 타격에 의하여 멸망의 내리막길로 계속 깊이 빠져들어가고있으며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여있다.

서산에 기울어지고있는 해를 돌려세울수 없는것과 같이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으로써도 웰남전쟁에서 이미 종국적패배에로 기울어진 제놈들의 운명을 돌려세울수 없다.

조선인민을 비롯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는 웰남인민은 웰남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종국적으로 패배시키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근로자 제3호 (루계 325호)

편집위원회

발행소 • 근로자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69년 3월 10일　발행 • 1969년 3월 15일

ㄱ—9370　값 50 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4 호

평 양 근로자사 1969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4 호 (326)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드높은 혁명적자부심과 긍지가 차넘치고있으며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려는 전투적기백이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성심은 우리 혁명의 전로정을 통하여 억세게 뿌리박힌 드놀지 않는 신념,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나아갈 때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우러나오는것이다. 또한 그것은 수령의 가르치심따라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지난날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의 결정적요인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께 영원히 충실함으로써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며 자기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고야 말것이다.

*　　*

조선인민의 지난 40여년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그리 길지 않은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이 땅우에 세기적인 변혁을 창조하였다. 지난날 조선은 가혹한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는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다. 우리 인민은 나라 때앗긴 민족으로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당하였으며 기술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 극심한 가난과 도탄 속에서 헤매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은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그리고 위력한 전인민적방위체계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강유력한 사회주의국가로 되었다. 우리 인민은 온갖 착취와 억압,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의식주와 병치료,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도 모르는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오직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수령의 탁월한 령도밑에 짧은 력사적기간내에 사회적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놓았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우리 인민자신의 힘으로 완성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놓았다.

이리하여 한때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은 세상사람들에게서 《주체의 조국》, 《천리마의 나라》, 《사회주의의 모범》으로 불리우는 위대한 사회주의나라로 온 세상에 그 빛을 찬연히 뿌리고 있다.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에서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 이처럼 큰 변혁이 이룩될수 있은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였기때문이다.

우리 혁명의 로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우리 인민은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며 준엄한 시련도 여러번 겪었다.

조선인민의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은 벌써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진행되여왔다. 또한 로동계급이 점차 투쟁무대에 나서게 되고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됨에 따라 공산주의운동도 시작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은 현명한 수령의 령도가 없었기에 쓰라린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치 못하였다.

조선인민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그 진두에 모시게 된 때로부터 비로소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혁명적가정에서 자라나시여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단련되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자기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탁월한 수령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우리 인민의 나아갈길을 태양과 같이 밝히시였으며 몸소 험난한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위대한 앙양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시작은 많은 곡절과 실패를 겪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에 위대한 전환을 일으키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보람찬 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혁명의 새 아침을 의미하였다.

김일성동지는 그때로부터 일관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시는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시며 4천만 조선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40여년동안 조선혁명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근본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여주셨으며 조국해방투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혁명의 모든 단계에 걸쳐 조선인민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름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수행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지는 혁명의 뿌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과 조선혁명의 참모부, 맑스-레닌주의당과 혁명의 강력한 무기,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조선혁명을 유일하게 정확한 길로 이끄는 우리 나라 혁명리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발밑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72페지)

우리 인민은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다.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가장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 조선로동당을 가질수 있었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독창적인 당창건방침과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튼튼한 조직사상적준비에 기초하여, 그리고 해방후 복잡한 환경속에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맑스-레닌주의당으로 자라났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인 인민정권로선을 내놓으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민정권을 창건하시였을뿐아

니라 그를 우리 나라에서의 첫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발전시켜주시였기에 강력한 계급투쟁의 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를 가질수 있었다.

조선인민은 또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자기들의 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혁명리론을 소유할수 있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조선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장 정확하게 이끄는, 우리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혁명리론은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 민족해방투쟁으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의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해답을 주는 비상히 풍부하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 공화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533페지)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며 맑스-레닌주의원칙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주로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공산주의운동의 합법칙성, 우리 혁명의 사활적인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이다. 조선인민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일관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있기에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모든 근본문제들을 가장 훌륭히 해결하시였을뿐아니라 탁월한 령도예술로 우리 혁명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 인민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였으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없애는 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나라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건설사업을 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280페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의해서만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반혁명무력에 혁명무력으로 대항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투쟁이였으며 식민지나라인민들이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 투쟁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항일무장투쟁은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 진행된 혁명투쟁이였다. 그것은 전 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던 강도 일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혁명운동대렬안의 온갖 기회주의와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적용할만한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경험이 없는 조건에서 모든것을 창조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전개되여야 하였다. 또한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는 환경에서 무기와 식량, 피복에 이르기까지 자체로 해결하면서 강대한 적과 싸워야 하였다.

오직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와 같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은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로선으로부터 무장투쟁의 구체적인 전략전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시고 대국주의, 사대주의 등 기회

주의를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그를 견결히 관철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15성상의 장구한 기간 투쟁의 앞길에 가로놓인 모든 난관과 시련을 몸소 타개하시면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전반적혁명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마침내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가져다주셨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광복의 위업은 성취되였으며 망국노의 비운에 처하였던 우리 인민에게는 민족재생의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해방후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길로 힘있게 전진시킨 결정적요인이다.

우리 혁명은 해방후에도 간고하고 복잡한 로정을 걷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과거사회로부터 매우 뒤떨어진 경제와 문화를 넘겨받았고 장기간의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가 뿌리깊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새 사회 건설에 착수하여야 하였다. 더우기 우리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대치한 상태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여야 하였다. 또한 우리는 해방후에도 종파주의, 사대주의, 대국주의를 비롯한 각양각색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우리 혁명에 복잡성과 간고성, 장기성을 띠게 하였으며 또한 일련의 특수성을 낳게 하였다.

우리는 식민지예속에서 갓 벗어난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민주주의적변혁을 수행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야 하였다. 또한 우리는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던 락후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업을 실현하는 길도 력사상 처음으로 개척하여야 하였다. 게다가 우리 혁명은 전국적범위에서 동시적으로 발전될수도 없는 형편이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기성의 공식이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여가지고는 혁명과 건설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었다.

조선혁명발전의 이 모든 난관은 오직 장기간의 혁명투쟁에서 세련되시였고 위대한 주체사상과 심오한 혁명리론으로 언제나 현실을 깊이 통찰하시고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념원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시고 탁월한 령도예술로 그것을 철저히 풀어나가시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조국과 인민 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높은 덕성으로 하여 인민들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신임을 획득하신 혁명의 천재적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만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조성된 복잡한 국내외정세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조선혁명의 튼튼한 주체적력량을 꾸리기 위한 혁명적민주기지로선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독창적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시키시였다. 이리하여 해방후 극히 짧은 년간에 북반부에서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을 빛나게 실현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튼튼히 수립하시였으며 북반부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시련이였던 미제무력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인민을 력사적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일찌기 전쟁력사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처럼 엄청난 군사력의 차이를 가진 조건에서 강대한 적을 타승한 실례를 알지 못한다. 오직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력사상 처음으로 참패를 주고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지켜냈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고 갈피를 잡을수 없으리만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인민을 위대한 사회경제적변혁과 세인을 놀래우는 거대한 창조적투쟁에로 확신성있

게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현실과 사회경제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명철하게 분석하신 기초우에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철저히 관철시키심으로써 불과 4~5년동안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가장 순조롭게 완수할수 있게 하시였으며 전후 짧은 년간에 확고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쌓을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우리 조상들이 수세기를 두고 념원하였고 항일혁명선렬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싸운, 착취와 억압이 영원히 청산된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달성된 력사적인 승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나라의 북반부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사회주의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41페지)

우리는 사회주의의 기초가 축성된 다음 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만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혁명과 건설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이다. 선행한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도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고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본받을만한 그 어떤 경험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새롭게 개척하여야 할 력사적과제로 나섰다.

한편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는 좌우경기회주의가 대두하여 이 분야에서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참으로 우리 혁명과 국제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우리 시대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 이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줄만한 위대한 혁명리론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맑스-레닌주의리론발전을 위하여 매우 절박하게 나서고있던 이 문제는 오직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 지체함이 없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전당과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먼 앞날까지 과학적으로 내다보시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계속 강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데 대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처음으로 명시하시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데 대한 방침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탁월한 혁명로선을 내놓으시였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계급관계를 심오히 분석하시고 사회주의하에서 적대분자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계급투쟁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을 강화하는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는 방침,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앨데 대한 방침을 맑스-레닌주의력사에서 처음으로 천명하시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의 내용과 그 종국적해결을 위한 원칙을 전면적으로 내놓으시고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아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으며 민족적차이를 종국적으로 없앨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천리마운동과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창조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킬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또한 전쟁과 평화, 반제반미투쟁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자위적인 군사로선과 경제건설 및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등을 비롯한 김일성동지의 일련의 로작들에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고전적인 해명이 주어져있다.

이리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장기간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쌓으신 풍부한 경험과 업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우리 시대의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새롭게 창조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그를 실현하는 실천적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의 계속혁명문제, 과도기 및 프로레타리아독재 문제, 계급투쟁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고 해명되였으며 사회주의사회의 사회관계의 특성과 사회발전의 기본동력, 온갖 계급적차이를 없애며 공산주의적인간을 육성하는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졌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차이를 없애는 구체적방도가 정연하게 해명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단위와 방도가 가장 정확하게 천명되였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산규모와 속도의 호상관계,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리용문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형태와 방법 문제로부터 당 및 국가건설과 인민무력건설 문제, 토대와 상부구조를 완성하며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작용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민족적차이의 종국적소멸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제도 오직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가장 정확하게 해결되였다.

이 모든것은 많은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일정에 오른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킨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위대한 사상, 리론, 실천적 무기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창조된데 대하여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면서 동시에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남조선혁명은 아직도 외래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우리 나라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9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 관한 원대한 구상에 기초하시여 조선혁명수행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호상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규정하시였으며 남조선혁명의 대상과 동력, 그 기본임무와 매 시기의 당면한 투쟁과업들을 비롯하여 남조선혁명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과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독창적인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그 실현에로 전체 조선인민을 힘있게 인도하고계신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우리는 이미 공화국북반부에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불패의 혁명기지를 축성하여놓았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더욱 튼튼한 준비를 갖추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현명한 로선과 방침, 그리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찬란한 성과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날로 확대발전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를 지침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적극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 속에서 혁명조직이 더욱 확대되고 그들의 투쟁은 한층 더 조직화되고있으며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광범한 인민들속에 혁명투쟁은 더욱 깊이 뿌리박고있다.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수행을 위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을 증시하는것이며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전체 남북조선인민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과 남조선혁명이 완수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승리하여 온 로정이며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영광스러운 로정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일제식민지통치로부터의 우리 조국의 해방과 우리 나라에서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상 혁명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을 최고의 원칙으로 삼으시고 맑스-레닌주의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혁명발전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그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와 매 시기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과 심오한 과학적예견성에 기초하시여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시였으며 일단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신 다음에는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완강한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강의성,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으로 그를 끝까지 관철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를 믿으시고 그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시면서 한 문제를 풀고는 련이어 더욱 높은 목표를 내놓으시고 인민대중을 그 점령에로 확신성있게 인도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을 위한것, 인민을 위한것이라면 일신의 위험도 피로도 모르시며 언제나 인민과 고락을 같이 나누시고 전체 인민을 한품에 안아키우시며 인민의 모든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고계신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로정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계급적원칙에 대한 무한한 충신성,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철저한 군중로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으로 일관되여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이렇듯 위대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수령을 모셨기에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충심으로 따르며 수령께 자신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일편단심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왔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물론 수령의 따사로운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하여 피흘리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도, 멀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오직 수령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전체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께서 밝히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 싸우는것을 최대

의 의무로, 가장 높은 영광으로 여겨왔으며 또 여기고있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철저한 확립,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한 통일단결, 이것은 지난날에도, 오늘에도, 래일에도 우리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일관하여 조선혁명과 함께 세계혁명발전에도 탁월한 기여를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고리이며 조선인민의 혁명투쟁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세계인민들의 투쟁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1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현시대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규정하시고 현시기 세계혁명을 발전시켜나아가기 위한 맑스-레닌주의적 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제를 괴수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의 본성과 그 반동적전략, 세계혁명력량에서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등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가장 선차적인 과업과 세계혁명의 기본전략, 사회주의진영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 민족해방투쟁을 종국적승리에로 이끌며 진반적반제반미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전술 등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주시고계신다. 미제에 주되는 창끝을 돌릴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 세계의 모든 혁명력량을 동원하여 국제적인 반제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하여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방침, 혁명하는 작은 나라 인민들이 힘을 합쳐 미제의 각을 뜨는 전략 등 김일성동지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모든 전략전술은 혁명과 반혁명,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오늘의 조건에서 세계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지침이다.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사회주의나라들과 각국 당들의 호상관계에 관한 규범, 자주성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를 결합시키는 방침, 사회주의진영전체를 옹호할데 대한 방침,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투쟁과 단결을 옳게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 매개 사회주의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하며 세계사회주의시장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를 공고화하기 위한 방침 등은 오늘 사회주의가 세계적체계로 전환되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사회주의진영내부에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는 환경에서 세계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공동위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로선들이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이러한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혁명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맑스-레닌주의기치, 혁명의 기치를 견결히 고수할수 있었고 세계혁명위업에 가장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혁명사상과 세계혁명위업에 바치신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하여 오늘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세계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의 한분으로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다. 오늘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조선혁명의 풍부하고 귀중한 성과와 세계혁명의 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개괄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의 초미의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으며 세계적규모에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천재적으로 발전시킨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고있으며 그를 자기들의 《투쟁강령》으로,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있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을 끝없이 부러워하며 그이의 령도밑에 이룩된 우리 인민의 성과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 인민을 가장 영광스럽고 긍지높은 위대한 인민으로 되게 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행복으로 여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자부심, 이것은 우리 인민을 더욱 크고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　　*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걸어온 자랑찬 행로를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돌이켜 보면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승리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혁명을 더 전진시키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닦은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길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갈길은 아직도 멀고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여야 할 무거운 임무를 지니고있으며 형제적맑스-레닌주의당들과 함께 온 세계에서 공산주의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임무를 지니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310~311페지)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조국을 통일하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조국통일을 실현한 다음 전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세계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결코 만족할수 없다. 우리는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전당과 전체 조선인민이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나라에서의 첫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혁명리론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께서 내놓으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견결히 지지옹호하며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김일성동지의 40여년에 걸치는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수령의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우리는 수령의 혁명사상이외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반혁명적사상, 현대수정주의, 좌경기회주의,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 부르죠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 등을 반대하여 타협함이 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에 어긋나는 사소한 현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며 목숨으로 사수하는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여야 하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영원히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현명한 로선과 방침을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사상혁명, 경제건설을 다같이 잘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항상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반항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침략기도를 제때에 철저히 소탕해버려야 하며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들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에 비한 농촌의 온갖 락후성을 철저히 청산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아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고 모든 인민들의 생활을 적어도 지난날의 중산계층의 생활수준이상으로 하루빨리 높여야 한다. 우리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면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올해에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반드시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진군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고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는것은 조선혁명에 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투쟁을 한시도 잊지말고 모든 힘을 다하여 지원하며 우리 세대에 조국통일의 민족지상의 임무를 반드시 실현하고야말겠다는 각오밑에 정치사상적준비와 물질적준비를 더욱 튼튼히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최대한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세계혁명위업을 위하여 계속 자기의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련대성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반제반미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리며 사회주의와 민족적독립,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혁명의 공동위업에 더욱 큰 기여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자기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며 항상 맑스-레닌주의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그 어떤 힘도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자기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멈춰세울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약속되여있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경제의 기본문제들을 천재적으로 밝힌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문헌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여 발표하신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던 중요한 리론문제들에 천재적해답을 준 탁월한 맑스-레닌주의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 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리론실천적문제들과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서 이때까지 해명되지 못하였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으며 체계정연하게 정식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금번 로작은 사회주의건설의 오늘뿐아니라 먼앞날에 있어서까지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탁월한 맑스-레닌주의고전이며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활동에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강령적문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탁월한 경제리론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는 불후의 과학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 접하여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으며 영명하신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과 드높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천리마의 기세, 일당백의 기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심오하게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밝히시고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집니다.》(《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2페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더욱 많아지며 따라서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계속 이룩할수 있다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경제리론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본질적특징과 그 합법칙성을 천재적으로 밝힌 새롭고 독창적인 과학적리론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여야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시킬수 있으며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히고 그것을 경제건설실천에 옳게 구현하는것은 많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발전되여 경제발전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있는 오늘날의 조건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때까지 그 누구에 의하여서도 제기되고 해명된것이 없었으며 더우기는 각종 기회주의적외곡으로 하여 심히 혼란된채로 남아있었다.

우리 시대의 혁명발전이 날카롭게 제기한 이 중대한 문제는 오직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혁명의 천재적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제기되고 완벽하게 해결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규모의 부단한 확대와 그에 따르는 생산예비의 가일층의 증대간의 필연적인 련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로이 발견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견지하는 문제에 확고한 과학적기초를 마련하여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잉생산공황으로 말미암아 재생산과정이 주기적으로 중단되고 많은 사회적로동이 랑비됨으로써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할수 없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온갖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계속 높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장성의 가능성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이 강화되고 일군들의 경제관리운영수준이 높아져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라의 경제가 더잘 째일수록 더욱 많아집니다.》(우와 같은 책, 2페지)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인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은 사회주의하에서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조전지으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경제조직자적기능, 인민경제의 계획적지도의 강화는 그러한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인민경제의 전반적범위에서 모든 로력자원과 자연부원을 집중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균형을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계획적으로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또한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할수 있기때문에 인민들의 생활을 계통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릴수 있고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는 생산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며 사회주의국가는 이러한 가능성을 리용하여 기술을 계획적으로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생산능률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우와 같은 책, 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술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하게 밝히시고 기술의 빠른 발전과 로동생산능률의 장성 그리고 생산발전사이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해명하

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적대적모순이 없는 사회주의사회에는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그 어떤 사회적세력도 없다. 따라서 기술의 끊임없는 빠른 발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과정으로 되며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장성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 로동생산능률의 계획적인 급속한 제고를 착고히 보장하는 위력한 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특히 사회주의하에서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의식이 생산의 끊임없는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입니다.》(우와 같은 책, 3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업과 굶주림에 못이겨 마지못해 일하기때문에 생산발전과 기술발전에 아무러한 리해관계도 가지지 않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로동의 결과가 자기자신과 자기 인민과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돌려진다는것을 깊이 깨닫고있기때문에 생산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열성을 다바쳐 일하게 된다. 여기에 바로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이 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력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자기의 본능에 따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혁명화하면 할수록 사회주의제도의 이 본질적우월성은 더욱 높이 발휘될수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적열성에 기초하여 경제관리사업, 생산조직, 로동조직, 기술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이 일어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이 모든 요인들의 위치와 련관관계를 통일적인 재생산의 흐름속에서 체계정연하게 밝히시였으며 그중에서도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촉진하는 주체적요인에 결정적인 의의를 부여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 모든 요인들을 철저한 혁명적립장에서 과학적으로 체계정연하게 밝힌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여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발전의 예비가 더욱더 많아지며 따라서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경제리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경험에 의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산진리이다.

벌써 오래전에 전후복구기와 기술개건의 첫단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나라의 사회주의적공업화와 전면적기술혁명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하고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서는 수많은 현대적공업부문들이 새로 창설되고 공업의 기술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생산의 규모가 전에 비할바없이 커지였다. 이와 같이 나라의 경제토대가 더욱더 강화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전면적으로 전개되는 속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는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천리마진군속에서 이룩된 이러한 자랑찬 성과는 모두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독창적인 현명한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몸소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대중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지펴주시고 기적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근로자들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고 정치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끊임없이 높이고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소극성과 보수주의 등 온갖 낡고 침체한것들을 반대하는 강한 투쟁을 벌리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인민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한 행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이 내세운 방침대로 정치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며 기술을 끊임없이 개조하여나간다면 경제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경제를 얼마든지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우와 같은 책, 8페지)

이와 같이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복구기나 개건기나 할것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행정에서 작용하는 보편적인 합법칙성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업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예비가 적어지고 공업생산장성의 높은 속도를 보장할수 없다는 리론은 맑스-레닌주의리론과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 대규모경제가 빨리 발전할수 없다는 《리론》은 일부 사람들이 《자유화》니, 《민주주의적발전》이니 하면서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지 않아 그들이 사상적으로 해이되여 날라리를 부리면서 일을 잘하지 않는데로부터 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는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으로 된다는것을 리론실천적으로 확증하시었을뿐아니라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인 방도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프로레타리아독재와 기술혁명, 이 둘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놓쳐도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아가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9~10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계속 견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은 다음에도 계급투쟁을 계속하고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잘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하며 기술을 끊임없이 높이 발전시켜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하는 길만이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앞당기는 길이다.

사회주의경제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의 합법칙성과 그 실현방도를 천재적으로 밝히신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경제리론은 맑스-레닌주의확대재생산리론을 현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고 반동적부르조아경제《리론》과 경제분야에서의 좌우경기회주의《리론》에 치명적타격을 주었으며 우리 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준 위대한 혁명적경제리론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페관계의 리용문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면적인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상품화페관계의 리용문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국가가 옳게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 상품화페관계의 리용문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국가가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강화함에 있어서 어떠한 립장에 서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가는가 하는 원칙적태도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서 이때까지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였던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특히 오늘날 상품화페관계의 리용분야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각종 좌우경적편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있는 분야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하에서 상품화페관계의 본질과 그 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그 리용문제를 정확히 푸는것은 사회주의경제리론발전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맑스-레닌주의순결성을 고수하는데서 현시기 날카로운 문제의 하나로 나서게 되였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바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천재적인 리론적해답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시고 그것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의 앞길을 더욱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의 리용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경제리론에서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에 관한 문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상품생산이 있게 되는 객관적조건이 사회적분업과 소유의 분화에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생산수단의 상품성여부에 관한 문제에 처음으로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일률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시면서 국가적소유와 협동적소유 호상간, 협동적소유에서 협동농장들사이나 생산협동조합들사이 또는 협동농장과 생산협동조합들사이에 류통되는 생산수단들과 대외무역을 하는 경우에 생산수단은 다같이 상품으로 되나 국가기업소들사이에 류통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며 외형상 상품의 형태만을 띠게 된다는것을 새롭게 정식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기자재공급계획과 협동생산계획에 따라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들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치법칙도 상품생산에서처럼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5페지)

국가기업소들사이에 주고받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면서 상품의 형태를 가진다는 김일성동지의 새로운 명제는 맑스-레닌주의혁명적원칙과 다년간의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실천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 그리고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의 특성에 대한 깊은 통찰에 기초하여 내리신 완전히 독

창적인 고전적명제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상품이 아닌 생산수단이 상품적형태를 띠게 되는 조건과 그 사회경제적근원에 대하여서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러면 국영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이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게 되는것은 무엇으로써 설명하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국영기업소들이 다같이 단일한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생산수단을 리용하고 관리하며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마치도 서로 다른 소유의 기업소들과 같이 서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기때문입니다.》(우와 같은 책, 15～16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국가소유의 기업소들에 경영상독자성을 부여하며 그와 관련한 등가보상의 원칙을 실시하게 되는것은 과도기경제의 특성과 관련된 객관적요구라는것을 심오하게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직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재산을 자기의 소유처럼 책임적으로 애호관리하는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가지고있지는 못합니다.… 또한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물론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여있지만 아직 그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처럼 생활상 제1차적인 요구로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것이 사회주의하에서 비록 다같은 국가소유의 기업소이긴 하지만 그들사이의 거래에서 엄격한 등가계산을 할것을 요구합니다.》(우와 같은 책, 17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에 관한 심오한 리론에 기초하여 국가적소유내부에서의 생산수단 생산과 류통에서 가치형태와 상업적형태를 정확히 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수단의 생산과 그 류통에서 상품적형태, 가치형태와 상업적형태를 옳게 리용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명백히 하시면서 그것들은 경제계산과 절약제도의 도구로서, 국가의 기자재공급계획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리용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시였다. 그리고 국가의 기자재공급계획이 간혹 잘못되여도 실지 공급과정에서 바로잡을수 있도록 자재상사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계획적생산과 계획적공급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리용하는 유일하게 옳은 혁명적인 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리용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을뿐아니라 상품 생산과 류통령역에서 가치법칙을 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치법칙을 리용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상품가격을 옳게 정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를 잘 타산하여 값을 정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상품의 가격을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은 상품의 값을 사회적필요로동지출에 철저히 기초하여 정하는것이며 그와 함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도록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능동적으로 배리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상품의 값을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품에 들어있는 사회적필요로동에 정확히 의거하면서도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대중소비품의 값은 낮게 정하여야 하며 기호품과 사치품, 좋은 양복천을 비롯하여 아직 그 공급량이 제한되여있는 물건들은 대중소비품보다 값을 높게 정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상품의 가격을 옳게 정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가격제정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셨다.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와 가치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타산하여 상품의 값을 정하여 가격을 일원화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창조적사상은 모든 근로자들을 고루 먹이고 다같이 잘 살게 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 완전히 부합되며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경제법칙들의 요구실현에 가치법칙을 철저히 종속시켜 리용할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구현한 혁명적경제사상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가격제정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3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문제를 독창적으로 제기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에서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시장의 성격과 역할, 그것이 남아있게 되는 조건과 농민시장을 없애기 위한 방도를 독창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국가가 과도기경제에 남아있는 개인부업경리와 농민시장에 어떤 립장과 태도를 취할것인가에 대하여 유일하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시장이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입니다. 농민시장은 사회주의사회에 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자본주의적잔재가 많습니다.》(우와 같은 책, 24~25페지)

사회주의하에서 협동경리와 개인부업경리에 기초하고있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잔재를 많이 가지고있는 상업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가치법칙이 어느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론 국영상업이 발전하고 농민시장에 대한 국가의 조절적작용이 강화되는데 따라 농민시장의 자연발생성은 제한되나 그것을 완전히 없앨수는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뒤떨어진 상업형태인 농민시장은 원칙적으로 없는것이 좋으나 협동경리와 개인부업생산이 있는이상 그것을 없앨수는 없으며 또 그것이 남아있는것이 나쁠것도 없다.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은 국영상업이 아직 채가닿지 못하는 분야에서 상품류통의 통로를 보충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상 편리를 도모하는데 어느정도 긍정적인 작용을 논다.

사회주의국가는 농민시장의 성격과 그것이 노는 역할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 부정적측면은 제한하면서 농민시장의 긍정적측면을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농민시장을 없애기 위한 경제적조건을 점차 마련해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는 농민들의 부업경리와 농민시장을 지나치게 장려하여서도 안되지만 그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조건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행정적방법으로 없애치우려고 하여서도 안된다.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의 성격과 그것이 노는 역할을 정확히 평가하고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건설의 리익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경제사상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상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리용하며 사회주의적국영상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조절적작용을 강화하면서 농민시장을 없애기 위한 조건을 점차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원칙적립장을 밝혀주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시장이 어느때에 가서 없어지게 될것인가를 밝히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국가적으로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공급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소유가 전민소유로 될 때에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없어지고 상업은 완전히 공급제로 넘어갈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0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교시에서 사회주의국가가 농민시장과 상품류통일반을 없애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경제적조건을 마련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히 밝히시였다. 이와 함께 농민시장과 상업일반이 없어지게 될 시기를 과학적으로 예견하시였으며 사회주의상업의 완전공급제에로의 이행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하에서 농민시장은 나라가 공업화되고 기술이 높이 발전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소비품이 넉넉하여질 때, 협동적소유가 전인민적소유로 넘어가는 때 오직 그때에라야만 없어질수 있다. 이때에 가서는 농민시장과 함께 상업일반이 없어지게 되며 상업은 완전히 공급제에로 넘어가게 된다.

농민시장을 없애기 위한 방도와 함께 사회주의상업의 완전공급제에로의 이행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본질상 주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인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적측면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목적, 사회주의분배관계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한데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사회주의상업의 완전공급제에로의 이행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상업과 소비품의 분배문제를 가장 올바른 길을 거쳐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혁명적사상이다. 김일성동지의 이 사상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상업리론과 소비품의 분배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풍부히 한 창조적인 맑스-레닌주의사상이다.

4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그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한 탁월한 고전적문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활동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력사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의 이 불후의 로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무엇보다도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 특히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완성시키였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로작에서 과학적으로 밝히신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 등은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에 의하여 해명되지 못하였던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고있던 초미의 문제들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이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체계를 완성하는데 불후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군중로선에 립각한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리론을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당적과학의 높이에로 확고히 올려세우시였다. 실로 김일성동지의 금번 로작의 발표는 맑스-레닌주의경제리론과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어떠한 기존공식에도 구애됨이 없이 오직 철저한 주체적립장, 맑스-레닌주의혁명적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리익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는 창조적맑스-레닌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로작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며 그 위대한 결실이다.

김일성동지의 금번 로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또한 그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서 위력한 사상리론실천적무기로 된다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작에서 바로 자본주의경제제도에 비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다시금 전면적으로 확증하시였으며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천명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신심과 혁명적자부심을 보다 확고히 안겨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가장 곧바른 승리의 길을 더욱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이 로작에서 과도기경제의 특성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그에 맞게 제반 경제법칙들과 경제적공간들을 능숙히 리용할데 대한 지도적지침을 주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하에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강화하고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김일성동지의 로작은 사회주의경제분야에서 좌우경기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문제 등에서 어떠한 립장과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은 모두다 맑스-레닌주의와 기회주의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오늘날 좌우경기회주의는 이 분야에서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김일성동지의 로작에 천명되여있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경제리론들은 바로 이 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좌우경기회주의적견해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맑스-레닌주의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앞에는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에 담겨져있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 탁월한 경제리론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경제관리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를 당대표자회보고,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 공화국창건 스무돐기념경축대회보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등 그이의 중요로작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깊이 학습함으로써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들고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적경제리론을 철저히 옹호보위하고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모르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세워야 한다.

특히 우리의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지도와 관리에서 좌우경적편향의 사소한 발현도 철저히 배격하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를 철저히 관철하고 모든 경제기술적사업을 훌륭히 실현하여나가야 한다.

우리의 과학교육부문일군들은 수령의 교시를 직접 받은 크나큰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의 혁명적경제사상과 경제리론을 깊이있게 해석선전하며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경제리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탁월한 경제리론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천리마의 진군속도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가장 고결한 품성이다

박　영　순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이 일하느라면 난관에 부닥칠 때도 많을것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칠 때도 있을것이며 동요하는 때도 있을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을 믿고 확고한 혁명적신조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에게는 당중앙이 있다, 나는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며 혁명을 위하여 몸바칠 결심을 한 사람이다, 언제나 당과 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충실할것이다, 나개인이 하나 죽는것은 아까울것 없다, 비록 육체적생명은 죽는다고 하여도 정치적생명만은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혁명적신조만 가지면 어떤 곤난도 이겨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420~421페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사들인 우리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결한 품성의 하나이다.

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혁명적신조만 가지면 극복못할 난관이 없으며 점령못할 요새가 없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혁명정신과 고결한 품성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높은 계급의식과 과학적세계관에 기초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혁명정신과 혁명가적품성을 가지게 될 때 그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혁명의 길을 따라 보다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는것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어렵고도 방대한 혁명과업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고결한 품성의 하나인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혁명정신과 혁명가적품성을 더욱 높이 배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근로자들속에서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더 무겁게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나가는 집단주의정신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살고 일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할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549페지)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품성은 오직 혁명을 위하여 살며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혁명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반영하고있다.

혁명이란 낡고 썩은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고 진보적인것을 창조하는 투쟁이며 모든 근로자들을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것보다 더 고귀하고 보람찬 일은 없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도, 정치도 모르고 밥만 먹고 거저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람도 없으며 그러한 사람들의 생활은 참다운 인간생활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람은 오직 혁명을 위하여 살아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수 있다.

정치적생명을 가진다는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보람과 참다운 가치를 지닌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보

람, 인간의 가치는 누구나 다 가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 혁명가들만이 가질수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비록 육체적생명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적생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다. 이러한 시대에 태여난 사람으로서 정치적생명을 가지고있지 못하는것은 큰 수치이며 정치적생명을 더럽히는것은 최대의 죄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혁명정신으로 무장하는것은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로동자, 농민, 인테리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혁명화하는 과정이다.

사람들을 혁명화한다는것은 그들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바쳐 싸우며는 강한 의지를 가진 혁명가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혁명정신과 고결한 품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러한 혁명가로 될수 없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혁명정신과 혁명가적품성을 가져야만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으며 혁명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동시에 남조선혁명을 지원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해야 할 민족지상의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 조국의 절반땅은 아직 미제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고있으며 한피줄을 이어 받은 남녘의 우리 동포들이 미제침략자들로부터 참을수 없는 민족적 모욕과 멸시를 받고있으며 생존의 권리마저 항시적으로 위협당하고있다. 남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현재의 참담한 처지에서 벗어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위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피흘리며 싸우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참경과 그들의 투쟁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수 없으며 분렬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없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을 남녘땅에서 내쫓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그들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 혁명정세가 성숙되여 우리의 지원을 요구할 때에는 어느때든지 결정적투쟁에 떨쳐나서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해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러한 절박한 과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전조선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며는 혁명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께서 부르실 때에는 언제, 어느때든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칠 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실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남녘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빼앗긴 조국의 절반땅을 되찾기 위한 원쑤들과의 판가리싸움에 모든것을 다바쳐 나서겠다는 비상한 정치사상적준비가 되여있을 때에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가 성취될수 있는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길에서 자기의 육체적생명은 죽을지언정

정치적생명만은 더럽히지 않으려는 고결한 혁명정신을 배양하고 혁명적으로 살고 일하는 공산주의적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은 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승리적으로 추진시키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는 결정적담보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답게 혁명적수양을 강화하여 혁명가적품성을 더 잘 배양해야 할것이다.

* *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혁명정신과 혁명가적품성은 혁명과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된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혁명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의 립장과 태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될뿐만아니라 혁명가가 가져야 할 품성의 높이와 진실성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준으로 된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혁명정신과 혁명가적품성의 집중적표현으로 된다.

김일성동지는 우리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시며 영광과 행복의 체현자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진두에 서계심으로 하여 우리 혁명의 빛나는 과거가 있었고 찬란한 현실이 있으며 보다 광명한 미래가 약속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치적생명을 주셨다. 우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가 계심으로 하여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 들어설수 있었으며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승리의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는 수령의 전사, 조선의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이란 있을수 없으며 조선공산주의자로서의 혁명적 립장과 태도, 혁명가로서의 정치적생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게 진정으로 충실하려면 당과 수령이 내놓은 정책들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삼으며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수령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이 없이는 수령께 충실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은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되고 가일층 발전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조선혁명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위대한 사상, 위대한 로선이다. 따라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길만이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한 길이며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어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만이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이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 그이의 명령과 지시를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옹호하였으며 끝까지 빛나게 관철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갖 기회주의자들, 종파분자들과의 날카로운 투쟁을 동반하였다. 당시 대내외의 좌경모험주의자들과 우경투항주의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의 관철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그때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방침을 견결히 옹호하는것이 조선혁명의 운명을 고수하는 근본문제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였다. 그들은 생사를 예상키 어려운 전투임무나 지하투쟁임무나 반일부대에서의 공작임무도 그것이 김일성동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집행하였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는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외에는 그 어떤 사상도 알지 못하며 그와 어긋나는 일체 불건전한 사상요소와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조직하는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과 조직의 념원과 행동에 자기의 념원과 행동을 무조건 복종시키며 당과 조직의 결정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언제나 당적,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항상 간곡히 교시하고계시는바와 같이 혁명하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의 리익이 제일생명으로 된다. 그들에게는 개인의 안일과 영달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있을수 없으며 그 어떤 보수나 공명에 대해서 머리를 쓰는 일이 있을수 없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우선 자기가 일하는 곳을 혁명초소로 여기며 자기가 맡아하는 일을 단순한 직업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전투과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당과 수령이 가라는 초소이면 그것이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는 곳이건 가리지 않으며 다만 이악하게 달라붙어 자기의 혁명임무를 실천해갈뿐이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은 그 어디나 다 혁명초소이다. 우리는 그 초소를 굳건히 지키는것을 통하여 혁명에 이바지하며 수령께 충성을 다한다. 그러므로 혁명하는 매개 사람들은 자기 초소에서 어떠한 자만과 해이도, 사소한 안일도 허용하지 않고 혁명적열의와 높은 자각성을 가지고 항상 주인답게 투쟁해나가는것이다.

지난날 항일빨찌산들에게 혁명의 초소를 가리거나 사리를 앞세우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들은 중중첩첩한 난관과 시련을 뚫고 싸울수 없었을것이며 그렇듯 준엄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들은 오직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그 어떤 보수도 바라지 않고 자진하여 혁명에 참가하였으며 모든 곤난을 이겨내면서 청춘도, 생명도 다바쳐 15성상을 하루같이 싸워왔다.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며 수령의 붉은 전사들인 천리마기수들의 사업과 생활에서도 우리는 참다운 혁명가적품성의 발현을 찾아볼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천리마기수들의 안중에는 개인의 향락도 개인의 공명도 없으며 그들은 언제나 집단과 전체의 리익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긴다.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고상한 애국주의와 공산주의도덕이다. 그들은 자기의 혁명초소를 무한히 사랑할뿐만아니라 항상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한다. 천리마기수들이야말로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시대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또한 자기의 조직생활에 무한히 충실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에게 있어서 당생활은 정치적생명입니다. 당원이라면 응당 내가 당에 든것은 나의 정치생활을 개척하기 위한것이며 혁명투사로 살기 위한것이다, 당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당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끊는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김일성선집》, 제6권, 433페지)

혁명하는 사람들은 당조직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며 혁명수행의 방침과 방도를 알게 된다. 뿐만아니라 혁명조직에 망라됨으로써 혁명대오의 일원으로 되며 혁명투쟁의 실천적분공을 받게 된다. 혁명조직을 떠나서는 혁명의 길에 들어설수도 없으며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도 없다.

혁명조직의 결정과 지시는 모두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그것을 더 잘 관철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방도들이다. 그러므로 혁명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존중하며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함이 없이는 실제상 정치생활과 정치적생명이란 있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례외없이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자기 조직에 의거하고 조직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투쟁하며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직의 규률과 질서를 지키며 그 결정지시를 어김없이 실천하는것이다. 조직생활에 충실한것,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품성, 수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은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키는데서 가장 잘 표현된다.

혁명이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혁명의 길은 순탄하지 않으며 거기에는 난관과 시련도 많고 파란곡절도 많다. 그러나 혁명의 리익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청춘도, 목숨도 다바쳐 싸우는것을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아는 참다운 혁명가는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것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적미래를 확고히 내다보고있으며 그 미래를 무한히 사랑한다. 또한 수령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간다면 미래를 앞당기는 투쟁에서 백전백승할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에 차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혁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대를 이어 혁명할 결심밑에 어떠한 난관도 용감히 뚫고나가며 어떤 역경에서도 혁명적절개를 지켜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항일유격대원들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배출된 영웅들, 그리고 남조선의 혁명가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혁명가의 참다운 전형, 혁명적지조를 끝까지 지킨 고결한 품성의 숭고한 귀감을 수없이 찾아볼수 있다.

항일투사들은 15성상을 하루같이 수령께 충실하였다. 그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 된 영예를 조금도 더럽히지 않았으며 수령과 혁명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며 싸워이겼다.

항일투사들은 용감히 싸우다가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형언하기 어려운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조직의 비밀을 끝내 지켰다. 항일투사 마동희동지와 김동호동지는 혁명가는 의식을 잃은후에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책임감으로부터 자신의 혀를 스스로 물어끊었으며 죽음으로써 조직의 비밀을 지켰다.

항일투사 리순희동지는 사형장에 나서서 《이제라도 살길은 있다. 빨찌산을 믿지 말라고 소리를 치기만 하면 너는 살수 있고 높은 벼슬도 할수 있다.》는 일제주구놈의 망발에 대하여 《너같은 개들은 죽는것을 무서워하지만 나에게는 목숨보다도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된 영예가 더 귀중하다.》라고 준렬하게 웨쳤으며 김일성장군님이 계심으로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믿으라고 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하였다.

불굴의 혁명투사 최희숙동지는 원쑤들에게 눈을 빼앗기고도 《나에게는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부르짖었으며 심장을 도리우면서도 원쑤들을 공포와 전률 속에 몰아넣었다.

항일투사들은 원쑤들의 극악무도한 고문속에서도, 최후를 마치는 순간에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고 밝아올 혁명의 래일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켰다.

항일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해방된 우리 인민의 투쟁에는 이러한 사실이 또 얼마나 많은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자기의 육탄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아군의 진격로를 열어준 리수복영웅, 자기의 두팔, 두다리를 다 잃고도 수류탄을 입에 물고 적을 맞받아나간 강호영영웅, 원쑤들의 단두대우에서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싸운 조옥희영웅, 이들이야말로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귀중히 여긴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들이다. 우리 인민들속에는 이러한 혁명가, 수령의 충직한 전사들이 많고도 많다.

오늘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고있는 남조선의 혁명가들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을 따라 정의로운 투쟁의 길에 과감히 떨쳐나섰으며 일편단심 수령의 사상의지로 살며 싸우고있다.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남조선의 혁명가들이 목숨을 바치면서도 혁명적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수령께 충실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제 투쟁을 통하여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받들고 싸우는 혁명가는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이렇듯 혁명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투사들의 고결한 혁명정신, 그들의 정치적생명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정신을 이어받고있는 우리는 오직 그들처럼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김으로써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 ※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혁명가적품성을 배양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수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고결한 혁명가적품성을 배양함에 있어서 일차적이며 근본적인 과업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로동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길을 가장 정확히 명시하고있을뿐만아니라 혁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혁명과 건설의 매개 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립장은 어떠해야 하며 투쟁과 생활의 신조는 무엇이여야 하는가, 혁명하는 사람들의 도덕은 어떠해야 하며 그들의 행복관은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 등 혁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투쟁과 생활의 준칙들을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의 길에서 일보도 전진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조선의 혁명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풍모도 갖출수 없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자신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로 더 잘 준비해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당정책학습과 혁명전통학습을 깊이있게 하여야 하며 높은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따라배우며 그와 같은 숭고한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할수 있다. 또 그렇게 하여야만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여 용감히 싸워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조직생활과 근로단체조직생활에 더욱 자각적으로 참가해야 할것이다. 조직생활을 강화해야만 자신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을 촉진하고 혁명적수양을 끊임없이 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정치적생명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조선의 혁명가,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신을 더 잘 준비함으로써 조국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며 세계혁명의 완수에 더 크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것이다

리 진 훈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본질과 내용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해명하시고 당사상사업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와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열렬한 혁명투사, 애국자로 교양육성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목적을 처음으로 명백하게 천명하신것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심도있게 진행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령의 붉은 전사된 무한한 긍지를 간직하고 우리 나라에서와 전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정치사상적준비를 더 잘 갖출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주는것입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결코 사람들에게 단순한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려는데만 그 목적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민족적자부심을 북돋아주는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튼튼히 가지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

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한다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며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는 물론 근로자들의 민족적자부심을 높이는것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매개 민족국가단위로 건설되고있다.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청산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여 민족적차이가 없어지고 국가가 조락되기 전까지는 근로자들의 민족적자부심과 긍지가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민족해방혁명이 완수되지 않은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민족적자부심을 높이는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민족적자존심과 자부심은 혁명과 건설에서 귀중하다.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민족만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은 근로자들의 민족적자부심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 보다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계급적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이며 계급의식과 민족적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 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계급적본질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계급적본질을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애국주의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이며 이것은 부르죠아적애국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 부르죠아적애국주의와의 계선을 똑똑히 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그저 애국주의라고만 하지 않고 반드시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것도 우리의 애국주의를 부르죠아적애국주의와 갈라보기 위한것이며 그 계급적본질을 똑똑히 밝히기 위한것입니다.》

김일성동지의 이 교시는 착취계급의 부르죠아적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애국주의인 사회주의적애국주의간의 근본적차이를 과학적으로 밝히고있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에서 계급의식이 기본이라는것을 천명하고있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은 바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이러한 계급적본질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로동계급의 세계관과 관련되여있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적세계관에 확고히 기초한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는 단순히 민족적자부심을 높일뿐만아니라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에 기초한 혁명적자부심을 높이는데 보다 중요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만일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적자부심을 높이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계급적선이 모호하게 될수 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자기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를 사랑하며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

과적으로 건설하는데로 근로자들을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요구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떠나서는 그 어떤 혁명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문화유산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민족과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것은 혁명을 위한것이며 자기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이룩된 자기의 혁명전통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자기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모든 재부를 가장 열렬히 사랑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는것이 자기 조국과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한 가장 정확한 길로 된다고 확신한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바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사랑,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와 전취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발현으로 된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만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무한히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싸울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이미 창조하여놓은 모든 귀중한 밑천을 더 효과있게 리용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체 인민이 더욱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득바득 애쓰게 될것이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만 오늘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파쑈통치하에서 신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더욱 굳은 각오를 가지고 그를 위하여 몸바쳐 싸울수 있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만 전세계적범위에서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인류의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데 대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싸울수 있다.

이와 같이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것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문제로 된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문제는 또한 근로자들속에서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청산하고 민족자주의식을 가장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는 조국과 인민, 혁명의 리익에 배치되는 망국배족의 반혁명적사상이다.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나라의 자주권도 보존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도 없으며 결국에는 남에게 아부굴종하여 자기 나라 인민의 영예와 리익을 저버리게 되며 혁명위업에 손실을 끼치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대주의를 하면 민족적자부심이 없어지고 민족적자부심이 없어지면 결국 그 나라 민족의 혁명성이 없어지게 되며 따라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할수 없게 된다.

근로자들속에서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뿌리빼기 위하여서는 자기 조국의 모든 우수한것을 잘 알고 그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뿌리빼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자부심,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을 하고있다는 자부심을 높이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대주의를 뿌리빼고 주체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 일군들을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하고 승리의 신심을 가지게 하는것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정당성과 혁명성을 똑똑히 파악할 때 자기 당정책밖에는 그 어떤 다른것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질수 있으며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뿌리빼고 참말로 민족적자부심을 높일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업적과 수령께서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 수령께서 마련하여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것은 민족적자부심을 높이는데서도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만일 사람들이 혁명에 대한 자부심,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간고한 혁명투쟁을 통하여 이룩하여놓은 업적에 대한 긍지를 가지지 못한다면 민족허무주의와 사대주의를 철저히 뿌리 뺄수 없으며 자기 당의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견결히 지지옹호하며 끝까지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촉진하려는 혁명적열정을 가질수 없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용기와 신심을 불러일으키며 더 빨리 전진하려는 혁명에 대한 자각과 정열을 불러일으키는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 가장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 *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고있다는 자부심이며, 그이의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부심이다.

혁명하는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는 영예와 긍지보다 더 높은것은 없다.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서는 조국과 민족의 륭성발전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도 생각할수 없다.

조선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천재적인 맑스-레닌주의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지난 40여년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을 항상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혁명의 수령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빛나게 성취시키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조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강력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창건하고 령도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조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리론을 창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발전시키시여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가 종국적으로 멸망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바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혁명리론을 소유할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항상 투쟁의 명백한 앞길을 내다보면서 승리의 신심 드높이 혁명위업을 위하여 용감하게 나아가는 가장 혁명적이고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일제와 미제를 때려눕힌 영웅적조선인민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지난날 전조선과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던 강도일제를 때려눕힐수 있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줄수 있었다.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세계 인민들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며 현대 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력사상 첫 패배를 주고 미제가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지는 시초를 열어놓은 자랑스러운 인민으로 되였다.

김일성동지는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수령이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전로정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배려로 일관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위한것이라면, 인민을 위함이라면 일신의 위험도, 난관도, 피로도 모르시는 숭고한 풍모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계신다. 그이께서는 항상 인민과 고락을 같이 하시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그들과 나라일을 의논하시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키우시고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신다.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손길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가장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자기의 있는 재능과 모든 힘을 혁명위업에 다 바치고 있다.

오직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위적인 힘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어떤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일편단심 수령께 자신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혁명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불굴의 혁명전사로 자랄수 있었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승리적발전과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한 생활도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혁명의 장래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실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독창적인 리론과 방법과 방침들, 그이께서 창조하신 풍부한 혁명업적과 경험, 불멸의 혁명전통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되며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데 탁월한 기여로 된다.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오늘 조선인민뿐만아니라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거대한 힘과 지혜를 주는 원천으로 되고있으며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되고있다.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시대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자이신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그이의 혁명전사로서 살며 투쟁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무한한 행복이며 세상에 더 없는 자랑이며 영광이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은 또한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적전취물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높은 긍지감과 이 훌륭한 사회제도에서 살고있는 행복감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정권을 잡고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킬 목적밑에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생산을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온갖 착취와 압박을 영원히 없애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며 각자에게는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입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3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준다. 바로 이 제도가 있기에 모든 사람들은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되여 의식주와 병치료,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모르며 누구나가 마음껏 일하고 행복을 누리며 투쟁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이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가 있음으로 하여 생산력과 과학기술, 민족문화가 끊임없이 전진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부단히 높아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하여 진정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것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때문이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사는 우리 인민처럼 행복하고 자랑찬 인민은 없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자부심은 또한 혁명의 시대에 사는 인민답게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서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인간의 참다운 행복으로 여기는데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사람은 혁명을 하면서 살아야 사는 보람이 있지 혁명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밥이나 먹고 세월을 보내서는 사는 보람이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과 같이 벅찬 혁명의 시대에 아무런 투쟁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것은 사실상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람값에 가지 못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사업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거기에서 최대의 행복을 찾는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신의 안락보다도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항일유격대의 혁명위업을 이어받아 조선혁명을 완성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투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우리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온갖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청산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나라와 온 세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제도를 완전히 메며부시고 우리 혁명을 완수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보람찬 일은 없다.

우리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여곡절을 모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곧은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진진하여 온 행복한 인민이다. 투쟁의 길은 험하고 간고하였으나 우리 인민은 이 벅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더욱 단련되였으며 혁명적인민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따라 혁명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보람찬 투쟁의 나날들을 커다란 혁명적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며 자기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할 굳센 결의에 가득차 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지어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혁명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튼튼히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그이의 고매한 덕성, 그이께서 창조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그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조선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이 간직하여야 한다. 이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 간직할 때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할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일편단심 그이의 가르침을 받들고 억세게 싸워나가는 수령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우리는 진정한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 인군들이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은 혁명적세계관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여있다.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혁명적립장에서, 공산주의적립장에서 보고 판단할줄 알며 자기의 혁명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만 진정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을 가질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언제나 공산주의자의 립장에 서서 혁명의 리익에 맞게 분석판단하고 정확히 해결할수 있으며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몸바쳐 끝까지 싸우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데서 또한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 특히 우리 나라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똑똑히 알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살고있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함으로써 이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공고발전시키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울 혁명적각오를 튼튼히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위업의 정당성,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투지를 북돋아주며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역경에 처하더라도 동요없이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가장 견결히 싸울수 있게 한다.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위업을 계승하고있으며 세계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를 완전히 때려부시고 조국을 통일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간직하고 수령의 령도밑에 이 위대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워나가야 한다.

혁명근거지창설과 그 빛나는 업적

김 재 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독창적인 혁명근거지창설방침을 내놓으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근거지를 군사활동의 거점으로서뿐만아니라 무장투쟁의 전략적기지로, 나아가서 전반적조선혁명의 책원지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창설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혁명근거지에 의거하시여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빛나게 령도하시였으며 이 행정에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이룩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독창적으로 천명하시고 구현하신 혁명근거지창설방침은 로동계급의 폭력투쟁에서의 근거지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특히 이것은 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된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민족적 및 사회적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거점, 혁명의 기지를 어떻게 실현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해명을 주신 것으로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발전에 대한 불후의 공헌으로 된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독창적인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줄기차게 발전시켜나아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야만적인 백색테로에 대처하여 우리는 정의로운 무장투쟁으로 적들을 박멸하여야 하며, 놈들의 침략전쟁에 대하여 우리는 정의의 전쟁으로 대항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적을 방어하기에 적합할뿐만아니라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수 있는 혁명근거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혁명근거지창설문제는 유격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진다. 유격전쟁에서 군사활동을 조직하고 준비하기 위한 일정한 지역, 자체의 근거지를 가져야만 혁명력량을 보존하고 확대강화할수 있으며 적을 타승할수 있다.

혁명근거지창설은 항일무장투쟁의 간고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전혀 없는 조건하에서 진행되였다.

항일유격대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군을 타승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전략적기지를 가져야 하였다. 이러한 기지, 혁명근거지가 없이는 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할수도, 대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식량과 피복 등의 후방물자를 해결할수도, 혁명력량을 보존할수도 없었으며 무장투쟁의 군중적지반을 강화할수도 없었다.

혁명근거지는 무장투쟁의 거점으로서뿐만아니라 조선혁명을 전국적범위에서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책원지로서 절실하게 요구되였다.

1930년대부터 우리 나라가 해방될때까지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주로는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은 모두 그의 직접적영향하에서 전개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혁명근거지는 비단 항일유격대의 군사활동의 거점으로 될뿐만아니라 무장투쟁의 전략적기지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책원지로 되여야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근거지문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가일층 발전시킨

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근거지를 창설함에 있어서 지역선정과 그 형태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시였다.

우리 나라가 강도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고 파쑈테로통치가 전례없이 강화되였던 형편에서 혁명근거지의 지역선정과 형태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지역선정과 형태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만 무장투쟁에서 혁명근거지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여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차게 발전시킬수 있었다.

당시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혁명근거지를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창설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해답을 주는 미리 고안된 처방이란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다. 이것은 오직 항일무장투쟁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되여야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민구성과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전반적조선혁명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데 유리한 두만강연안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두만강연안은 혁명근거지를 창설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있었다. 두만강연안은 무엇보다도 주민구성으로 보아 빈고농이 그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혁명적군중토대가 있었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에 나서신 이후 이 지대에서는 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또한 두만강연안은 험준한 산악과 울창한 수림으로 덮이여 적들이 공격하기에는 불리하고 아군이 방어하기에는 유리하였으며 그때까지만 하여도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가 아직 덜 뻗치고있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조선혁명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데 매우 유리한 곳이였다.

두만강연안에 혁명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은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 지리적특성 및 혁명발전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한 가장 정당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근거지창설에서 지역선정문제뿐만아니라 그 형태문제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완전유격구, 반유격구의 형태로 혁명근거지를 창설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완전유격구와 반유격구로 이루어지는 혁명근거지를 창설하는것은 적아간의 력량관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도 항상 항일유격대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쥘수 있게 하며 온갖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빨리 키우며 적들의 움직임을 제때에 간파함으로써 놈들의 공세로부터 혁명력량과 완전유격구를 효과적으로 보위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조치였다.

이것은 오직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께서만이 구상하실수 있은 가장 현명하고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 유일하게 정당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혁명근거지창설방침을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친히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많은 전투를 통하여 혁명근거지창설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덤벼드는 적들을 격멸소탕하였다. 혁명군중들은 적들이 무시로 덤벼들고 온 거리와 마을이 불바다로 변하여도, 먹을것과 입을것이 없어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김일성동지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유격대원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근거지창설을 위한 투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하에 1932년 여름부터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완전유격구와 반유격구로 이루어지는 혁명근거지가 창설되였다.

완전유격구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지구였다.

반유격구는 형식상 적의 통치구역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혁명세력이 장악한 지대였다. 반유격구의 혁명조직들과 인민

들은 적들의 동태를 제때에 포착하고 항일유격대에 알리며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항일유격대와 완전유격구에 식량을 비롯한 수많은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에 돌파구가 형성되고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은 힘차게 발전되였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설된 혁명근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리시고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제반 민주주의적시책들을 실시하심으로써 혁명근거지를 강력한 혁명의 기지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책원지로 꾸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사회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여야 한다는 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7페지)

정권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은 혁명근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확대강화하며 조선인민의 전반적인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진정한 인민의 정권을 세움으로써만이 혁명근거지에 새로운 혁명적질서를 확립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임무들의

발악적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을 강력히 진전시킬수 있었다.

당시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조선사회는 식민지반봉건사회였으며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한데 뒤엉켜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조건과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정권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여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조선혁명의 반제반봉건적성격과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으로서 완전히 독창적인것이였다.

종래에는 로동계급의 국가주권형태로서 쏘베트가 보편적인것으로 간주되여왔다. 교조주의에 물젖은 좌경기회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반제반봉건적성격을 무시하고 혁명근거지에 쏘베트정권을 수립할것을 고집해나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인민혁명정부로선을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창설할것을 목적으로 한 자주적인 로선이며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광범한 반일력량을 망라시킴으로써 정권수립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게 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내놓으시였을뿐만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직접 조직령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장투쟁을 지휘하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근거지의 혁명조직들과 군중들 속에 몸소 들어가시여 인민혁명정부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가 세우는 정부는 어느 임금이 다스리는것도 아니요, 지주나, 자본가나, 어느

개인의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바로 인민들의 권리와 행복을 위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부이며 이 정부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고 녀자들에게 남자와 꼭같은 권리를 주며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다 일할수 있고 다 잘 살수 있게 한다.»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혁명근거지의 모든 군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워야 할 인민혁명정부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하고 자기 힘으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는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였다. 이리하여 완전유격구의 구, 촌, 현마다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인민혁명정부로선이 제시되고 그것이 혁명근거지에서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혁명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정권수립을 위한 문제가 가장 정확하게 해결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근거지에 창설된 인민혁명정부는 조선인민의 수천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전취한 우리 인민의 진정한 혁명정권이였으며 이것은 또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장차 수립할 정권의 원형을 실물로 보여주었고 해방후 우리 인민정권의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계급이 전취할 정권문제를 가장 독창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나라를 인민혁명정부의 조국으로 되게 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과 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을 힘차게 전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인민혁명정부는 자기의 정강을 발표하고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근거지내의 인민들에게 완전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여주었으며 극소수의 반혁명분자들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일제와 매국적인 친일지주,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함으로써 토지혁명과 농민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였다.

또한 8시간로동제와 최저임금제의 실시, 가렴잡세의 폐지, 일제와 그 주구들의 채권의 무효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영농사업과 물자류통 및 공급사업의 조직, 무료치료제의 실시 등으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였다.

인민혁명정부는 또한 무료의무교육제도의 실시, 혁명적문학예술활동, 구두선동, 출판선전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체 근거지인민들을 민족적 및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혁명화함으로써 군민이 하나로 뭉쳐 오직 수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교양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인민혁명정부가 실시한 제반 시책에 의하여 혁명근거지에서는 인민들이 난생 처음으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착취와 억압을 모르며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배울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혁명근거지인민들이 쟁취한 가장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였으며 민족적자주의식과 혁명적자부심을 높이고 혁명투쟁에서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시고 제반 민주주의적시책의 실현을 령도하시는 과정에서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령도함에 있어서 우선 정권문제에서 정확한 로선을 가져야 하며 혁명정권은 낡은 통치기구를 혁명적폭력으로 철저히 청산함으로써만 수립할수 있다는것과 혁명정권은 자기의 정책과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반면에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에 대하여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여야만 정권을 유지하고 공고화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일수 있다는 경험을 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근거지에서 혁명의 골간을 육성하며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

치시였다:

《조선혁명은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성취할수 없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우선 그들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혁명의 골간부대를 육성하며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그를 보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중을 전취하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끊임없이 축적장성시켜야 한다는 전략적원칙과 모든 반일력량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야 하였던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당을 창건하는것을 혁명승리의 제일차적인 과업으로 인정하시고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갖추며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정확한 방도를 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신 이후 우선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을 항일유격대에 받아들이여 그들을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키우심으로써 혁명의 골간부대를 튼튼히 꾸리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편 근거지내의 공청단체와 부녀회를 비롯한 각종 혁명적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심으로써 군중을 혁명화하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부단히 장성강화하시였다.

1933년봄 왕청현 공청확대회의와 왕청 제2구 부녀회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들은 혁명적대중단체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조직성원들을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각종 혁명적대중단체에 망라된 성원들을 인상적인 교양과 조직생활 및 실천투쟁을 통하여 열렬한 혁명가로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우선 핵심들이 자신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며 나아가서 자기의 가족을 혁명화하도록 가르치시였으며 군중을 혁명화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일제와 그 주구놈들을 증오하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오직 혁명의 길에서 용감히 싸워나아가며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군중속에 들어가시여 사업하시는 한편 《전투보》, 《반일보》, 《반제전선》을 비롯한 각종 혁명적출판물발간사업을 직접 조직지도하시여 군중을 혁명화하시였다. 또한 반《민생단》투쟁에서 발로된 대국배타주의자, 사대주의자, 종파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의 본질과 해독성을 폭로하시고 그들과의 원칙적이고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하여 항일유격대와 근거지인민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시였다.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와 어긋나는 일체 반혁명사상과 견결히 투쟁하며 수령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조건 옹호관철하는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가로 자라났다. 그들은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교양하는 방법으로 근거지의 전체 인민을 혁명화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을 혁명화하여 주체적력량을 부단히 장성시키시는 한편 반일부대들과의 반제공동전선 및 반일공동행동을 실현하시였으며 이웃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시여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근거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골간을 육성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인다면 군중을 혁명화하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부단히 장성시킬수 있으며 그에 의거하여 혁명의 승리를 달성할수 있다는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특히 군중전취사업에서는 확고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킬 때 모든 혁명력량을 하나로 굳게 결속하고 원쑤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킬수 있다는 경험을 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하심으로써 적들의 무력침공과 내부와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시였으며 근

거지를 거점으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을 힘차게 확대발전시키시였다.

당시 강도 일제는 저들의 침략적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병력을 동원하여 근거지《토벌》에 미쳐날뛰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황에 대처하시여 혁명근거지를 보위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유격근거지를 철저히 보위해야 한다. …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철옹성같이 보위하기 위해서는 항일유격대를 급속히 확대강화하는 한편 근거지내 전체 인민이 무장하여야 한다. 》

항일유격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근거지인민들을 무장시키고 근거지를 요새화하여 그 어떤 원쑤의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혁명근거지를 적들의 침해로부터 고수하기 위한 투쟁의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혁명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함으로써만이 일제침략자들의 발악적인 침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근거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무장투쟁을 힘차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근거지내의 혁명조직들과 적통치구역의 지하혁명조직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을 받아들이시여 항일유격대를 급속히 확대강화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를 확대하시는 동시에 그들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심으로써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이미 얻은 무장을 토대로 하여 적의 무장을 빼앗아 유격대의 무장장비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근거지에 병기창을 설치하고 각종무기를 제작수리하여 근거지인민들을 무장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근거지내에서 생산과 무장투쟁을 결합시킨 반일자위대, 적위대, 돌격대, 소년선봉대 등 반군사조직을 창설하시여 인민적무장로대를 강화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반군사조직성원들에 대한 군사정치훈련을 직접 지도함과 함께 전체 인민들이 누구나 다 무기를 다루고 언제나 적과 싸울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업에 진력하였다. 이리하여 혁명근거지인민들은 한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손에는 낫과 괭이를 들고 평시에는 생산에 전심하다가도 일단 유사시에는 유격대와 함께 적의 침공에 대처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민무장화와 함께 근거지를 요새화하는 사업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근거지인민들은 유리한 지형지물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근거지주변과 주요지점들에 강력한 자연적방위시설들과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고 참호와 전호들을 굴설하였으며 빈틈없는 신호체계를 세웠다. 반유격구는 각종 형태와 방법으로 정찰자료, 적의 기동상태 등을 수집하여 적시에 유격구에 알려주어 항일유격대로 하여금 사전대책을 강구할수 있게 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적방침에 의하여 혁명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가 확립되고 보이지 않는 요새인 반유격구들이 그를 튼튼히 둘러싸게 됨으로써 근거지는 철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하심과 함께 혁명근거지보위를 위한 전투를 직접 지도하시였다.

혁명근거지가 창설된데 당황한 일제는《토벌》에 광분하였다. 일제는 1933년말～1934년초에 김일성동지께서 계신 조선혁명의 심장부인 소왕청근거지를 압살하기 위하여 5,000여명의 대병력을 투입하였으며 그후 근거지에 대한《토벌》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중과 분산, 유인과 매복, 적극적인 방어와 적후방교란작전을 배합하는 등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천재적인 유격전술로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혁명근거지를 보위할수 있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토벌》공세를 그때마다 격멸소탕하시였을뿐만아니라 근거지에 대한 놈들의 내부와해책동도 성과적으로 물리치시였다.

교활한 일제는 혁명대오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간첩과 암해분자들을 끊임없이 혁명근거지에 잠입시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들의 악랄성과 교활성을 간파하시고 항일유격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에게 항상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사소한 안일성과 해이성도 허용하지 말며 긴장되고 동원된 혁명적생활기풍을 확립하게 하심으로써 로인들로부터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민들이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게 하시였다.

항일유격대와 근거지내 인민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위의 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혁명근거지를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4～5년간이나 영예롭게 사수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유격근거지의 혁명적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날 동만에 창설되였던 유격근거지—해방지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대오를 확대강화하고 반일군중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쑤들이 도처에서 대중적학살을 감행하고 우리의 혁명력량을 전멸하려고 발광하던 그 당시에 우리가 방어하기 유리한 산림지대에 고정된 유격근거지—해방지구를 창설하여 혁명력량을 보존, 장성시키고 인민을 보호한것은 아주 정당하였고 혁명발전을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두만강연안에 창설되였던 혁명근거지는 항일유격대의 튼튼한 군사적지탱점으로, 후방기지로, 조선혁명의 책원지로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항일유격대는 자체의 튼튼한 혁명근거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의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었으며 수많은 대소전투들에서 적들에게 결정적패배를 주고 항일무장투쟁을 거세차게 발전시켰으며 우리 인민을 반일혁명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였다.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혁명근거지가 창설되고 일제놈들의 《토벌》을 물리치며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고수하고있다는 영웅적투쟁소식에 접한 전체 조선인민은 무한한 기쁨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으며 혁명근거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각종형태의 반일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 *

김일성동지께서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창설하신 혁명근거지와 거기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과 경험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무한히 귀중한 재부로 된다.

이 빛나는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지체없이 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할수 있었으며 그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근거지를 독창적으로 창설하시고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하시여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키신 고귀한 경험은 국제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식민지나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유격근거지는 군사활동의 거점으로 될뿐만 아니라 혁명의 기지로, 책원지로 된다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그이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인민들에게 민족해방을 위한 무장투쟁에서 혁명근거지를 어떻게 창설하고 공고화하며 그를 어떻게 보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답으로 된다.

이것은 오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반제반미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모든 나라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혁명근거지건설의 경험을 심오히 연구하고 그를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 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다.

오늘 이 고귀한 경험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투쟁에 구현하는것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요구로 제기된다.

우리 인민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반석같이 다져나갈것이며 이에 의거하여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며 전조선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고야 말것이다.

김일성동지의 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는 후대교육교양사업에서의 강령적지침

리 장 수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1년 4월, 전국교육일군열성자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는 우리의 후대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하는데서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에서 후대교육교양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학교교육교양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교육리론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을 새롭게 발전시킨 고전적문헌이다.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이 력사적 로작을 깊이 연구하고 그 사상을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후대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하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에서 학교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결부되여야 한다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학교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되고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공산주의건설자를 키워내는데 있습니다. 공산주의사상과 결부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있기때문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55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교양사업은 응당 우리의 혁명과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수행에 실제적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교육교양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조선혁명수행에 쓸모있는 인재를 교양육성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학교교육교양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학교교육교양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종되여야만 새세대들이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지식과 기술을 소유할수 있으며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될수 있다. 오늘 우리 학교들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떠난 교육이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의 일반원리나 법칙을 가르치고 한가지의 공식이나 기술조작을 가르쳐도 그것이 우리 혁명과 건설

의 유일한 지도사상인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성과와 경험을 분석일반화하며 리론화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의 내용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립각하여 전면적으로 당정책화되여야만 교육교양사업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높일수 있으며 후대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교육의 목적과 사명을 주체적이며 혁명적립장에서 뚜렷이 밝히시고 여기에서 부르죠아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회주의학교교육의 로동계급적 선을 명백히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그 학교가 어떤 사람을 키워내는가 하는 문제로서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학교관리운영 등 학교교육사업전반을 규정짓는 기초로 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의 사회계급적 성격은 무엇보다 먼저 교육목적에 가장 집중적으로 반영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의 목적은 자본가들이 근로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최대한의 리윤을 얻는데 복무하는 저들의 종을 길러내는데 있다. 여기서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공명주의, 출세주의 등 자본주의사상을 주입하는것이 교육의 기본으로 된다. 그러므로 부르죠아학교교육의 《원리》는 어디까지나 자본가의 계급적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는 철저한 리기주의와 개인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학교교육의 원리는 자본주의사회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교육의 원리는 혁명의 원리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가르치시면서 사회주의학교교육사업에서 로동계급의 계급적선을 명확히 세울데 대한 혁명적인 교육사상을 천명하시였다.

로동계급은 온갖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력사적사명을 지니고있다. 이 성스러운 력사적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낡은 자본주의적교육제도를 철폐하고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세우며 학교교육을 통하여 혁명의 대를 이어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는 혁명가, 공산주의건설자를 키워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은 공산주의적집단주의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공동의 목적과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살며 일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향락과 영예만을 바라는 자본주의사상이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사회주의학교는 온갖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전체 근로대중이 다 같이 잘 살게 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혁명가를 키워내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목적으로 삼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학교교육의 목적과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신데 기초하여 후대들에 대한 공산주의사상교양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새 사회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데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학교가 부르죠아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른점은 후대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인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과 함께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데서도 그것이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철저히 복종되게 한다는데 있다.

부르죠아학교에서는 착취계급의 반동사상과 《리론》, 《지식을 위한 지식》을 주입하며 저들의 값싼 로동력을 얻는데 필요한 정도의 기술을 가르쳐 사람들을 기계의 부속물로 만든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학교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것은 후대들에게 인류가 도달한 과학의 성과와 최신기술을 폭넓고 깊이 있게 소유시켜 그들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

사회주의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기술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며 새 사회 건설에 필요한것으로 되자면 응당 그것을 가르치는데 있어서도 로동계급의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자연의 객관적법칙과 원리를 연구하는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파악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계급적 관점과 립장을 가진다.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관점과 립장에 설 때라야만 자연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하게 습득할수 있으며 그것을 자연을 개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옳게 적용할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지식과 기술을 공산주의사상과 결부시켜 가르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교육의 모든 내용이 자기 나라 혁명위업에 칠저히 복무해야 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혁명적인 교육사상이며 과학기술탐구의 옳바른 길을 명시하신 천재적인 교육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을 공산주의사상과 쓸모있는 과학과 기술로 무장시킬뿐만아니라 그들의 체력을 단련하여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부터 지덕체가 다 갖추어져야 한다고 한것이 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반드시 그들속에서 몸을 단련하는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5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공산주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은 지덕체를 다 갖춘 인간이여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을 키우는데서 체육교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밝히시고 체육교양은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와 같이 후대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과 충분한 과학기술지식을 소유시킬뿐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된 새형의 인간으로 그들을 키우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교육사상은 사회주의학교교육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확고한 지도적지침이다.

학교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칠저히 복무해야 한다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 교육사상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비단 선진적인 교육체계를 세우고 무료교육을 실시할뿐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로동계급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힌것으로서 이것은 맑스-레닌주의교육사상을 새롭게 발전시킨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후대교양이 로동계급의 관점과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심으로써 사회주의학교에서 지덕체를 다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육성이란 다름아닌 공산주의자, 혁명가를 길러내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처음으로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이리하여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사상은 《학교의 자유화》를 떠들거나 그의 사상교양자적기능을 부인하는 온갖 기회주의사상을 칠저히 분쇄하고 맑스-레닌주의교육리론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킨것이다.

2

김일성동지의 력사적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에서 천명된 교육사상에서 또하나의 중요한것은 후대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가정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호상관계를 밝혀주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학교교육은 서로 뗄수 없으며 이것은 언제나 병진시켜야 하며 옳게 배합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처음에 가정교양으로부터 시작되고 학교교육을 거쳐서 그 기초가 닦아지는것이며 사회교육을 통하여 계속 완성됩니다.》(우와 같은 책, 42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히시고 그것을 옳게 병진시키며 배합할데 대한 창조적교육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하에서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은 다같이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하나의 전일적과정을 이루면서 서로 보충하고 계승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사람들은 우선 가정에서 교양을 받기 시작하여 학교교육을 거쳐서 세계관의 기초를 닦으며 사회교육을 통하여 그것을 더욱 공고화한다.

가정교육은 후대들에 대한 교양의 첫 시작이다. 가정에서는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세심한 교양을 주게 되며 이것은 새세대들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기 학생들에 대한 교양에 있어서도 가정과 사회에서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 시기 학생들에 대한 가정, 사회, 학교의 통일적보조와 일상적인 교양은 우리의 후대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병진시키고 옳게 배합하여야만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여러 생활령역에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막아내고 반동적사상독소가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후대들을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그 어데서나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지도덕품성으로 옳게 교양할수 있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교양에서 학교교육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어떤 사회에서나 할것없이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있어서 학교교양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특히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공산주의사회가 가까와지면 질수록 국가의 문화교양자적기능을 맡고있는 학교의 임무는 더욱 커집니다.》(우와 같은 책, 42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교육제도의 본질적우월성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 망라되여 교육을 받게 되며 그들은 이 기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필요한 사상과 지식을 배우고 훌륭한 공산주의건설자로 육성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로동할 나이가 될 때까지 학교에서 혁명적세계관의 기초를 닦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학교는 후대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 성장과 그들의 년령심리적특성으로 보아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청소년시기의 교양을 맡고 있다. 또한 이 시기 청소년들은 가정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학교집단생활,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 참가하게 되면서 정치사상의식이 높아지고 조직생활에 익숙해지며 그들의 활동범위도 훨씬 넓어진다.

이러한 모든것은 학교가 후대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전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있음을 말해준다.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학교교육기간을 통하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로, 공산주의건설자로 준비되며 쓸모있는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할 때 나라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은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될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나라의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으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사상, 문화 혁명의 거

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언제나 병진시키고 옳게 배합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후대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가장 훌륭하게 육성할수 있는 정당한 교양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병진시키고 옳게 배합할데 대한 구체적인 교양방도를 가르쳐주심으로써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학생들을 짜고들어 교양할수 있게 되였으며 그들의 세계관을 가장 신속정확히 형성시키고 더욱 공고화시킬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의 위치와 그 기능과 역할을 천명하신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은 학교가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사상교양자적기능을 담당한 사상혁명의 기관으로, 문화혁명의 거점으로 된다는것을 밝히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학교가 로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수단으로, 사상혁명의 기관으로, 문화혁명의 거점으로 된다는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촉진할수 있게 하시였다.

이와 같이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호상관계와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의 위치와 역할을 천명하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 교육사상은 후대교육교양사업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더욱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위대한 교육사상이다.

3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에서 청소년교양의 내용과 방도에 대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는 새 사회에서 살고있습니다.… 동무들은 새 사회의 새형의 인간들을 교양육성하고있는 붉은 교육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전 사회에서와는 달리 새로운 교육 방침과 방법에 의하여 새 사회의 인간을 교양해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운 공산주의교양방침은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교양하는데서 의거해야 할 정확한 방침입니다.》(우와 같은 책, 41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을 인민을 사랑하고 동무들을 사랑하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며 국가와 인민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정신,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로 교양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후대들에게 지주, 자본가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며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을 계급적원쑤들을 무한히 증오하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제도를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공산주의미래를 열렬히 사랑하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이 종국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온갖 난관과 풍파를 뚫고나아가는 혁명적락관주의로 교양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새 사회의 새형의 인간에 대한 교육교양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과학적이고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이 교양방침은 또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에 치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고있으며 혁명이 계속되고있는 오늘의 혁명정세의 요구와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의 특성에 비추어 그들을 불요불굴의 견결한 혁명가로,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이다.

청소년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

자로 키울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교육사상은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우리의 후대들을 이와 같은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만 그들이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대를 이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혁명을 철저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교양의 내용을 천명하시였을뿐아니라 그것을 가장 훌륭히 해결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소년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긍정으로 부정을 이겨내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이 사람을 교양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라는것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굳게 믿고있습니다. 긍정적모범으로 감화하여 부정을 이겨내는것은 대중교양사업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입니다.

군중은 긍정을 지향하고있으며 부정을 없애고 긍정을 창조할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속에서 모범적인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그 모범으로 모든 학생들을 교양하는것이 좋습니다.》(우와 같은 책, 55페지)

긍정적모범으로 부정을 이겨내는 감화교양방법은 천재적인 혁명의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40여년간의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창조하시고 오랜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을 남김없이 확증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교양방법이다.

이 방법은 또한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과 우리 인민의 숭고한 지향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대중교양에서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위력한 교양방법으로 되고있다. 특히 이 방법은 청소년학생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알맞는 유일하게 정당한 교양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방법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들은 후대들을 한사람도 남김없이 훌륭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낼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들을 교양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작은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큰것으로 나가며 교양이 항상 구체적인 문제와 결부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한다는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교양하는 방법은 작은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실지생활과 결부된 구체적인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추상적인 원칙만 강조해가지고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하여서는 일상생활과 결부된 구체적인 문제부터 가르쳐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마는 쌓이고 또 쌓이면 큰것으로 됩니다.》(우와 같은 책, 57페지)

사람들에 대한 사상교양은 그들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세계관의 형성기에 있으며 사고활동이 구체적인것과 결부되여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은 더욱 그러하다.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원리보다 자기들이 직접 겪고있으며 보고들은 실지생활과 구체적인 사실을 놓고 교양하는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청소년교양에서 교원들은 학생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작은 결함이라도 놓치지 말고 제때에 고쳐주며 조그마한 우점이라도 찾아내여 발전시키는데 세심한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을 생활과 결부된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교양하는것이 비록 작은 일같이 보이지마는 그 과정을 통하여 부정이 극복되고 모범적인 사실이 조장발전되며 생활에서 관습화되고 나아가서 공산주의적세계관을 형성하는데 크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의

학습과 생활, 로동과 사회활동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실지 생활을 떠난 추상적인 원칙만 강조하는것으로써는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없으며 후대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들을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과 사회적로동을 통하여 교양하는것이 그들을 미래의 사회정치활동가로, 공산주의건설자로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적실천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교양하는것은 훌륭하고 뛰여난 일을 해보려는 청소년들의 년령심리적특성에 맞는 힘있는 교양방도이며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키는 혁명적인 교양방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청소년학생들을 글을 많이 배우고도 써먹을줄 모르는 《글뒤주》로 만들것이 아니라 강연, 해설, 기동선전대활동, 예술공연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앞에 출연시키며 문화위생근위대, 록화근위대, 교마7개년계획 등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적극 참가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과 유익한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은 그들이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더욱 공고히하고 정치적훈련을 강화하여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 활동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하는것은 또한 청소년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학습과 자체수양에 더욱 분발하게 한다.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광범히 참가시키며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은 모든 후대들을 유능한 사회정치활동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교양육성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혁명적교육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청소년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핵심을 키우고 그들에 의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하는데 있어서 핵심을 키우고 그에 의거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교원들속에서도 핵심을 키우고 학생들속에서도 핵심을 키워야 합니다. 핵심대렬을 계속 확대강화하여나가면 모두다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57페지)

핵심을 키우고 그 대렬을 계속 확대하며 그들에 의거하여 군중을 교양할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육사상은 모든 청소년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가장 훌륭한 방도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원들속에서도 핵심을 키우고 학생들속에서도 핵심을 키우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전체 학생들을 교양할 때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핵심들이 집단속에서 대중을 교양하며 부단히 핵심대렬을 확대할 때 모든 군중을 다 교양개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핵심을 옳게 키우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는 모든 학생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혁명가의 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겨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교육사업은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입니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교양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양자들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하며 혁명가로 되여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43페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대교육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

한 문제로 보시고 교육사업을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우리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갈 후대들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그들을 교양육성하는 교육자들에 대한 높은 신임의 표시이다.

교육사업이 직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라고 하신 김일성동지의 이 가르치심은 또한 교육사업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사상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는것을 밝혀주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사람을 개조하는 사업은 사회제도를 개조하거나 기술을 발전시키는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식을 개조하는 사업은 오랜 기간 참을성있게 진행하여야 하며 세심한 연구와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이란 매우 중요한 일인 동시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우와 같은 책, 41～4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는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의 의식을 개조하는것은 보다 어렵고 복잡한 혁명사업이다.

그러므로 후대교육의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자들자신이 혁명가로 되여야 한다. 교원들은 자신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실천을 통하여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때 혁명가로서의 자기앞에 지닌 임무를 다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교원자신이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지 못할 때에는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훌륭한 지식을 가르쳐준다고 해도 학생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을것이며 그를 존경하지 않을것이다.

교원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혁명투사로 되여야 하는것은 또한 사상,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사명과 교원의 사회적임무와 관련되여있다. 교원들은 청소년학생집단을 통하여, 교원자신의 다양한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학부형과 모든 근로자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며,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군중문화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교원들자신이 김일성동지의 교시,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모든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며,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더 잘 준비될것을 요구한다. 교원들은 로동계급의 인테리로서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함으로써만 당이 맡겨준 후대교육교양사업의 성스러운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전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교육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교육사상을 높이 받들고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지키며 그이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의 근위대, 결사대로 교양육성함으로써 교육자들에게 영예로운 혁명가의 칭호를 주시고 온갖 육친적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수령의 높은 은덕과 커다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창성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편 광 성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전국농업일군대회에서 지난해에 농촌사업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를 공고히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과 구체적인 과업들에 대하여 다시금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대회에서 특히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빨리 추켜세울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지난날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빨리 추켜세우는 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실천투쟁을 통하여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도 만들어놓았습니다.

창성군이 바로 그러한 전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0여차에 걸쳐 창성을 현지지도하시고 이곳 인민들을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시였으며 창성군을 《근위1급군》으로, 산간지대농촌건설의 본보기로 꾸려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창조하신 산간지대농촌건설의 전형—창성의 경험을 일반화하는것은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앞선 수준에 빨리 따라세우며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뒤떨어진 농촌을 그대로 두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 물론 자본주의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함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협동농장들도 있고 좀 뒤떨어져 나가는 협동농장들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협동농장들이 다 빨리 발전하여야 하며 벌방지대, 산간지대, 해변지대 할것없이 모든 지대 농민들의 생활이 다 높아져야 한다. 이에 있어서 뒤떨어진 농촌들이 따라배울수 있는 본보기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본보기를 마련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협동농장들을 다 같이 발전시키고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부유하고 문명하게 만들어야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게 할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정치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원칙을 더 빨리 실현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대다수 협동농장들이 높은 수준에로 발전된 오늘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빨리 추켜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촉진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과 같은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산간지대 협동농장들의 발전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가일층의 촉진을 위한 힘있는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과 협동농장들은 창성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실현하는데서, 우리의 모든 농촌들을 더욱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적농촌으로 건설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　　　　　*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으로 하여 그 어느곳보다도 산간벽촌인 창성은 산간지대농촌건설의 전형으로, 뒤떨어진 협동농장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본보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인민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과 같은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저본방도에 대하여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는 있는 경지면적을 잘 리용하여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며 산을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는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높일수 있고 두엄을 많이 받아 알곡을 많이 낼수 있으며 또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집짐승먹이원천이 많아져서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지대농촌에서는 특히 산을 잘 리용하여 면양, 염소, 송아지, 게사니, 토끼 같은 풀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기르는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57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산과 축산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다. 농사지을 땅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정당농산물수확고를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정당농산물수확고를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근본문제의 하나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것이며 그러자면 논과 밭에 두엄을 많이 내야 한다. 화학비료만 가지고는 땅을 기름지게 할수 없으며 더우기 질소비료의 생산량이 린, 카리 및 미량원소 비료의 생산량보다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우리의 조건에서 땅을 체계적으로 기름지우며 정당농산물수확고를 높이는 결정적고리의 하나는 축산업을 발전시켜 논과 밭에 두엄을 많이 내는것이다.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면 비단 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높일수 있을뿐아니라 질좋은 두엄을 논밭에 더 많이 내여 정당농산물수확고를 높일수 있다. 농산물정당수확고가 높아지고 알곡이 더 많이 나면 집짐승먹이원천이 많아지며 따라서 축산업을 더욱 대대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이처럼 농산과 축산은 서로의 발전을 촉진한다.

산간지대농촌들에는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 우리 나라 산들에는 여름철에 자연목초가 무성하며 그것은 풀먹는 집짐승의 좋은 먹이로 된다. 그리고 산골짜기들은 훌륭한 방목지로 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있는 경지면적을 잘 리용하여 알곡을 많이 생산하는 동시에 이에 배합하여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바로 여기에 산간지대농촌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기본열쇠가 있으며 창성이 산간지대농촌건설의 전형으로, 모범으로 되는 주요내용이 있다.

이곳 농민들은 산이 많고 자연목초가 무성한 창성과 같은데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위주로 하는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잘 살수 있다고 하신 수령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물론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길에서 이들에게 부닥쳤던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과 따뜻한 배려는 창성사람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었으며 그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창성은 원래 뒤떨어진 산골농촌이다보니 집짐승이라고는 재래종돼지와 소가 있었을뿐이며 더우기 이곳 농민들은 면양, 염소, 게사니 등을 길러본 경험도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종자양 200마리와 종자돼지, 염소, 게사니, 털토끼 등 수많은 종자집짐승들을 보내주시였으며 우수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국영목장들에 견학보내도록 배려하시였다. 당 및 사회단체 조직들에서 선발된 사양공들은 수령께서 보내주신 귀중한 종자집짐승들을 맡아기르는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간직하고 자기들의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바쳐 일하였다.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창성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집짐승의 종자를 개량하는데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축산업의 발전에서 집짐승의 종자개량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보다 좋은 종자의 집짐승은 같은 로력, 같은 먹이로써도 훨씬 많은 축산물을 낼수 있다.

이곳에서는 재래종돼지는 피현종, 평양종으로, 토끼는 털토끼로 바꾸고 염소와 소도 개량함으로써 축산물생산을 현저히 장성시켰다. 지금 창성군내 모든 협동농장 축산작업반들에서는 종자집짐승들을 잘 길러 새끼를 내우고 모든 작업반들과 농민가정들에 나누어주고있다.

집짐승의 종자개량과 함께 창성사람들이 중요하게 관심을 돌리고 힘을 넣은것은 집짐승먹이기지를 마련하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집짐승을 많이 기르자면 그만큼 먹이가 많이 있어야 한다. 집짐승먹이기지를 튼튼히 마련함으로써만 축산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창성사람들은 우선 자연목초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였다. 그러나 칡, 싸리, 아카시아 등 영양가가 높은 자연먹이는 대부분 가파로운 산비탈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채취하는데는 많은 로력이 들었으며 생산능률도 높지 못하였다. 천연적으로 주어지는 먹이만으로써는 특히 마리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집짐승들의 먹이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없었다. 창성에서는 야산들에 칡, 싸리, 아카시아밭을 만들고 잘 가꾸었다. 이곳의 매 협동농장들에서는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칡밭, 싸리밭, 아카시아밭들을 여러정보씩 마련하고 거름도 주어 많은 먹이를 해결하고있다.

수령께서 교시하신대로 창성사람들은 또한 25~35도 비탈진 밭에 수확성이 높은 먹이작물을 심어 정당 40톤씩 냈다. 수확성이 높은 먹이작물을 많이 생산하는것은 축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수확성이 높은 먹이작물을 많이 심어야 더 많은 집짐승을 기를수 있으며 고기생산의 원가도 훨씬 낮출수 있다. 창성에서는 집짐승먹이에서 수확성이 높은 먹이작물이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고기생산에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창성사람들은 산골농촌에서 농산과 축산을 합리적으로 결합하여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성골령의 험한 골짜기에 자리잡은 집짐승우리에 친히 찾아오시여 나어린 사양공들을 고무해주시면서 여름철에는 밭머리에 이동식집짐승우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두엄을 밭에 내며 골짜기들을 순환하면서 집짐승들을 기르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수령의 교시대로 밭머리에 이동식집짐승우리를 지으니 적은 로력을 가지고도 주변에서 목초를 베여 먹이를 충분히 댈수 있었고 집짐승우리에서 나오는 많은 두엄을 헐하게 밭에 낼수 있었다. 이 방법은 집짐승을 더 많이 기를수 있게 하였을뿐만아니라 알곡정당수확고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골짜기들을 순환하면서 집짐승들을 기르니 제대로 다 자라고 영양가가 높은 목초를 집짐승들에게 먹일수 있었으며 먹이가 늘 넉넉히 보장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창성사람들은 축산물생산량을 체계적으로 빨리 장성시켰다. 축산물생산량은 1959년을 100으

로 할 때 1961년에는 약 150%로, 1968년에는 231%로 장성하였다. 지난해에 고기는 군적으로 작업반당 2.7톤, 호당 108키로그람을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창성사람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고기생산과제를 빛나게 넘쳐수행하였다. 특히 수령께서 친히 시범단위로 설정하시고 수십차에 걸쳐 현지지도를 하신 옥포협동농장은 작업반당 6톤, 호당 140키로그람의 고기를 생산하였다.

지난해에 창성군적으로 호당 평균 600원의 수입이 공동 및 개인 축산에서 얻어졌다는 사실만으로써도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을 높이는데서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창성에서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은 알곡정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토대우에서 진행되였다.

군의 총경지면적에서 밭면적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창성사람들은 밭곡식의 정당수확고를 높이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수령의 교시에 따라 창성사람들은 20도이하의 경사지에 다락밭을 만들고 돌을 추어내여 땅을 잘 정리하는 한편 정당 20톤이상의 질좋은 두엄을 내여 땅을 더욱 기름지게 하였다. 이와 함께 강냉이 심는 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였는데 매필지의 특성에 맞는, 일찍 여물고 수확성이 높은 좋은 종자를 골라심고 곡식을 과학기술적으로 가꾸었다.

집짐승우리에서 나는 좋은 거름을 많이 내고 화학비료도 많이 주는 조건에서 창성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돌린것은 평당강냉이포기수를 늘이는것이였다. 창성에서는 토양의 비옥도, 강냉이종자와 매필지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우에서 평당포기수를 늘였는데 군적으로 평당 평균 2~3포기를 더 심었다. 이것은 지난시기 정당알곡수확고가 700키로그람정도이던 창성의 아주 심한 비탈밭에서 군적으로 정당 알곡 3톤이상의 소출을 낼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창성사람들은 강냉이농사와 함께 벼농사도 잘 지어 지난해에 논정당 4~5톤의 벼를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창성에서는 논에 흙깔이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이것은 논물이 땅밑으로 새여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 온도를 적당한 높이에서 보장할수 있게 하며 땅을 더욱 기름지게 함으로써 벼정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이와 함께 이곳 농민들은 창성의 기후조건에 맞는 벼종자를 선택하고 《문덕식 벼모기르기방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였으며 평당벼포기수도 늘이고 김도 알심있게 그리고 벌방지대보다 한두번 더 매였다.

그리하여 창성에서는 알곡생산이 해마다 체계적으로 높아졌는데 지난해에는 1959년의 4.5배로 높아짐으로써 수령께서 주신 알곡생산과제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알곡분배몫이 현저히 장성하였으며 호당수입구성에서 농산수입과 축산수입의 비중이 훨씬 늘어났다. 지난해에 군적으로 알곡은 호당 3톤 3키로그람, 현금은 1천 245원씩 차례졌는데 그중에서 농산물수입에 의한 몫은 1959년의 55%로부터 66.3%로, 축산물수입에 의한 몫은 8.2%로부터 21%로 각각 장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농산과 축산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이룩될수 있었다.

창성사람들은 농산과 축산을 결합시켜 빨리 발전시키면서 있는 경지면적을 잘 리용하여 무엇보다도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하는 기초우에서 현금수입이 높은 작물을 심을데 대한 수령의 교시대로 군적으로 140정보의 밭에 고추를 심었다.

고추를 심은 첫 몇해동안은 정당수확고가 매우 낮았다. 따라서 그것은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높이는데서 큰 역할을 할수 없었다. 오직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치신대로 밭을 잘 정리하고 고추모를 길러 심으며 특히 집짐승우리에서 나오는 좋은 거름을 많이 낸 다음부터야 정당수확고가 점차 높아지게 되였다. 사

실상 지난해에 군적으로 정당 2톤의 마른고추를 생산할수 있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대로 집짐승을 많이 길러 발에 두엄을 더 내고 모를 길러심은데 있다.

고추의 정당수확고를 높인것은 농민들의 현금수입을 높이는데서 아주 큰 의의가 있었다.

보는바와 같이 있는 경지면적을 살리용하여 알곡을 많이 생산하며 산을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는 창성땅에서 훌륭히 관철되고있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농촌경리를 더욱 빨리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여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지방의 원료원천과 유휴로력을 동원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지방에 숨어있는 많은 원료, 자재와 그밖에 다른 예비와 가능성을 충분히 리용할수 없습니다. 지방공업은 야생섬유, 고포섬유, 마섬유, 산파실 같은 지방에 많은 원료들을 리용하여 나라에 많은 리익을 줍니다.》(우와 같은 책, 341~342페지)

창성의 주변산들에는 각종 섬유원료, 산과실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업원료들이 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자연부원이 이전에는 거저 썩고말았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과 그이의 깊은 배려에 의하여 오늘 창성군에는 식료, 제지, 가구, 방직, 마대 공장 등 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훌륭히 꾸며졌으며 그것은 지방의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주민들의 식료 및 일용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며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고 생산열의를 북돋아주는데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지난해에 이곳 농민들의 분배몫에서 산과실채취에 의한 몫만도 12.7%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배려로 하여 창성땅의 면모와 창성사람들의 살림살이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성사람들은 먹을것과 입을것도 넉넉하고 공부도 마음대로 할수 있으며 라지오도 듣고 영화도 보고있습니다. 그들은 예술써클도 잘하며 집도 깨끗이 꾸리고 아이들도 잘 거두며 인사성도 밝습니다.

창성은 비록 산간벽지이지만 오늘 창성사람들의 생활은 평양이나 신의주와 같은 도시사람들의 생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농촌사람들을 〈촌바우〉라고 하면서 업수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오늘 창성땅의 모습과 창성사람들의 살림살이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와 같은 책, 336페지)

락후와 빈궁, 무지와 몽매만이 지배하던 창성은 오늘 살기좋은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다.

지난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곳 농민들이 오늘은 호당 3톤의 알곡을 분배받아 먹고도 남아서 나라에 수매하고있다.

옛날에는 너무도 못살다보니 부자간에 한벌밖에 없는 바지를 번갈아입으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모든 농민들이 철따라 갈아입을 여러가지 좋은 옷들을 가지고있으며 특히 지난날에는 녀새베치마를 해입고 시집을 가야 했던 녀성들에게도 오늘은 뉴똥과 비로도를 비롯한 고급나들이옷들이 다 갖추어졌다.

수령의 배려로 귀틀집오막살이는 자취를 감추고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섰으며 농민들은 라지오도 듣고 영화도 보고있다. 모든 리, 모든 농가에 전기가 다 들어가고 거의 모든 세대들에 재봉기, 이불장, 양복장들이 갖추어졌다. 농민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시에서와 꼭같은 값으로 상품들을 마음대로 살수 있게 되였다.

농민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아졌다. 그들에게는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는 불

론 자식 공부시킬 걱정, 병나면 치료받을 걱정도 없다.

《촌바우》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았으며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면서 귀틀집오막살이에서 이부자리도, 몸을 가리울 변변한 옷가지도 없이 추위에 떨며 긴긴 겨울밤을 뜬눈으로 지새워야 하였던 이곳, 창성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위대한 변혁이 아닐수 없다.

이 위대한 변혁, 이곳 농민들의 보람차고 행복한 오늘의 생활은 오직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깊은 배려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그것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완전하고도 종국적인 승리를 확고하게 담보하는 유일하게 옳은 길이다. 창성사람들은 날로 늘어나는 자기들의 살림살이의 구체적현실속에서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과 자애로운 손길을 후덥게 느끼고있다. 아담하게 일떠선 지방산업공장들과 농민들의 문화주택으로부터 시작하여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의 놀이감에 이르기까지 수령의 따뜻한 배려가 깃들지 않은것이 없으며 그이의 자애로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산간마을의 이름없는 농민들과 멍석자리를 같이하시고 농사일을 의논하시며 농가의 부엌에 들리시여 입쌀밥을 짓는것을 보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는 김일성동지, 한마리의 털토끼와 면양을 보시고도 먼저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털외투와 모직옷을 해입힐것을 생각하시는 그이, 그이는 진정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창성사람들의 친어버이시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대로만 하면 점령못할 요새도, 극복못할 난관도 없으며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 수령의 혁명사상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오직 그이의 령도만을 심장으로 받들고 끊임없이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려는 굳은 결의—이것이 오늘 창성사람들의 확고한 사상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낳게 하는 원천이다.

창성사람들은 수령의 교시를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는 사업에서 더욱 큰 승리와 성과를 달성할것이다.

*　　　　*

우리 나라의 모든 산간지대농촌들은 창성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창성군곁에 있는 벽동군이나 우시군, 동창군 같은데서는 우리가 늘 가서 지도하지 않아도 창성군의 모범을 본받기 위하여 힘썼기때문에 농호마다 알곡분배몫도 괜찮고 현금분배몫도 많으며 인민들이 잘살고있습니다.》

실천적경험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대로 창성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릴 때 농촌건설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며 전진속도가 매우 빨라진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벽동은 창성과 마찬가지로 산간지대농촌이며 옛날에는 사람못살 고장으로 불리여왔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현지교시를 관철하며 그이께서 친히 본보기로 마련하여주신 창성을 본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면서부터 이 군에서도 놀라운 성과와 혁신이 이룩되였다.

나라의 모든 지대를 다같이 발전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잘 살도록 심려하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7차에 걸쳐 벽동에 찾아오시여 이곳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며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창성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벽동의 지도일군들을 부르시여 군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으며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벽동이 창성의 본을

따를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에 따라 벽동군에서는 있는 경지면적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알곡정당수확고를 높이면서 산을 리용하여 축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좋은 종자집짐승들을 구해들이고 재래종집짐승들을 개량하였으며 여름철에는 밭머리에 이동식집짐승우리도 짓고 산골짜기들을 순환하면서 집짐승들을 먹이였다. 또한 창성군에서 한것처럼 자연먹이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는 한편 칡산, 싸리밭, 아카시아밭도 마련하고 25~35도의 비탈밭에 수확성이 높은 먹이작물을 대대적으로 심는 등 먹이기지를 튼튼히 꾸리였다. 그리고 농산물정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흙갈이, 다락밭만들기, 다락논풀기, 돌추기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리는 동시에 일찍 여물고 수확이 많은 종자를 골라심고 집짐승우리에서 나오는 좋은 거름을 뙈기밭들에도 정보당 20톤씩 내였다. 이밖에도 벽동에서는 수령께서 마련하여주신 산간지대농촌건설의 본보기—창성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각방면에 걸쳐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하여 벽동에서는 농업생산의 모든 부문이 체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인민생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다.

이 군에서는 지난해에 군적으로 호당 알곡은 3톤 135키로그람, 현금은 1천 150원씩 분배함으로써 창성과 마찬가지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당 제4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산간지대농호당 알곡 및 현금 분배몫지표를 넘쳐수행하였다.

오늘 벽동사람들은 생활에서 아무러한 근심걱정없이 오직 수령께서 밝혀주신 더욱 휘황찬란한 래일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이나 벽동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가 뒤떨어진 농촌들을 추켜세우는데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기는 경지면적이 매우 적고 그것도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산지대 군들, 례를 들면 함경북도, 자강도, 량강도의 군들이나 황해북도의 신계, 곡산 같은 군들도 경지면적으로 보나 땅의 비옥도로 보아 창성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다고는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성과 벽동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는 메마른 지대의 인민들도 당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평안남도 문덕이나 함경남도 함주, 황해남도의 재령, 신천 같은 벌방지대 사람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게 살수 있다는 확고한 결론을 짓게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31~332페지)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어느 산간지대도 창성이나 벽동보다 조건이 나쁘다고 말할수 없다. 경지면적이 적고 땅이 메마르고 철도로부터도 멀리 떨어진 창성이나 벽동과 같은 산간벽촌에서 그처럼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으니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들에서도 그보다 못지 않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명백하다.

문제는 당이 제시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가 관철하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당의 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모두가 달라붙어 이악하게 투쟁하는데서는 혁신이 일어나고 그렇지 못한데서는 결코 혁신이 일어날수 없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이 보여준 움직일수 없는 진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산간지대들에서 창성사람들처럼 노력하면 인민들의 생활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습니다. 결코 산간지대라고 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지 못할 근거는 하나도 없으며 창성군과 같은 모범이 있는 이상 방법을 몰라서 인민들을 잘살게 하지 못한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농촌지도일군들이 모두 창성군일군들처럼 당에서 하라는대로 조직사업을 잘하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투쟁한다면 어떤 산골이나 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산간지대농촌들에는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동원리용할수 있는 예비와 가능성이 무진장하게 있다.

모든 산간지대농촌들에서는 창성의 모범을 따라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면

서 집짐승기르기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알곡정당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조건에서 공예작물을 많이 심으며 산비탈에는 뽕나무를 심어 잠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산에 용재림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유효하게 찍어쓰며 꿀벌도 치는 등 주어진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여야 한다.

창성의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뒤떨어진 산간지대농촌들을 빨리 추켜세우는데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도일군들이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상관점을 세우고 수령의 교시관철에 앞장서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요한것은 사상입니다. 아직도 우리 일군들에게 로동자들을 잘 살게 하고 농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 사상이 모자랍니다.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창성군에서는 군당위원장이 앞장에 서서 군중을 이끌고 나가니 일이 매우 잘됩니다. 군중들도 당정책을 집행하는데서 재미를 붙였으며 자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과업을 주든지 모든 군중이 다 달라붙어서 반드시 그것을 훌륭하게 수행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338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골농촌인 창성에서 그처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수 있은것은 당의 방침이 옳았고 이곳 지도일군들이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는 사업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였기때문이다. 창성군의 당 및 경제 지도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이 되라고 하신 수령의 교시를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집짐승우리를 짓는데서나 학교와 지방산업공장들을 짓는데서나 모든 사업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였으며 대중을 수령의 교시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었다. 창성의 모든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인민대중을 수령의 교시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모든 사업의 첫공정으로 삼고 구체적인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으며 이악하게 달라붙어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결해나갔다.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관철되고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더욱 뚜렷이 확증됨에 따라 농민들의 혁명적기세는 더욱 높아졌으며 그들속에서 수령의 교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농촌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관철에서 언제나 앞장서 나가야 한다.

농촌부문의 모든 당조직들과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협동농민들속에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농민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

농촌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의논하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줌으로써 수령의 교시가 정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지도일군들은 특히 뒤떨어진 농촌, 협동농장들에 대한 지도방조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 및 축산 지도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방침대로 뒤떨어진 산간지대농촌들에 자주 나가 구체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종축장도 먼저 지어주고 종자 집짐승, 비료, 농약 등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며 국가적방조는 물론 로력지원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지원도 더 많이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농업지도기관으로서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뒤떨어진 농촌을 추켜세우기 위한 사업을 모든 방면에 걸쳐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강령을 실현하는데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자.

남조선인민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남조선혁명 승리의 중요한 담보

강 명 원

조선인민은 혁명의 천재적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계승해야 할 유일한 전통은 맑스-레닌주의의 기발밑에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한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72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조선인민이 대를 이어 반드시 계승하여야 할 무한히 귀중한 재부이다.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바로 이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의 매단계마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여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이 땅우에 세상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오늘과 같은 일대 민족적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마련할수 있었으며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공화국북반부에서 혁명과 건설을 위한 불패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을뿐만 아니라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문제는 남조선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이며 남조선혁명의 근본적요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는데 있다.

남조선혁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기는 문제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어떻게 튼튼히 결속시키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남조선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킴으로써만 그들을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준비할수 있으며 적들의 그 어떤 반동적공세도 성과적으로 분쇄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앞길이 매우 암담하고 우리 민족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을 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였으며 장기간의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남조선인민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며 수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되여 오직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혁명이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계속이며 조선혁명에 대한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과업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좋고 물맑은 우리 조국땅우에 압박과 착취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풍만한 자원을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모든 인민들이 자유롭고 풍족하게 살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종국적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땅과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전체 조선인민을 해방하고 이 땅우에 착취없고 압박없는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15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으며 해방된 조국땅우에 부상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할것을 구상하여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도일제를 격멸하고 3천리 조국강토우에 전체 조선인민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풍만한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조선혁명로선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혁명에 대한 원대한 구상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찬란히 꽃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강점으로 인하여 의연히 민주적비운이 가셔지지 않고있으며 인민들은 도탄속에서 허덕이고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는 공화국북반부와는 달리 남조선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제기되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아직도 외래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우리 나라 령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229페지)

남조선혁명은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전조선혁명의 뗄수 없는 한 구성부분으로서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해방하며 그들을 수령의 따사로운 품에서 북반부인민들과 함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기 위한 혁명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남조선혁명의 필연적요구로 되며 이 전통을 떠나서는 남조선혁명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또한 남조선혁명의 간고성, 복잡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남조선혁명은 간고성과 복잡성을 띠고있다. 남조선혁명은 세계제국주의의 두목이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국주의를 직접 주되는 투쟁대상으로 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놈들은 박정희괴뢰도당과 같은 주구들을 내세워 남조선에서 극악무도한 군사파쑈통치를 강화하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말살하고있다.

이와 같이 간고성과 복잡성을 띠고있는 남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세계혁명력사상 그 류례가 드문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남조선인민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혁명전통교양을 심도있게 하는것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고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혁명전통교양을 더 심도있게 하여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남조선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치게 하며 그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추진시킬수 있으며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정확히 구현할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남조선인민들을 혁명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였고 남조선혁명투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사상적내용과 다방면적이고도 풍부한 투쟁경험을 포괄하고있기 때문이다.

남조선인민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이 고귀한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아무리 간고한 투쟁조건에서도 수령의 혁명전사답게 주동적으로 싸워나가는 백절불굴의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남조선인민들을 무장시키는것은 남조선혁명정세의 급격한 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오늘 남조선의 혁명정세는 날을 따라 더욱더 성숙되여가고있다. 조성된 혁명정세에 대처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믿음직하게 꾸리기 위해서는 남조선인민들을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불패의 힘의 원천인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조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혁명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앞당길수 있다.

* *

남조선인민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게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40여년간 오직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실현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와 세계혁명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시였다.

실로 조선혁명의 진정한 력사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민족적비운이 서리고 우리 민족이 일제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신음하며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던 암담한 시기에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심으로써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하였던 조선혁명의 독창적인 로선과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당창건과 혁명무력건설 등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였으며 몸소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고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명철한 유격전술을 구사하심으로써 강도일제를 타승하고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항상 인민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어버이심정으로 대원들과 인민들을 뜨겁게 사랑하시였으며 그들의 생활과 신변에 대하여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조선혁명의 독창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 모든 투쟁경험과 업적들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함으로써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며 그이의 가르치심에 충실한 참된 혁명전사가 되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질수 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를 통하여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조선혁명의 진정한 력사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시작되였으며 오직 그이만이 전체 조선인민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라는것을 깊이 간직하게 된다. 또한 오직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따

라 전진할 때에만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수 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연구하여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바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구현이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의 위업에 구현된 맑스-레닌주의이며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며 세계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함으로써만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사답게 그이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방침을 받들고 끝까지 투쟁하여나갈수 있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은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로작들과 수령의 4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를 기록한 《김일성전기》를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 남조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일편단심 그이의 충직한 혁명전사로서 투쟁할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우리 혁명을 자주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수행할데 대한 철저한 주체사상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의 투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은 그것이 바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진행되였다는데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로부터 무장투쟁의 구체적문제에 이르기까지 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아무러한 국가적후방이나 외부의 지원도 없이 식량과 피복, 탄약과 무기 등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시면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장기간 무장투쟁을 전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조선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대국주의와 사대주의,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을 작성하시고 그를 정확히 관철하시였다. 이리하여 조선혁명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방침을 따라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전략전술적방침은 바로 그이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구현이며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을 남조선사회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구현한 가장 정확한 독창적인 방침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떤 기존공식이나 그 어떤 경험으로써도 도저히 풀수 없는 남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남조선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부합되게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해결하심으로써 남조선혁명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하고계신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수령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깊이 체득하고 투쟁에서 정확히 구현할수 있는것이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께서 견지하신 주체적립장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남조선혁명의 직접적담당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주동적으로 싸워나갈수 있으며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위한 강력한 혁명력량도 실속있게 꾸려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남조선혁명은 결국 남조선인민들의 혁명력량의 장성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는것이다.》(《김일성저작선

집》, 제4권, 239페지)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얼마나 힘있게 발전시키며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어떻게 빨리 촉진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남조선혁명의 주되는 담당자인 남조선인민들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얼마나 실속있게 꾸려나가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만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혁명투쟁에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워나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견지할수 있으며 투쟁에서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고취하는 숭미사대주의사상과 외세의존사상, 《반공》사상 등 반동적사상공세를 분쇄하고 민족자주의식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친미반동세력에 의하여 부식되고있는 숭미사대주의사상과 외세의존사상, 《반공》사상을 뿌리뽑을수 없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민족주체의식을 높일수 있으며 적들의 반동적공세를 성과적으로 분쇄할수 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인민들을 수령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과 깊은 신념, 혁명적락관주의와 혁명적전개력 등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으로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의 고상한 혁명정신과 품성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고 굳굳이 싸워나갔으며 적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였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은 김일성동지의 고상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과 공산주의적품성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혁명적공세가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과거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렇게 한것처럼 오직 혁명을 위하여 굶주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다. 사실상 그러한 고매한 혁명정신과 혁명적품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간고한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여나갈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실성을 따라배우는것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고상한 혁명정신이며 혁명적품성이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견결히 옹호하였으며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고 언제나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것을 자기들의 첫째가는 임무로 간주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하여 15성상에 걸치는 그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마침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렇게 하였던것처럼 언제나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야 하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또한 항상 위대한 수령의 혁명전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간직하고 살며 싸워야 한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으며 수령의 전사답게 끝까지 투쟁하려는 결의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한 애국청년은 《4천만겨레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뭉쳤고 그리고 그이께서 조국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태양과 같이 계시니 무한한 힘과 용기가 막 솟아나온다. 나는 내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총탄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설것을 굳게 맹세한다.》고 하면서 수령에 대한 흠모와 그이께 무한히 충직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반영한것이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이 모든 사상적재부들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듦으로써 과거 항일투사들이 그렇게 하였던것처럼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될수 있으며 추호의 동요도 없이 혁명의 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투쟁하여나갈수 있다.

* *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고귀한 투쟁경험과 업적들을 계승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선렬들이 장기간의 항일무장투쟁에서 얻은 고귀한 혁명경험과 혁명업적들을 계승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선집》, 제1권, 375페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고귀한 투쟁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들을 따라배우는것은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고 혁명승리를 촉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는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 인민혁명정부수립과 인민무력건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반일공동전선운동, 유격근거지창설, 군중정치사업, 적군와해사업 등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이 이룩되였으며 군중로선에 기초한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의 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무장투쟁의 이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들은 그 모두가 간고하고 장구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다방면적이고도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있으며 오늘 남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로 된다.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맑스-레닌주의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적군와해사업경험 등은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력량을 편성하는데서 커다란 실천적의의를 가진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은 전투적이고도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튼튼히 꾸림에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위한 독창적인 경험을 깊이 연구하며 그것을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에 관한 위대한 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맑스-레닌주의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과정을 통하여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준비를 줄기차게 진행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장투쟁과 혁명조직들을 통하여 투쟁의 불길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공산주의자대렬을 육성확대함으로써 당창건의 조직적준비를 이룩하시였으며 공산주의자대렬의 통일단결과 그 순결성을 고수하시였다. 한편 그이께서는 맑스-레닌주의적혁명로선과 천재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그것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기 위하여 조국광복회와 함께 각종 대중단체들을 조직하시였으며 그에 광범한 대중들을 묶어세우시였다. 이리하여 광범한 대중이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집결되였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전반적반일대중운동이 하나의 흐름속에 통일되게 되였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일찌기 이룩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를 위한 투쟁경험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는데서 귀중한 재부로, 밑천으로 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전투적이고도 탄력성있는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며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은 혁명운동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4권, 393~394페지)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원쑤들을 반대하는 실천적투쟁을 통하여 당대렬을 부단히 확대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당조직들을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적핵심들로써 질적으로 꾸려야 한다.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진정한 혁명적핵심들로 꾸려진 맑스-레닌주의당의 확고한 지도에 의해서만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할수 있으며 당자체를 공고히 할수 있다.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로동자, 농민들을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주위에 집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때 남조선혁명은 튼튼한 주력군을 가지게 될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실현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중요한 업적의 하나이다.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행정에서는 오늘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애국적민주력량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고귀한 경험들이 이룩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전국적으로 포치된 조국광복회조직망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농민대중을 혁명화하고 조직화하시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동시에 일제를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결속시키시였다.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이 성과적으로 조직전개됨으로써 조선인민의 주체적 혁명력량은 튼튼히 꾸려지게 되고 급격히 강화발전되여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광범한 대중적지반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되였다.

남조선 혁명조직들과 혁명가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경험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원칙과 방도들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워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적군와해사업경험은 오늘 남조선혁명에서 계승하여야 할 중요한 경험이다.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적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그들을 의거케 한 사업경험은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전쟁의 도구로 리용되고있는 괴뢰군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각성시켜 그들을 민족과 인민의 편으로 돌려세우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남조선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의 절대다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출신이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그들속에 들어가 정력적으로 사업한다면 능히 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혁명의 편에 전취할수 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적군와해사업을 잘하여 남조선괴뢰군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을 인민의 편, 혁명의 편으로 돌아서게 할 때 그들의 총뿌리는 인민을 탄압하는데로부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데로 돌려질것이다.

이와 함께 유격근거지창설과 인민혁명정부수립, 군중정치사업, 인민무력건설경험 등 그 하나하나가 다 남조선혁명에서 반드시 계승해야 할 생동한 모범이다.

또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무장

투쟁행정에서 이룩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재부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에게 항상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싸우는 군대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 유격투쟁의 숭고한 목적이 있으며 힘의 원천이 있는것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싸워나가야만 우리의 목적은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항일유격대원들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여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대중을 교양하고 대중에게서 배우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원쑤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수 있었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움으로써만 혁명투쟁에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을수 있으며 어떠한 어렵고 복잡한 조건하에서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투쟁할수 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자들이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는것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적들의 폭압속에서 진행되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루어진 이 고귀한 혁명적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의 전통을 따라배우고 그것을 실천투쟁에서 구현할 때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정치사상적준비를 더욱 촉진시키고 혁명력량을 실속있게 꾸려나갈수 있으며 반미구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일수 있다.

*　　　*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며 숭고한 임무이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김일성동지의 4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높은 덕성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자신을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사로, 견결한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력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남조선인민들은 자신을 혁명화할수 있으며 수령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나갈수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이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받들고 싸워나가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 앞에는 타승하지 못할 적이란 있을수 없으며 점령하지 못할 요새란 없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이 있을뿐이다.

근로자 제 4 호 (루계 32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69년 4월 10일　　발행 • 1969년 4월 15일

ㄱ—93115　　값 50전